

공군



1979

국 민 교 육 헌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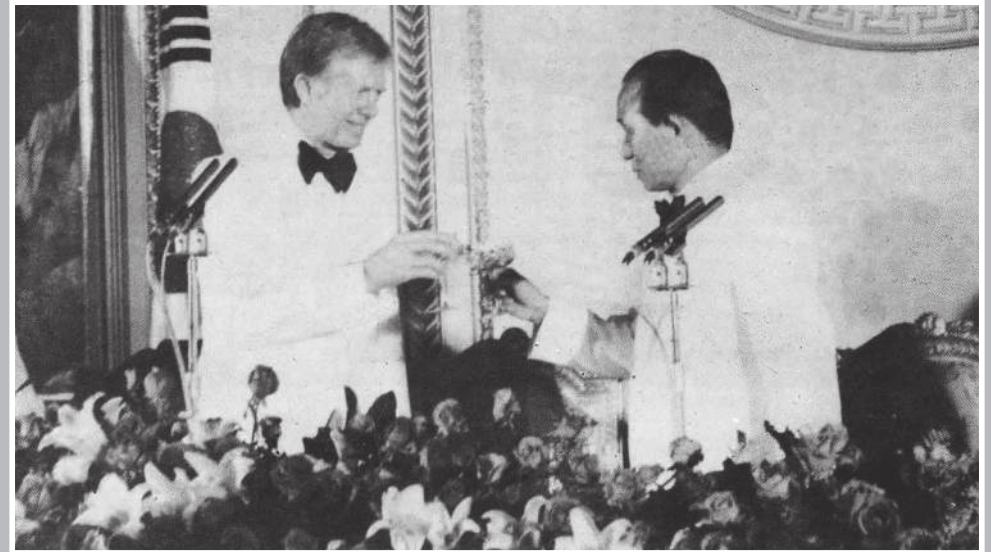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굴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력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 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박대통령각하(朴大統領閣下) 동정(動靜)



청와대(靑瓦台) 영빈관 만찬에서 축배를 드는 한·미 양국 대통령각하 <6.30>

박대통령각하께서는 청와대를 예방한 「후세인」 말레이시아 수상에게 수교(修交)훈장 광화장(光化章)을 수여했다. <7.18>





공군 제 167 호

표지화 · 차례화 : 최 영, 컷 · 삽화 정 운 섭

권두언(卷頭言) 정훈감(政訓監) 김원기(金元起) (2)

한국안보(韓國安保)의 현재(現在)와 미래(未來) 최 영(崔 榮) (4)

총화전진(總和前進)

특집 特輯

북괴(北傀)의 「전민족대회(全民族大会)」 소집 제의(提議)의 저의(底意)
..... 이상두(李相斗) (13)

사치낭비(奢侈浪費)의 배격(排擊)과 경제발전(經濟發展) 김기정(金基貞) (19)

자연보호(自然保護)와 애국정신(愛國精神) 엄규백(嚴圭白) (26)

전통문화(傳統文化) 개발(開發)과 주체성(主体性) 확립(確立) ... 최광석(崔光石) (33)

충효사상(忠孝思想)과 정신전력(精神戰力) 김은우(金恩雨) (40)

민족웅비(民族雄飛)의 좌표(座標) 서정두(徐正斗) (46)

중흥(中興)의 의지(意志) 강용구(姜容求) (55)

조국전선(祖国戰線)과 통혁당(統革黨)의 정체(正體) 편집실 (60)

변화(變化)하는 세계(世界)에서의 미국(美國)의 힘의 사용(使用) 편집실 (71)

변화(變化)하고 격동(激動)하는 세계(世界)에서의 미국(美國)의 역할(役割) 편집실 (82)

공군만상(空軍漫像) 정운섭(鄭雲燮) (69)

→ 항공(航空)·군사(軍事)·과학(科學) ←

○ 미공군(美空軍)의 “BLUE FLAG” 비행훈련계획(飛行訓練計劃) ... 김영한(金榮漢) (90)

○ 소련(蘇聯)의 위협(威脅)에 대한 새로운 경종(警鐘) 이희권(李希權) (99)

○ F-16과 MIG-21 과의 공중전능력(空中戰能力) 비교(比較) ... 윤형기(尹炯基) (107)

○ 소련(蘇聯)의 전투(戰鬪)헬리콥터 작전(作戰) 윤쾌환 역 (121)

○ 월맹도피(越盟逃避 : 전투조종사 탈출수기(戰鬪操縱士 脫出手記) ... 양신석(梁宸錫) (131)

시(時) 시드는 잎 헤르만 헛세 (136)

특별연재(特別連載) 통일문답(統一問答)② 편집실 (139)

충무공(忠武公)의 생애(生涯)와 사상(思想) <2> 편집실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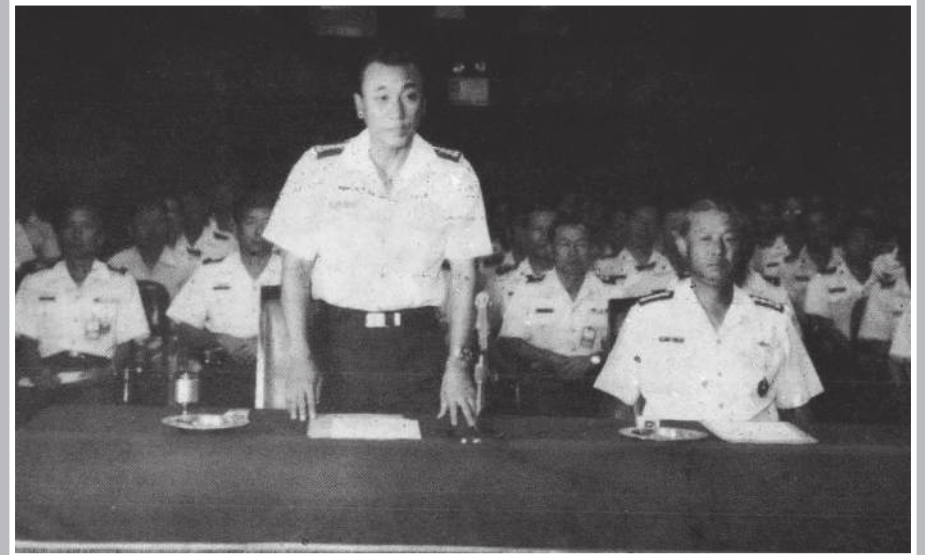
객(客) (L'Hote) <단편> 알베르·카뮈작(作) 이환(李桓) 역(訳) (155)

공본(空本) 동정(動靜)



주한 「유엔」 군 사령관 「존·A·위컴」 대장(大將)이 신임인사차 공군본부로 윤자중 참모총장을 예방 <7.13>

주한 미(美) 해군사령관(海軍司令官) 「호스데틀러」 소장(少將)이 신임인사차 윤자중 참모총장을 예방 <7.5>



정신전력(精戰力) 세미나에서 윤자중 참모총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정신전력(精神戰力)이 부합될 때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7.19>

미(美) 공군(空軍) 군수사령관 「브라이스·포」 대장이 방한인사차 공군본부를 예방 <7.24>



공군

제 167 호

1979년 제 3 호



◇ 군인(軍人)의 길 ◇

나는 영광(榮光)스러운 대한민국(大韓民國) 군인(軍人)이다.

하나, 나의 길은 충성(忠誠)에 있다.

조국(祖國)에 몸과 마음을 바친다.

하나, 나의 길은 승리(勝利)에 있다.

불굴(不屈)의 투지(鬪志)와 전기(戰枝)를 닦는다.

하나, 나의 길은 통일(統一)에 있다.

기필(期必)코 공산적(共產敵)을 쳐 부순다.

하나, 나의 길은 군율(軍律)에 있다.

엄숙히 예절(禮節)과 책임(責任)을 다한다.

하나, 나의 길은 단결(團結)에 있다.

지휘관(指揮官)을 핵심(核心)으로 생사(生死)를 같이 한다.

항공사상앙양(航空思想昂揚)의 의미(意味)

정훈감(政訓監) 공군준장(空軍准將)

김 원 기(金元起)

인간(人間)은 자연(自然)을 정복(征服)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努力)을 계속(繼續)하여 왔고, 이러한 노력(努力)으로 자연(自然)은 하나 둘씩 인간(人間)에 의하여 정복(征服)되어져 마침내는 달 정복(征服)의 꿈까지 실현(實現)되어졌으며, 오늘날에는 태양계(太陽系)의 행성(行星)을 정복(征服)하기 위한 꿈을 펼치는 단계(段階)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인간(人間)이 이와 같이 자연(自然) 정복(征服)의 꿈을 실현(實現)시키고 또 새로운 정복(征服)의 꿈을 펼 수 있는 것은 과학기술(科學技術)의 발전(發展)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대문명(現代文明)은 모두가 과학문명(科學文明)이며 기술문명(技術文明)이다.

과학기술(科學技術)의 개발(開發)과 활용(活用) 없이는 고도산업사회(高度産業社會)로의 발전(發展)은 물론, 우리의 생활발전(生活發展)과 번영(繁榮)은 성취될 수 없으며, 과학기술(科學技術)이 앞선 민족(民族)과 국가(國家)일수록 남보다 일찍 발전(發展)을 이룩하여 번영(繁榮)을 누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민족(民族)이나 국가(國家)가 세계(世界)를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다.

현대(現代)는 바야흐로 항공우주과학시대(航空宇宙科學時代)라 단언(斷言)해도 과언(過言)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단언(斷言)은 역사적(歷史的) 흐름과 시대적(時代的) 요청(要請)에 의해 세계(世界)의 열강(列強)들이 우주(宇宙)에로의 꿈을 실현(實現)시키고자 항공산업(航空産業)에 수 많은 투자(投資)와 노력(努力)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많은 선진국(先進國) 또한 항공산업(航空産業)으로 군사적(軍事的) 우세와 경제적(經濟的) 번영(繁榮)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찌기 박대통령각하(朴大統領閣下)께서는 80년대(年代) 중반에 가면 항공산업(航空産業)과 고도정밀무기(高度精密武器) 생산(生産)에 있어 우리는 획기적인 새 국면(局面)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준비도 진행중이라 하시어 항공산업(航空産業)의 도래(到來)를 선언(宣言)하신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7년(年) 동안 집약(集約)된 개발의지(開發意志)와 총화단결(總和團結)로써 빈곤과 무기력(無氣力)을 탈피하여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에서 선진국대열(先進國隊列)에 참여하기 위(爲)한 전환기(轉換期)에 이르렀다.

오늘날 우리가 세계(世界) 열강(列強)들과 어깨를 겨루며, 고도산업사회(高度産業社會) 달성(達成)을 목표(目標)로 하고 있는 현시점(現時點)에서는 과학(科學)의 정수(精髓)인 항공과학(航空科學)을 우리의 새로운 도약(跳躍)과 발전(發展)의 원동력(原動力)으로 삼아야 하겠다.

특(特)히 고가(高價)의 최신예(最新銳) 항공기(航空機)와 통신(通信)·전자(電子) 장비(裝備)를 보유(保有)하고 이를 다루는 우리 공군(空軍)은 이 분야(分野)의 발전(發展)을 위해 선도적(先導的) 역할(役割)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優秀)한 인적(人的) 자원(資源)의 확보(確保)가 요구(要求)되며, 이는 우주항공과학시대(宇宙航空科學時代)의 개막(開幕)과 함께 80년대(年代) 항공산업(航空産業)을 위하여서도 절실히 요청(要請)되는 것으로 전국민적(全國民的)인 항공사상(航空思想) 앙양(昂揚)이 선행(先行)되어야 이룩되는 것이다.

한국안보(韓國安保)의 현재(現在)와 미래(未來)

〈정박(政博)·국방대학원교수(國防大學院敎授)·국제정치학(國際政治學)〉

최 영(崔 榮)

역사(歷史)는 언제나 로고스 편이라는 사실(事實)은 북괴(北傀)의 남침야욕(南侵野慾)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의 자주국방능력(自主國防能力)과 필승(必勝)의 정신력(精神力)을 공고(鞏固)히 할 때 입증(立證)될 것이다.



1. 머리말

「레이몽·아롱」은 1978년(年)의 그의 명저(名著) 『전쟁(戰爭)을 생각한다: 클라우제비츠와 현대(現代)의 전략(戰·略)』에서 중요한 귀절을 부각시키고 있다. 즉 「전쟁적(戰爭的) 외관(外觀)」과 정치적(政治的) 현실(現實)의 변증법적(辯證法的) 관계(關係)」라는 귀절이다. 「아롱」은 더 나아가 이렇게 부연하고 있다. 「정치적(政治的) 전체(全體)는 전쟁(戰爭)을 포함(包含)하고, 전쟁(戰爭)은 그 하나의 계기(契機), 적대행위(敵對行爲)의 기간(期間)도 포함(包含)하여, 항상, 그 부분적(部分的)인 일측면(一側面)을 구성(構成)하는데 불과(不過)하다.」

얼핏 「아롱」이 「네오·클라우제비츠」라고 불리우고 있는 이유(理由)를 알만 하다. 주지하 다시피 「클라우제비츠」는 그의 대저(大著) 『전쟁론(戰爭論)』(1831년 제(第)1편(篇) 제(第)1장(章) 제(第)24항(項)의 표제(表題)로 다음과 유명(有名)한 문구(文句)를 설정하고 있다. 「전쟁(戰爭)은 다른 제수단(諸手段)을 갖고 하는 정치(政治)의 계속(繼續)에 불과하다.」

「아롱」과 「클라우제비츠」를 인용(引用)한 것은, 안전보장(安全保障)의 개념(概念)을 이해(理解)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우선 「한국(韓國)의 군사전략(軍事戰略)」을 개관해 보고,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북괴군사력(北傀軍事力)의 재평가(再評價)」를 살펴 보기로 한다. 그리고 나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한(韓)·미안보유대(美安保紐帶)이기 때문에, 「서울·

와싱턴의 안보협력(安保協力) 체제(體制)」라는 차목(次目)으로, 주로 제(第)11항(項) 한(韓)·미연례안보협의회의(美年例安保協議會議)에서 거론된 내용(內容)을 간추려 보면서, 한(韓)·미(美)간의 고무적(鼓舞的)인 유대관계를 알아 보고자 한다.

끝으로 「총력안보태세(總力安保態勢): 승전(勝戰)의 전략(戰略) 공식(公式)」이라는 결론(結論)에 해당할 수 있는 차목(次目)에서, 프랑스의 「앙드레·보플」 장군(將軍)을 인용(引用)해 보았다. 그것은 한국안보(韓國安保)의 주축(主軸)이 기본적으로는 물량력(物量力)에 못지 않게 정신력(精神力)에 크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2. 한국(韓國)의 군사전략(軍事戰略)

현재(現在) 한국(韓國)의 군사전략(軍事戰略)은 대충 세 가지 개념(概念)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① 한(韓)·미연합억지전략(美聯合抑止戰略)
- ② 결전방위전략(決戰防衛戰略)
- ③ 응징보복전략(膺懲報復戰略)

한(韓)·미군사협력체제(美軍事協力體制)를 효율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적(敵)의 전쟁도발기(戰爭挑發企圖)를 사전에 억지(抑止)하고 현 휴전상태(休戰狀態)를 최대한 연장(延長)하는 전략(戰略)이 한(韓)·미연합억지전략(美聯合抑止戰略)이다. 이 경우 전쟁유형(戰爭類型)은 일단 비핵통상형(非核通常型)의 전쟁(戰爭)이 상정(想定)되고 있으며 이것은 국제세력(國際勢力)의 개입(介入)이 없는 남북한(南北韓)간의 단독전쟁(單獨戰爭)의 개시(開始)를 전제(前提)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전쟁억지(戰爭抑止)가 불가능할 경우에 미리 대비해 자주방위력(自主防衛力)을 조속히 확립(確立)함으로써 적(敵)의 공격(攻擊)을 초전(初戰)에 분쇄 격멸하고 적(敵)의 기습(奇襲)과 제(第)2전선의 형성(形成)을 강력히 거부하는 최전선결전방위전략(最前線決戰防衛戰略)을 그 두번째 기본개념(基本概念)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지적인 도발 및 제한된 공격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相應)하는 응징보복전략(膺懲報復戰略)을 군사전략의 세번째 개념(概念)으로 삼고 있다.

이 세 가지 군사전략(軍事戰略)을 간단히 설명해 보기로 하자.

(1) 한(韓)·미(美) 연합억지전략(聯合抑止戰略)

1970년대의 군사전략은 「현실적(現實的) 억지전략(抑止戰略)」으로서 국가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해서 동맹국(同盟國)과의 공동노력으로써 전쟁을 사전(事前)에 억지(抑止)한다는데 중점이 주어진 전략이다. 따라서 현실적(現實的) 억지전략(抑止戰略)에서는 「총합전력(總合戰力)」(Total Forces)의 개념이 중요시되는데 이것은 미국(美國)과 동맹국(同盟國)의 모든 전력(戰力)을 하나의 「협조(協調)된 전체(全體)」(The Concerted Whole)로 보는 개념이며 위협의 종류

에 따라 책임의 분담(分擔)이 구분하는데 한반도(韓半島)에서 예상되는 위협(威脅), 즉 「국지 재래식위협(局地在來式威脅)」에 대해서는 당사국(當事國)이 제(第)1차적(次的) 책임(責任)을 지되 필요할 때 미국(美國)은 해공군(海空軍)의 전투지원(戰鬪支援) 및 군수지원을 제공한다는 개념인 것이다. 이러한 전략개념에 의해서 미국(美國)은 서태평양지역(西太平洋地域)에 있어서 제(第)7함대(艦隊)를 주력(主力)으로 하고 한국(韓國)과 오키나와를 주요거점(主要據點)으로 해서 군사력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韓國)은 미국(美國)의 이런 극동(極東)정책 및 전략을 우리의 국가이익과 합치시켜 「현장억지력(現場抑止力)」으로서의 미군(美軍)의 한국(韓國) 주둔을 당분간 계속 보장받음으로써 주한미군(駐韓美軍)의 가시적(可視的)인 전력(戰力)이 한반도(韓半島)의 안전(安全)을 보장하는데 기여(寄與)할 수 있도록 절실히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이 한(韓)·미(美) 상호방위조약(相互防衛條約)에 입각해서 미군(美軍)의 현장(現場) 및 원격억지력(遠隔抑止力)의 계속적인 제공을 보장받는 한편 한(韓)·미(美) 연례안보협의회의(年例安保協議會議) 및 기타 필요한 협력(協力)기구를 계속 유지(維持) 발전(發展)시키도록 한국(韓國)은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한(韓)·미공동(美共同)으로 군사기지의 개발을, 추진하고 한국(韓國)은 필요한 경우 추가적(追加的)인 군사기지(軍事基地)는 미군(美軍)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韓國)은 미국(美國)과 협력해서 휴전협정(休戰協定)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현(現) 휴전상태(休戰狀態)를 최대한으로 연장시키는데 노력(努力)하고 있다. 적어도 남북한(南北韓)의 불가침협정(不可侵協定)이 체결될 때까지는 그럴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제기(提起)된다. 즉 한(韓)·미(美) 연합억지전략(聯合抑止戰略)이 지나가는 시한성(時限性)이라는 문제이다. 이 연합억지전략개념(聯合抑止戰略概念)을 무한정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전략개념 아래 한국(韓國)의 군사력이 지니고있는 취약분야를 선택적으로 그리고 중점적으로 조속(早速)히 보강해서 자주적(自主的)인 억지전력(抑止戰力)을 점차적으로 형성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한국(韓國)이 미국(美國)의 해외군사개입감축정책(海外軍事介入減縮政策)에 따르는 주한미지상군(駐韓美地上軍)의 단계적 철수시기에 맞추어 필요한 능력(能力)을 증강해 나간다는 것을 뜻한다.

(2) 결전방위전략(決戰防衛戰略)

결전방위전략(決戰防衛戰略)의 주요개념은 자주방위전력(自主防衛戰力)을 확보해서 적(敵)의 공격 의지를 사전(事前)에 좌절시키는 것과 적(敵)의 공격시(攻擊時)는 초전(初戰)에 최전선에서 분쇄, 격멸하고 지체없이 공세로 이전(移轉)하는 한편 적(敵)의 기습과 비정규전부대(非正規戰部隊)나 특공대(特攻隊)에 의한 제(第)2전선(戰線)의 형성을 강력히 거부하는데 있다.

이 밖에 전면전쟁으로서의 확전(擴戰)을 초래(招來)할 수 있는 적(敵)의 비정규전(非正規戰)에 의한 간접침략을 사전(事前)에 방지하고 조기(早期)에 분쇄하는 것도 이 결전방위전략(決戰防衛戰略)의 개념에 포함된다.

결전방위전략(決戰防衛戰略)에 있어서 주요(主要)한 고려요소(考慮要素)는 한국(韓國)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부이며 전체인구(全體人口)의 20% 이상을 포용하고 있는 수도권(首都圈)의 중요성과 수도(首都) 서울이 휴전선(休戰線)으로부터 불과 40km 남방(南方)에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敵)의 가장 주요한 접근로상(接近路上)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수도(首都) 서울에 관한 한(限), 시간(時間)을 지연시킬 수 있는 공간(空間)이 없으며, 특히 적(敵)이 어느 정도까지만 진격하면 수도권(首都圈)은 적의 중(中)·장거리포사격(長距離砲射擊)범위 안에 들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서울시민(市民)의 대대적인 후송(後送)은 상상할 수 없는 대혼잡을 수반할 것이며 이것은 아군(我軍)의 작전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한국(韓國)은 이런 사태의 발생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전방방어진지(前方防禦陣地)에서 초전(初戰)에 결정적인 전투를 해야 하며 여기서 적(敵)을 저지(沮止), 격멸할 수 있도록 모든 전력(戰力)을 집중(集中) 운용(運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충분한 병력을 전방방어지역(前方防禦地域)에 사전 배치함으로써 적(敵)의 공격을 조기(早期)에 분쇄해야 할 것이다.

(3) 응징보복전략(鷹懲報復戰略)

북한(北韓)의 국지적인 조발(挑發) 및 제한(制限)된 공격(攻擊)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相應)하는 응징보복(鷹懲報復)으로 대응(對應)하는 전략(戰略)을 응징보복전략(鷹懲報復戰略)이라고 명명(命名)하고 있다.

이 경우 3차(次)에 이른 「인도차이나전쟁(戰爭)」(30년전쟁(年戰爭))과 1973년(年) 10월(月)의 제(第)4차중동전쟁(次中東戰爭)의 제교훈(諸教訓)을 여러가지 측면(側面)에서 연구(研究) 검토(檢討)해야 할 것이다.

3. 북괴군사력(北傀軍事力)의 재평가(再評價)

미(美) CIA(중앙정보국(中央情報局))과 DIA(국방정보국(國防情報局))이 공동으로 분석 평가한 이 엄청난 숫자의 급증은 실은 요 근간에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니다. 이미 남북대화(南北對話)에 응해 올 무렵부터 북한(北韓)은 전력증강에 굉장한 노력을 경주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니와, 예컨대 「심글러브」 장군(將軍)의 증언(證言)에서 우리는 미국(美國)의 고위장성들이 북한(北韓)의 이러한 전력 증강세에 대해 강력히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인분석에 앞서 우선 세계적 권위로 알려지고 있는 영국(英國) 국제전략문제연구소(國際戰略問題研究所)(IISS)의 『군사력균형(軍事力均衡) 1978~1979년(年)』에 수록된 북괴(北傀) 지상군(地上軍) 전력평가(戰力評價)를 먼저 알아보기로 하자. 그리고 CIA와 DIA의 정보평가(情報評價)와 상술한 IISS의 분석에서 드러나는 「갭」을 숫자적으로 정이해 보기로 한다.

이상을 비교해 보면, 전차보유대수(戰車保有臺數)에서 600대(臺)의 차이(差異)가 나며, 다음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북괴(北傀) 지상군(地上軍)의 총 병력 수에 있어서 44만명(萬名)대 56만명(萬名) 내지 60만명(萬名)이라는 엄청난 「갭」이 노정되고 있다. 그리고 총사단수(總師團數)도 28대 40이다.

IISS의 북괴지상군전력평가(北傀地上軍戰力評價)

육군총병력(陸軍總兵力)	44만명(萬名)
총사단수(總師團數)	28
총여단수(總旅團數)	15
총연대수(總聯隊數)	35
전차대수(戰車臺數)	2,000

CIA와 DIA의 북괴지상군전력평가(北傀地上軍戰力評價)

육군총병력(陸軍總兵力)	56만명(萬名)~60만명(萬名)
총사단수(總師團數)	40
전차대수(戰車臺數)	2,600

아직까지 「아미·타임즈」의 원문을 입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적(數的) 비교(比較)는 어렵겠으나, 대충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事實)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북괴(北傀) 지상군(地上軍)의 경우 사단편성(師團編成)은 9,800~10,000명선(名線) 정도이다. 그렇다면 최저상한선(最低上限線)인 56만명(萬名)은 결국 IISS가 집계(集計)한 44만명(萬名)에 비해 12만명(萬名)이나 초과하고 있으므로 12개사단(個團師團)이 증편(增編)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것을 총보유사단수(總保有師團數)에 맞추어 보면 40대 28이므로 단순계산(單純計算)에 의해 보더라도 12개 사단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미·타임즈」의 보도(報道)와 CIA와 DIA의 정보평가(情報評價)를 수록한 「와싱턴·포스트」지(紙)의 보도(報道)는 우연의 일치(一致)인지는 모르나 똑같으므로 형식논이상(形式論理上)으로는 아주 이치(理致)에 닿는 정보평가(情報評價)인 것만은 틀림 없는 것 같다.

다음 전차보유대수(戰車保有臺數)에서 600대(臺)가 급증한 것은 여러가지 의미를 함축할 수 있다. 우선 현대전(現代戰)에서는 점차로 전차(戰車)의 경량화(輕量化)와 기동반경(機動半徑)

의 광역화(廣域化)가 프라이오리티(Priority)를 가지므로, T-62 경전차(輕戰車)를 ① 다량으로 소련(蘇聯)에서 도입(導入)했거나 아니면 ② 녹·다운방식(方式)으로 갑자기 급증시켰거나 ③ 이도 저도 아니면 한반도(韓半島) 실정에 맞게 중전차(中戰車)인 T-55, T-59를 개조(改造)하여 대량생산(大量生産)을 했거나 아뭏든 이 세 가지 범주(範疇) 중 그 어디엔가에 근거를 둔 급증(急增)인 것 같다.

원인분석(原因分析)의 두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인공위성(人工衛星)정보가 지나는 고도(高度)의 정교성(精巧性)이다. 특히 사진정찰(寫眞偵察)을 통한 첩보의 정확성에 있어 미국(美國)의 인공위성(人工衛星)을 따라 갈 나라는 아직 없다.

그리고 세번째 원인분석(原因分析)에서 지적해야 할 것은 북한(北韓) 지상군(地上軍)이 「잉여병력(剩餘兵力)」을 창출코자 한다는 것이다. 이 잉여병력(剩餘兵力)의 의미(意味)는 이런 것이다. 휴전선(休戰線)(DMZ) 155마일 전전선(全前線)에 배치되어 있는 남(南)·북한(北韓)의 지상군(地上軍) 병력수(兵力數)는 어떤 면에서는 「레마르크」작(作) 『서부전선(西部戰線) 이상(異狀)없다.』(Im Westen Nichts Neues. 1929년(年))의 비유, 모양 일종의 「동결성(凍結性)」을 가지는 것인데 어떠한 작전개념(作戰概念)을 동원해서라도 현상타파(現狀打破)를 하기 위해서는 휴전선(休戰線)에서 대치하고 있는 「균형(均衡)된」 병력(兵力) 이외(以外)에 굉장히 많은 「잉여병력(剩餘兵力)」을 확보함으로써 이 병력(兵力)으로 휴전선(休戰線)과는 다른 방향(方向)에서 서울 및 수도권(首都圈)을 공격(攻擊)하겠다는 새로운 군사태세(軍事態勢)의 창출(創出)을 북한공산주의(北韓共產主義) 정권담당자(政權擔當者)들이 시도(試圖)코자 할 수 있다는데에 분석(分析)의 초점(焦點)을 두어야 할 것 이다.

이 「잉여병력(剩餘兵力)」의 확보에 대해서는 예컨대 「삼·년」 미상원군사위원회(美上院軍事委員會) 인력인사소위원회장(人力人事小委員長)이 79년 1월 23일 저술한 『철군보고서(撤軍報告書)』에서도 보여 지는데 요지(要旨) 중 다음과 같은 구절(句節)이 있다.

「한국(韓國) 깊숙이 <전격작전(電擊作戰)>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작전에비군(作戰豫備軍)>이 북한(北韓)의 중부지방(中部地方) 특히 평양지방(平壤地方)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까지 북괴병력(北傀兵力)의 대부분은 휴전선(休戰線) 건너편에 집중되어 있으며, 후방(後方)에는 주요부대(主要部隊)가 거의 없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이제 북괴(北傀)의 전투부대배치(戰鬪部隊配置)는 훨씬 더 균형(均衡)이 잡혀 있는 것 같다. 또 북괴(北傀)는 침투작전과 특공작전(特攻作戰)에 맞춘 공수대대(空輸大隊)와 경보병여단수(輕歩兵旅團數)를 증가(增加), 기습공격능력(奇襲攻擊能力)을 증대(增大)시켰다는 결론(結論)을 내렸다.」

4. 「서울·와싱턴」의 안보(安保) 협력체제(協力體制)

1978년 7월 27일에 발표된 「제(第)11차(次) 한(韓)·미연례안보협의회의(美年例安保協議會議)」 공동성명(共同聲明)은 자못 고무적(鼓舞的)인 내용(內容)을 많이 담고 있다.

우선, 「미지상군전투병력(美地上軍戰鬥兵力)의 철수가 미국(美國)의 대한안보공약(對韓安保公約)이나 한반도(韓半島)에서의 미국(美國)의 기본 방위전략(防衛戰略)에 어떠한 변화(變化)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 공동성명(共同聲明)은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브라운 미국방장관(美國防長官)은 「1954년의 한(韓)·미상호(美相互) 방위조약(防衛條約)은 계속 전적으로 유효하며 동(同) 조약(條約)에 따라 대한민국(大韓民國)에 대한 무력공격시(武力攻擊時)는 즉각적(即刻的)이고, 효과적(效果的)인 지원(支援)을 대한민국(大韓民國)에 제공(提供)하겠다는 미국(美國)의 결의(決意)는 계속 확고하고 강력하다」는 보장(保障)을 하고 있다.

세번째로 이 공동성명문(共同聲明文)에 처음으로 「핵보호(核保護)」항목이 명시(明示)되었다는 점이다. 즉 브라운 장관(長官)은 「한국(韓國)이 미국(美國)의 핵우산하(核雨傘下)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고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식성명문(公式聲明文)에 이러한 재확인(再確認) 태도가 글귀로 천명된 것은 이 제(第)11차(次) 한(韓)·미(美) 연례 안보협의회의(年例安保協議會議) 때가 처음인 것이다.

네번째로, 큰 의의(意義)를 발견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주한미지상병력(駐韓美地上兵力)의 철수계획(撤收計劃)과 관련하여 보완조치(補完措置)는 철군(撤軍)에 선행(先行)하여 또는 병행(並行)하여 (“in advance of” or “in parallel with the withdrawals”) 실시(實施)하기로 합의(合意)했다.」

이 밖에 한(韓)·미연합군사령부(美聯合軍司令部) 설치 및 군사위원회(軍事委員會)의 조직 그리고 한국(韓國)의 방위(防衛) 산업육성(產業育成) 등 큼직 큼직한 항목들이 있는데 실지, 지난 78년 11월 7일에 예정대로 「한(韓)·미연합군사령부(美聯合軍司令部)」가 정식(正式)으로 발족(發足) 했다.

브라운 미국방장관(美國防長官)은 이 연합사(聯合司) 창설식(創設式)에 참석하기 위하여 방한(訪韓)한 6일(日)자 성명(聲明)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言及)하고 있다.

「한(韓)·미연합군사령부(美聯合軍司令部)는 한국에 대한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방위력(防衛力)을 유지하려는 양국의 결의와 능력을 과시(誇示)하는 것이며, 또한 동북(東北)아시아의 평화(平和)와 안전(安全)을 위해 기여할 것이다.……연합사(聯合司) 창설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防衛公約)을 준수할 것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으로 미국은 모든 공약(公約)을 최대한으로 진실하게 존중할 것이며, 미(美)지상군의 점진적 철군을 포함한 우리 행동은 한국군의 각 부문에 걸친 증강과 병행, 신중히 수행할 것이다.」

브라운 장관(長官)의 이 성명(聲明)이 한(韓)·미연합군사령부(美聯合軍司令部) 탄생의 배경과 성격 방향을 함축성있게 잘 말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이 연합사(聯合司) 창설과 함께 중시해야 할 사항은, 한국의 방위산업(防衛產業) 육

성에 있어, 미국(美國)이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브라운장관(長官)은 창원공단을 방문한 소감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한국의 방위산업은 역사는 짧지만 빠른 시일에 현대식 시설을 모두 갖추었다」면서 「미국은 한국의 방위산업 지원을 위해 정보교환, 기술적 조업, 미국회사와와 기술제휴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 「방위산업지원」이 기술제휴면에 있어서, 「일본식(日本式)」으로 「라이선스·방식(方式)」이 되기를 바라고 있거니와, 이것은 좀 더 두고 볼 성질의 것이다. 이러한 차원(次元)에서 대미군사외교(對美軍事外交)의 중요성이 역시 「긴급도(緊急度)」를 갖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라이선스 방식(方式)이건, 세미·라이선스 방식(方式)이건 간에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라이선스」(특허(特許))방식(方式)이 「녹크다운」(부품(部品)의 조립(組立)) 방식(方式)을 대체(代替)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간추리는 바이다.

5. 총력안보태세(總力安保態勢): 승전(勝戰)의 전략공식(戰略公式)

「앙드레·보플」장군(將軍)은 유명(有名)한 그의 전략(戰略), 전쟁(戰爭)에 이기는 전략공식(戰略公式)을 다음과 같이 명시(明示)한 적이 있다.

$$S=KF\psi T$$

이 경우, S는 전승(戰勝)의 전략(戰略)(Strategy)이며, K는 어떤 Case에 적용(適用)되는 특정한 인자(因子)이며, F는 물양적(物量的)인 힘(Forces)이고, ψ 는 심리적(心理的) 인자(因子)(ψ 는 영어(英語)의 P에 해당하는그리스어(語), 영어(英語)의 P는 Psyche이며, 결국 정신력(精神力)의 뜻)를 가리킨다. 그리고 T는 시간(時間)(Time)의 요소(要素)를 뜻하는 것이다.

결국, 인도차이나 전쟁(戰爭)(1차(次)에서 3차(次)에 이르는 현대판(現代版) 30년(年) 전쟁(戰爭))에서 「베트민」(월맹(越盟))과 「베트콩」(월남(越南))이 석권하게 된 원인(原因)을, 「하도리」교수(教授)는, 이 「보플」장군(將軍)의 공식(公式)에 맞추어서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S=Kf\psi T \rangle K'F' \psi't'=S'$$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이러하다. 「베트민」과 「베트콩」이 전승(戰勝)의 전략(戰略) S를 미군(美軍)과 월남정부군(越南政府軍)의 전략(戰略) S'보다 「 $\rangle$ 」관계(關係) 즉 플러스 차원(次元)에서 영위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ψ (정신력(精神力))과 T(시간(時間))의 요소(要素)가 강(強)했다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역사적(歷史的) 교훈(教訓)」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월남사태(越南事態)」를 냉철히 투시하여 우리의 총력안보태세(總力安保態勢)를 굳힐 수 있었던 것이다.

북괴(北傀)의 「전민족대회(全民族大會)」

소집제의(提議)의 저의(底意)



우리는 북괴(北傀)의 전민족대회(全民族大會)소집제의가 위장된 평화(平和)제스처요, 소위 그들이 말하는 남조선혁명(南朝鮮革命)을 위한 전략전술(戰略戰術)임을 알아야 하겠다.

〈중앙일보(中央日報)·동서문제연구소연구위원(東西問題研究所研究委員)〉

이 상 두(李相斗)

역사(歷史)는 언제나 「로고스」 편이다. 우리는 일찌기 에스빠냐의 농민화가(農民畫家) 「고야」가 절규(絶叫)한 「이성(理性)이 잠자면 괴물(怪物)이 날뛰다」는 경구(警句)를 신조(信條)로 삼아, 「이성(理性)의 불침번(不寢番)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불침번(不寢番)이 제 기능을 발휘할 때 물양적(物量的) 측면에서의 전력증강(戰力增強)이 제대로의 「의미(意味)」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북괴(北傀)가 중(中)·소(蘇)의 지원(支援)을 받지않고 단독(單獨)으로 남침(南侵)해올 경우, 이에 맞서 미국(美國)의 전쟁참여(戰爭參與)없이 우리 한국(韓國) 혼자 힘으로 이것을 격퇴할 수 있는」 자주(自主) 국방능력(國防能力)의 함양을 위해 그동안 많이 애써 왔고, 실지 극히 단기간에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

이러한 자주국방능력(自主國防能力)의 함양과 발전노력(發展努力)은, 요컨대,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선각자(先覺者) 「존·록크」의 명구(名句) 「경험적(經驗的) 행복(幸福)의 성(城)」을 쌓는 의미(意味) 즉 이마에 어리는 땅방울의 의미(意味)임에 틀림 없다.

◇ 박대통령 각하 말씀 중에서 ◇

□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올 때에도 끄떡없이 안정과 성장을 지속하는 나라는 예외없이 그 나라 국민들이 검소하고 절제할 줄 알며 어려운 가운데서 높은 저축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근검, 절약은 부국의 원천이요, 사치와 낭비는 국민의 정신을 좀먹고 국력을 쇠퇴시키는 병균입니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1. 「분단국가(分斷國家)」문제와 남북대화(南北對話)



월남(越南)의 공산화통일로 이제 남은 「분단국가(分斷國家)」는 동서독(東西獨)과 중국(中國) 그리고 남북한(南北韓)뿐이다.

「분단국가」란 제2차대전후의 냉전시대(冷戰時代)에 미국과 소련을 각각 극점(極點)으로 하여 진행되었던 양극화과정(兩極化過程)에서 분단된 국가를 지칭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분단국가」라 하더라도 분단발생에 국제적(國際的)인 요소(要素)와 내전적(內戰的)인 요인의 어느 쪽이 보다 더 작용하고 영향했느냐에 따라 「국제형(國際型) 분단국」과 「내전형(內戰型) 분단국」으로 그 유형(類型)을 구분하는데 독일과 한국의 경우는 전자에, 중국과 월남은 후자에 속한다 하겠다.

냉전시대(冷戰時代)의 산물인 「분단국가」 문제는 늘 국제정치의 핫 이슈로 돼 왔고, 여러번 냉전(冷戰)을 열전화(熱戰化)시켜 세계평화를 크게 위협했다. 서(西)베를린 봉쇄(封鎖)와 이에 대항한 대(大) 공수작전(空輸作戰)도 그러하지만 더우기 한국 전쟁과 월남전은 국지전(局地戰)에 그치지 않고 열핵대전(熱核大戰)을 유발시킬 위험을 yak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국제정치 질서를 부단히 위협하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항상 인류 문명을 파멸시킬 전면전쟁의 화약고(火藥庫) 구실을 하고 있는 이 「분단국가」 문제는 무엇 보다도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해결되어야 한다.

「분단국가」 출현에 큰 몫을 담당했던 강대국들은 물론이요, 분단 당사자(當事者) 쌍방도 긴장완화와 공존(共存)의 이 데탕트시대(時代)에 지나간 냉전시대의 견산(遺産)인 「분단국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의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그런데 「분단국가」 문제해결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가장 문제되는 것은 한국의 경우라 하겠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우, 분단의 당사자인 「중화민국(中華民國)」 측도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측도 다같이 자기들이 「분단국가」로 간주되는 것을 계속 거부해 오고 있다.

1971년 10월의 유엔총회(總會)를 계기로 공산 중국은 자유 중국을 대신하여 유엔 안보리(安保理)를 비롯한 모든 국제기구(國際機構)에서 「중국(中國)」을 대표하게 되었으며 이 이후 「두 개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국제적(國際的) 동향(動向)으로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美)·중공(中共), 일(日)·중공평화우호조약(中共平和友好條約)에서도 대만(臺灣)을 중국의 일부로 규정하여, 분단문제를 국제적 관심사로서가 아니라 중국 내부(內部)문제로 평가하기에 이른 것이다.

자유중국을 물론 이같은 국제적 동향에 반발, 「장경자강(壯敬自強)」의 기치 아래 본토수복(本土收復)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뿐만 아니라 독일의 경우도 「분단 국가」 문제는 일응 해결된 상태이다. 동서독은 기본조약(基本條約)을 체결했고, 제28차 유엔 총회에서 동시가입(同時加入)이 승인되었다. 독일에는 독일연방공화국(聯邦共和國)과 독일민주공화국이 공존하면서 각각 주권(主權)국가로서 자유로운 의사를 표시, 「분단국가」 문제를 해결했다.

「한 민족(民族)·두 개 정부·두 개 국가」로 불리게 되었는데 이는 통일을 포기한것이 아니라 통일을 뒤로 미루고 당면한 분단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해결책이라 하겠다.

이렇게 볼 때 「분단국가」 문제를 현안(懸案)문제로 안고 있을 뿐 아니라, 민족지고(至高)·지상(至上)의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체적(主體的) 의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남북한이라 하겠다.

1948년 「5·10선거(選舉)」에 의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유엔에 의해, 한반도(韓半島)의 합법정부로서 인정되었다.

한편 북한에서도 이에 맞서 8월 25일 선거를 실시,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합법적인 정부로 자처하였으며, 이렇게 하여 민족과 국토 분단의 비극(悲劇)이 오늘에 이르렀다.

그동안 신탁통치(信託統治) 문제를 둘러싼 찬탁(贊託)·반탁운동·두 차례에 걸친 미소공동위원회(美蘇共同委員會), 남북협상(南北協商), 6.25와 제네바휴전회담(休戰會談) 등을 통한 통일 모색이 있었고, 또 남북 당사자(當事者)간은 물론 정당·사회단체 등에 의한 통일제과의 통일정책 논의가 전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가장 극적(劇的)이었을 뿐더러 남북관계에 새转机(轉機)를 가져왔던 것은 역시 72년 7월 4일의 「7·4공동성명(共同聲明)」이다.

그에 앞서 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大韓赤十字社)가 「남북(南北) 이산가족(離散家族) 찾기 운동(運動)」을 제안하면서 이의 구체적 협의를 위한 남북적(南北赤)대표회담을 제의했고, 8월 14일 북한 적십자회(赤十字會)가 이 제의를 수락함으로써 역사적인 남북적십자회담이 성립된 바 있다.

남북적십자회담과 「7·4공동성명(共同聲明)」 발표, 남북조절위(調節委)활동을 지켜 보면서 대다수 국민은 남북간의 급속한 화해(和解) 위에 분단을 해결하고 통일을 달성할 민족사(民族史)의 새 지평(地平)이 열리리라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같은 예상과 기대는 남북대화를 「남북한 간에 가로 놓인 인위적(人爲的) 장벽(障壁)을 단계적으로 제거하여 나갈 수 있는 방안(方案)」이요, 「통일실현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본 남한측과는 달리 이를 「남조선혁명(南朝鮮革命)과 공산주의 통일이라는 정치목적 달성의 도구」로 이용한 북한측의 태도에 의해 허물어지고 말았다.

대화(對話)중단 6년만에 다시 대화(對話)의 가교(架橋) 역할을 한 것이 박대통령(朴大統領)의 「1·19제(提議)」이다.

II. 「1·19제(提議)」와 「1·23 역제(逆提議)」

1979년 1월 19일 박정희대통령(朴正熙大統領) 각하(閣下)께서는 연두기자회견(年頭記者會見)석상에서 「나는 어떤 시기나 또는 어떤 장소에서든 또는 어떠한 수준(水準)에서도 남북한당국(南北韓當局)이 서로 만나 아무 전제조건(前提條件)도 없이 허심탄회하게 어떻게 하면 한반도(韓半島)에서 동족상잔을 막고 5천만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으며 그리고 또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가 하는 제반(諸般) 문제(問題), 다시 말해 이제까지 남북한이 제시해 온 모든 분야의 문제를 직접 논의하기 위해 대화를 가질 것을 촉구한다」고 하셨다.

박(朴)대통령 각하(閣下)께서 이 제의에서 밝힌 남북 「당국자(當局者)」의 개념(概念)은 그 제안의 문맥(文脈)과 기자회견(記者會見)의 분위기 그리고 청와대(靑瓦臺) 대변인의 설명으로 미루어 봐서 남북 「수뇌(首腦)」를 암시하는 것이며, 따라서 남북정상회담(頂上會談) 가능성을 시사(示唆)했다고 할 수 있다.

박(朴)대통령 각하(閣下)의 남북당사자(當事者)간의 무조건(無條件) 대화재개(對話再開)를 촉구한 획기적인 「1·19 제(提議)」에 대해 북한 측은 「국가주석(國家主席)」이라는 김일성(金日成)의 이름으로 답하지 않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이라는 「노동당(勞動黨)」의 위성(衛星)·외곽단체(外廓團體)의 이름으로 4개 항에 걸친 「1·23 역제(逆提議)」를 하였던 것이다.

책임있는 당국자가 아니라 사실상 아무런 실권(實權)도 없는 어용단체인 「조국전선」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한 것은 「1·19 제의」의 의의와 그 비중 및 효과를 감소·저하시키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며 일방적 통고형식(通告形式)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역제의(逆提議)를 한 것은 대화의 이니시에이티브를 취하고 있다는 인상을 대외적(對外的)으로 풍기기 위한 위장(僞裝)된 정치적 제스처라 하겠다.

「조국전선」이란 1949년 6월 27일 평양(平壤)에서 개최된 「남북민주주의민족전선(南北民主主義民族戰線)」 연석회의(連席會議)에서 결성된 것으로 「조선노동당」의 노선(路線)과 정책을 지지·추종하는 각 정당·사회단체의 집결체이다.

비록 「노동당」을 비롯한 18개의 주요 정당·사회단체가 총망라되어 있으나 당책(黨策)에 따라 대남평화공세(對南平和攻勢)의 간판(看板)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북한측이 「1·23역제의(逆提議)」에서 제안한 4개 항목은 ① 북과 남은 「7·4공동성명」 본래의 이념과 원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②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重傷)을 즉시 그만 두어야 한다. ③ 상대방을 적대시(敵對視)하고 위협하는 군사행동을 무조건 즉시 중지(中止)하여야 한다. ④ 북과 남의 각 정당(政黨)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전민족대회(全民族大會)」를 소집할 것을 제의한다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가) 2월 10일 오전 10시를 기해 쌍방당국이 「7·4공동성명」의 이념과 원칙을 재확인(再確認)하며 그를 준수한다는 태도를 공식표명할 것. (나) 쌍방 군사당국(軍事當局)이 3월 1일 영시(零時)를 기해 군사분계선(軍事分界線)을 중심한 전선일대(前線一帶)에서 절대적 군사행동(軍事行動)을 중지할 것. (다) 「전민족대회(全民族大會)」의 9월개최에 따르는 준비를 위해 6월 초순에 평양에서 각 정당·사회단체의 실무급(實務級) 대표들의 예비회담(豫備會談)을 열 것 등을 덧붙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4개 항목 중 1, 2, 3항은 이미 남북조절위(南北調節委)에서 논의된 바 있거나 또 일시적이었던 해도 실현된 적이 있어 대화(對話)의 채널을 통해 토의됨으로써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문제이긴 하나 제4항은 남북 대화 재개(再開) 자체를 처음부터 궁지에 몰아 넣거나 암초(暗礁)에 부딪치게 하려는 책략에서 나온 제의라 할 수 있다.

「조국전선(祖國戰線)」성명은 「전민족대회(全民族大會)」소집 필요성에 대해 「북과 남의 각당(各黨)·각파(各派)·각계각층 인민의 대표들을 망라하는 전민족대회 형식이야말로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總意)를 대표하는 가장 권위 있고 폭 넓으며 현실적인 대화와 협상(協商)의 방도로 된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북한측은 남북한의 정당, 사회 단체, 각계각층 인사들의 대표로 구성된 「전민족대회(全民族大會)」소집을 내세움으로써 대화를 정권적(政權的) 차원(次元)에서 민족적 차원으로 격상(格上)시키려는 듯 꾸미고 있으나, 여기엔 그들의 대남전략(對南戰略)의 음모와 함정이 숨겨져 있다 하겠다.

Ⅲ. 「전민족대회(全民族大會)」소집의 전략(戰略)□전술

「조국전선(祖國戰線)」이 제의한 「전민족대회」라는 것은 김일성(金日成)이 1973년에 제의한 바 있는 「대민족회의(大民族會議)」에 다름 아니며 통일전선전략(統一戰線戰略)의 일환으로 제의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1973년 6월 23일 박정희(朴正熙)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平和統一政策)」에 관한 특별선언(特別宣言) 발표 10시간 후에 한국측의 성실한 제의를 묵살한 채 발표된 소위 「조국통일(祖國統一) 5대강령(大綱領)」안의 제3항으로 「대민족회의」소집을 제의했던 것이다.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共產黨) 서기장 구스타프·후사크환영(歡迎) 평양시(平壤市) 군중대회(群衆大會)에서 김일성은 ① 군사적(軍事的) 대치상태(對峙狀態)의 해소와 긴장완화 ② 다방면적(多方面的)인 합작(合作)과 교류 ③ 남북한정당(政黨), 사회단체(社會團體)대표로 구성된 「대민족회의(大民族會議)」소집 ④ 고려연방공화국(高麗聯邦共和國)구성 ⑤ 고려연방공화국이란 단일국호(單一國號)에 의한 유엔 가입(加入)을 주장하면서 박(朴)대통령 각하(閣下)의 「6·23선언(宣言)」을 「2개(個) 조선조작극(朝鮮造作劇)」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일성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북과 남 사이의 대화가 다만 남북당국자(當局者) 사이의 범위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전민족적(全民族的)인 범위에서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북한측이 「조국전선」을 앞세워 「대민족회의」 또는 「전민족대회」를 고집하는 속셈은 회담 참가범위를 대폭적으로 확대한다는 그럴듯한 인상과 명분(名分)을 내걸어 남한의 내부갈등(內部葛藤)과 분열을 교묘히 조장하고 정부와 군민간의 이간(離間)을 획책하기 위한 것으로 할 수 있다.

북한측이 「전민족대회」에 남북의 정당, 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인사(人士), 해외의 조총련(朝總聯)이나 반한단체(反韓團體)까지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층통일전선(上層統一戰線)」과 함께 「하층통일전선(下層統一戰線)」을 형성하려는 전략에서 나온 것임은 1948년 4월에 열렸던 「남북한정당(南北韓政黨)·사회단체연석회의(社會團體連席會議)」에서 이미 폭로된 바 있다.

흔히 「남북협상(南北協商)」으로 불리우는 이 회의 개최는 김구(金九)·김구식(金奎植) 두 민족지도자가 2월 16일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통일민주정부(統一民主政府)의 수립을 위한 제반(諸般) 조치(措置)」를 토의하기 위해 남북한의 정치지도자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는 내용의 서한(書翰)을 발송한 것이 그 계기였다.

북한측이 48년 4월, 양김(兩金)씨의 서한에 대한 회답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처음 제의하는 형식으로 연석회의(連席會議)를 제의한 의도는 「단독선거반대투쟁(單獨選舉反對鬭爭)」에서 적대세력(敵對勢力)과 일시적·전술적인 합작(合作)을 해보자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30년전에 썼던 그 전략·전술을 다시 한 번 행사 획책해 보려고 북한측은 「7·4공동성명」의

이념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바로 그 7·4공동성명에서의 합의사항(合意事項)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남북조절위(南北調節委)를 거부한 채 「전민족대회」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7·4공동성명」 제2항(項) 내에 「남북의 정당·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人士)들 사이의 광범한 정치적 교류를 실현하는 문제를 협의·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까지 하니 북한측은 당국자회의(當局者會議)나 조절위(調節委)를 재개하여 그들이 주장하는 「전민족대회」 소집문제도 얼마든지 토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굳이 「전민족대회」 소집과 「민족통일준비위원회(民族統一準備委員會)」 구성을 고집하여 마침내 대표자격(資格)도 회의목적도 회의 의제(議題)도 전혀 다른 성격의 남북 대표들이 판문점(板門店) 중립국감독(中立國監督)위원회 회의실에서 변칙적(變則的)으로 몇차례 대좌했다가 그것마저 중단되고만 불행한 사태를 다시 빚고 만것이다.

남북대화와 남북회담은 고도(高度)의 정치성과 기술을 요하는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임이 분명하며 따라서 그 회담은 상당기간 소수(少數)의 대표에 의해 진행 될 수 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다. 소수의 대표로서도 다루기 어려운 통일문제 논의를 5백명이나 천(千)명의 각양 각색 대표들이 참석한 대집회(大集會)에서 토론회를 열어봤자 아무런 성과(成果)도 건지 못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것은 「전민족대회」·「대민족회의」의 이름 아래 벌어질 정치(政治) 쇼나 해프닝으로 될 가능성마저 있다.

이같은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북한이 그래도 이 대회를 주장하는 저의(底意)는 이 장소를 그들의 정치선전장화(政治宣傳場化)하는 한편 남한의 내부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기회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그들 대표야 2백 명이 나오든 5백 명이 나오든 이구동성(異口同聲) 똑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이나 남한대표는 다양(多樣)하고도 상이(相異)한 주장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같은 민주주의의 「의견(意見)의 다양성(多樣性)」을 그들은 교묘히 이용하려 할 것이 뻔하다.

북한측의 평화통일론(平和統一論)도 남북대화도 그것은 남조선혁명(南朝鮮革命)과 공산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위장된 평화(平和)제스처요, 전략 전술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와 성의를 갖고 신축성있는 대응책을 강구하면서 통일의 이니시에이티브를 잡아 북한측을 대화(對話)의 테이블로 다시 끌어내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겠다.

사치낭비(奢侈浪費)의 배경(排擊)과

경제발전(經濟發展)



국가경제(國家經濟)의 향상과 가계(家計)의 번영을 위하여 고급병(高級病)·유행병(流行病)·사치낭비병(奢侈浪費病)을 고치려는 국민적(國民的) 자각(自覺)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必要)한 것이다.

〈여성저축생활중앙회 사무국장〉

김 기 정(金基貞)

-사치(奢侈)는 망국(亡國)의 길-



역사(歷史)를 더듬어 보면 어느 나라든지 허영심(虛榮心)에서 오는 극도(極度)의 사치생활(奢侈生活)을 한 나라는 결국(結局)에 가서 망(亡)하고 말았다.

로마의 문명(文明)도 극도(極度)의 사치(奢侈), 특히 여성들의 사치(奢侈)가 심(甚)했으며, 우리나라 이조(李朝) 5백년(百年)을 보아도 여성들의 허영(虛榮), 사치(奢侈), 시기(猜忌)로 인해서 국운(國運)이 많이 기울었던 것이 사실이고 결국(結局)에 가서 국권(國權)을 잃는 뼈아픈 결과(結果)를 낳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도 잘 아는 우리의 역사(歷史)이다.

근대(近代)에 와서는 어떠한가? 50년대(年代)는 불행(不幸)했던 6.25동란(動亂)이 있었고, 50년대(年代) 후반기에 이르러 전쟁(戰爭)의 상처(傷處)가 어느 정도 아물고, 다소(多少) 틀잡힌 생활(生活)을 할 수 있게 되자, 국민들은 정신적(精神的)으로 해이(解弛)해지기 시작(始作)했다.

우리에게는 불행하게도 조상(祖上) 때부터 아껴쓰고, 모은다는 소위 경제적(經濟的) 말초신경(末梢神經)이 발달되어 있지 못한 데다가 분수를 넘는 허풍(虛風)과 허세(虛勢)가 의식, 무의식중에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었고, 부유층(富裕層)의 사람들 가운데 허영(虛榮)과 사치(奢侈)를 일삼고 있는 것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6.25 동란(動亂)으로 인한 도덕적(道德的) 파산상태는 회복은 커녕 우리네 주부사회를 휩쓸어 가치관(價値觀)을 뒤엎어 버려서 대다수의 주부들이 신념(信念)이 없고, 방만하고 허영(虛榮)에 들뜬 사고방식(思考方式)에 젖어 있었던 것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事實)이었다.

또한 60년(年) 후반기에는 부동산(不動產) 붐, 사채고금리창궐(私債高金利猖獗), 계(契)의 성행(盛行), 소비고도화(消費高度化), 사치(奢侈), 낭비(浪費)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사회(社會)를 불안으로 몰아 넣었다. 이 때 부정부패(不正腐敗)를 일소(一掃)한다는 소리와 더불어 여성의 의복으로부터 허영(虛榮)과 사치(奢侈)를 배제(排除)하는 운동이 전개(展開)되었고 신생활운동(新生活運動)으로서 검소(儉素)와 내핍생활(耐乏生活)이 강조되고, 외래품(外來品)은 여러 곳에서 불태워졌으며, 국산품(國產品) 애용으로 애국(愛國), 애족(愛族)하자는 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신생활운동(新生活運動)의 성과(成果)는 별(別)로 거두지 못한 채 구호(口號)로 그치고 일부층(一部層) 국민(國民)의 허영(虛榮)과 사치도(奢侈度)는 나날이 높아만 갔다.

70년(年) 초(初)에 접어들어서도 하루 속(速)히 조국(祖國)이 근대화(近代化)되도록 밀고 나가기 위해서 자본(資本)을 키우고, 물가(物價)를 안정(安定)시키는 일이 우리의 지상과제(至上課題)요, 급선무(急先務)인데도 불구하고, 몰지각한 부유층(富裕層) 사람들은 어디서 배워 온 버릇인지, 까닭없이 귀중(貴重)한 물자(物資)를 낭비(浪費)하고, 천대(賤待)하고 온갖 사치생활(奢侈生活)을 확대(擴大)하면서 일종의 귀족(貴族)취미에 빠져 지탄(指彈)의 대상(對象)이 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國民)들의 생활방식(生活方式)을 보아도 근검(勤儉), 절약(節約)하는 풍조(風潮)는 대체로 쇠퇴(衰退)해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현실(現實)이었다. 입으로는 근검(勤儉), 절약(節約)을 외치면서 실천적(實踐的)으로는 사치(奢侈)와 낭비(浪費)로 줄달음을 쳐왔다고 해도 틀림이 없다.

최근(最近)에 와서 좀 늦은 감(感)은 있으나 말과 실천(實踐)이 연결되어지는 듯한 사회(社會) 분위기(雰圍氣)가 조성(造成)되어 가고 있어 다행(多幸)스럽게 여겨지기는 하나, 아직도 우리들의 주위(周圍)를 휩쓸고 있는 사회적(社會的) 낭비(浪費), 가정적(家庭的) 낭비(浪費)와 사치(奢侈)가 하루 속(速)히 배격(排擊)되어야만 우리 사회(社會)는 밝아지고, 국력(國力)은 신장(伸張)될 것이다.

-우리가 급(急)히 고쳐야 할 병(病)들-

1. 고급병(高級病)

지금(至今) 우리 사회(社會)의 풍조(風潮)는 (일부층(一部層)이라고는 하지만) 고급병(高級病), 사치병(奢侈病), 유행병(流行病) 등이 퍼져서 수술(手術) 내지(乃至)는 치료(治療)가 대단(大端)히 시급(時急)하다. 힘 안 들이고 쉽게 치부(致富)한 사람일수록 고급병적(高級病的) 증상이 농후(濃厚)하여 모든 물건을 최고급(最高級)만 찾는 풍조(風潮)에 물이 들었다. 마치 고급물건(高級物件)만 있다면 값은 상관 없다는 사고방식(思考方式)의 환자(患者)들이 큰 문제다.

넥타이는 프랑스제(製)라야 하고, 라이터는 「던힐」이래야 하고, 시계(時計)는 적어도 「오메가」라야 하는 최고급품(最高級品) 아니면 상대를 안 한다고 한다.

약 1개월전(個月前) 모일간지(某日刊紙)에 의하면, 소비절약(消費節約)과 사치(奢侈), 낭비추방운동(浪費追放運動)을 한창 전개(展開)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밍크」제품(製品)을 비롯하여 외제고급(外製高級)피아노, 주방기기(機器), 핸드백, 구두, 비누 등(等) 사치품(奢侈品)들이 날개가 돋친듯 고가(高價)에 잘 팔려 나가고 있다고 한다. 명동(明洞)을 비롯한 일부 지역상가(地域商街)에서는 특별(特別) 주문(注文)으로 생산(生産)된 고급(高級) 「자개장」이 한쌍에 5백(百)만원에서 1천(千)만원에 팔려 가고 있다고 하고, 목제(木製) 응접(應接)세트가 1세트에 최고(最高) 4백(百)만원까지 팔리고 있으며, 독일제(獨逸製) 「שמל」 피아노의 「업 라이트」(Up-Right: 수형(豎型)피아노)가 4백여(百餘)만원에, 「그랜드」(Grand: 평형(平型)피아노)가 8백(百)만원에 서 9백(百)만원에, 또한 수입제한(輸入制限)한 품목(品目)인 「밍크」는 이미 철이 지난, 겨울 코트가 1벌에 최고(最高) 2백(百)만원에, 반(半)코트가 1백(百) 20만원에서 1백(百)50만원에, 「술」이 최고(最高)가 8백(百)만원에 팔리고 있으며, 프랑스제(製) 「샤넬」 비누가 1개(個)당 9천원, 악어 핸드백과 이탈리아의 「구치」제품(製品)인 구두가 각(各) 40만원에도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程度)로 잘팔려 나가고 있다고 한다. 이밖에도 미제(美製), 일제(日製) 「가스텔이블」이 24만원에서 48만원, 악어로 만든 가죽지갑이 10만원, 남자(男子) 허리띠가 8만원에서 10만원에 팔리고 있으며, 남녀(男女) 수영복(水泳服)과 T셔츠가 5만원에 거래(去來)되는데, 수요(需要)가 많아 주문전(注文轉) 놓고 한참 기다려야 겨우 살 수 있다고 한다.

그 외(外)에도 고급호주택(高級豪華住宅) 이야기, 「루이」 몇 세(世) 때 모양의 고급가구(高級家具)이야기, 고급양주(高級洋酒)이야기, 고급보석(高級寶石)이야기 등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왔다.

2. 유행병(流行病)

고급병(高級病)이 우리 사회(社會)에 큰 문제이나, 유행병(流行病)도 고급병(高級病) 못지 않게, 더욱 큰 문제라고 하겠다.

최근(最近) 30년(年) 동안 돌이켜 보면 각종 유행(流行)의 물결이 우리 사회(社會)를 휩쓸었고, 우리의 행동(行動)을 좌우(左右)했다고 해도 과언(過言)이 아니다. 우리는 해방후(解放後), 그저 정신없이 서구(西歐)의 온갖 풍조(風潮)와 유행(流行)을 따르기에 바빴고, 모방하기에 급급(汲汲)했다고 반성(反省)을 안 할 수 없다.

남이 『미니』를 입으면 나도 입었고, 남이 『판탈롱』을 걸치면 나도 걸친다. 서구문화(西歐文化)의 좋은 것, 깊은 것, 본질적(本質的)인 것은 들어오지 않고, 표피적(表皮的)인 것, 감각적(感覺的)인 것이 마구 들어 왔고, 우리는 그것을 문화(文化)인 양, 무비판적(無批判的)으로 받아들였다.

유행(流行)이란 문자(文字)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며, 생명력(生命力)이나, 깊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간혹(間或) 생명(生命)이 있다 해도 그다지 길지 않으며, 길어야 1년(年)에서 2년(年) 정도이고 짧은 경우는 한철뿐일 때가 많다.

인생(人生)을 보다 즐기고, 멋있게 살기 위해서 여유(餘裕)있는 나라나, 계층(階層)에서는 유행(流行)을 창조(創造)하고, 유행(流行)에서 사는 보람도 느끼는지 몰라도, 우리의 환경(環境)으로나 실정(實情)으로는 유행(流行)을 쉽게 받아 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처럼 유행(流行)에 민감(敏感)하고, 유행(流行)에 약(弱)한 사람도 없다.

충무로의 양품점(洋品店)은 유행(流行)되는 고급의류(高級衣類)나 진귀(珍貴)한 장신구(裝身具)가 나오면, 내뿜기가 무섭게 날개가 돋친다고 한다. 또한 명동(明洞)의 살롱은 유행(流行)되고 있는 외국(外國)패션지(誌)에 나온 외제(外製)옷감이 들어오면 들어오기가 무섭게 맞춤형이 쇄도하여 밤일을 해가며 옷을 만든다고 한다. 고급양장점(高級洋裝店)치고 유행(流行)되는 외제(外製) 옷감을 갖추어 놓지 않은 데가 없고, 성수(盛需)를 이루지 않은데가 없다고 한다. 경제(經濟)가 성장(成長)하에 수입(收入)이 늘었다고 맹목적(盲目的)인 유행(流行)의 추종(追從)으로 불요(不要) 불급(不急)의 옷을 무계획적(無計劃的)으로 만들어 입는 이들은 아직도 소비(消費)가 미덕(美德)이란 착각(錯覺)을 하고 있는 듯 하다.

잘 사는 외국(外國)사람들도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유행심리(流行心理)의 노예(奴隸)가 되지 않는다.

3. 사치병(奢侈病)·낭비병(浪費病)

사치(奢侈)와 낭비(浪費)는 자기의 분수(分數)를 모르는 데서 생기는 생활(生活)의 병(病)이다.

우리 주변의 낭비(浪費)를 눈여겨 훑어보면 한 예(例)로 석유(石油)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선 나지도 않는 커피를 오나가나 대접받는다. 가정에서뿐 아니라, 크고 작은 사무실에서 반드시 내놓는 첫 인사가 커피 잔이다.

또한 청량음료(清涼飲料)의 소비량(消費量)은 해마다 늘어나서 작년에는 무려 13억병이 팔렸다고 한다. 작년 여름에 콜라, 사이다가 동이 나서 주문(注文)을 하고 며칠을 기다려야 차례가 왔던 기억이 있다. 동이 난 이유(理由)는 생산(生産)의 차질이 아니라 과잉수요(過剩需要)에서 동이 났다고 한다(유난히 더운 여름이기는 하였지만).

그 밖에도 드링크류(類)도 유명 제약회사(有名製藥會社) 것은 팔려서 변두리 약국(藥局)에서는 살 수가 없다.

양주(洋酒) 또한 일년(一年)에 30억원어치를 거뜬히 마셔 치우고 있다고 한다. 다른 술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할 것이다.

종이의 낭비(浪費)는 어떠한가?

요란스런 포장지(包裝紙)는 알맹이보다 포장(包裝)지(紙) 몫이 더하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과잉포장(過剩包裝)이 지탄(指彈)되기는 벌써 오래 되었지만 속이 들여다 보이는 상혼(商魂)은 여전(如前)히 날뛰고 있다.

그 밖에도 호화주택(豪華住宅)의 아까운 공간(空間)의 낭비(浪費), 호화(豪華)잔치의 낭비(浪費), 교육사치(教育奢侈)의 낭비(浪費), 호화혼수(豪華婚需)의 낭비(浪費) 등(等)이 추방(追放)되어야 한다.

고급(高級)옷, 고급장신구(高級裝身具)를 걸치고 자가용(自家用)이라도 타야 체면(體面)이 유지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의 허영심(虛榮心), 알맹이보다 겉데기로 사람을 판단(判斷)하는 모순이 없어져야 사치(奢侈)와 낭비(浪費)는 사라지리라 생각된다.

-왜 이러한 병(病)은 생기며, 어떻게 고쳐야 하나-

사람의 진가(眞價)는 결코 겉치레나 그들의 소유물(所有物)에 의하여 결정(決定)되는 것이 아니다.

속이 빈 사람일수록 유행(流行)을 따르고, 고급제품(高級製品)을 찾고, 사치(奢侈), 낭비(浪費)를 일삼는다. 자기(自己)의 내적(內的) 공허(空虛)를 그런 것으로 메우려고 한다. 사치(奢侈), 낭비(浪費)에서 오는 사람 그 자체(自體)의 타락(墮落)도 문제지만 우리 사회(社會)의 정신적(精神的) 환경(還境)을 보다 높고 풍요(豐饒)한 것으로 합심(合心)하여 진작(振作)해 나가야 하는데, 물질(物質)의 낭비(浪費)에서 오는 고통(苦痛)보다도 정신적(精神的)인 이질화(異質化)에서 오는 결과(結果)가 얼마나 크고 두렵다는 사실(事實)을 우리 모두가 깊이 인식(認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병(病)이 하루 속(速)히 우리 땅에서 없어져야 하고, 이러한 시간(時間)에 우리는 교양(敎養)을 높이고, 인격(人格)과 깨끗한 마음가짐과 부지런한 일꾼이 되어, 가정(家庭)과 국가(國家)의 진정(眞情)하고도 현명(賢明)한 주인(主人)이 되어야 한다.

주부(主婦)는 알뜰한 살림꾼으로서 과학적(科學的)이고, 합리적(合理的)인 가정경제운영(家庭經濟運營)은 물론(勿論) 온 가족(家族)의 건강(健康)을 보살피는데 항상(恒常) 신경(神經)을 쓰고, 참된 사랑과 신뢰(信賴) 속에서 자녀(子女)들에게 안정감(安定感)을 주고, 인격형성(人格形成)의 장소(場所)가 될 수 있는 가정(家庭)을 만드는데 머리를 써야 한다.

- 눈부신 경제발전(經濟發展) -

우리 나라는 1962년(年)부터 본격적(本格的)인 경제개발계획(經濟開發計劃)이 수립(樹立), 진행(進行)되기 시작(始作)하여 지금(至今) 4차(次) 경제개발(經濟開發) 5개년계획(個年計劃)이 진행중(進行中)에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經濟)는 양적(量的)으로나, 질적(質的)으로 크게 성장(成長)했다. 외국(外國)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경제(經濟)의 성장(成長)한 것을 보고, 「개

발도상국(開發途上國)의 모범생(模範生)」이란 칭찬을 할 정도(程度)로 실(實)로 놀라운 속도(速度)의 성장(成長)을 기록(記錄)해 왔다.

이러한 성공적(成功的)인 수행(遂行)으로 과거(過去)의 전(傳)해 내려 오던 유산(遺産)인 빈곤(貧困)으로부터 벗어나, 구호물자(救護物資)의 필요(必要)도, 보릿고개도 없어져, 후진국(後進國)이라는 불명예(不名譽)를 완전(完全)히 벗고 중진국(中進國)을 거쳐 선진국(先進國)으로 발돋움 하는 새로운 역사적(歷史的) 과정(過程)에 들어서고 있다.

지난 1968년(年) 5억(億)달러에 불과했던 수출(輸出)이 10년(年)만인 78년(年)에 1백 27억 달러로 신장됐고, 같은 기간 동안 1인당(人當) GNP는 164달러에서 놀랍게도 1,242달러로 신장(伸張) 됐다. 우리들은 절대빈곤(絶對貧困)에서 해방(解放)되고 국제규모(國際規模)의 대단 위공장(大單位工場)들이 곳곳에 들어서 선진권(先進圈)에 들어서는 채비를 서두르는 단계(段階)까지 발전(發展)했다. 공산품(工產品)이라면 반드시 외제(外製)를 의미(意味)하던 시대(時代)는 이미 옛날 이야기이고 오늘날은 우리나라 공산품(工產品)이 세계(世界) 어느 곳이고 모습을 보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程度)로 우리의 경제력(經濟力)은 일년(一年)이 무섭게 달라지게 성장(成長) 속에 변모(變貌)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成長)의 뒷면에는 온 국민(國民)의 경제개발(經濟開發)에 대(對)한 굳은 의지(意志)와, 피땀어린 노력(努力), 내일(來日)보다 잘 살기 위(爲)하여 오늘의 내핍(耐乏)을 감수(甘受)해 왔고, 밖으로는 우리의 이러한 마음가짐을 알아주려는 듯 세계경제환경(世界經濟環境) 또한 순탄했었던 사실(事實)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1973년(年) 9월(月) 석유파동(石油波動)은 우리의 경제계(經濟界)를 뒤흔들여, 심각(深刻)한 불황(不況)의 소용돌이를 몰아 붙이게 하였다.

그 여파(餘波)는 아직도 가시지 않는 불황(不況)과 계속(繼續) 오르고 있는 물가고(物價高)를 초래했다. 그래도 우리는 애써 이룩한 경제발전(經濟發展)의 터전을 더욱 굳게 다져야 하며, 우리의 후손(後孫)에게 풍요(豐饒)한 유산(遺産)을 남겨 줌으로 못난 조상(祖上)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前)보다 더한 인내(忍耐)와 노력(努力)이 계속(繼續)되어야 한다.

-당면(當面)한 최대과제(最大課題)-

우리는 지금(至今) 나라살림에 있어서나, 가정생활(家庭生活)에 있어서나, 다같이 최대(最大)의 과제(課題)는 물가안정(物價安定)에 있다. 물가(物價)가 안정(安定)되지 못했을 때 국가경제(國家經濟)에는 물론(勿論), 개인생활(個人生活)에도 얼마나 큰 혼란(混亂)과 불안(不安)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은 지난해 뼈저리게 체험(體驗)한 바 있다. 그 물가(物價)를 안정(安定)시키는 길은 온 국민(國民)의 소비건전화(消費健全化)에 달려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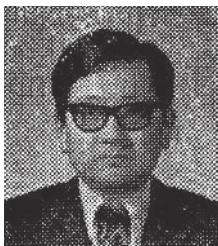
물론(勿論) 소비풍조(消費風潮)의 건전화(健全化)가 국민(國民)들의 소비억제(消費抑制)만 으로 될 일은 아니고, 올바른 정책(政策)과 기업(企業)의 협조(協助)가 수반(隨伴)돼야 하나, 아

무리 정책(政策)이 올바르게 추진(推進)되고, 기업(企業)의 협조(協助)가 있다 해도 국민(國民)의 소비욕(消費慾)이 계속 상승(上昇)된다면 성과(成果)는 못 거둔다.

소비(消費)의 주체(主體)로서 가계(家計)의 역할(役割), 가계경제생활(家計經濟生活)에서 핵(核)을 이루는 여성(女性)의 역할(役割)을 다시 한 번 강조(強調)하면서 상계(象計)의 번영(繁榮)은 국가발전(國家發展)에도 사심적(梭心的)인 역할(役割)을 하게 되므로 가계(家計)를 지키기 위한 가족(家族)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적(國民的)인 자각(自覺)과 긍지(矜持)와 신념(信念)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必要)하다.

자연보호(自然保護)와

애국정신(愛國精神)



우리는 스스로의 생존(生存)과 건강한 생활(生活)을 유지(維持)하기 위하여 자연보호헌장(自然保護憲章)을 준수하며 우리의 환경·자연을 보호해야 하겠다.

〈양정고교(養正高校) 교장(校長)〉

엄 규 백(嚴圭白)

1. 자연보호(自然保護)



자연보호(自然保護)를 생각할 때 이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란 매우 힘들다. 자연보호(自然保護)를 주장하는 이들 중에는 생태학적(生態學的)인 관점(觀點)에서 볼 때 학문적으로 그 존재가치가 높은 지역(地域)의 보존(保存)을 요구하는 이가 있다. 혹은 전혀 인위적(人爲的)인 개발(開發)이 가해지지 않고 자연상태(自然狀態)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지역(地域)의 보존(保存)이 요구되기도 한다. 또는 인간(人間)이 자연(自然) 속에서 생활하며, 생활(生活)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자연(自然)에 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自然)의 파괴는 곧 인간(人間)의 생존(生存)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이의 보존(保存)을 요구하는 이도 있다. 그리고 자연(自然)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귀중한 존재란 점에서 흥미를 가짐과 동시에 그 귀중한 자연(自然)이 인간(人間)에게 있어서 끊임없는 여러 가지 과학적(科學的) 탐구(探究)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의 보존(保存)을 요구하기로 한다. 한편 자연(自然)을 레크리에이션의 대상(對象)으로서, 그의 보존(保存)을 요구하며, 일정한 지역의 자연보호(自然保護)가 그 지역의 고적(古蹟)이나 역사적(歷史的)인 건축물(建築物)의 보존(保存)과 함께 관광자원(觀光資源)으로서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自然)의 보존(保存)이 요구되기도 한다. 그리고 현대산업사회(現代産業社會)가 유도하는, 미래(未來)에 대하여 불안하게 생각하면서 이런 불안감(不安感)을 덜고, 미래(未來)를 위한 가능성(可能性)을 남기게 한다는 뜻에서 자연보호(自然保護)를 주장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자연보호(自然保護)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여러가지겠으나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質)을 떨어뜨리지 않고 건강한 생활(生活)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자연보호(自然保護)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10여 년(年) 동안에 걸쳐 이룩한 우리의 급속한 경제성장(經濟成長)과 이에 따르는 생활수준(生活水準)의 향상(向上), 그리고 인구(人口)의 증가(增加)와 현저한 도시화현상(都市化現象) 등이 우리의 자연(自然)을 크게 변모시켰으며, 환경(環境)을 크게 오염(汚染)시켜서 커다란 사회문제(社會問題)로 클로즈·업되어 있다.

우리의 삶의 질(質)을 떨어뜨리고 건강한 생활(生活)을 위협하는 환경악화(環境惡化)의 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인류(人類)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제 우리가 안고 있는 환경문제(環境問題)를 해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生活環境)을 유지하고 품위있는 생활(生活)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연(自然)의 미묘한 질서와 그 원리를 이해하며 무엇을 어떻게 보호하고 유지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이다.

2. 생태계(生態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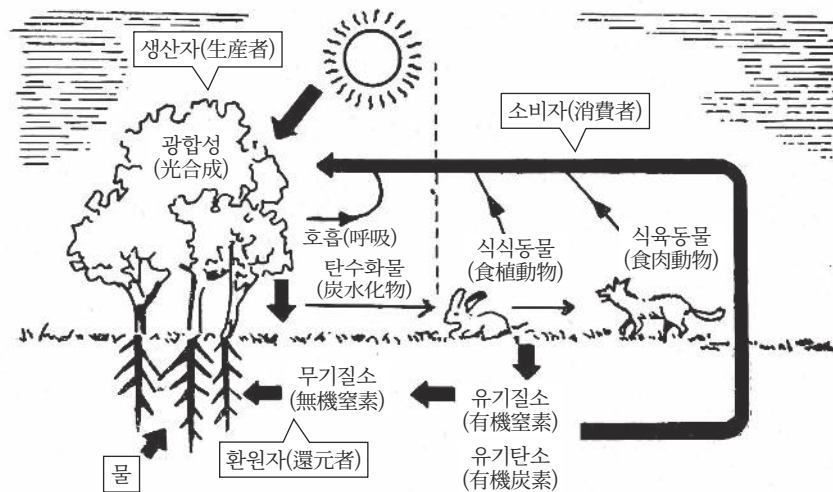
자연보호(自然保護), 혹은 환경보존(環境保存)이란 문제를 생각할 때 우선 자연(自然)을 이루고 있는 생태계(生態系)(Ecosystem)의 이해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인간(人間)을 포함하여 생물(生物)이 생활하고 있는 지구표면(地球表面)에서는 무기적(無機的)인 자연(自然)과 생물(生物)이, 물질(物質)과 에너지의 순환(循環)이라는 굴레에 의하여 생물경제학적(生物經濟學的)인 하나의 계(系)를 이루고 있는데, 이를 생태계(生態系)라고 한다. 생태계(生態系)의 예로서는 호소(湖沼)나 삼림(森林)을 들 수 있으며, 전세계(全世界)를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生態系)로 생각할 수도 있다. 자연보호(自然保護)란 관점(觀點)에서 생태계(生態系)를 이해하는데 그 모델로서 삼림생태계(森林生態系)를 가장 적당한 예로 들 수 있다.

식물(植物)의 광합성(光合成)에 의한 유기물생산(有機物生産), 생산(生産)된 유기물(有機物)의 동물(動物)에 의한 소비(消費), 식물(植物)이나 동물(動物)의 죽은 시체의 미생물(微生物)에 의한 분해(分解), 그리고 유기물(有機物) 분해(分解)에 의하여 환원(還元)된 무기물(無機物)의 광합성(光合成)에 의한 재이용(再利用)으로 이어지는 물질순환계(物質循環系), 태양(太陽)으로부터 유래되는 광(光)에너지의 생산자(生産者)-소비자(消費者)-환원자(還元者)에 이르는 에너지의 흐름, 그리고 생물군집(生物群集)이 상호작용하는 대기(大氣), 토양(土壤) 및 물 등의 환경(環境) 등을 종합하는 생태계(生態系)는 삼림생태계(森林生態系)에 있어서도 그 구조와 기능이 잘 표현되고 있다(그림 1).

삼림생태계(森林生態系)를 구성(構成)하는 생산자(生産者)인 식물(植物)의 주체(主體)는 수목(樹木)이다. 생산자(生産者)의 주체(主體)인 수목(樹木)의 생산력(生産力)은 다른 생태계(生態系)의 그것에 비하여 크다. 그리고 삼림생태계(森林生態系) 내의 동물종류(動物種類)도 매우

그림 1. 삼림생태계(森林生態系)의 예



풍부하다. 동물(動物)들의 배설물(排泄物), 유체(遺體)로서의 유기물(有機物), 혹은 수목(樹木)으로부터 낙엽(落葉), 낙지(落枝), 고화(枯花) 등에 의한 유기물(有機物)의 지표면(地表面)에의 공급량(供給量)도 크다. 이에 따라서 유기물(有機物)을 분해(分解)하는 미생물(微生物)도 풍부하며 그 활동도 활발하다.

따라서 삼림생태계(森林生態系)에 있어서는 생물(生物)을 통한 물질순환(物質循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農業)에 있어서 그 수량(收量)을 유지하고 높이기 위해서 늘 시비(施肥)를 하고 땅을 갈아야 하는데 비하여, 자연(自然) 그대로 방치되는 삼림생태계(森林生態系)에 있어서는 물질순환(物質循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삼림생태계(森林生態系)의 유지에 필요한 양분을 자체 내에서 공급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이를 자기시비(自己施肥)라고 부른다.

이처럼 자기시비(自己施肥)라고 불리우는 삼림생태계(森林生態系)의 물질순환(物質循環)은 삼림(森林)이 영속적(永續的)인 안정(安定)된 형태로 유지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따라서 울창한 숲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삼림(森林) 내의 물질순환계(物質循環系)를 가능한 한 장애를 받지 않도록 잘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삼림생태계(森林生態系)의 중요한 기질의 하나인 토양(土壤)은 삼림(森林)의 주체(主體)인 식물(植物)을 유지할 뿐 아니라, 물질순환(物質循環)이란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要素)이다. 삼림토양(森林土壤)은 지상(地上)의 식물(植物)에 대하여 양분(養分)이나 수분(水分)을 공급하며, 그 뿌리를 지탱하는 일뿐 아니라 지상의 식물(植物)·동물(動物)로부터 유

기물(有機物)을 공급받아 이를 분해(分解)하여 무기물화(無機物化)하는 중요한 일도 담당하고 있다.

만일, 삼림(森林)의 지상부(地上部)인 식물(植物)을 제거한다면, 삼림(森林)으로부터 대량(大量)의 유기물(有機物)이 반출될 뿐 아니라 식물(植物)이란 피복체(被覆被體)가 없어져 여러 가지 자연(自然)의 변모(變貌)를 일으켜서 생태계(生態系)가 파괴된다. 양분(養分)의 소실(消失)뿐 아니라 토양(土壤)이 갖는 보수능(保水能)이 저하(低下)되며, 지표류(地表面) 출량(出量)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서 토양(土壤)의 침식(浸蝕)이 일어나며, 가장 중요한 표층토(表層土)가 차례로 유실(流失)된다.

이러한 토양환경(土壤環境)의 악화(惡化)는 삼림(森林)을 한 두번 벌채했다 하여 반드시 일어나는 것도 아니며, 일시적으로 악화(惡化)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기가 지나면 회복되기도 한다. 그러나 단기간 동안 벌채를 반복하거나 벌채한 뒤 그대로 벌거숭이로 내버려 둔다거나 방목(放牧)으로 이용하여 식생(植生)이 회복되는 것을 계속 방해한다면 토양(土壤)의 악화(惡化)는 더욱 발전하여 소위 벌거숭이 산(山)이 되어 버린다.

우리의 주변에서 헐벗은 산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경우, 계속되는 벌채와 낙엽(落葉)의 채취(採取)로 말미암아 삼림(森林)이 황폐화(荒廢化)하고 토양(土壤)의 악화(惡化)로 인하여 식생회복(植生回復)이 어려운 상태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삼림(森林)의 파괴(破壞)는 진행된다.

3. 인간활동(人間活動)과 삼림파괴(森林破壞)

인류(人類)의 역사에서 삼림파괴(森林破壞)의 시작은 인간(人間)이 농경(農耕)과 목축(牧畜)의 기술(技術)을 습득하였을 때부터라고 생각된다. 인간(人間)은 농경(農耕)과 목축(牧畜)의 기술(技術)을 습득하여 스스로의 손으로 식량(食糧)을 생산(生産)하게 되었는데, 식량(食糧) 생산(生産)을 위한 토지(土地)를 얻기 위하여 삼림(森林)을 계속 파괴하였다. 삼림(森林) 파괴의 역사적 유물로서 중근동(中近東)이나 지중해연안(地中海沿岸)의 헐벗은 산(山)들을 볼 수 있다. 고대문명(古代文明)의 발상지였던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 등지도 과거에는 풍부한 삼림(森林)으로 덮여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문명(文明)이 발달함에 따라서 삼림(森林)은 마구 벌채되고 파괴되어 현재는 넓은 면적(面積)의 지역이 부모지(不毛地)로 남아 있다.

문명(文明)이 발달하고 인구집중(人口集中)이 심했던 유럽지역에 있어서도 18세기까지는 자연림(自然林)의 벌채나 산불농기 등으로 삼림파괴(森林破壞)가 크게 진행되어 벌거숭이가 된 토지(土地)에서의 토양침식(土壤浸蝕)이 심했었다. 이때 삼림(森林) 보호(保護)에 눈을 뜨고, 삼림(森林) 내의 방목(放牧)이나 산불농기의 금지(禁止), 삼림벌채(森林伐採)시에는 동일한 면적의 조림(造林)을 의무지우게 하는 등의 삼림보호대책(森林保護對策)이 강력히 추진되어 유럽의 삼림(森林)은 차차로 회복되어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된 것이다.

미국에 있어서도 200년(年) 전의 건국(建國)초부터 자연파괴(自然破壞)가 계속되었었는데 19세기 중엽부터 훌륭한 선각자(先覺者)가 나와서 이러한 자연파괴(自然破壞)에 대한 반성(反省)이 일어나고 「인간(人間)이 자연(自然)의 평형(平衡)을 무시하여 삼림벌채(森林伐採)를 계속할 때에는 푸른 국토(國土)는 벌거숭이의 황무지(荒蕪地)가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인간(人間)을 위한 자연자원(自然資源)의 보존(保存), 이용(利用)의 정책(政策)이 세워져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토(國土)에서 임야(林野)가 차지하는 면적(面積)은 다른 외국(外國)의 어떤 나라보다도 현저하게 커서 국토총면적(國土總面積)의 66.7%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중 상당한 부분이 헐벗은 산(山)으로서 삼림파괴(森林破壞)가 매우 심했다. 이것은 옛부터 건조물(建造物)이나 주택(住宅) 혹은 난방을 위한 연료(燃料) 등을 거의 목재(木材)에 의존하여 생활(生活)하여 왔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삼림(森林)을 마구 베고 벌채하였던 까닭에 우리의 산(山)들이 헐벗게 된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산간지방(山間地方)에서의 화전방식(火田方式)에 의한 농경양식(農耕樣式)이 삼림파괴(森林破壞)의 또 하나의 요인이었다.

화전(火田)은 원시적인 농경방법(農耕方法)의 하나로 산(山)이나 들에 불을 지르고 그 자리를 파 일구어서 만든 밭을 말하는데 삼림(森林)이 오랜동안 저장하여 온 풍부한 지력(地力)을 밭농사에 이용하고, 수년이 지나 지력(地力)이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다시 삼림(森林)을 불태워서 농사짓는 방법(方法)이다. 삼림(森林)을 불태워 버리는 일은 인간(人間)이 삼림(森林)을 없애는 가장 손쉬운 방법(方法)으로서 삼림(森林)에 서식하고 있는 동물(動物)마저도 없애 버리는 수단이기도 하다. 현재에는 이와 같은 화전(火田)에 의한 농경양식(農耕樣式)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삼림파괴(森林破壞)는 어느 정도 지양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몰지각한 행락객(行樂客)이나 등산객(登山客)들의 부주의(不注意)로 말미암아 산(山)불이 가끔 일어나서 우리의 귀중한 자연자원(自然資源)인 삼림(森林)을 불태워 버리는 안타까운 일을 가끔 본다.

그리고 자연보호(自然保護)의 소리가 높고 온 국민이 내 강산 내 국토를 푸르게 가꾸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재에도 서울 교외(郊外)나 그 외 도시(都市)의 주변에 조그만 남은 수림지(樹林地)도 아무런 주저없이 벌채되고, 그곳에 택지(宅地)가 조성되며 공장(工場)이 들어서는 것을 간혹 볼 때, 그 숲들이 그 만큼이나 자라기 위해서는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렸을텐데 하고 애석하게 생각되는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다.

사회(社會)가 발전하고 문명(文明)이 발달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건물(建物)이나 산업용(産業用)으로 또는 연료(燃料) 등으로 목재(木材)의 사용량(使用量)도 크게 늘어날 것은 분명한 일이겠으나, 개발(開發)이나 목재이용(木材利用)을 위해서 삼림(森林)을 벌채하기 만 할 것이 아니라 능률(能率)있게 목재(木材)를 생산(生産)하고 활용(活用)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合理的)인 삼림관리(森林管理)의 대책(對策)이 절실히 요망된다.

4. 생존(生存)을 위한 자연보호(自然保護)

우리 나라에서도 지난해, 1978년 10월 5일에 국제자연보존연맹(國際自然保存聯盟)(IUCN)의 세계자연헌장(世界自然憲章) 선포(宣布)와 때를 같이 하여 자연보호헌장(自然保護憲章)이 선포되었다. 헌장전문(憲章前文)에서 밝히고 있듯이 인간(人間)은 자연(自然)에서 태어나 자연(自然)의 혜택(惠澤) 속에서 살고 자연(自然)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흔히 자연보호(自然保護)라 한다면 진귀(珍貴)한 생물(生物) 종류(種類)나 희귀(稀貴)한 생물(生物) 종류(種類)의 자생지(自生地) 또는 아름다운 자연(自然) 경관(景觀)을 보존(保存)하여야겠다는 생각이 그 기본(基本)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인간(人間)도 자연(自然) 속의 한 생물(生物)이며, 자연(自然)이 파괴되었을 때는 인간(人間)도 파괴된 자연(自然) 속에서 생존(生存)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자연보호(自然保護)가 주장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현재 자연보호(自然保護)라고 말할 때 두 가지 개념이 이에 포함되어 있다. 그 한 가지는 프레저베이션(보존(保存): Preservation) 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서, 자연(自然)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전혀 사람의 손을 대지 않도록 하고, 문화유산(文化遺産)으로서 그대로 보존(保存)하며, 인적미달(人迹未踏)의 자연(自然)에서의 과학적(科學的) 연구(研究)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방법(方法)으로는 엄격한 보존(保存)을 위한 관리(管理)가 필요하여 너무 넓은 지역(地域)에는 이의 적용이 어렵다. 다른 하나는 컨서베이션(보호(保護) 또는 보존(保存): Conservation)이란 개념으로서, 자연(自然)의 조화(調和)를 유지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그 중에서 산업(産業)이나 수자원확보(水資源確保) 혹은 레크리에이션 등의 공익적(公益的)인 효용(効用)을 포함하여 자연자원(自然資源)을 현명하게 이용하면서 유지 보존하자는 생각이다. 이 개념의 입장에서는 자연(自然)의 유지를 위해서 인위적(人爲的)인 작용(作用)은 필연적으로 작용되며, 건전(健全)한 자연(自然)의 관리(管理)와 이용(利用)이 이루어져서 광역적(廣域的)으로 자연(自然)이 유지되고 보존(保存)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각기 중요한 의의(意義)를 갖고 있어서 함께 조화를 이루어 실제 자연보호(自然保護)의 방향(方向)으로 적용될 것이 바람직하지만 넓은 지역(地域)에 대한, 자연보호(自然保護)의 정책(政策)으로 생각할 때는 컨서베이션의 입장(立場)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10여년 사이에 지속적인 경제성장(經濟成長)이 이루어지고 모든 분야(分野)에서 개발(開發)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서 삼림(森林)과 하천(河川) 및 연해(沿海) 등 자연환경(自然環境)이 크게 훼손되어 가고 있다. 이제 국가발전(國家發展)을 이룩하면서 우리 자신의 생활(生活)을 건강(健康)하게 유지하며, 우리의 생존(生存)을 훌륭히 지키기 위해서는 자연(自然)의 훼손을 막고 환경(環境)을 오염(汚染)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연보호운동(自然保護運動)을 강력히 그리고 범국민적으로 전개하여 우리의 자연(自然)을 보존(保存)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립공원(國立公園)의 특별보호구역(特別保護區域)이나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혹은 연습림(演習林) 등의 보존(保存)을 위한 프레저베이션적(的)인 자연보호(自然保護)도 어

는 정도 필요한 방법(方法)이었으나 이와 함께 자연(自然)을 유효하게 이용하고 우리의 삶을 보다 윤택하고 품위있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컨서베이션적인 자연보호(自然保護)의 방법(方法)을 넓게 펴나가야 될 줄로 생각한다.

우리 스스로의 생존(生存)을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자연보호헌장(自然保護憲章)의 실천지침(實踐指針)을 준수하면서 우리의 환경(環境), 우리의 자연(自然)을 지켜야 하겠다. 환경파괴(環境破壞)와 자연(自然)훼손이 가져오는 중대한 파국을 미리 예방하여야 하겠다는 인식(認識)을 깊이 하고 개발(開發)과 환경(環境), 보존(保存)을 조화시키고 우리의 생명(生命)과 우리 국토(國土)의 자연보존(自然保存)을 강력히 지키는 일이야말로 가장 으뜸되는 나라 사랑의 길이 될 것이다.

◎ 통신보안이란?

통신과정에서 가치 있는 정보가 적이나 인가되지 않은 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수단과 방법 및 여기에서 얻은 결과의 안전보호

◎ 스피ن(Spin)

“스핀”(맴돌며 내려가기)은 연애와 흡사하다.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어가고, 빠져나오기가 아주 어렵다. 이 말은 현대 항공 역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석학인 「폰·카르만」이 어느 부인에게 스피ن 해설을 할 때 한 말이라고 한다.

스핀은 비행기의 이상 운동 가운데서도 가장 무서운 것의 하나이며, 일단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용이하지 않다. 줄렬하게 설계된 비행기, 미숙한 조종사는 스피인에 빠지면 때로 공중 분해를 일으키거나 탈출 불능으로 목숨을 잃는 수가 있다.

다만, 오늘날의 파일럿은 미리 그 훈련을 받게 되고 침착하게 조종하면 대개 무사히 탈출할 수 있다는 점이 연애와는 조금 다르다

특집(特輯)

총화전진(總和前進)

전통문화개발(傳統文化開發)과

주분성확립(主體性確立)



우리는 전통문화(傳統文化)속에 주체의식(主體意識)을 찾아 현실(現實)에 창조적으로 구현(具現)해야 하며 역사(歷史)의 흐름 속에 자기(自己)의 존재(存在)를 재 발견해야 할 것이다.

〈KBS전문위원(專門委員)〉

최 광 석(崔光石)

1. 국민총화(國民總和)의 바탕



우리 민족(民族)은 예로부터 인간(人間)의 존경성(尊敬性)을 귀중히 여기고 경애(敬愛)와 신의(信義)를 바탕으로 상부상조하는 협동(協同)의 기풍(氣風)을 일깨워 왔고, 평화(平和)와 질서(秩序)를 사랑하며 예의(禮儀)와 겸양(謙讓)을 미덕(美德)으로 삼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는 가정(家庭), 가정(家庭)보다는 사회(社會)나 국가(國家)·민족(民族)을 위해 봉사하고 공헌하는 생활을 가장 보람있고 가치있는 생활로 여겨왔다.

이러한 가치관(價值觀)과 생활신조(生活信條)는 과거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는 사회계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계층간에는 대립(對立)이나 부조화(不調和)보다 협동(協同)하고 조화(調和)를 이루는 사회기풍을 진작시켜 국민총화(國民總和)를 바탕으로 애국(愛國) 애족(愛族)하며, 호국(護國)하는 전통을 낳았다.

그리고 인간(人間)의 기본적인 자유(自由)와 자연(自然)의 섭리(攝理)를 존중하여 혈연의 결합체인 가정(家庭)을 중히 여겨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생활(家庭生活)을 기본으로 생활문화(生活文化)와 윤리(倫理), 도덕(道德)이 발전되었고, 그것은 그대로 조국애(祖國愛)와 민족애(民族愛)로 승화(昇華)되어 호국정신(護國精神)으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전통(傳統)속에는 중국(中國)이나 일본(日本) 기타 동양적(東洋的)인 유교문화권(儒敎文化圈)에 속하는 어떤 나라나 민족(民族)과도 다른 우리 고유의 특색이 깃들어 있다.

이와 같은 특색이 곧 전통문화(傳統文化)에 나타났고 민족(民族)이라는 큰 나무의 뿌리가 되어 우리 민족(民族)의 발전을 뒷받침해 왔다.

반만년(半萬年)의 우리 민족사(民族史)는 수많은 외적(外敵)의 침략을 받았으나 이를 물리치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도 그 뿌리가 튼튼하였기 때문이다.

비록 국력(國力)이 부실(不實)하였고 민족적(民族的) 단결력이 약해서 일본(日本)의 침략을 받아 36년간(年間)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나라없는 최악의 국난을 겪기도 하였지만, 우리 민족(民族)의 얼과 자주정신(自主精神)은 살아있어 줄기찬 독립(獨立) 운동(運動)을 전개하여 조국 광복(祖國光復)을 자랑스럽게 맞이할 수 있었고, 오늘날 내외의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나라가 1세기(世紀) 이상 걸려 완수할 수 있었던 근대화작업(近代化作業)을 우리는 불과 20년(年) 내외(內外)에 이룩할 수 있게 된 것도 조상대대(祖上代代)로 물려받은 슬기와 의지가 있었음으로 가능하였다.

우리 겨레가 수난과 시련에 처하여서 이를 의연히 극복하고 오히려 이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던 것도 모두우리 민족(民族)의 정신적(精神的) 뿌리가 깊고 튼튼하기 때문이다.

「선조(先祖)들의 꺾일 줄 모르는 자주정신(自主精神)과 강인한 생명력(生命力)이야 말로 우리 민족(民族)의 위대한 저력(底力)이며, 특히 국토분단(國土分斷)의 시련을 겪고 있는 오늘의 우리 세대(世代)가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올바로 계승하고 실천해 나아가야 할 귀중한 정신유산(精神遺産)이라고 확신한다.」(박정희(朴正熙) 대통령각하(大統領閣下)의 개천절(開天節) 제(第)4308주년(周年) 경축사(慶祝辭)중에서)

국민총화(國民總和)는 바로 이와 같은 정신유산(精神遺産)을 소중히 여기는 국민(國民) 각자(各自)의 마음가짐을 기본으로 하여 올바른 국가관(國家觀)과 투철한 민족사관(民族史觀) 위에서 이루어진다.

유구한 민족사(民族史)의 흐름 속에 서있는 자기자신의 좌표(座標)를 확인하고, 영원한 생명력(生命力)을 지닌 민족(民族)의 한 성원(成員)으로서 맡겨진 역사적(歷史的) 사명(使命)을 훌륭히 수행하겠다는 자각과 노력은 온 국민을 하나로 굳게 뭉치게 하는 원동력(原動力)이 된다.

2. 전통문화(傳統文化)와 민족주체의식(民族主體意識)

우리의 전통문화(傳統文化)는 우리 선조(先祖)들이 유구한 역사과정에 이룩한 정신문화(精神文化)와 물질문명(物質文明)을 모두 포괄한다.

그러나 전통문화(傳統文化)라고 하면 흔히 민족문화(民族文化) 중에 우리 민족(民族)의 전통(傳統)과 미풍양속(美風良俗)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문화유산(文化遺産)이라는 뜻으로 풀이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선조(先祖)들이 걸어 온 발자취를 잘 알 수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염원하면서 살아왔는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문화재(文化財)를 값진 문화유산(文化遺産)으로 인정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가 전통문화(傳統文化)를 귀중히 여기는 것은 과거를 아는데 그치자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오늘을 관조(觀照)하고 내일의 길을 더욱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민족사(民族史)를 발전의 방향(方向)으로 이끌어 가자는데 목적(目的)이 있는 것이지 복고주의적(復古主義的) 취향(趣向)을 충족시키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시 말해서 전통문화(傳統文化) 속에 숨어 있는 우리 민족(民族)의 맥박(脈搏)을 찾아 영원(永遠)한 생명(生命)을 이어가자는 것이며, 민족웅비(民族雄飛)를 이룩해서 우리 당대(當代)뿐 아니라 후손만대까지 안정(安定)과 번영(繁榮)을 누리게 하자는데 우리의 목적(目的)이 있다.

인류사회(人類社會)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은 인간(人間)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인간(人間)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땅에서 솟은 존재도 아닌 핏줄을 이어 받은 혈연적인 존재이다.

요즘 시험소(試驗所) 아기가 태어난 시대(時代)이기는 하지만 그 아기도 혈관(血管)이 있고 그 속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인간(人間)인 이상 자라서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찾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전통문화(傳統文化) 속에서 선조(先祖)들의 뜻을 찾아내고 무엇을 염원했는가를 알아내어 그것을 오늘에 구현하려고 한다.

세계(世界)에는 많은 나라, 많은 민족(民族)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생긴 모습대로 우리에게 맞는 삶을 개척해나가려 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도약과 웅비로 세계사(世界史)에 공헌하려고도 한다.

그렇게 하자면 전통문화(傳統文化) 속에서 민족(民族) 주체의식(主體意識)을 찾아내고 그것을 현실(現實)에 창조적으로 구현해야 할 것이다.

주체의식(主體意識)이라고 하면 스스로 주인(主人)이 되어 자기의 생존(生存)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신자세로서, 일반적으로 자주(自主)·자조(自助)·자립(自立)·자위(自衛)·자결(自決) 등 「오자정신(五自精神)」을 그 주(主)된 내용(內容)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민족주체의식(民族主體意識)은우리 민족(民族)이 그와 같은 주체성(主體性)을 견지하는 것을 말하며, 3·1독립정신을 그 표상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

그것은 다른 민족(民族)의 예속으로부터 조국광복(祖國光復)의 영광을 되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3·1운동은 바로 자주독립정신(自主獨立精神)의 발로였고, 침략자(侵略者)의 총칼에 맨주먹으로 대결하여 민족(民族)의 생존(生存)과 긍지를 지키려 했다는 점에서 3·1운동은 또한 자존(自尊)·자위(自衛) 정신(精神)의 구현이었으며,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역량(力量)으로 새로운 역사(歷史)를 개척하려 했다는 점(點)에서 3·1운동은 그대로 자조(自助)·자립정신(自立精神)의 발현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날의 역사를 통해 한 국가(國家)나 민족(民族)이 자주정신(自主精神)과 주체성(主體性)을 잃었을 때 그 생활(生活)이 어떠하며, 그 운명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세종대왕(世宗大王) 때 이룩된 빛나는 업적들은 모두 민족주체성(民族主體性)이 가져다 준 열매였고, 구한말(舊韓末) 청국(淸國), 일본(日本), 러시아 등 주변 강대세력(強大勢力)의 각축장이 되고 급기야 식민지(植民地) 노예(奴隸)의 한(恨)을 되집게 된 근본 원인은 당시(當時) 지도층의 주체성(主體性)을 잃는 우유부단한 태도에 있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민족주체성(民族主體性)을 드높인다고 해서 남의 것을 무조건 배척하고 자기 것만 옳다고 우겨대는 것과는 인연이 없다.

남의 좋은 것을 본받고 받아들이되 자기의 것으로 소화(消化)하여 수용(受容)하는 주인(主人)다운 태도를 말하는 것이지 배타성(排他性)이 주체성(主體性)의 표현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例)를 들면 서구식(西歐式)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좋은 점(點)은 받아들이되 서구사회(西歐社會)의 전통(傳統)과 역사(歷史)에 부합되나 우리 배경(背景)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은 지양(止揚)하고 우리나라 실정(實情)에 맞는 민주주의(民主主義)를 정립(定立)하자는 것이 10월(月) 유신(維新)이요, 그 결과 구축된 것이 바로 유신체제(維新體制)이다.

우리 유신체제(維新體制)를 비방하던 외국인(外國人)들도 한국(韓國)에 와서 휴전선(休戰線)을 돌아보고 눈부신 건설(建設) 모습을 목격하고는 자기들의 경솔함을 깨달은 경우가 많았다.

주체성(主體性)은 자주성(自主性)을 놓고 자주성(自主性)은 민족(民族)과 역사(歷史) 안에 책임을 느끼고 주인(主人)이 되기를 원하며 방관자(傍觀者)가 되는 것을 싫어하게 된다.

주체성(主體性)은 정신자세(精神姿勢)를 말하나, 그것이 행동화(行動化)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염불(空念佛)에 지나지 않으며 개인(個人)이나 민족(民族)의 발전을 가져올 수는 없다.

우리는 전통문화(傳統文化) 속에 민족(民族)의 주체성(主體性)을 찾아 선조(先祖)들이 못다 한 일을 우리가 기어이 하고야 말겠다는 기백으로 오늘을 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개개인(個個人)에 따라 행복감(幸福感)을 느끼고 삶의 보람을 느끼는 소재(素材)와 내용(內容)은 다르며 똑같은 수는 없다.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시공간(時空間)을 떠난 자기(自己) 도취에 빠진다면 환상(幻想)의 세계(世界)에서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 격(格)이 되고 만다.

우리는 분단(分斷)된 조국(祖國)의 숨막히는 긴장 속에 자칫하면 자기 존재(存在)를 부정(否定)당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다.

이로부터의 도피(逃避)는 방관(傍觀)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세대(世代)이다.

우리는 전통문화(傳統文化) 속에서 역사(歷史)의 흐름을 찾고 그 흐름 속에서 자기를 재발견해야 한다.

3. 북괴(北傀)의 민족문화(民族文化) 말살정책(抹殺政策)과 그 저의(底意)

「민족소멸설(民族消滅說)」을 주장하는 공산주의(共產主義)를 가장 교조적(教條的)으로 신봉하고 있는 북괴(北傀)도 민족(民族)의 전통(傳統)과 문화(文化)를 입으로는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고 떠벌이고 있으나, 이는 이를 말살하기 위한 그들의 집요한 책동을 가리우려는 꾀변에 지나지 않는다.

민족(民族)의 이익과 장래보다도 국제공산주의운동(國際共產主義運動)의 이익을 앞세워야 한다고 공산국가(共產國家)들끼리 싸우는 최근의 인지사태(印支事態)를 눈 앞에서 보면서도 아직 고창(高唱)하고 있는 북괴(北傀)가 민족(民族)을 들먹이는 것은 순전히 선전효과를 겨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우리 민족(民族) 고유의 전통문화(傳統文化)가 유물사관(唯物史觀)의 계급투쟁론(階級鬭爭論), 즉 인류역사(人類歷史)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사회발전은 계급투쟁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을뿐 아니라, 김일성(金日成)의 「고서」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북한(北韓)의 「사회주의문화(社會主義文化)」가 보잘것없다는 것을 입증(立證)하는 기준이 됨으로써 우상화(偶像化) 책동을 방해하며, 북한동포(北韓同胞)의 민족의식(民族意識)을 일깨워 주는 자료가 된다는 이유로 이를 파괴·말살·변질케 하여 왔다.

북한(北韓) 도처에 있었던 사찰(寺刹)과 암자(庵子), 사적지(史蹟地)와 역사적(歷史的) 유물(遺物)들이 파괴되었거나 구조를 변경하여 타목적(他目的)에 이용되고 있고, 많은 고전문학(古典文學)과 민속예술(民俗藝術)이 「계급성」을 모호한다는 구실밑에 버림을 받았으며, 민족사(民族史)까지 난폭하게 왜곡 날조되어 마치 김일성가계사(金日成家系史)처럼 되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 평양(平壤)에서 공연(公演)된 「안중근(安重根)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을 쏘다」라는 제목의 「혁명연극(革命演劇)」에서는 김일성(金日成)과 출생전(出生前)의 사건(事件)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도(領導)」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目的)을 달성할 수 없었다고 망언(妄言)하는 상태에까지 이르고 있다.

더우기 민족문화(民族文化) 속에 깃들여 있는 정신전통(精神傳統)을 올바르게 계승케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북괴(北傀)는 김일성(金日成)이 8.15전(前)의 공비(共匪)행각 과정에 형성되었다는 「혁명전통(革命傳統)」을 내세우고, 북한(北韓) 청소년(靑少年)들에게 민족주체주의(民族主體意識)를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마르크스·레닌주의(主義)의 정확한 적용」으로 이룩되었다는 김일성(金日成)의 「주체사상(主體思想)」을 갖도록 강요하고 집요한 세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듯 북괴(北傀)가 우리 민족(民族)의 전통문화(傳統文化)와 정신유산(精神遺産)을 말살하기 위해 광란적으로 서둘러왔고 현재도 계속하고 있는 저의(底意)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그 첫째는 민족(民族)을 이질화(異質化)해서 동족(同族)간에 총(銃)부리를 겨누는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을 재연시켜 무력적화망상(武力赤化妄想)을 실현하자는데 있다.

채통문화(債統文化)를 바탕으로 민족(民族)의 동질성(同質性)이 유지되면 같은 겨레끼리 서로 죽이며 죽는 전쟁(戰爭)으로 북한동포(北韓同胞)들을 내몰 수 없고 내몰아도 북괴(北傀)가 바라는 전과(戰果)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민족의식(民族意識)을 송두리째 뽑아 버리자는 것이다.

둘째 저의(底意)는 김일성우상화(金日成偶像化)의 효과를 높여 족벌독재체제(族閥獨裁體制)를 세습화(世襲化)하여 새형(型)의 봉건군주제도(封建君主制度)를 부활(復活)케 하자는 것이다.

김일성(金日成)은 이미 수백 억원의 공사비와 6년(年)이란 세월을 소비하여 평양(平壤)의 모단봉(牡丹峯)과 대성산(大聖山)에 이르는 130만평의 옛 고구려궁(高句麗宮) 터에 「주석관(主席館)」이라는 이름의 궁전(宮殿)을 이미 77년(年) 4월(月)에 준공하여 거기에 살고 있고, 자기 가족묘지(家族墓地)를 「릉(陵)」으로 부르게 하는 등 벌써 「임금」 행세를 하고 있다.

그 판도를 남한(南韓)에까지 넓혀 현대판(現代版) 김씨왕조(金氏王朝)를 꿈꾸고 있는 20세기(世紀)의 「돈키호테」이다.

세째 저의(底意)는 대남폭력혁명(對南暴力革命) 선동을 위한 간접침략(間接侵略)의 효과(效果)를 노리고 있다.

우리 국민총화(國民總和)의 바탕이 되는 정신전통(精神傳統)을 약화(弱化)시키고 김일성(金日成)의 매국매족사상(賣國賣族思想)이 발붙일 틈을 만들어 내부와해(內部瓦解)의 기폭제(起爆劑)를 투입케 하자는 것이다.

4. 우리의 대비책(對備策)

박대통령각하(朴大統領閣下)께서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최상의 안보(安保)는 북괴(北傀)가 또다시 전쟁(戰爭)을 도발하지 못하게 사전에 방지하는데 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또 열장난을 일으키면 초전격멸로 민족적(民族的)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고 평화(平和)회복을 최단시일 내에 이룩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력배양(國力培養)이 가속화(加速化)되어야 하고 능력이 극대화되어야 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몰살됨 없는 국민총화(國民總和)이다.

굳건한 국민총화(國民總和)는 행정적인 지시나 강조에 의해 이룩되는 것이 아니며, 국민(國民) 각자(各自)가 「나」와 「국가」는 하나이며 운명공동체(運命共同體) 의식(意識)을 가짐으로써 완벽을 기할 수 있다.

민족(民族)은 영원(永遠)한 것이며, 이 영원(永遠)한 민족(民族)의 생명(生命)은 오직 국가(國家)를 통해서만 성장(成長) 발전(發展)한다는 신념(信念) 밑에 개인(個人)의 유한적(有限的)인 생명(生命)을 무한적(無限的)인 민족사(民族史)의 흐름 속에 용해(溶解)시키겠다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자세는 우리 조상(祖上)들의 숨결과 체취(體臭)가 숨어있는 문화재(文化財) 하나 하나를 더함없이 귀중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을 낳게 된다.

과거(過去)를 되돌아보면서 오늘을 슬기롭게 살며 미래(未來)에의 꿈을 가꾸어 나가는 역사(歷史)의식(意識)이 일상생활(日常生活)에서 구현(具現)되도록 하자.

우리 민족(民族)의 정신적(精神的) 근간(根幹)을 이루는 것은 바로 충효사상(忠孝思想)이며, 이는 조국수호(祖國守護)를 위한 전력(戰力)의 바탕임을 알아야 되겠다.



충효사상(忠孝思想)과 정신전력(精神戰力)

우리 민족(民族)의 정신적(精神的) 근간(根幹)을 이루는 것은 바로 충효사상(忠孝思想)이며, 이는 조국수호(祖國守護)를 위한 전력(戰力)의 바탕임을 알아야 되겠다.

〈이대 시청각교육연구원장〉
김 은 우(金恩雨)



충효사상은 알기 어려운 사상이 아닙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뿌리를 중하게 여기며 나라와 민족 사랑하기를 자기 몸 같이 하며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얼을 내 몸 속에 살리며 부모 공경하기를 극진히 하겠다는 마음먹기가 곧 충효사상을 갖는 것입니다. 얼마전 필자는 「진자리 마른자리」라는 책이름으로 특히 한창

성장기에 있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위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길」과 「효도의 신비와 그 비밀」 그리고 「충효의 도란 무엇인가」를 아주 소탈하고 알기쉽게 그리고 솔직하게 써낸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충효사상뿐만이 아니라 충효사상이 사람의 근본도 되고 또 사람의 정신력과 생활력, 창작력 그 밖에 나라를 위한 전력(戰力)도 된다는 것을 여러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것을 바탕으로 요약해볼까 합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종교보다도 앞서서 조상을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란 깊고 높은 일종의 민족신앙처럼 된 것 같습니다. 마치 자식된 사람으로서 효도를 다하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어길 수 없는 지상명령(至上命令)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만일 이런 하늘의 지상명령을 지키지 않는 불효자식이 있다면 그는 단지 그의 부모에게만 불효하는 자식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하늘에 대한 반역자라는 낙인이 찍혔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불효자식은 한 가정만을 파괴할 뿐만이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이웃의 인간 관계도 파괴하는 자가 되고 또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와 국가의 인간질서도 파괴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를 다하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의 사람 됨됨이의 바탕을 굳게 만드는 일이며 다음으로는 이웃과 사회에서 믿을 수 있는 인간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 되며 더 나아가서는 나라의 일꾼으로 충(忠)도 다할 수 있는 자질과 자격을 갖추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자격을 구비하지 못했다면 이는 곧 짐승과 같은 못된 인간이나 금수(禽獸)만큼도 못한 것으로 취급되어져서 집 안에서 내쫓기는 버림받은 자식이 될 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무뢰한(無賴漢)이 되는 것이고 나라에서는 충(忠)은 고사하고 하늘과 땅의 천리를 거스르는 죄인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 된다는 무서운 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오늘같이 알파한 물질문명과 자기중심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나치게 엄격한 충효사상이라고 비평할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이야말로 온 세상이 과학문명 속에서도 막다른 골목에 몰려갈 바를 모르고 서로 혈투고 자기 자신마저 잃어가는 비정(非情)의 각박한 세상에서는 사람의 정신 깊은 속에 어떤 정신적 기둥이 필요하게 되었읍니다.

마치 이리떼가 몰려 다니며 서로 물어 뜯고 먹고 사는 황폐한 황야와 같은 물인정한 문명사회에서는 뭔가 새로운 신앙의 어떤 방향과 길이 열리기를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래 충효사상을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게 된 이유도 이런데서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서양서도 자기 뿌리를 찾자는 운동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그 깊은 배경은 이런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알렉스·헤일리」라는 흑인 문학자가 쓴 <뿌리>라는 소설이 텔레비전의 연속드라마로 나와서 세계적인 인기를 끌어 우리나라에서까지 절대적인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이런 유행바람을 타고 바람처럼 일어난 자기의 뿌리 연구에다 관심을 쏟게 되었다고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뿌리라는 글자가 의미하듯이 땅 속 깊은 곳에 나무의 신비스런 생명의 근원이 숨겨져 있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인간의 깊은 생명의 뿌리가 부모의 삶과 피와 뼈와 신경, 그리고 정신과 말과 생각과 느낌과 감정의 희로애락을 통해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맥맥히 우리들 자신의 몸 속에 피와 살과 뼈와 느낌 속에 쉬지 않고 흘러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이 부모의 분신(分身)이고 내 부모가 또 그들의 부모의 분신이며 또 그 부모의 분신이 되어 한없이 생명의 핏줄은 죽지 않고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어떤 철학이나, 과학이나, 학문이나 진리 이전의 보다 진실된 거짓없는 확실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라는 사상은 평범한 보통사상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종교보다도 주의(主義)보다도 앞서는 생명의 근원적인 진리입니다.

여기에는 학식과 이론보다 앞서 피의 진리, 살의 진실, 뼈의 참됨, 느낌의 아름다움이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따지기 전에 몸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계산 이전에 어떤 절대적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 역사가 반만년이나 되었다고 하지만 이런 생명의 진리와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우리나라 변명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도 많은 외부의 적이 침범하고 그렇게도 무수한 민족적 수난을 겪으면서도 단일 민족으로 자기 민족과 나라의 일을 빼앗기지 않고 같은말, 같은 전통, 같은 풍속, 같은 민족적 정열과 느낌을 그래도 이만큼 갖게 된 것은 그 어느 민족보다, 또 어느 나라보다 우리 민족과 나라가 그래도 마음 속 깊이 효도라는 민족 생명의 뿌리 사상이 강하게 작용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양문명을 선진국의 것이 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과학적인 문화와 문명의 발달을 높게 평가해 왔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무력적으로나 부자 나라이고 강대한 나라라고 해서 얼마 동안은 그들의 문명 문화를 부러워하고 따라 배우려고 노력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너무 떠밀리고 모방하였기 때문에 은연 중에 그들은 무엇이나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나라 사람들의 일부는 사대주의 사상에 빠졌다는 비평도 들어 왔을 것입니다.

확실히 서양 문명이나 문화 속에 진취적이고 강력한 정신적 바탕이 되는 뭔가가 그들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급진적으로 용감하게 발달시켰을 것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바로 그 절대 명령자가 하나님이었습니니다.

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신(神)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의 정신 속에 기둥이 될 절대 명령과 같은 신앙의 대상은 곧 조상이고 부모이고 그들에게 효를 다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서양은 그래서 효가 없고 인간은 아무 것도 아니며 신의 명령만이 절대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 신의 명령이란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과학이 발달할수록 애매한 존재가 되어 버려서 이제와는 신학자에 따라 그 학설과 주장이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은 죽었다고 주장하는 서양철학자도 생기고 신학자 중에도 신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 속에 있는 일종의 한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기도하고 또는 신은 하나의 자기가 마음 속으로 그려 놓은 환상이나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종교도 생겼습니다.

또 요새 서양 청년들은 설사 신이 있다손 치더라도 내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내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고 또 나와 직접 어떤 이해 관계가 결부되지 않다면 그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아니냐고 반발하는 측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요새 와서 서양 문명 사회에는 인간의 윤리나 도덕 사상이 뿌리째 뽑혀 버렸다는 비판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이 갈수록 부모와 가족과 효에 대한 혈족애의 사상과 감정이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추석 때나 정초나 정월 대보름 때 마치 민족 대이동이나 하는 듯이 정거장마다 인산인해를 점점 더 심하게 이루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름 아닌 것 입니다.

모두 넓은 의미의 효의 정신이 몸 속에 체질화되었기 때문이고 생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계급의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지식의 많고 적고가 없습니다.

가난하고 부자의 차이도 없습니다.

하늘에 머리를 향해 둔 사람이면 누구나가 절대 명령에 복종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심정과 같은 것 입니다.

이것이 아직도 든든하게 우리의 몸 속에 정신적 지주로서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뿌리 찾기 운동입니다.

우리 민족의 이런 정신적 움직임은 효라는 하나의 정신 속에 모든 것이 한 덩어리로 뭉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향의 그리움도, 옛 친구의 정을 찾는 것도 심지어는 과일의 맛과 음식의 맛과 떡맛, 술맛, 씨름, 차전놀이, 그네뛰기, 줄다리기, 윷놀이 등 서로 어울려서 일심동체감을 느끼는 웃음과 슬픔과 노래와 시 같은 것도 모두 이 효라는 정신과 움직임 속에서 한 덩어리가 되어 생명의 열이 되어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심층부를 이루고 있는 정신의 바탕은 효 하나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주장이 안 될 것입니다.

효 없이는 모든 것이 흔들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효를 분석하고 차분하게 해석 할 때 우리가 흔히 듣는 효의 전근대적 요소가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서양의 참다운 과학자들은 사람 속에 있는 이런 신비성, 부조이성, 비과학성이 얼마나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점점 더 확실하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동양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를 옛날같이 무시하지 못하고 이제는 아주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부러워하기까지 합니다.

특히 서양 사람들이나 사상가들이 놀라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급격한 발전상입니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민족이 누구도 따를 수 없게 빠르고 굳센 힘을 가지고 일어났으니 바로 그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 정신 속의 그 근본이 무엇이나고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근본이 새마을운동이고 새마을운동의 근본은 새마을운동이며 또 새마을운동의 근본은 충효사상이라는데 그들은 깜짝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새마을운동쯤은 이스라엘의 기브츠운동처럼 사회협동체운동으로 가능할 줄 알았는데 사실 요새 와서는 이스라엘의 기브츠 운동도 점점 한 귀퉁이가 무너지기 시작해서 이제 한국의 새마을운동도 그럴 때가 오려니 하고 막연히 비판론적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보니 날이 갈수록 한국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운동으로 높은 차원에서 승화되어 가고 이제 자기네들은 생각지도 못한 태고적 때 버렸던 효도 사상이 충효의 사상과 직결되었으니 이것이 어떻게 된 셈이나고 어리둥절할 지경에 있습니다.

바야흐로 한국의 효의 사상은 세계의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경제 문제와 노동 문제, 정치 문제도 모두 서로 뜻과 마음이 통해서 일심동체가 되어 가족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마치 한 가족처럼 일치 단결되어 뭉쳐있으니 노동 문제로 거덜이 나가는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이나 일본까지도 이제 한국인의 효의 정신을 연구하고 배워야겠다고 외치고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인류 학자인 컬럼비아 대학교의 교수 마가렛 미드 박사는 몇 해 전 직접 한국을 방문하고 잠시 연구해 본 결론으로 서양 세계 각국은 한국의 가족제도와 가족 속에 들어 있는 효도 정신과 일체감 정신을 닮고 따라야만 미래 세계에 적응해 나갈 수 있고 오늘의 물질 문명으로 타락되어 가는 위기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까지 외친 바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긍지를 갖고 자랑스런 민족 사상을 가진 효도 정신에 더욱 깊은 뜻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장거리 미사일 무기를 순수하게 우리 힘으로 만들어 가진 나라와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정밀과학과 거대한 조직을 가진 우수한 두뇌의 소유국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다고 평가되어 왔던 미사일 무기의 군수산업의 성공도 따지고 보면 그 속에는 민족 열의 절대 명령같은 넓은 의미의 효 사상의 힘이 각 과학자들 마음 속에서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나라 민족과 국민의 정신속에는 이상하게도 신(神)과 인간의 영혼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늘의 마음이 곧 우리 인간의 마음과 그대로 통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천심이고 천심이 민심이라는 말을 하늘이 내린 진리로 예나 지금이나 믿고 있는 까닭도 여기에 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의 민주주의보다도 훨씬 앞서서 민심의 권위와 가치가 종교적 신앙으로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먼저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 나라의 옛부터 내려오는 효도의 높은 진리와 교훈, 그리고 미담 이야기를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여야 한다는 가르침은 어떤 문화가 발달한 나라의 윤리 도덕의 교육적 교훈보다도 그 뿌리가 더 깊고 높은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효도의 이야기를 보면 결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만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천민들도 얼마든지 훌륭한 효도의 미담 주인공이 되어 있었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내려온 민족 전체의 일종의 종교적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들어 오는 많은 교훈 가운데서도 충효에 대한 교훈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우리 인간 각자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뿌리에 대해서 자랑스럽고 존경할만한 참된 정신을 찾아서 오늘의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 다 붙여넣는 것입니다.

이런 충효사상은 어디까지나 생명과 같이 진실된 것이어야 합니다. 무리하게 만들거나 강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식이나 남의 눈가림이나 거짓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자연 현상이나 자연 법칙같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마음 속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잠깐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반가운 마음과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술직이 말해서 효에는 순수한 인간상이 있을 뿐이지 동양이나 서양의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인종과 민족의 차이도 없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마음 속으로부터 순수하게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수학이나 어떤 학문을 배우는 것과도 같지 않습니다. 학문 이전에 생명과 직접 이어지는 느낌의 세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동서양의 다른 종교들도 그 경전 속에는 반드시 부모를 받들고 섬기는 일은 그 자손들이 이 세상에서 힘차게 오래 살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충효라는 사상은 사실 어려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마땅히 자기 생명을 외롭지 않게 굳은 신념을 가지고 살아나가게 되어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지켜야 할 길이고 도리인 것입니다.

민족웅비(民族雄飛)의 좌표(座標)



이제 우리는 10월유신을 바탕으로 한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착과 경제발전으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다지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으로 밝은 내일을 맞으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서 정 두(徐正斗)

1. 나의 조국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강산은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한반도로써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교차점에서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 왔지만 조상들의 끈질긴 저항으로 5천년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끊임없이 이어왔다.

동북아시아에서 명멸해 간 수많은 종족이나 민족들 가운데 오직 우리들 한민족만이 5천년 동안 이땅을 지키면서 고유의 민족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투철한 주체意識과 강한 민족정신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 속에 민족의 저력이 가장 찬란하게 발휘된 민족 중흥기가 있었다면 바로 신라가 3국을 통일하여 단일민족국가의 터전을 세웠던 무렵과, 문무가 함께 융성하여 국력이 내외로 뻗어나간 이조의 세종대왕 시절은 민족사에 손꼽힐만한 중흥기였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불행히도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열강들에 의한 국토가 분단되었고 민족의 정통성과 역사를 왜곡 날조한 김일성 괴뢰집단의 불법 무력남침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휴전 후 26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력적화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남침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다.

이러한 장구한 역사 속에 우리 민족은 온갖 시련과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 시점에 이르러 민족중흥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우리는 60년대초 국운의 전환점을 맞이하였고, 70년대의 전진과 발전을 바탕으로 민족중흥과 조국통일의 대과업을 완수하여 새 역사를 창조해야 할 중차대한 사명을 띠고 있다.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사명은 첫째, 지척에 있는 북한 공산집단의 끊임없는 침략위협으로부터 민족의 생존과 안전을 수호하고 민족사의 정통성을 계승 발전하는 것이며 둘째는, 우리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이룩한 도약의 발판 위에서 근대화 작업을 완수하여 풍요한 복지사회 건설하는 일이며 세째는, 우리의 상황과 문화와 전통에 맞는 민주사회를 이룩하고 분단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여 세계사의 진운에 기여하는 것이다.

2. 정치안정

정치는 나라의 기본이기 때문에 우선 정치가 바로 잡히고 안정되어야만 민족 중흥의 대과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다.

국가의 안정과 평화도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도 오직 정치의 안정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해방 후 우리의 민주정치가 걸어진 발자취를 돌이켜 보면 결코 순탄한 길만은 아니었다.

제1공화국에서는 이른바 대통령 책임제만 도입하면 금방 미국식 민주주의가 땅에 꽃필 것처럼 생각하였고, 제2공화국에서는 내각책임제만 채택하면 영국식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도 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본질과 정수를 체득하지 못한 채 이상적인 서구 민주체제의 외형만을 모방한 탓으로 심각한 정치불안과 만성적인 혼란만 초래되었던 것이다.

특히 민주당 정권 9개월 동안에는 국가 발전에 대한 거시적 안목은 물론 민생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네 차례의 개각이 불가피했던 것은 당시의 정치적 혼란상태를 잘 말해 주는 것이다.

이 땅에 참된 민주정치를 정착시킴에 있어 남의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기에는 우리의 현실과 문화전통이 서구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불행한 것은 남의 제도와 관습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좋은 전통과 미풍마저 상실하였던 일이다.

우리는 북한 공산집단의 부단한 침략 위협 아래 전시 또는 준전시 상태에서 살아왔으며 지금도 살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정치제도를 무분별하게 모방하는 경우 자칫하면 국가의 존립 자체마저 위태로운 것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는 60년대 초부터 근대화와 국가안보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치적 안정이 무엇보다 급선무임을 자각하게 되었으며 또 부분적으로 이를 이룩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적 상황과 현실에 맞는 민주제도를 새로이 마련한 것은 10월 유신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70년대초 한반도에 밀어닥친 국내외 정세의 격동은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결단을 촉구했던 것이다. 이른바 냉전구조가 흔들리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힘의 균형에 커다란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공을 방문하고 일본이 중공 및 소련과 활발한 접촉을 벌이면서 동북아시아는 열강의 각축장으로 바뀌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1971년에 이른바 「닉슨」 독트린에 따라 단행된 주한미군 1개사단의 철수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이 차지하던 공약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실로

민족의 존립과 국가의 안정마저 위협하는 전례없는 위협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국제 열강의 움직임에 편승한 북괴의 준동은 보다 직접적이고 급박한 위협을 던져 주었던 것이다.

북괴는 동서화해의 진전으로 강대국의 행동이 오히려 제약을 받게되는 것을 역이용하여 휴전선에 군사력을 집결시켜 무력 남침의 위협을 현저하게 증강시키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긴장지대로 부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주변 정세의 격동과 긴박한 안보의 위기에 직면하여 박대통령 각하께서는 우리가 전례 없는 비상사태에 처해 있음을 국민에게 알리는 한편 두 가지의 중요한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첫째는 남·북대화의 문을 연 것이다.

6·25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지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이 땅에 또 다시 전란의 참화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대화를 통해 남북간에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였던 것이다.

우리가 30년간의 기나긴 불신과 단절의 장벽을 넘어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대화를 시작한 것은 동족간의 전쟁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대변한 것이다.

둘째는 남북대화를 뒷받침하고 국력배양을 가속화하기 위한 국정 전반에 걸친 유신적 개혁의 단행이었다.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열쇠는 언제나 스스로의 국력뿐이라는 것을 세계사의 기록이 웅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10월유신은 우리가 우리 세대의 역사적 사명과 책임을 자각하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국력을 배양하려는 민족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그것은 격동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민족의 생존과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으로 생산과 번영의 기반을 넓히고 다져 평화통일의 대업을 이룩하고 이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는 우적의 자주적 결단인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역사적 상황과 전통 그리고 실정에 맞는 유신헌법을 국민투표에 붙여 92%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과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유신체제의 역사적 출범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10월유신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보다 발전을 위한 일대 개혁이며 쇄신인 것이다.

국력배양을 저해했던 모든 제도적 요인을 제거하고, 이를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것으로 개선하는 제도적 개혁이며, 사회 지도층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민족 의식과 정신자세를 새로이 가다듬는 조용한 정신혁명으로서 이 땅에 새로운 문화와 전통을 가꾸어 나가는 창조의 작업인 것이다.

유신체제는 우리 체질에 맞는 민주제도의 확립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생존권을 보호하면서 아울러 국가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다.

국가목표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광범위한 국민적 동의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즉 목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부질없는 상쟁과 분열을 막음으로써 정치의 안정을 이룩할 수 있으며 그 바탕 위에서 국민의 노력을 집중한다면 반드시 평화와 번영과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10월유신 이후 지난 7년간 우리는 온 국민이 총화단결하여 국내외의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제 유신 제2기에 접어들었다.

유신 제2기에는 우리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민족중흥과 평화통일을 위한 국력배양에 더욱 힘찬 전진을 계속해야 하겠다.

3. 경제발전

새마을 운동을 주도하신 박 대통령 각하께서는 1970년 4월 22일 한해대책을 위한 「전국지방장관회의」 유시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을을 우리 손으로 가꾸어나간다는 자조·자립정신을 불러 일으켜 땀흘려 일한다면 모든 마을이 머지 않아 잘살고 아담한 마을로 그 모습이 바뀌어지리라 확신한다. 이 운동은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고 하셨다.

새마을 운동은 전국 방방곡곡에 요원의 불길처럼 파급되어 농촌근대화는 물론 범국민적인 정신혁명으로 확산됨으로써 민족중흥의 역사적 과업을 성취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역사 속에 흐르는 전통적인 가치이기도한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으로 온 국민이 굳게 뭉쳐 증산과 소득증대에 박차를 가한지 불과 8여년만에 우리 농촌은 그 면모를 일신하였다.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농촌의 모습은 낮은 초가지붕이 군데군데 엉성하게 부락을 이루고 좁고 비틀어진 시골길에 초라한 마을의 모습이다.

목가적인 풍경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찌그러진 초가집에서 천년의 가난에 찌든 농부들의 한숨 쉬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전국 어디를 가나 눈에 띄는 것은 초가 대신 취락구조가 개선되고 경지가 잘 정리된 논과 밭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농부들의 모습과 웅만한 한해나 수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만큼 농촌의 환경은 많이도 변해 있다.

새마을운동은 잘살기운동이며 근대화의 행동철학으로서 조국근대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범국민적 일대 약진운동인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농촌에서부터 도시로, 공장과 군대로 급속히 파급되어 과거에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역경을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으로 능히 이겨낸 힘은 조국근대화와 통일을 위한 힘찬 전진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원동력을 왜 오랫동안 발휘하지 못했는가? 거기에는 어떤 계기와 자극이 필요했던 것이다.

60년대 우리가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맘껏 이룩한 건설의 성과가 우리 농민들에게는 커다란 자극이 되었고 오랜 침체에서 깨어나 눈을 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다.

우리가 경제개발 전략으로 당초 무리와 진통을 겪으면서 수출중심의 공업화를 택한 것은 천연자원이 빈약하고 국내 시장이 협소한 우리 나라의 경우 유일한 잠재력인 풍부한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그동안 온 국민이 맘껏 일한 보람으로 세 차례에 걸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끝냈고 지금은 4차 계획이 활발히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수출 총액은 제1차 계획이 시작되던 1962년에는 세계에서 겨우 72위 였으나 1966년에는 57위, 1970년에는 44위, 그리고, 1976년에는 28위로 계속 뛰어 올랐고, 1978년에는 백억달러의 수출을 앞당겨 달성함으로써 산유국을 제외하면 당당 17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개방사회의 장점과 정치안정의 바탕 위에 경제의 고도성장을 지속시켜 나감으로써, 이땅에 풍요한 고도 산업사회를 이룩하고자 피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모처럼 선진국 대열에 올라설 수 있는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주저앉는다면 우리에게 또다시 중흥의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경제는 아직 선진경제대국들에 비해 뒤떨어져 있으며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이 중요한 고비이다.

오늘날 많은 외국인들은 우리 경제를 가리켜 「한강의 기적」 이니 「한국인의 경이」 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우즈위크」 지에 「한국인이 진군해 오고 있다」 고 특집을 실었으며,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에서도 「한국은 한국특유의 경제기적을 이룩해 나가고 있다」 고 보도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발전은 결코 기적이 아니라 온국민이 자립의 의지를 갖고 부단히 땀 흘린 결과인 것이다.

1974년 석유파동과 뒤이어 세계적인 경기 후퇴는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지만 우리는 오히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했던 것이다.

이는 우리의 자유사회에서는 누구에게나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모든 국민이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기의 창의와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토의 모습도 경제개발과 발맞추어 나날이 달라지고 있다.

69년 7월 경인고속도로의 개통 이후 경부고속도로 등 총 1,225km의 민족동맥이 누비고 있으며 허허벌판이던 버려진 땅 위에 우렁찬 건설로 공업 단지가 세워져 나가고 있다.

울산에는 세계 굴지의 조선소를 비롯 석유화학공업 단지가, 포항에는 제철공장, 마산과 이

리에는 수출자유지역, 서울과 인천에는 6개 지역의 수출산업공단이 들어서고 구미와 창원에는 전자·기계 등 대규모의 공업단지가 건설되어 날로 달라지는 조국의 모습을 볼 때 무한한 긍지와 자신감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이제 중화학, 공업시대에 돌입하였으며 선진국으로서 풍요와 번영을 누릴 날도 머지 않았다.

4. 복지사회 건설

80년대 말이면, 우리는 고도산업사회를 이룩하여 국민소득이 8천불에 육박하여 누구나 풍요를 구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참다운 복지사회 건설을 위하여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하겠다.

복지정책이라면 흔히 서구 선진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일은 적게 하고 노후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정부가 각종 혜택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아직 유희 노동력이 많은 우리의 경우 이들을 생산의 역군으로 흡수하는 것이 바로 복지정책의 출발이며 복지 사회건설의 중심과제인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 파뎀어린 노력으로 우리 경제는 이미 새로운 도약의 발판 위에 서 있으며 조만간 모든 국민이 남부럽지 않게 풍족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경제의 성장과 안정은 때때로 서로 이율배반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으나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 안정 속의 성장을 이룩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면된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안정된 경제 질서 위에 꾸준한 성장이 바람직한 경제발전인 것이다.

이러한 안정 속의 성장을 위해서는 먼저 과학기술의 진흥과 기술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다.

그리하여 70년대에 추진한 중화학공업을 벗어나 새로운 지식과 과학기술이 요구되는 정보산업이 두뇌산업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과학기술을 도입하고 젊은 일꾼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부여하여 산학협동으로 기술인력 양성에 힘써야 하겠다.

그리고 저축을 통하여 생산과 건설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이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중화학공업발전이 막대한 재원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득이 늘었다 해서 허리띠를 풀고 낭비하지 말고 근검 절약으로 생산과 교육에 재투자하여 민족중흥의 초석을 다져나가야 하겠다.

자기의 능력에 따라 부지런히 일한데서 삶의 보람을 찾고 생산에 기여하는 창조적 활동에서 정당한 댓가를 받는 사회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참된 인간사회인 것이다.

특히 물질의 가치가 숭상되어 돈이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처럼 믿고 돈벌기 위해 인정도 의리도 외면하는 태도는 결코 인간다운 태도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자세는 정신세계의 빈곤을 낳게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을 저버리는 것으로 사회의 균형과 조화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조국근대화 작업과정에서 물질적 풍요를 이룩하는 반면 정신적인 빈곤을 낳아, 이것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신과 물질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경제개발에 못지 않게 정신문화 개발에도 노력해야 하겠다.

산업의 고도화와 도시화에 의해 경제적인 풍요 속에서 우리 주변에는 인간부재의 황량한 면도 없지 않다. 자녀와 떨어져 외롭게 공원과 거리를 방황하는 노인층이 있는가 하면 최근 유괴범이 죄 없는 어린이를 두 번이나 납치하여 그들의 부모로부터 막대한 돈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도 급속히 번져가는 핵가족 제도와 물질만능의 풍조가 낳은 우리 사회의 병폐인 것이다.

노인들이 여생을 평안하게 보내도록 보살피고 나라의 보배인 어린이들이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호하여야 하겠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며 어느 것이 정당하고 어느 것이 부당한가를 구별짓는 올바른 가치기준이 바로 서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도의와 양심이 지배하는 건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과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고도의 산업사회를 지향하면서도 정신문화의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인정이 넘치는 명랑한 복지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현실이 고독한 사회가 아닌 성실과 신뢰와 우애가 넘치는 사회, 고유의 미풍을 계승 발전시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참다운 복지사회를 건설하여야 하겠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충효를 바탕으로 한 새마음갖기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확실히 충효정신은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보배다.

충은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는 더 설명하지 않더라도 명백하다.

효는 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나가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근본이며 부모님의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해 드리는 것이 효도를 다하는 길이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공해는 우리의 자연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 살 수 없으며 자연이 파괴될 경우 세상은 사막과 같이 황폐되어 버리고 말 것이며 자연이 잘 보호될 때 인간은 자연 속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병들고 붕괴되어 가는 자연의 질서를 하루 빨리 바로잡아 울창한 숲에는 새들이 지저귀고 냇물에는 물고기가 헤엄치는 본래의 자연을 되찾기 위하여 범국민적으로 자연보호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우리의 자연을 내몸같이 아끼고 사랑할 때 국토는 아름다운 옛모습을 되찾게 되고 우리가 희구하는 참다운 복지사회도 이룩될 것이다.

5. 자주국방

자주국방이란 쉽게 말하면 「국가방위에 대한 조치를 자주적으로 하는 것」을 뜻한다. 즉 자국이 주체가 되어 자기의 나라를 감당하겠다는 의지와 정신으로 국방정책과 전략을 실천하여 자기의 능력으로 군사비를 부담하고 군수산업을 발전시키며 우방과 협력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가 당면한 자주국방에 대해서 박 대통령 각하께서는 「북괴가 외부 지원없이 단독으로 남침할 경우 우리도 단독으로 격퇴할 수 있는 국방력을 갖추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자기 나라를 자기 힘으로 지켜야 하겠다는 굳건한 결의와 능력을 갖고 있어야 생존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통같은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하여 한치의 땅도 적에게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자주국방에 대한 굳은 결의를 천명하였다.

이러한 각하의 확고한 결의는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적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분쇄할 수 있는 굳건한 자주국방태세를 다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실탄에서부터 전차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병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고 있으며, 우리의 과학기술로 유도탄까지 개발하여 발사시험에 성공함으로써 세계 7번째의 유도탄 개발국이 되었다.

현재 우리의 방위산업은 군이 보유해야 할 모든 기본무기를 포함한 고속정, 전차 등의 양산 단계를 넘었으며 총포, 탄약, 통신장비, 기동장비 등 23개 품목을 태국, 호주, 칠레, 이태리 등 13개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고도의 전투능력을 가진 최신에 전투기의 제작을 착수했다. 6. 25당시, 한 대의 전차도, 한 문의 대전차무기도 없어 거의 맨주먹으로 적과 싸워야 했던 것을 상기하면 참으로 놀라운 발전이 아닐 수 없다.

6. 우리의 좌표

우리는 민족사에 길이 빛날 옹비의 시대를 맞이 하여 민족중흥과 조국통일의 중차대한 사명을 띠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선명하고 우리의 사명 또한 뚜렷하다. 오직 중단없는 전진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유신이념을 바탕으로 총화단결하여 민족의 슬기를 모아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을 기필코 완수하여 민족중흥의 새역사를 창조하여야 하겠다.

아울러 이제 우리는 10월유신을 통한 한국적 민주주의 정착과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방위산업의 육성강화와 국민정신운동의 차원에서 서정쇄신과 새마을운동을 통한 충효사상의 고취, 사치·낭비·퇴폐풍조를 추방하고, 진정한 사회기풍 조성이 우리에게 부여된 좌표이다.

이러한 우리 민족사에 길이 빛날 웅비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총화 체제를 달성해야 한다.

이제 대망의 80년대를 바라보면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역사의 분수령에서 영도자를 중심으로 굳게 뭉쳐 전진하는 길만이 우리 민족의 갈길이다.

때문에 우리 군은 자주국방의 확고한 기틀 위에 부여된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민족사적 소명 앞에 서 있다.

군인은 모름지기 유비무환의 정신을 가다듬어 국가를 보위하는 충성스러운 자세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국가와 민족이 위난에 처해 있을 때 목숨을 걸고 싸우며 때로는 장렬하게 죽음을 택하는 것도 충성이지만 그러한 위기를 예상하고 평소에 이길 수 있도록 완전무결하게 준비하는 유비무환이야말로 진정한 충성이며 군인이 견지해야 할 자세인 것이다.

국방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영공수호의 사명감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을 완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서 말은 바 소임 완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조국과 민족 그리고 역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민족중흥의 길을 국민과 함께 가야 되며, 부딪치는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지혜가 요구된다.

이러한 역사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자.

군은 정치적, 사회적 안정과 경제발전의 초석이다. 완벽한 방위태세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정치의 안정도 경제의 발전도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국력이 단기간 내에 신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방위태세가 물샐틈없이 완벽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민족의 정통성을 수호할 사명을 띤 우리는 사명의 막중함을 깨달아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서 각자의 임무를 100% 완수하여 적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도발을 해오더라도 즉각 분쇄할 수 있는 필승의 제공태세를 확립하여야 하겠다.

우리는 기필코 민족중흥(民族中興)을 이룩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영도자(領導者)를 중심(中心)으로 굳게 뭉쳐 민족적(民族的) 대진군(大進軍)에 다같이 적극 참여하여야 하겠다.

중흥(中興)의 의지(意志)



우리는 기필코 민족중흥(民族中興)을 이룩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영도자(領導者)를 중심(中心)으로 굳게 뭉쳐 민족적 대진군(民族的 大進軍)에 다같이 적극 참여하여야 하겠다.

강 용 구(姜容求)

계절(季節)의 여왕(女王) 오월(五月)! 윤기담긴 파란 녹음(綠陰)이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한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더니 온 누리를 뒤덮던 향긋한 꽃내음도 없어지고 이제 그 화려하던 자태를 찾아 볼 길 없다.

조국영공수호(祖國領空守護)에 젊음을 불살랐던 고급(高級) 장교(將校)에게 산업시설견학 교육(産業施設見學教育)을 실시(實施)하게 된 근본취지(根本趣旨)는 조국근대화(祖國近代化)의 역사적(歷史的) 필연성(必然性)과 당위성(當爲性) 그리고 우리의 발전상(發展相)에 대(對)한 올바른 인식(認識)과 이를 가능(可能)케 한 위대(偉大)한 영도자(領導者)의 민족적(民族的) 지도이념(指導理念)을 체득(體得)하여 풍요한 80년대(年代)의 밝은 앞날을 향(向)하여 다 함께 그리고 힘차게 실천(實踐)해 나갈 스스로의 시대적(時代的) 사명감(使命感)과 결의(決意)를 굳게 다짐하는데 있다.

우리는 굴욕(屈辱)과 빈곤(貧困), 의타(依他)와 퇴영(退嬰)으로 얼룩진 긴 잠에서 깨어나 민족중흥(民族中興)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전환점(轉換點)에 섰지만 지난 반세기(半世紀)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오랜 방황(彷徨)이었으며, 좌절(挫折)과 실의(失意)에 찻던 날들이었다.

그러나 5.16혁명을 기점(起點)으로 박대통령각하(朴大統領閣下)의 민족중흥(民族中興)을 위한 위대(偉大)한 뜻과 강한 집념(執念)으로 불이 붙기 시작한 조국근대화(祖國近代化)의 과업(課業)은 온 민족(民族)이 강력(強力)히 추진한 결과 우리의 산하(山河)의 모습은 몰라보게 달라졌고 그 터전 위에서 잘 살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 땀 흘리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나라는 지난 61년부터 낡고 무기력한 사회(社會)에서 탈피하여 합리적(合理的)이고 과학적(科學的)인 바탕위에 유신과업(維新課業)을 수행(遂行)함으로써 고도성장(高度成長)의 산업사회(産業社會), 잘 사는 복지사회(福祉社會)를 건설(建設)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전기(轉機)는 1962년부터 시작한 경제개발 1, 2, 3차 5개년 계획을 줄기차게 추진하여 산업구조(産業構造)의 근대화(近代化), 수출분야(輸出分野)의 집중개발(集中開

發), 농어촌경제기반(農漁村經濟基盤)구축, 전력(電力)·교통(交通)·통신(通信) 등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확충(擴充)으로 각 분야의 경제발전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작년에는 125억 불의 수출고를 올렸다.

특히 1972년에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력의 조직화(組織化)와 능률의 극대화(極大化)를 위한 10월(月) 유신(維新)을 단행(斷行)함으로써 변화무쌍한 역사(歷史)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민족(民族)의 진로개척(進路開拓)에 뚜렷한 이정표(里程標)를 세워 놓았다.

이 10월(月) 유신(維新)은 우리에게 민족의식(民族意識)의 새로운 정립(定立)과 민족문화(民族文化)의 창조(創造) 등 잃어버린 정신적(精神的) 고향(故鄉)과 국적(國籍)을 되찾을 수 있는 분명한 철학을 갖게 되었고 산업화(產業化) 과정(過程)에서 나타나게 된 사회적(社會的) 부조리(不條理)와 부도덕(不道德)한 현상을 뿌리 뽑기 위해 시작한 서정쇄신작업(庶政刷新作業)이 단행되어 이제 사회(社會)는 안심하고 일하며, 노력(努力)의 대가(代價)를 받을 수 있는 사회(社會)가 되어 가고 있다.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 보면 대륙세력(大陸勢力)과 해양세력(海洋勢力)의 징검다리 역할을 면할 수 없었던 우리의 지정학적(地政學的) 위치(位置)는 한마디로 말해서 수난(受難)의 역사(歷史)와 이민족(異民族) 침략(侵略)의 역사(歷史)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득한 먼 옛날은 말할 것도 없이 서세동점(西勢東漸)의 기운이 서서히 일기 시작한 14세기말 근세 조선의 건국(建國)이 명(明)나라를 종주국(宗主國)으로 받드는데서부터 시작되었고, 섬나라 일본(日本)의 엉뚱한 대륙침략망상(大陸侵略妄想)에 의해 임진왜란 7년의 처참한 전화(戰禍)를 입어야만 했다.

대륙(大陸)에서 주인공(主人公)이 바뀌면 반드시 한반도에 영향이 미치는지라 청(淸)나라에 의한 정묘(丁卯), 병자호란(丙子胡亂)으로 삼전도(三田渡)의 굴욕을 당해야만 했다.

급기야는 신흥일본(新興日本)의 가혹한 침략이 문자 그대로 국치민국의 망국(亡國) 36년간의 비극(悲劇) 속에서 우리 민족(民族)의 생존권(生存權)이 박탈 당하기도 했다. 1945년 꿈 속에서 그리던 감격적인 8·15민족(民族) 해방(解放)도 우리의 뜻과는 달리 대국(大國)의 정치적 흥정에 의하여 국토분단과 민족분열의 비극을 안겨다 주었다. 일제 36년간의 식민지(植民地) 정책(政策)은 민족자본(民族資本)과 전통문화(傳統文化)를 말살하고 무지(無知)와 빈곤(貧困)과 동족상호간(同族相互間)의 불신(不信)만을 길러 주었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역사적 혼란 속에서 우리 민족(民族)이 방황할 때 1950년 천인공노(天人共怒)할 북괴 김일성 일당은 6·25남침을 감행하여 정신적(精神的)으로 물질적(物質的)으로 만신창담(滿身瘡痍)의 상처를 안겨 주었다. 일제로부터 물려 받은 빈약(貧弱)한 생산시설(生産施設)과 민족자본(民族資本) 조차 완전(完全)히 잿더미로 살아지고 아름다운 산하(山河)는 초토화(焦土化) 되었고, 수십만 전쟁 미망인, 전쟁고아가 거리를 방황해야 했으며,

1천만을 헤아리는 동포들이 하루 아침에 고향(故鄉)을 잃어버린 이산가족의 슬픈 주인공이 되어 버렸다.

거기다 서구사회(西歐社會)의 퇴폐적(頹廢的) 타락풍조(墮落風潮)는 민주주의(民主主義)라는 이름아래 무비판적(無批判的)으로 받아들여져서 우리 겨레가 간직해 온 고유(固有)의 미풍양속과 아름다운 마음씨는 거칠어져만 갔다. 자유(自由)와 평등(平等) 그리고 인권(人權)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의무(義務)보다는 방종(放縱)과 무질서(無秩序)가 보편적인 사회(社會)현상으로 나타났다.

정치가로서 위대(偉大)하였으나 국내 실정에 어두웠던 자유당정권(自由黨政權)은 날이 갈수록 정치(政治)의 부패를 가져와 민심을 잃음으로써 4.19학생 의거에 의해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권력(權力)을 이어 받은 민주당정권(民主黨政權)은 불과 8개월 미만의 집권기간(執政期間)에 데모로 날이 새고 데모로 해가 지는 무법천지(無法天地)의 혼란을 가져왔다.

북괴(北傀)의 정체(正體)를 모르는 학생(學生)들은 아무런 이념(理念)도 없이 단순(單純)한 민족감정(民族感情)으로 판문점(板門店)에서 북괴(北傀)와 대화를 나눌 것을 주장(主張)하고 나섰다. 이틈을 타서 북괴(北傀)의 간접(間接) 침략(侵略)이 시작되었고, 용공분자(容共分子)들의 지하(地下) 조직활동(組織活動)이 공공연히 성행하였다.

당시 국내 실정은 국가의 장래를 염려하는 뜻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문자 그대로 풍전등화(風前燈火)요, 누란(累卵)의 위기(危機)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5·16 이전(以前)의 역사적(歷史的) 배경(背景)과 우리나라의 처지를 대략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정치적(政治的) 불안정(不安定), 사회적(社會的) 혼란(混亂), 경제적빈곤(經濟的貧困), 군사적위협(軍事的威脅), 가치관(價值觀)의 혼선(混線) 등 견잡을 수 없는 시련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음을 누구나 다 기억(記憶)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조국(祖國)의 운명(運命)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박대통령각하(朴大統領閣下)께서 영도자(領導者)로 나타나셔서 애급의 광야를 방황하는 유대인들을 홍해(紅海)를 건너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한 「모세」와 같이 우리 민족(民族)이 지향해야 할 민족적(民族的) 이상(理想)과 민족(民族)이 걸어가야 할 방향(方向)을 선명히 제시하였으니 이것이 조국근대화작업(祖國近代化作業)의 추진(推進)이요, 총화안보(總和安保) 태세(態勢)의 확립(確立)이며, 새마을운동(運動)의 실천(實踐)이요, 10월(月) 유신(維新)의 영단(英斷)이며, 서정쇄신(庶政刷新)의 결행(決行)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정치안정(政治安定)을 통한 국론통일(國論統一)이며, 사회정화(社會淨化)를 통(通)한 도덕윤리(道德倫理)에 바탕을 둔 사회질서(社會秩序)의 회복(恢復)이고 민족주체 의식(民族主體意識)에 의한 한국적(韓國的) 민주주의(民主主義)의 토착화(土着化)이다.

그동안 자연법칙(自然法則)에 순종만 하여 온 영농위주(營農爲主)의 전통사회(傳統社會)를

벗어나지 못하고 바깥 세계의 급속한 발전을 외면(外面)한 채 항상 가난을 숙명처럼 여겨온 우리 민족에게 하면 된다는 의욕(意慾)과 용기(勇氣), 이상(理想)을 심어준 조국근대화(祖國近代化)의 해머소리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메아리치기 시작한 것이다. .

경제적으로 체통을 유지할 수 없으며 경제적 자립없는 가정이 화목하기 어렵고, 빈곤을 벗어나지 못한 사회(社會)에 도덕적(道德的)인 기강과 질서가 확립되기 어려운 것과 같이 한 국가 사회에 있어서도 경제적 자립없는 대내적인 질서 유지는 물론 대외적으로 참다운 독립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자립은 개인생활은 물론 복지사회 건설 또한 국가 주권 수호에 있어서도 국력이 근본(根本)이 되고 그 기초가 되는 것이다.

수천년 동안 태고(太古)의 정적 속에 잠들어 있던 우리나라에는 비로소 공업화(工業化)와 근대화(近代化)의 우렁찬 고동이 울려 퍼졌다.

에너지 공급원인 여러 개의 수력(水力), 화력(火力) 발전소가 도처에 건설되고 울산·여수 등 정유공장(精油工場)이 영농에 필요한 대규모(大規模)의 비료공장이 수없이 건설되어 자급자족은 물론 많은 양을 해외(海外)에 수출하고 있다. 230만평에 건설된 포항제철은 연간 650만톤(萬噸)의 조강(粗鋼)을 생산(生産)하고 있어 81년까지 시설을 더 확충(擴充)하여 850만톤(萬噸)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세계 6위권에 든다고 한다. 850만순(萬順) 생산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인가는 일본(日本)이 630만톤(萬噸)의 조강(粗鋼)능력을 갖고서 대동아(大東亞) 전쟁(戰爭)을 일으켰다고 하니 포항제철(浦項製鐵)의 규모는 가위 짐작하고 남을 것이다. 그리고 26만톤(萬噸)급 5척(隻)의 생산능력(生産能力)을 가진 현대조선소(現代造船所)가 우리의 순수한 기술진에 의해서 건조되고 있다. 대장간에서 원시적(原始的)인 기술(技術)에 의하여 농사도구(農事道具)를 만들어 내던 우리가 불과 20년 미만에 이렇게 급진적인 산업화를 가져왔다고 하는 사실은 실로 놀라운 기적이나 4세기 전에 철갑 거북선을 만들어 낸 조상들을 모신 후 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민족(民族)의 동맥(動脈)인 경부고속도로는 1968년 2월에 착공(着工), 1970년 7월까지 불과 2년 5개월이라는 단시일에 순수한 우리 자본(資本), 우리 기술진에 의하여 건설하고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를 시발점(始發點)으로 하여 대전(大田)에서 순천(順天)까지의 호남고속도로(湖南高速道路)와 강릉까지의 태백준령(太白山嶺)을 뚫고 달리는 영동고속도로(嶺東高速道路) 그리고 지난해 완공한 대구(大邱)에서 마산(馬山)까지의 구마(邱馬)고속도로에 이어 남해안(南海岸) 고속도로(高速道路), 동해안고속도로(東海岸高速道路)는 이제까지의 지역적 개념과 생활권을 바꾸었을 뿐 아니라 우리 나라의 아름다움을 관광할 수 있게 되었다.

경인공업지대, 울산공업단지, 마산수출자유지역, 창원기계공업단지, 구미공업단지, 금속수출 산업공업단지, 이리수출산업공업단지 등 전국 각지에는 계열별 산업 단지가 건설되어 수출한국 중화학공업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그뿐 아니라 울산에 어업전진기지항을 건설하여 몇 만톤급의 대형(大型) 어선단(漁船團)이 태극기(太極旗)를 휘날리며 사모아군도로, 북양으로, 저 멀리 태평양(太平洋) 끝까지 오대양(五大洋)을 누비며, 외화획득(外貨獲得)을 위해 일하고 있다. 그리하여 78년도의 5대양(大洋) 6대주(大洲)를 누비는 한국의 상품수출은 125억\$의 고지를 점했던 것이다.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곳마다 산은 울창한 숲으로 푸르르고 곳곳에 서있는 공장의 굴뚝마다 나라를 살찌게 하는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산간 벽지마다 현대식 건물로 세워진 농가는 그림으로 수놓은듯 아름다웠으며, 수천년 동안 내려오는 전통문화(傳統文化)의 유적들은 완전히 복원되어 관광 한국의 모습을 쇄신하고 많은 외국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선조들이 나라를 지키려는 호국정신을 기르기 위해 세웠던 많은 수련장들이 아담하게 단장되어 여기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통일의 의지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 3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화랑정신을 기른 통일전하며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이순신장군의 정신을 본받을 수 있는 현충사, 수많은 전적지를 복원한 것은 애국정신(愛國精神)을 배양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가는 곳마다 중흥(中興)의 의지(意志)가 넘치고 새로운 역사창조(歷史創造)의 우렁찬 함성이 산하(山河)를 뒤흔들고 있는 조국발전(祖國發展)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는 활기에 찬 국민들의 생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다.

옛말에 집안이 가난하면 어진 아내를 생각하고 나라가 어지러우면 어진 재상(宰相)을 생각한다고 한다.

희망찬 조국 근대화과정에서 복귀의 악랄한 도전으로 전쟁(戰爭)의 암운(暗雲)이 감도는 현 시점에 있어서 영도자(領導者)를 중심(中心)으로 기필코 이룩하겠다는 민족중흥의 의지(意志)를 굳게 하여 민족적(民族的) 대진군(大進軍)에 다같이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명장명언(名將名言)

군기(軍紀)

대부분의 인간(人間)은 전쟁(戰爭)터에서 공포(恐怖)를 느끼게 된다. 그러나 군기(軍紀)는 이 공포를 극복(克服)하는 용기(勇氣)를 제공한다. 병사(兵士)들에게 있어서 군기는 의무(義務)의 분별과 부대(部隊)에 대한 복종심(服從心)을 불러 일으킨다. 그러므로 군기(軍紀)는 완전해야 한다.

- 크라크 -

조국전선(祖国戰線)과 통혁당(統革黨)의 정체(正體)



북괴(北傀)는 대남적화통일의 수단으로 조국전선(祖國戰線)과 통혁당(統革黨)이라는 위장조직체와 지하당을 조직하여 호시탐탐 적화의 기회만을 엿보고 있는 것이다.

편 집 실

일(一). 조국전선(祖國戰線)의 결성과정(結成過程)

8·15 해방 후 김일성(金日成)은 소련군(軍)의 비호 아래 북한지역에 잠입하고 얼마 안가서 북괴정권을 수립하였다. 이것은 다시 말 할 나위도 없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스탈린의 소련군(軍) 점령지역정책(占領地域政策)을 충실히 실천한 결과의 하나였다. 그러나 북괴의 목표는 북한 지역의 공산화(共產化)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한지역까지 확충시키는 것이었다.

사실 북괴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미 대남 사기행각에 나서고 있었던 것이다. 즉 미(美)·소공동위원회가 소련의 방해공작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서 해결하고자 유엔에 제의했던 바 유엔에서는 선거가능한 지역에서의 총선거를 유엔 감시하에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당황한 북괴는 1948년 3월 25일 평양방송(平壤放送)을 통해 9개정당(九個政黨)·사회단체(社會團體)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정부수립을 저지하기 위한 남북제정당(南北諸政黨)·사회단체대표(社會團體代表)들의 연석회의를 4월 14일 평양(平壤)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당시 남한지역에 있던 좌익계 정당·사회단체들이 이에 적극 찬성한 것은 뻔한 일이었지만 총선거를 반대해온 김구(金九)·김규식(金奎植) 등 일부 우익계 인토(人士)들이 「모든 문제는 만나서 토의해 보면 될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갖고 회의 참석을 결심하였다. 연석회의는

예정보다 5일 후인 4월 19일 52개 정당·사회단체대표 69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김일성(金日成) 도당(徒黨)이 사전에 작성한 각본에 따라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남비방에 일관하였던 것이다.

크게 실망한 김구선생(金九先生)은 「조국이 없으면 민족이 없고 민족이 없으면 무슨 당(黨), 무슨 주의(主義), 무슨 단체(團體)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최대과업은 통일독립의 전취(戰取)인 것입니다」라는 말을 하고 이 회의에서 퇴장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러한 속임수에 실패한 북괴는 그들이 예정했던 대로 북한지역에서의 공산정권을 수립하는 동시에 정치 경제·군사적으로 강화하고 남한의 무력 적화를 기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소련으로부터의 지지와 원조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김일성(金日成) 일당(一黨)은 구걸행각을 위하여 모스크바를 방문했던 것이다.

구걸행각에서 돌아온 김일성(金日成) 도당(徒黨)은 남한적화통일전략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즉, 김일성(金日成) 도당(徒黨)은 소련으로부터 경제·군사적 원조를 받아가면서 북한지역을 소위 대남혁명기지로 강화하는 한편 「남로당(南勞黨)」을 앞장세워 남한지역에서의 무력투쟁을 적극화하여 대한민국정부를 약화시키고 주변정세가 그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때를 남한 무력적화통일의 결정적인 시기로 포착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대남기본전략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공산도당(共產徒黨)은 「혁명세력(革命勢力)」을 조직화하여 집결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조직화 구상은 1949년 4월 중순경부터 구체화되기에 이르렀다. 우선 남·북한지역에 각기 분산·조직되어 있는 통일전선인 소위 「남조선(南朝鮮) 민주주의민족전선(民主主義民族戰線)」과 「북조선(北朝鮮) 민주주의민족전선(民主主義民族戰線)」을 통합하는 일에 착수하였던 바, 남로당(南勞黨)을 비롯한 남한의 몇 개 좌익 정당에서 먼저 제의하는 형식을 취했다.

즉 1949년 5월 12일 남로당(南勞黨), 민주독립당(民主獨立黨), 조선인민공화당(朝鮮人民共和黨), 근로인민당(勤勞人民黨), 남조선청우당(南朝鮮靑友黨), 사회민주당(社會民主黨), 남조선민주여성동맹(南朝鮮民主女性同盟), 전평(全評) 등 공산주의정당(共產主義政黨), 사회단체(社會團體)의 공동명의로 소위 「북조선(北朝鮮) 및 남조선(南朝鮮) 제정당(諸政黨)·사회단체(社會團體) 여러분에게」라는 표제(標題)로 〈조국통일(祖國統一) 민주주의(民主主義) 전선(戰線)〉을 결성하자고 제의했다.

남로당(南勞黨)을 비롯한 남한의 8개 공산주의 정당·사회단체로부터의 「조국(祖國) 전선(戰線)」 결성에 관한 제의를 받은 「북조선민선(北朝鮮民線)」에서는 5월 16일 「민전(民戰) 중앙위원회(中央委員會)」를 열고 「조국전선(祖國戰線)」결성에 전적인 찬의를 표명하면서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한 결성준비위원회 조직과 준비위원회 제1차회의의 5월 25일 소집을 결의하였다. 아울러 그들은 「조국전선(祖國戰線)」결성준비위원회 위원으로 18개 정당·사회단체 대표 23명을 지명했던 것이다.

한편 남로당주도하(南勞黨主導下)의 「남조선민전(南朝鮮民戰)」에서도 5월 18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조국전선(祖國戰線)」결성준비 위원회 조직과 함께 제1차 준비위원회를 평양(平壤)에서 5월 25일 개최하자는 복괴측 안을 받아들여 결성준비위원회 위원 17명을 지명했다.

이와 같이 남·북의 각 「민전(民戰)」에서 지명된 「조국전선(祖國戰線)」결성준비위원회 위원은 31개 정당사회단체대표 40명이었던 바 남·북의 동수가 아니라 「북조선민전(北朝鮮民戰)」측이 우세한 6대 4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북로당(北勞黨)이 남로당(南勞黨)에 비하여 우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二). 조국전선결성(祖國戰線結成)과 위장평화공세(僞裝平和攻勢)

이러한 상황은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적 귀결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해방과 더불어 남한지역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던 공산주의자들은 남로당(南勞黨)을 조직했으나 1946년 10월에는 그 대부분이 도피 월북(越北)하였으며, 따라서 북로당(北勞黨)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수 없었으며, 특히 북괴 정권조작을 앞두고 평양(平壤)에다가 「남북노동연합중앙위원회(南北勞動聯合中央委員會)」를 구성했다는 것은 북로당(北勞黨)의 영향권에 남로당(南勞黨)이 흡수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김일성(金日成)은 북한 지역을 전 한반도 적화의 기지로 만든다는 소위 「민주기지노선(民主基地路線)」에 따라 1946년 2월에 이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라는 공산정권을 만들었다. 남로당(南勞黨)의 박헌영일파(朴憲永一派)는 그들 주도하(主導下)의 공산 정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일성일파(金日成一派)에 불만스러웠으나 도피, 월북(越北)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북로당(北勞黨)의 통제를 받지 않을 수 없었으며, 급기야는 북로당(北勞黨)에 흡수되는 운명을 겪어야만 하였다.

따라서 「조국전선(祖國戰線)」이 남로당(南勞黨)을 비롯한 남한의 공산주의 정당·사회단체가 여기에 참가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이것은 이미 도피, 월북(越北)한 것에 불과하며, 남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위장전술이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김일성도당(金日成徒黨)이 남로당(南勞黨)을 비롯한 공산주의 세력을 북로당(北勞黨)에 흡수하여 소위 「조선노동당(朝鮮勞動黨)」으로 개편, 강화하는 한편 이 노동당(勞動黨) 주도하(主導下)에 남·북한의 정당·사회단체가 통일전선을 형성한 것과 같이 위장하기 위하여 「조국전선(祖國戰線)」이라는 것을 결성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속셈 하에서 김일성일당(金日成一黨)이 조직적으로 추진해온 「祖國戰線(조국전선)」결성을 위한 제1차 준비위원회는 예정대로 1949년 5월 25일 평양(平壤)에서 개최되었던 것이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첫째, 결성준비 위원회의 지도부(指導部)와 서기부(書記部)의 구성, 둘째, 조국전선결성준비(祖國戰線結成準備)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6월 초 재개될 제2차 준비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지도부(指導部)에 위임, 셋째, 제1차 준비위원회에 대표를 파견하지 못한 정당·사회단체는 앞으로의 준비위원회에 대표를 보낼 수 있다는 것 등이었다.

제2차 준비위원회가 1949년 6월 7일에 개최되고 급기야 1949년 6월 25~28일 사이에 「조국전선(祖國戰線)」결성대회가 평양(平壤)에서 열렸던 것이다. 복괴는 「조국전선(祖國戰線)」에 참가한 정당·사회단체 수를 71개라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복괴가 이 조국전선(祖國戰線)결성에 참가했다고 하는 71개 정당·사회단체 가운데서 오늘날까지 간판만이라도 유지하고 있는 월북(越北) 정당·사회단체는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조국전선(祖國戰線)이 결성될 당시의 중앙위원회 구성만 보더라도 총 99명 가운데 남(南)·북노동당(北勞動黨)이 점한 수가 51명으로 반수가 넘고 나머지 48명이 69개 정당·사회단체에 배정되고 있었으나, 이것마저도 김일성도당(金日成徒黨)과 앞잡이였음은 재논의 여지가 없다.

복괴가 조국전선(祖國戰線)을 결성한 시기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속셈이 무엇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조국전선(祖國戰線)의 결성대회가 미군(美軍)이 남한에서 군사고문만 남겨 놓고 철수하겠다고 발표한 1949년 6월 8일 직후인 6월 25일부터 개최되었다는 것은 복괴가 어느 만큼 무력남침을 기도하고 미군(美軍)의 남한에서의 철수만을 노리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복괴의 속셈은 이 결성대회 때 채택한 강령에 더욱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이 강령은 북로당(北勞黨)의 강령을 그대로 본뜨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결성대회의 마지막 날인 1949년 6월 29일 장문(長文)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는데 이 선언문에서 그들은 소위 평화통일방안을 제기하고 남한에서 미군(美軍)과 유엔 감시위원단이 철수하고 남·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선거지도위원회(選舉指導委員會)」를 구성하여 1949년 9월에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자고 제의하여 위장평화 공세를 전개하였던 것이다.

1949년 7월 13일에는 조국전선(祖國戰線) 제2차 회의를 열고 소위 「평화통일선언서(平和統一宣言書)」에 대한 각 정당·사회단체의 사업과 조국전선(祖國戰線)에 참가하지 않는 남한의 정당·사회단체와의 사업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여기에서 조국전선(祖國戰線)에 가입하지 않은 정당·사회단체에 그들의 태도결정을 독촉하는 공개서한을 보내는 한편 그들 대표들과 만나고 연락을 취한다는 명목 하에 복괴는 일방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소위 공개서한의 내용이다. 이 내용은 공갈협박으로 일관된 것이다.

삼(三). 조국전선(祖國戰線)의 성격(性格)과 역할(役割)

복괴가 「조국전선(祖國戰線)」을 조작하여 위장평화공세를 전개한 것은 이른바 「구일공세(九日攻勢)」를 위한 것이었다. 당시 남한 지역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산발적으로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무장유격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러한 산발적인 「유격전투」를 조직적이며, 보다 대규모로 감행하기 위하여 유격대를 통합하여 소위 「인민유격대」를 편성하였다.

즉, 1949년 7월에 인민유격대를 각지구별로 삼개병단(三個兵團)으로 편성했던 바 오대산(五

臺山) 지구(地區)를 일병단(一兵團), 지리산(智異山) 지구(地區)를 이병단(二兵團), 태백산(太白山) 지구(地區)를 삼병단(三兵團)으로 하고 이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북에 있는 박헌영일파(朴憲永一派)가 담당하였다.

또한 이들에게는 위에 말한 바 있는 소위 조국전선(祖國戰線)의 「평화통일선언서(平和統一宣言書)」가 전달되는 한편 「투쟁지시」가 전달되었던 것이다. 「투쟁지시」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결정적 시기가 불원간 도래한다.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기 위하여 각 지방 당은 정권접수를 위한 준비를 하라. 또한 인민군이 진격하게 되므로 각도당(各道黨)은 해방지구를 1~2개 확보하라. 모든 당조직(黨組織)은 군사조직으로 개편하고 결정적 투쟁을 전개하라.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바치고, 집 있는 사람은 집을 바쳐서 무기를 준비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유격투쟁은 북괴로부터의 지원에 의하여 더욱 적극화되었던 것이다. 북괴의 강동정치학원(江東政治學院)에서는 유격대 양성에 주력했던 바 조국전선결성(祖國戰線結成)과 함께 선언문이 발표된 뒤 「구월공세(九月攻勢)」에 가세하기 위하여 수 100명씩 집단적으로 남파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북괴의 이러한 남한에서의 유격투쟁은 한국군경(韓國軍警)의 강력한 동계토무작전(冬季討伐作戰)에 의하여 치명적인 타격을 받음으로써 소위 「구월공세(九月攻勢)」는 수포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유격대 조직도 와해되어 갔던 것이다.

이와 같이 남한에서의 유격전 수행에 의한 공산화에 실패한 북괴는 무력에 의한 남침을 본격적으로 감행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 1950년 6월 7일 북괴는 조국전선(祖國戰線) 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남·북한 정당 및 사회단체 간의 남·북한통일 협상을 제의하 위장평화공세를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조국전선(祖國戰線)이 내놓은 호소문에는 다음과 같은 제안이 포함되고 있었던 바 첫째, 통합된 최고입법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8월 5일과 8일 사이에 남북한 전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할 것.

둘째, 이와 같이 선출된 최고입법기관은 해방 5주년기념일인 8월 15일 서울에서 소집할 것.

세째, 남·북한의 정당·사회단체 대표자협의회를 6월15일부터 17일까지 해주(海州)나 개성(開城)에서 열고 다음 사항을 토의·결정할 것.

- ①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제조건(諸條件)
- ② 최고입법기관의 총선거 실시 절차
- ③ 총선거 시행을 담당할 중앙지도위원회의 설치

네째, 남·북한 정당, 사회단체 협의회에 참가할 조건은 ① 이승만(李承晩), 이범석(李範奭), 김성수(金性洙), 신성모(申性模), 조병옥(趙炳玉), 채병덕(蔡秉德), 백성욱(白性郁), 윤치영(尹致暎), 신흥우(申興雨) 등은 참가 불허, ② 유엔한국위원단의 간섭 배제 등이었다.

이날부터 평양방송(平壤放送)에서는 이 결정서(決定書) 내용을 연달아 방송하고 북한 전지역에서 호소문을 지원하는 강제적인 군중집회를 열었던 것이다.

이러한 북괴의 움직임은 직접적으로는 한국의 5.30총선 결과를 백지화하겠다는 것이며, 간접적으로는 다가오는 남침을 은폐하겠다는 것이었다. 북괴의 남침 은폐 계획은 그 후 더욱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남침 음모를 감추려고 온갖 양동작전(陽動作戰)을 벌였던 북괴는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6월 25일 미명(未明)을 기하여 불법적으로 무력 남침을 감행했던 것이다.

무력적화통일에 실패한 북괴는 그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적화통일의 망상을 버리지 않고 기회있을 때마다 조국전선(祖國戰線)이라는 위장단체를 앞장세워 위장평화공세를 전개하고 있는 바 그 몇 가지 대표적인 예(例)만 보더라도 다음과 같다.

첫째, 1963년 12월 10일 북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국전선중앙위원회(祖國戰線中央委員會) 및 조국평화통일위원회(祖國平和統一委員會), 중앙위원회(中央委員會) 연석회의(連席會議)에서 한국의 민정이양(民政移讓)을 겨냥한 소위 평화통일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1973년 7월 24일 조국전선(祖國戰線) 중앙위원회 제5차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소위 「대민족회의」 소집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남북대화를 이용한 소위 <남조선혁명> 여건 조성에 그 속셈이 있는 것이었다.

세째, 1979년 1월 23일 조국전선(祖國戰線)중앙위원회 이름으로 「민족대회」 소집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1·19 박정희대통령각하(朴正熙大統領閣下)의 대북제의(對北提議)의 반응으로 제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역시 남한에서의 공산 혁명 여건 조성에 그 속셈이 있는 것이다.

요컨대 「조국전선(祖國戰線)」이란 북괴노동당의 지도 아래 북괴의 혁명노선과 무력적화통일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 지지하고 통일전선전략의 명목으로 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하나의 허수아비 협의체인 것이다. 또한 이 조국전선(祖國戰線)의 주요 역할의 하나는 북괴의 최고인민 회의의 대의원선거를 비롯하여 각종 선거를 행할 때 북괴노동당이 지명하는 입후보자들을 공동입후보자로 승인 추천하는 것이다.

사(四). 통일혁명당(統一革命黨)의 정체(正體)

다음으로 「통일혁명당(統一革命黨)(약칭(略稱); 통혁당(統革黨))」의 정체를 살펴 보기로 하자. 결론부터 말한다면 통혁당(統革黨)이란 북괴가 남북적화를 목표로 조작해 놓은 위장된 공산당인 것이다.

1960년대 중반기에 이르러 북괴는 소위 「남조선혁명(南朝鮮革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즉, 김일성(金日成)은 1965년 4월 14일 인도네시아의 「알리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한 연설을 한 바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그는 『조국의 통일과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해서는 북반부의 사회주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하며,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동시에 남조선에서 혁명을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뇌꺾어댔던 것이다.

그것을 계기로 북괴는 1965년 10월 10 일 노동당 창건 20주년 기념 보고, 1966년 10월 5일 북괴당대표자회의보고서, 1967년 12월 16일 북괴최고인민회의 4기 1차회의에서 김일성(金日成)의 소위 10대강령, 1968년 9월 9일 북괴정권창건 20주년기념보고 및 1970년 11월 북괴당 5차대회 보고 등에서 남한에서의 공산혁명문제를 제창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북괴주장 가운데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조국통일(祖國統一)」과 「남한혁명(南韓革命)」에서의 과업, 전략 및 전술 등이 근본적으로 상이하다는 주장이다. 이것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즉, 북괴는 남한에서의 공산혁명은 결국 남한 인민들의 혁명 역량의 성장과 그들의 결정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남한인민들의 혁명투쟁에서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는 태세와 준비를 북괴는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였던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남한에서의 공산혁명은 원칙적으로 남한의 혁명역량이 추진해야 하나 그렇다고 해서 북괴가 남한혁명을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기다린다고도 또한 옆에서 그를 방관만 한단다가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괴가 대남혁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소위 주력 등의 편성과 배치인 것이다. 이것은 공산주의 혁명이론에서 주력군 편성과 배치 문제를 전략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괴는 1966년 10월 북괴당대표자회의와 1970년 11월의 북괴당 5차대회에서 주력군편성 문제에 관하여 『혁명 역량을 준비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혁명의 참모부인 마르크스-레닌주의정당(主義政黨)을 꾸리고 그 주위에 사회의 기본 군중인 노동자 농민을 결속하여 강력한 혁명의 주력군을 편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즉, 북괴는 남한에서 공산당을 조직하고 그 당(黨) 주위에 노동자 농민을 결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해방 후 남한에서 조직된 공산당 세력이 6·25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완전히 파괴되고 오늘 날에 있어서는 그 자취조차 찾아 볼 수 없는 상황하에서 남한에서의 공산혁명은 남한 사람이 해야 한다는 북괴의 입장에서 보면 그 참모부(參謀部)로서 의 마르크스-레닌주의정당(主義政黨)의 조직은 무엇보다도 급선무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조작으로 생겨난 것이 다름 아닌 「통일혁명당(統一革命黨)」이다. 즉, 북괴는 1963년 9월경부터 고정간첩을 남파시켜 1965년 11월초 사이에 지하당(地下黨)으로 「통일혁명당(統一革命黨)」을 조직케 하고 소위 합법, 비합법, 폭력, 비폭력 등의 배합투쟁을 전개토록 하는 한편 1970년까지 결정적 시기를 조성하여 혁명을 일으켜 공산정권을 수립하도록 획책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북괴의 이러한 조작극은 한국의 반공태세 앞에 그 뿌리가 송두리째 뽑히고 말았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괴는 1969년부터 공공연하게 남한에 마르크스-레닌주의정당(主義政黨)인 「통일혁명당(統一革命黨)」이 조직되고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대내외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한국에 존재하지도 않은 통혁당(統革黨)에 관하여 북괴는 1969년 8월에 북괴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하여 통혁당(統革黨) 중앙위원회가 조직되고 동(同) 중앙위원회 명의로 통혁당(統革黨) 선언과 강령이 채택되었다고 발표하였다. 1970년 11월의 북괴당 5차 대회 보고에서도 통혁당(統革黨) 창당과정(創黨過程)에 대한 사기극을 벌이면서 대남혁명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떠벌여댔던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5차당대회(次黨大會)의 소위 「주석단(主席團)」의 일원으로 통혁당(統革黨)대표를 끼게 하는 한편 그로 하여금 연설까지 시켰던 일이다.

또한 지난 1978년 9월 9일에 있었던 북괴정권 창건 30주년 기념식상에도 통혁당(統革黨) 대표가 참가했다고 사기극을 벌이면서 박수갈채를 보냈던 것이다.

남북적십자회담이 시작되자 회담자문위원으로서, 그리고 남북정치 협상에는 통혁당(統革黨)도 남한의 정당대표의 하나로서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고 터무니 없는 주장까지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북괴는 1967년 3월 15일부터 소위 「남조선해방(南朝鮮解放) 민주민족연맹(民主民族聯盟) 방송(放送)」이라는 흑색방송(黑色放送)을 해왔는데 통혁당(統革黨)이 조직되었다고 발표한 후부터는 그 방송명칭을 「통일혁명당(統一革命黨)목소리 방송(放送)」으로 바꾸고 마치 남한의 지하조직의 대변선전기구처럼 위장 운영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특히 박정희(朴正熙) 대통령각하(大統領閣下)의 1·19 대북제의(對北提議)를 계기로 북괴가 조국전선(祖國戰線)의 명의로 반응을 나타내는가 하면 통혁당(統革黨)목소리 방송(放送)이라는 흑색(黑色) 방송(放送)을 통해서는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나섰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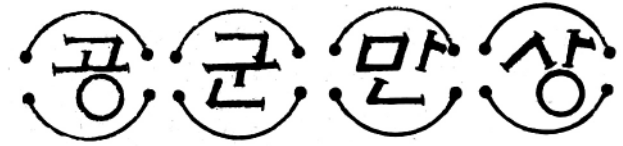
다시 말하면 북괴는 대내외선전용으로 조국전선(祖國戰線)을 앞장세워 「민족대회」라는 군중대회를 제안하여 마치 남북대회에 긍정적인양 위장하면서 이면으로는 흑색(黑色) 방송(放送)을 통하여 남북대화를 거부하는데 통혁당(統革黨)목소리 방송(放送)을 활용하고 있다. 일체의 대남비난 선전을 일방적으로 중지하겠단 지난 1월 31일자 북괴 중공통신(中共通信)의 성명은 2월 1일 이후 4일 하오 현재 흑색(黑色) 통혁당(統革黨)목소리 방송(放送)을 통한 대남비방이 종전보다 더욱 가열화되어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괴의 이와 같은 엇갈리는 태도는 그들의 위장평화공세의 사기극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1975년에는 통혁당(統革黨)의 해외조직의 하나로서 일본 동경에다 「통혁당(統革黨) 재일조선인(在日朝鮮人) 연대위원회(連帶委員會)」라는 것을 설치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북괴가 이와 같이 갖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혁당(統革黨)이라는 것을 조작하여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은 남한 지역 내에 북괴의 노동당과 같은 공산주의 정당이 조직되어 있으며, 그것이 활동하고 있는양 기정사실화 시키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할 나위가 없다.

오(五). 결어일(結語一)그들의 목적(目的)

이상에서 우리는 북괴의 조국전선(祖國戰線)과 통혁당(統革黨)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살펴 보았다. 다시 요약한다면 북괴와 조국전선(祖國戰線)이라는 것은 그들의 대남적화통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북괴 노동당의 지도 아래 조작된 하나의 위장조직체로서 공산주의, 혁명이론에 입각한 통일전선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일혁명당(統一革命黨)이라는 것은 북괴의 남한 혁명을 추진하기 위한 주력군 편성과 배치의 참모부로서 조작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남한 혁명은 남한사람이 수행해야 한다」는 북괴의 대남 혁명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것을 위장하기 위하여 남한에 간첩을 잠입시켜 마치 한 사람 스스로가 지하당(地下黨)을 조직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북한지역에 있는 조작된 조직체인 것이다.

북괴의 논리에서 보면 조국전선(祖國戰線)은 「조국통일(祖國統一)」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대하여 통혁당(統革黨)은 「남한 혁명을 목표로 하는 조직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호한 두 조직체는 김일성도당(金日成徒黨)이 대남무력적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만들어 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북한 지역에 존재하는 허수아비 단체인 것이다.



정 운 섭(鄭雲燮)

<통신보안>

- 병력보고: 우리 부대 장교 ○○명, 하사관 ○○○명, 병 ○○○명...
- 이봐! 음어자재로.....



<소비절약>

- 해수욕장이나 갈까?
- 무슨 소리! 모두들 소비절약하는데 집에서 가족과 함께...



공·군·만·상

<냉음료수 조심>

○ 덩다고 저렇게 마셔대면!



<하절기 근무철저>

○ R 중위 더운데 쉬면서 하지

○ 덩다고 맑은 일을 게을리 할 수 있나요. 끝내고 쉬지요.



변화(變化)하는 세계(世界)에서의 미국(美國)의 힘의 사용(使用)



다음은 카터대통령(大統領)이 1979년 2월 22일 미국무성(美國務省)에서 열린 전국(全國) 편집(編輯)·방송인(放送人)을 위한 외교정책회의(外交政策會議)에서 행한 연설(演說) 전문(全文)과 그들과의 가진 질의응답 내용이다.

편 집 실

의장(議長), 나는 이 자리에서 질문(質問)을 받기 전에 변화(變化)하고 있고, 또 때때로 소란한 이 세계(世界)에서 미국(美國)의 힘을 어떻게 사용(使用)할 것인가에 대한 나 자신의 생각을 일부 말하고자 합니다. 최근의 사건(事件)들, 특히 이란과 동남아(東南亞) 사태(事態)는 미국(美國)이 소란에 대처하고 또 불가피한 변화를 선도(善導)하는데 있어서 어떤 역할(役割)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論議)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마침 생일(生日)을 맞이 하고 있는 미국(美國) 초대(初大) 대통령(大統領) 조지 워싱턴이 재직(在職)하던 때부터 이같은 논의(論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특히 지난 2년간을 돌이켜 볼 때, 나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국제사태(國際事態)에 직면(直面)해 왔으며, 또 내가 보기에 복잡한 문제들을 지나치게 단순화(單純化)하지 않고 이해(理解)하려고 힘쓰고, 또 이같은 복잡한 문제들을 근본적이고도 솔직하게 다루는 정책(政策)과 결정(決定)을 책임(責任)있고도 현실적(現實的)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우리 미국민(美國民)의 용의(用意)에 의해 고무되고 있습니다.

물론, 강력(強力)한 군사력을 유지하거나 우리나라의 경제적(經濟的) 건전성(健全性)과 활력(活力)을 증진하거나 혹은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政治的), 도덕적(道德的) 역량(力量)을 다루고 또 높이려는 미국(美國)의 결의(決意)나 용의(用意)에는 전혀 변화(變化)가 없었습니다.

그같은 공약(公約)은 언제나 불변(不變) 부동(不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잡한 문제들을 매우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들에 대한 이성적(理性的)이고도 사려깊은 대응책(對應策)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2, 3주 동안에 그렇게도 뉴스 가치(價値)가 컸던 두 사건(事件), 즉 이란의 소란(騷亂)과 동남아(東南亞)에서의 전쟁(戰爭)은 그 어느 것도, 미국(美國)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태(事態)는 대통령(大統領)으로서의 나와 우리 능력(能力)에게 미국민(美國民)의 진정한 이익(利益)을 위해 미국(美國)의 입장(立場)을 분명히 하고 또 조치(措處)할 것을 크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같은 사건은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세계(世界)가 더욱 더 복잡해짐에 따라 우리가 해외사건(海外事件)들을 지나치게 단순화(單純化)하지 않는 것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줄렬한 분석(分析)은 궁극적으로 줄렬한 정책(政策)으로 이릅니다. 대신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작용(作用)하고 있는 뿌리 깊은 역사적(歷史的) 힘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정보(情報)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란 혁명(革命)은 이란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요인(要因)들이 모두 얹혀서 생긴 것입니다.

이같은 현실(現實)을 무시하거나 또는 그것을 이해(理解)하지 못하면, 우리는 효과적(效果的)이 못되거나, 관련성(關聯性)이 없거나 또는 위험(危險)스럽게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국(各國)의 복잡성을 이해하는데 더하여, 그러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변화(變化)가 바로 그 두 지역과 전세계(全世界) 그리고 특히 나의 책임(責任)인 미국(美國)에게 장차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유혹(誘惑), 즉 모든 변화(變化)를 불가피적으로 미국(美國) 이익(利益)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곧 우리에게 손실(損失)이 되거나 상대방에게 승리(勝利)가 되는 것으로서 보려는 유혹(誘惑), 또는 이란과 같은 나라에서 발생(發生)하는 일이 우리와 다른 지역(地域)들에게 큰 영향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려는 유혹(誘惑)에 저항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흑(黑)과 백(白)이라는 지나치게 단순(單純)한 각도에서가 아니라, 보다 세밀한 색조(色調)에서, 즉 단독(單獨) 사건(事件)으로서가 아니라 흔히 광범한 의의(意義)를 갖는 대조류(大潮流)의 일부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시점(現時點)에서 인도양(印度洋)의 한 쪽으로부터 다른 쪽에 이르는 각종의 국가들에서 소란이나 변화(變化)가 일고 있습니다. 인도차이나에서 보이는 것 같은 일부 소란은 상극(相剋)하는 세력들의 영향력(影響力) 경쟁(競爭)에 의해 부채질된 오랜 대립(對立)의 소산이다. 일부 다른 국가들에서는 현대화(現代化) 과정, 국가적(國家的) 중요성의 추구, 또는 정당한 인간적(人間的) 희망과 열망을 충족시키려는 욕구(欲求)에 의해 그 안정(安定)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美國)에 있는 우리들에게 변화(變化) 그 자체는 적(敵)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關心)은 이중(二重)입니다. 우리는 전쟁(戰爭)의 기세를 꺾고 평화(平和)를 유지해야 하며, 또 외부

(外部) 국가(國家)들에게, 자신들의 이기적(利己的) 이익(利益)을 위해 이러한 소란을 이용하려는 것이 위험(危險)하다는 점을 명백히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이용(利用)은 어떤 과도적(過渡的) 단계(段階)에 있게 된 국가들의 영토(領土) 보전(保全)과 독립(獨立)을 해롭게 할 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보다 안전(安全)하고 보다 평화적(平和的)인 세계를 건설하려는 노력(努力)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금주 조지아공과대학(工科大學)에서 한 말을 되풀이하고자 합니다. 중동(中東)에서, 동남아(東南亞)에서 그리고 세계 다른 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우방(友邦)들을 지원(支援)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약(公約)을 준수할 것이며, 또 미국(美國)의 중요한 이익(利益)을 보호(保護)할 것입니다. 미국(美國)은 계속해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세계(世界) 최강국(最強國)으로 될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힘을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가치(價値)와 이상(理想)을 위해서 유지하고 강화(強化)하기도 하려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해(利害)가 직접 관련되는 곳에서 혹은 평화(平和)를 위하여 타국(他國)들의 독자적(獨自的) 발전(發展)을 위하여 그리고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희망구현(希望具現)을 위한 조건(條件)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서 그 힘을 책임(責任)있게 사용할 것입니다.

주지(周知)하듯이 우리는 임전태세의 군대를 갖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필요성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나의 행정부(行政府) 기간에 우리 군대(軍隊)의 그 누구도 전투에서 생명(生命)을 바치지 않아도 되었던 사실을 나는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귀중한 평화(平和)를 유지하기 위해 나의 권한내(權限內)에서 모든 일을 다하려고 결심(決心)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意志)와 결의(決意)는 확고하며, 우리의 중요한 이익(利益)을 보호하려는 공약(公約)은 부동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이익(利益)이 어디에 있는가를 매우 명백(明白)히 해야 합니다.

이란에서 우리의 관심은 그 국민들이 독립(獨立)하고, 그들 자신의 설계(設計)에 따라 발전할 수 있고, 우리나라 또는 다른 어떤 국가(國家)에 의한 외부(外部) 간섭도 받지 않게 하는데 있습니다. 동남아(東南亞)에서 우리의 관심은 평화와 외부(外部) 세력(勢力)의 철수를 촉진하고 또 아시아 공산국가(共產國家)들간의 싸움에 말려들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의 관심은 미국(美國)에, 있는 우리의 것과 꼭 닮은 양상이 아니라, 관련 국민들의 희망(希望)과 필요(必要)와 욕구(欲求)에 맞게끔 개개(個個) 사회의 건전성과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들을 지향(指向)하여 우리는 중동(中東)과 동남아(東南亞)의 우방(友邦)들의 국가적(國家的) 안정과 독립(獨立)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지하면서 그들과의 협력(協力)을 넓힐 것입니다. 우리는 분쟁지역(紛爭地域), 중동(中東)에서 가장 효과적이 될 수 있는 곳에 사용되게 될 추가(追加) 군사원조(軍事援助)의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의회(議會)와 긴밀하게 협의(協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동맹국(同盟國)들에게 우리와 같이 협동(協同)해서 일

하면서 그들이 조력(助力)할 수 있거나 또는 조력(助力)할 때는 언제나 그렇게 해주도록 요청해 왔고, 또 앞으로 요청할 것 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그 인방(隣邦)간에서, 그리고 세계의 다른 분쟁지역(紛爭地域)에서 평화(平和)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미국(美國)에 대한 요구(要求)가 증가될 것 이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確信)합니다.

우리는 강력한 방위태세(防衛態勢)를 유지하고 우리에게 의존(依存)하는 전통적인 맹국(盟國)들을 지원(支援)하고 또 재래식(在來式) 및 핵무기(核武器)의 전파를 감소시키려고 노력하는데 대한 부담(負擔)을 계속 걸머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변화와 때때로 소란이 있는 불투명한 세계에 직면(直面)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보(安保)에 대한 직접적(直接的) 도전(挑戰)이 되지 않으나 미국(美國)의 영향력과 힘의 책임(責任)있는 사용을 아직도 요구하는 사건(事件)들에 대처(對處)하도록 더욱 많은 요청(要請)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곳에서 행동을 취할 수있는 힘과 의지를 갖고 있으며, 또 나는 한 국가로서 우리가 현명하게 조치할 지혜를 갖는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나의 책임(責任)이며, 여러분이 나와 같이 공유(共有)하는 책임(責任)인 것입니다.

× × ×

문: 대통령(大統領) 각하, 나는 신시내티에서 온 사람입니다. 나는 미국(美國)이 중동(中東)의 작은 산유국(產油國)들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이 시기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알고 싶 습니다.

답: 아시다시피 나는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집트 및 이스라엘 등 4개국(個國) 지도자(指導者)들을 만나 보도록 브라운 국방장관(國防長官)을 이 지역에 파견하였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은 오만의 고위 관리들이 이곳에 와서 밴스 장관(長官)과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바레인 토후국(土侯國)들 및 기타 소국(小國)들에게 우리는 이 지역의 기본적 안보가 어떠한 외부(外部)의 정치적 및 군사적 힘의 영향도 받지 않고, 보전되도록 우리의 국가적 영향력과 힘이 사용될 것임을 다짐해 왔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융화의 정신, 그리고 그들 자신의 독립은 그들 자신에 의해서, 또 우리에게 의해서 보전되어야 한다는 인식 속에서 이들을 단합시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얼마전 나의 간단한 성명 속에서도 언급했듯이 나는 현재 불안에 싸여 있는 이들 소국(小國)들을 위해 어느 정도로 우리의 군사원조노력(軍事援助努力)을 증가해야 이들이 그들 자신의 실력을 통해서 어떠한 부당한 국내적 내지 외부의 파괴활동에도 대처할 수 있는 자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브라운장관(長官)이 갖고 돌아온 보고(報告)에 입각해서 의회(議會)와 협의중(協議中)입니다. 이 지역의 몇몇 국가들은 주요한 안정(安定)을 위한 노력(努力)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몇몇 국가들은 주요한 안정(安定)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아랍세계(世界)의 강국(強國)이다. 이스라엘의 힘은 우리 자신의 안보(安保)의 일부입니다. 이란 또한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한 한 요소가 될 것으로 우리는 바라고 기원 합니다. 왕정시대(王政時代)와는 분명히 그 성격을 달리할 것이나 그러나 우리는 이란이 자주성(自主性)을 갖고 외부의 영향과 공격에 굴하지 않고 이 지역에 반석같은 안정을 유지할 결의를 갖기를 바라며, 또한 개개(個個) 국가(國家)들과 협력하고 그들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집단적으로 노력하며, 또 일부 주요 외부세력이 지나친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예방하는데 우리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면서 적절한 군사능력(軍事能力)을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분명히 이스라엘과 그 인국(隣國)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평화를 가져오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나는 만일 아랍 세계(世界)가 단결해서, 우리와,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함께 평화(平和) 추구(追求)를 위해 협력하면서, 종전처럼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적의(敵意)를 집중하던 일을 중지하고 모든 외부의 개입에 대적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매우 안정적(安定的)인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지역(地域)에서 나오는 석유(石油)의 자유로운 획득으로부터 커다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럽 맹우방(盟友邦)들과 일본(日本)은 훨씬 더 많이 의존(依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국가들에게 이 지역 내 개개국가들의 독립과 이란의 안정(安定)을 유지하려는 우리의 노력과 발맞추어 그들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권유 중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매우 드물기는 하나 직접적인 무상공여(無償供與), 혹은 다개국(多個國) 베이스의 보증차관(保證借款) 혹은 국제적(國際的) 차관기구(借款機構)를 통한 경제원조도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몇 가지 예(例)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여러가지 정도(程度)의 우선권 및 역점(力點)을 갖고 탐색하고 이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事項)들입니다.

문: 대통령(大統領) 각하, 중동사태(中東事態)의 많은 관측자들은 이집트 및 이스라엘이 지난 가을 당초에 구상했던대로 캠프 데이비드 합의사항(合意事項)에 서명하지 못하고 또 그 후 합의서명(合意署名)이 지연되어 온 것은 이스라엘 및 이집트에 대해서보다도 요르단, 사우디 아라비아에게 이 회담(會談)에 참가하거나 혹은 적어도 협상과정(協商過程)에 지지를 보이도록 미국(美國)이 압력(壓力)을 가하지 못했다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믿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 아주 솔직히 말해서, 나는 우리가 이 지역 전체의 국가들에게 캠프 데이비드 합의(合意)를 지지하거나 앞으로의 토의(討議)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영향력이나, 심지어 적절한 압력을 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바로 지난 주에도 이들 국가들에게 이 합의(合意)에 대한 무언(無言)의 지지나, 공개적 혹은 적극적 지지를 권유하기 위해 요르단과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표단(代表團)을 파견하였습니다. 나는 바로 그와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내 자신의 개인적 영향력도 최고로 이용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캠프 데이비드 협상(協商)에 대한 나 자신의 개입은 상당히 큰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나의 관심을 끈 단일 사건(案件) 중 이스라엘과 이집트간의 평화(平和) 성취만큼 많은 시간(時間)과 많은 노력(努力)과 많은 연구(研究)와 많은 기도를 바친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캠프 데이비드 합의(合意)가 무엇보다도 먼저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합의(合意)의 토대가 되고, 또 동일한 절차(節次)에 따라 이스라엘과 그 인국(隣國)에 관계된 종합적인 타결책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매우 확고하고 분별 있는 기초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말을 되풀이하지만, 적절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독립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우리는 이스라엘과 그 인국(隣國)들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해 왔고, 하고 있는 중이며, 또 앞으로도 할 작정입니다.

문: 대통령(大統領) 각하, 만일 소련이 베트남의 투쟁을 지원하기로 결정한다면, 미(美)·중국 교정상화(中國交正常化), 그리고 방위문제와 관련,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대만 문제(問題)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입니까?

답: 우리나라와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과의 국교정상화(國交正常化)는 기정사실입니다. 그것을 아시아 공산국(共產國)들간의 전투에 의해서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적 월경사건(越境事件)이 있을 때마다, 침공군(侵攻軍)의 철수를 가져오기 위하여, 또 그곳에서 전투(戰鬪)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베트남, 중국(中國) 및 소련을 상대로 우리가 행사 할 수 있는 모든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내가 바라는 바는 이 전투가 조속히 종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도 우리는 베트남에게 그들이 침공한 캄보디아로부터 그들의 군대를 철수시키고 또 중국(中國)에게도 그들의 군대를 베트남에서 철수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 문제의 분석과 토의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유엔에 상정시켰습니다.

그러나 나는 북경정부(北京政府)를 중국(中國)의 정부(政府)로 인정(認定)한 것은 이미 기정의 사실이고, 따라서 폐기되지도 않을 것이며, 그에 대한 어떠한 간섭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문: 대통령 각하, 일부 논설가(論說家) 및 해설자(解說者)들은 귀하의 대외정책(對外政策) 수행을 실패작(失敗作)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뚜렷한 방향(方向), 일정(一定)한 로선(路線)과 부재(不在)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서두에 언급한 분야 이외에, 그같은 인식(認識)을 낳게한 것으로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 자신이 그같은 문제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요?

답: 나는 그런 주장은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외국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국가(國家) 안보(安保)가 위기에 처해 있는 시기(時期)에 주체적으로는 전쟁시(戰爭時)에, 대통령이 강력한 행동을 취하면 거의 모든 경우에 국민(國民)들의 지지(支持)가 동원되게 마련입니다. 국방들이 우리국가의 안보가 도전(挑戰)받고 있다고 느낄 때는, 강력한 행

동을 취할 경우 대통령(大統領)에게 애국적(愛國的) 호응(呼應)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대통령(大統領)이 평화의 길을 하여,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시기에는, 절대적이고, 열광적이며, 헌신적인 지지를 동원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잔여임기(殘餘任期)에 위에 말한 것과 같은 일을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되돌아 생각해 봐도, 기본적 문제들에 있어서, 내가 해온 것과 다르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몇 가지 두드러진 도전(挑戰)에 부딪쳐 왔습니다.

나는 우리가 세계적인 면에서도 지도적(指導的) 국가(國家)로 부상(浮上)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후호관계를 크게 증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토의 저상(沮喪)된 사기(士氣) 및 상대적 약점(弱點)도 크게 개선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지역 우리 동맹(同盟)의 힘은 새로운 다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앤저스협정(協定)에 따른 몽주(蒙洲), 뉴질랜드와 우리의 관계는 매우 강력합니다. 우리는 이제 인도(印度), 일본(日本) 및 중국(中國) 동아시아의 지도적(指導的) 3대국(大國)들과, 소련보다 더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범위한 분쟁(紛爭)으로 발전할지도 모르는 국가(國家)들간의 분규를 해결하는 노력으로 우리 자신이 분별있는 처신을 해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중동(中東)에서의 나의 노력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키프로스에 평화를 가져오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로디지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즉 기존(既存)의 인종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흑인다수통치(黑人多數統治)의 민주정부(民主政府)를 그곳에 수립하려고 영국(英國)과 더불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나미비아에 다수파(多數派) 통치(統治)와 독립(獨立)을 가져오기 위해 기타 4개 주요 맹방(盟邦) 캐나다, 프랑스, 서독(西獨) 및 영국(英國)과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그리고 세계의 기타 지역에서 우리는 안정과 평화와 그리고 관계 당사국민들의 정당한 열망(熱望)이 구현(具現)되도록 하기 위해 건설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마다 우리의 영향력을 가(加)해 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위기(危機)가 없었다는 사실, 전쟁을 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평화 유지에 성공했다는 등의 사실은 하나의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군대를 소집하거나 혹은 타국(他國) 국민들에 대한 무력(武力) 공격에 참가하는 나의 용기의 입증(立證)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이며, 그리고 또한 나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문: 대통령(大統領) 각하, 브라운 장관(長官)은 최근 중동(中東)으로부터 돌아와서 이란에서의 팔레스타인들의 역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안와르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이 일부 신문들이 보도한 것처럼 미국무기(美國武器)의 대량 공급에 대한 답례로서 이 지역의 「경찰이 되는데」 관심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보도는 어느 정도 사실인지 그리고 또한 사다트 대통령(大統領)은 그 무기(武器)들을 이스라엘과의 전투(戰鬪)에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데, 그의 아랍측(側) 동포들이 그에게 이스라엘과 전투할 것을 요구할 경우 그가 그 무기(武器)를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답: 나는 사다트 대통령(大統領)이 최근 2,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평화의도(平和意圖)를 매우 적극(劇的)인 방법으로, 그리고 또한 시종일관 모순없이 증명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이스라엘 방문 여행이라든가 캠프 데이비드 협상(協商)에의 그의 성공적인 참가는 이스라엘과 평화적인 관계를 가지려는 그의 훌륭한 의도(意圖)의 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지(周知)된 사실이었지만, 이집트는 아랍 세계(世界)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강력한 요소입니다. 이집트의 인구(人口)는 매우 많으며, 그들의 군사력은 많은 기타 국가들에 비해 막강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집트가 합당한 안정 세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현재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수에즈 운하(運河)의 동쪽에 5개(個) 사단여(師團餘)의 병력(兵力)을 가지고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협정(協定)의 일부와 시나이 협정(協定)에 관해서 이미 체결된 협상항목(協商項目)의 일부는 이들 병력(兵力)의 철수를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중앙(中央)에서 기타 국가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여하한 정체(政體)도 이러한 이집트 병력(兵力)이 평화유지를 위해 사용되어 마땅할 것이라는 전망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집트가 비교적 방위력 없는 기타 아랍국가들의 보호나 혹은 중동(中東)의 평화유지를 도울 가능성은 존재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어떠한 나라건 이 지역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세계를 위해 경찰 구실을 하는데 대해 논평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은 매우 중대한 착오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제공할 수 있는 한도(限度)를 넘어서 군사(軍事) 혹은 경제원조(經濟援助)를 그동안 요구해 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실정은 사다트 대통령(大統領)의 최근의 요구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물론, 그가 이 점에서 유독 특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지(周知)된 바와 같이, 현재와 그리고 과거 여러 해 동안 우리나라로부터 대부분의 원조를 받아들이는 2개국(個國)은 이스라엘과 이집트였습니다.

몇몇 아랍국가들이 달갑지 않게 여길지 모르지만 중동(中東)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대의 단일 조처는 이스라엘과 이집트간의 평화조약(平和條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최우선적(最優先的)인 과제이며,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계속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문: 대통령(大統領) 각하, 디트로이트 뉴스지(紙)의 슈스터 기자(記者)입니다. 최근의 아프가니스탄, 이란, 로디지아 및 베트남 사태(事態)로 현재 미(美)·소 관계가 여하히 긴장되어 있으며, 그리고 긴장이 사실 있다면, 미(美)·소전략무기제한협정(戰略武器制限協定)이 상원(上院)에 상

정(上程)될 경우, 그 긴장이 어떻게 상원(上院)으로 하여금 그 협정(協定)을 쉽사리 승인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요?

답: 나는 우리가 비(非)동맹국들이나 혹은 다른 나라의 지배하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국가들에 있어서 소련(聯)과 영향력 행사를 위한 경쟁을 하게 될 것만은 머지 않은 장래에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국이 독립되고 평화로이 지내고 있음을 보고 싶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각국 국민들의 정당한 열망(熱望)들이 구현(具現)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최근 약 15년 동안에, 우리와 이들 국가들에게 영향을 주는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공산국가(共產國家)인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聯)과 더욱 긴밀한 유대를 맺고 있는 공산정권(共產政權)에 의한 정권교체(政權交替)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대통령(大統領)은 소련(聯)의 영향력 하에 있는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의 정권(政權)이 소련(聯)과 더욱 긴밀한 유대를 맺고 있는 공산정권(共產政權)에 의해 교체(交替)되었음을 말하려고 한 것임). 앙골라는 완전히 소련(聯)의 지배와 영향력하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쿠바는 오늘날 일부 서방국가(西方國家)들에게 우호의 손길을 펼치고 있을 것 입니다.

나는 똑같은 일이 모잠비크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은 정상적(正常的)인 발전과정(發展過程)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간디 여사(女史)의 통치하에서 인도(印度)는 소련(聯)과 매우 긴밀한 유대를 맺고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는 긴장 되었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관계가 데사이 인도수상하(印度首相下)에서 대폭 달라졌다고 말하겠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과 소련(聯)이 가장 가까운 정치적(政治的) 및 군사적(軍事的) 동맹국(同盟國)이었던 때가 그리 오래 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은 우리와 정상적(正常的)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리고 소련(聯)과 매우 멀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아랍국가인 이집트는 과거 거의 소련(聯)과만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집트는 우리와 마찬가지로의 긴밀한 우호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련(聯)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 NATO(북대서양조약기구(北大西洋條約機構))가 월남전(越南戰) 직후에는 약화(弱化)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국회의원(國會議員) 중의 한 분이었던 마이크 멘스필드 의원(議員)이 유럽에 주둔하고 있던 전미군(全美軍)의 철수를 요구했던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나토가 쇠신되었으며, 그리고 우리 자신의 안보(安保)에 매우 중요한 나토에서의 우리의 동맹(同盟)은 강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대체로 보아 최근 수년간의 추세는 우리나라에 불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최상(最上)의 이익에 반대되는 추세가 있던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한 두 곳의 개별적인 지역을 골라내기는 쉬운 일입니다.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점(點)은 수년 동안 이러한 정세(情勢)의 유동성(流動性)은 불가피하며, 그리고 우리가 세계정세(世界情勢)를 어느 특정시기(特定時期)나, 혹은 잠정적으로나 역사적(歷史的)으로 우리에게 이(利)로운 어느 특정(特定) 지역이나 나라에 동결(凍結)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련(聯)에게 「앙골라로부터 모든 쿠바군대(軍隊)를 철수시키지 않는 한(限) 우리는 미(美)·소전략무기제한협정(戰略武器制限協定)에 결코 조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SALT 조약(條約)체결(締結)은 미국(美國)에게 가장 유리하게 움직여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안보(安保)에 가장 이(利)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평화(平和) 전망(展望)의 향상(向上)을 위한 기초를 닦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방금 2, 3분 전에 여러분에게 설명한 우리나라의 목적들을 실행하기 위해 우리의 재래식(在來式) 군사력(軍事力)을 사용(使用)할 수 있는 보다 큰 융통성(融通性)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SALT 협정(協定)의 체결에 실패하거나 혹은 우리 스스로가 핵(核)무기에의 의존을 감소시키기 위한 소련(聯)과의 협상을 거부한다면, 세계의 분쟁지역에서의 소련(聯)과의 장차 있음직한 모든 논쟁이나 견해 차이나 혹은 경쟁은-나는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겠습니다. 대폭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SALT 조약(條約)이 우리나라에게 가장 이(利)롭게 체결되는 방향으로 접근해가고 있는 현(現) 방식(方式)에서 잘 협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소련(聯)이 우리에게 주한미군(駐韓美軍)을 모두 철수하지 않으면 나토의 군사력을 감축하지 않으면, 이집트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면 우리를 완전한 협상(協商)당사국으로서 중동사태(中東事態)에 개입(介入)할 수 있게 허용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SALT 협정(協定)에 조인하지 않겠다고 말하게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짓을 우리 국민을 위해 가장 좋은 것에 기초한 우리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자유(自由)에 대한 절대로 정당화할 수 없는 침해(侵害)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SALT협정(協定) 체결의 선행조건(先行條件)으로서 이와 똑같은 종류의 소련측(聯側) 자제(自制)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이(利)로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는 무분별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분명히 소련(聯)에 게나 혹은 우리 자신의 최선(最善)의 이익을 위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분명히 우리는 긴장을 감소시키고 무역에 협력하고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곳에서 공동의 목적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긴장을 장소시킬 뿐만 아니라 평화의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협정(協定)들을 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언제나 소련(聯)과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견해의 차이를 가질 때면 우리가 계속 성공시킬 가장 충실한 자신(自信)을 가지고 소련(聯)과 경쟁 할 것입니다.

나는 이상(以上)의 두 가지 생각이 미국(美國)과 같이 강력하고 안전하고 유능하고 자신(自信) 있고 문명(文明)된 국가에서 서로 양립(兩立)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뛰어난 침착성

청교도 혁명으로 유명한 「크롬웰」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숨어 있던 적이 총을 쏘아 하마터면 맞을 뻔하였다. 그러나 그는 말을 탄 채 꼼짝도 않고 적을 향해 소리쳤다.

「만약 내 부하가 너처럼 그 따위로 서투르게 총을 쏘았다면, 나는 즉시 그를 사형시켰을 것이다.」

변화(變化)하고 격동(激動)하는 세계(世界)에서의 미국(美國)의 역할(役割)



다음은 지미·카터 미대통령(美大統領)이 지난 2월(二月) 20일(二十日)(현지시간) 조지아 공과대학(工科大学)에서 미국(美國)의 외교정책(外交政策)에 관하여 행한 연설 전문이다.

편 집 실

본인(本人)은 항상 조지아 공과대학(工科大学)에 다닌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고, 또 이곳에서 배운 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本人)이 이 공과대학(工科大学)에 들어왔을 때에는 전 세계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양면(兩面)에서 공격을 받고 있었으며, 1860년대의 내전(內戰) 이래 보지 못했던 전면전쟁(全面戰爭)을 치르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승리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이 압도당하지나 않을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본인이 성인이 되었던 당시의 세계와는 매우 다른 세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옛 제국(帝國)들은 사라지고 1942년 당시에는 그 이름을 들어본 일도 없는 신생 개발도상국가(開發途上國家)들이 지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본인이 희망했던 만큼 변화(變化)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 세계(世界)는 여전히 위험한 세계라는 사실입니다. 민주주의와 자유가 부단히 도전받는 세계, 날마다 평화를 재탈환해야 하는 세계라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생활의 가장 간단한 필수품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일(近日)에 일어난 사건(事件)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평화(平和)는 여전히 취약하며, 어느 측면(側面)으로부터의 공격에도 깨지기 쉽습니다.

이란, 서인도양(西印度洋) 및 동남아(東南亞)의 소요는 우리의 결의와 리더십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소요들은 우리의 국방에 있어서의 힘과, 외교(外交)에 있어서의 지혜, 그리고 우리의 무기통제(武器統制) 및 평화(平和) 추구에 있어서의 굳건한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해 줍니다.

본인은 오늘 이 변화(變化)하고 격동(激動)하는 세계에서의 미국(美國)의 역할과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차대전 종전 이래로 미국(美國)은 우리의 세계를 안정된 평화와, 진정한 안전에 접근시키는데 있어서 영도적(領導的) 역할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강(最強)의 경제(經濟)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최강(最強)과 군사력(軍事力)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그 안전과 번영이 그들 자신에게 중요한만큼 우리에게도 절대로 중요한 해외 우방들과 상호방위의 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동맹국들과 함께 3분의 1세기여에 걸쳐 세계대전(世界大戰)을 방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현대에 있어서 가장 긴 전반적 평화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미국(美國) 대통령(大統領)으로서 이 나라를 계속 평화 속에 두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歷史上)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세계(世界) 인간들에게 큰 번영(繁榮)을 가져다 준 세계 무역(貿易)·통화제도(通貨制度)를 유지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국(他國)들의 분쟁을 해결하여, 각 당사국(當事國)들이 독립과 평화 속에서 자체의 미래를 개발할 수 있게끔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00여개 신생국을 탄생시켰고, 또 인간의 소원과 그 성취를 혁신적으로 비약적으로 이룩하게 한 조건(條件)을 유지하도록 도와 왔습니다.

짧게 말해서, 우리는 미증유(未曾有)의 변화와 갈등의 세계에서 세계적인 안보와 경제적 진보의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미국(美國)은 4가지의 기본적인 안보 책임을 가집니다.

- ① 우리 자신의 국가적 힘과 안전을 도모합니다.
- ② 우리의 맹방 및 우방(友邦)들에 충실합니다.
- ③ 다른 나라들의 국가적 독립과 영토보전을 지원합니다.
- ④ 평화를 위해 근면하게 노력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세계를 휩쓸고 있는 많은 정치적 조류는 우리가 공유하는 욕구, 즉 국가와 개인의 정당한 열망이 성취될 보다 큰 기회를 갖는 세계에 대한 욕구를 보여줍니다. 미국(美國)은 다른 나라의 국내 사태를 좌우할 수 없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는 그렇게 하려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변화에 따른 불확실(不確實)과 혼란(混亂)에는 또한 어두운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측면을 지난 주 아프가니스탄에서 용감하고도 선량한 아돌프 러브스대사(大使)가 미국(美國) 대표(代表)로서의 그의 임무를 수행중 생명을 잃게한 몰자각한 폭력행위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곳 조지아 공과대학(工科大學)에 모여 자유(自由)와 평화(平和)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러한 축복이 러브스대사(大使)와 같은 사람들의 희생의 덕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또한 혼란 속에 있는 국가들이 인간의 소원을 이룩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희생으로서 자신의 권력(權力)과 지위를 확장하려고 하는 외세에게 기회를 제공할 때에도 변화의 어두운 측면을 봅니다.

우리는 지난 30년간에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온 나라인 이란이 심각한 국내분규 없이 현대화될 수 있기를 바래왔으며, 또 그러한 노력을 고무하기 위해 이란 정부를 지원하고, 진보와 민주주의(民主主義)를 지향하는 국내 변화(變化)를 촉구하고, 또 지역안정(地域安定)을 위한 배경을 제공했었습니다.

이란의 혁명은 이란 자체의 역사 속에서 성장한, 뿌리 깊은 사회적(社會的), 정치적(政治的), 종교적(宗教的) 및 경제적(經濟的) 요인들의 소산입니다. 미국(美國)이 이러한 사태(事態)들을 막기 위해 직접 개입해야 한다면 또는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란의 현실을 잘 못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시민(美國市民)들의 보호는 직접적인 개입(介入)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란에 개입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나, 이란의 미래는 계속 우리와 우리 우방(友邦) 및 맹방(盟邦)들의 깊은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세계의 중요한 지역에 위치한 중요한 국가로서, 소련의 바로 인접국이며, 또한 대부분의 세계 석유(石油)거래가 이루어지는 간선 수송로에 인접해 있는 주요 산유국(產油國)이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나라는 이 지역에서 안정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잠재적 세력입니다.

이란은 자신의 자유(自由)를 확립하고 보호하기 위한 2천년 이상의 오랜 투쟁의 역사를 가진 자랑스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란의 독립은 또한 우리 자신의 중요한 이익이 되며, 우리의 가장 긴밀한 동맹국들의 이익이 됩니다.……그러므로 우리는 이란의 독립을 지지할 것입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나라 국민들이 오늘의 혼란을 극복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또 이 위대한 민족이 독립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나라의 내부적 역량과 균형을 되찾게 해 줄 수 있는, 안정(安定)된 정부(政府)를 수립(樹立)하게 되기를 우리는 희망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노력을 적절히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또한 이익과 소망을 우리와 같이 하는 국가로서의 이란정부(政府) 및 국민(國民)들과 협력(協力)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란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존중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만일 다른 국가들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간섭한다면 이는 중대한 결과들초래할 것이며, 그들과 우리의 보다 광범위한 관계가 영향을 받게 될 것임을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중동지역 국가들의 안보와 독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 지역 전역의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장관은 본인의 지시에 따라 이 지역의 안보와 관련,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및 사우디 아라비아와 포괄적인 협의(協議)를 수행했습니다. 우리는 이들 및 그 외의 국가들과 더불어 이 지역(地域)의 평화로운 발전을 건전하고 지속적인 기초 위에 올려놓기 위해 협력할 결의(決意)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최근의 소요는 이스라엘과 아랍 인접국가(隣接國家)들이 평화를 향하여 더욱 더 시급하게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협상자(協商者), 즉 양국의 외상(外相)들이 미국(美國)의 초청으로 오늘날 캠프 데이비드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들은 사이러스 밴스 국무장관(國務長官)과도 회동(會同)하게 될 것입니다.

본인은 캠프 데이비드 협상(協商)의 성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만일 필요하다면, 그리고 양측(兩側)이 적절한 융통성을 보여준다면, 또 다른 정상회담 개최를 포함, 어떠한 일이라도 할 것입니다. 본인은 중동 전역(全域)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회담(會談)의 성공이 이 지역에 대해 갖는 절대적인 중요성을 인식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미국인(美國人)들에게는 중동의 여하한 위기도 당장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결과를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현재 동남아(東南亞)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事態)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미국정책(美國政策)의 원칙이 이곳에도 적용됩니다. 즉, 우리는 이 지역국가(地域國家)들의 독립과 영토보전(領土保全)을 지지하며, 우리는 우리의 우방(友邦)들에게 충실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국가적으로 계속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몇 주일 동안, 우리는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을, 그리고 그 결과 중공(中共)의 베트남 국경선 침입을 목격해 왔습니다. 이 두 가지 행위는 모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며, 기대되는 지역인 동남(東南)아시아의 안정(安定)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가지 군사행동(軍事行動)에 모두 반대해 왔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있는 이 원칙들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우리는 아시아 공산국가간(共產國家間)의 전쟁에 말려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未來)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과 그리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나는 광범위한 함축성에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국가이익(國家利益)이 직접 위협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② 우리는 모든 당사국들의 자제를 촉구하고, 그리고 전쟁확대방지(戰爭擴大防止)를 모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하한 외교적 및 정치적(政治的) 수단도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의 개입(介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향력은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모든 관계 당사국들과 직접, 그리고 솔직하게 토의를 할 수 있는 세계의 강국(強國)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안정을 되찾기 위해 유용하고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③ 우리는 관계 당사국들과 직접으로 그리고 유엔을 통하여 이 지역에서의 분쟁을 종식시키고 캄보디아로부터 베트남 군(軍)을, 또 베트남으로부터 중공군(中共軍)을 철수시키고, 그리고 모든 관계 당사국들의 독립 및 영토보전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④ 동시에 우리는 이 분쟁이 이 지역과 기타 지역의 국가들에게 예견치 못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분쟁으로 가일층 확대 될지도 모른다는 우리의 깊은 우려를 계속 표명할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우리의 중요한 이익(利益)에 어떠한 도전이 있을지라도 그 이익을 보호할 용의를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⑤ 우리는 이 지역의 우리 우방과 맹방(盟邦)들, 특히 동남아국가연합가맹국(東南亞國家聯合加盟國)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안정과 번영의 지속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美國)과 중공(中共)의 관계정상화는 이미 하나의 기정 사실이며, 따라서 번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북경정부(北京政府)의 실재에 대한 간단하면서도 상당히 때늦은 안정이었을니다.

최근 수일 동안 우리는 중동과 동남아 사태에 관해서 세계 지도자들과 그리고 우리 의회(議會) 지도자(指導者)들과 직접 협의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책임은 미국(美國) 행정부(行政府)와 의회, 또 우리 국민과 우리 맹방(盟邦)들이 다같이 나누어 갖고 있으며, 그리고 공동(共同)의 대의(大義)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이해와 충실한 지지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란의 내정 문제(內政問題)나 심지어 공산권내(共產圈內)의 전쟁까지도 우리의 관심사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동남아(東南亞)와 중동(中東)에서의 혼란으로 많은 국가들이 염려하고, 심지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우방(友邦)들을 지지하고, 그들의 안보 필요 충족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어떤 추가군원(追加軍援)이 필요한가를 결정하기 위해 의회(議會)와 협의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지원 조치는 전(全) 인도양지역의 안정을 위해 절대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거듭 말하거니와, 우리는 중동에서, 동남아에서, 그리고 세계 기타 지역에서 우리 우방(友邦)들에 충실할 것이며, 우리의 공약(公約)을 존중할 것이며, 그리고 미국(美國)의 중요한 이익(利益)을 지킬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절박한 위기들에 대처하는 한편, 또한 안보의 보다 광범한 필요성을 항상 유념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려면 우리의 국방에 필요한 군사력(軍事力)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우리 맹방(盟邦)의 방위를 위해 계속 기여해야 합니다. 금년에 본인은 국방(國防) 예산(豫算)을 실질적으로 상당히 증액(增額)시켜 주도록 제안했습니다. 최근 수 주 동안에 일어난 사건

들은 이 자금(資金)들을 전액 배정 해줄 의회의 책임을 강조해 줍니다. 미국(美國) 국민(國民)들이 우리의 공약을 이행하고, 또 이 공약들을 군사력(軍事力)으로 뒷받침할 충 분한 용의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추호도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격동(激動)과 위기(危機)는 또한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전략핵무기(戰略核武器) 경쟁(競爭)을 안정시키고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절대로 중요함을 강조해 줍니다. 이 노력은 우리의 강력한 방위가 지닌 목표와 똑같은 궁극적인 목표, 즉 안보(安保)와 안정(安定)과 평화(平和)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우리 나라는 금년에 전략무기제한 협정(戰略武器制限協定)을 성공적으로 종결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업은 없습니다. 전략무기제한협정(戰略武器制限協定)은 격동(激動)하는 세계에서의 전략적(戰略的) 정치적(政治的) 안정-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바와 같은 위기를 억제하기 위해, 그리고 그 위기들이 핵무기(核武器)의 대결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적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안정의 기본 요소입니다.

6년 이상이나 세 사람의 대통령(大統領)이 협상을 벌인 끝에 건전하고 검증 가능할 제 2단계 전략무기제한협정(戰略武器制限協定)의 대부분의 주요한 요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바야흐로 나타날 협정은 전략무기(戰略武器)를 쌍방이 동수(同數)로 갖는 것을 처음으로 확립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협정은 1972년의 제 1단계, 전략무기제한조약(戰略武器制限條約)에서 잠정적으로 확립되었던 소련의 수적(數的) 우위(優位)를 없애게 될 것입니다. 제1단계 전략무기제한 조약하에서는 소련은 약 40퍼센트의 고정된 협상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소련은 그들의 전략무기 총수(總數)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소련은 250여기(餘機)와 유도탄이나 폭격기(그들의 전략군의 10퍼센트)를 파괴해 버리거나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현재 합의된 한도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우리의 실전용(實戰用) 전략군(戰略軍)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제 2단계 전략무기제한협정은 또한 신형(新型) 무기(武器)의 건조와 기존 무기의 개선에 대한 제한을 협상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즉 소위 질적인 무기경쟁을 통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단계 협정은 지상기지용(地上基地用) 유도탄의 크기와 그 위에 장치할 수 있는 탄두의 수(數)를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이 없을 것 같으면 소련(蘇聯)은 그들의 지상기지용 대형 유도탄에 장치할 탄두의 수를 엄청나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략적 균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제2단계 전략무기제한협정(戰略武器制限協定)은 지상기지 유도탄의 점대하는 취약성에 대처하는 우리 능력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협정(協定)이 없다면 소련(蘇聯)은 그 탄두의 수효만을 계속 증가시켜서 우리 미사일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협정(協定)은 또한 우리와 우리 동맹국으로 하여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필요할지 모른다고 믿는 모든 국방계획(國防計劃), 즉 M-X 미사일, 트라이텐트 잠수함 및 유도탄, 공중, 지상 및 해상 발사의 크루즈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탑재기(搭載機) 및 신형의 침투용 폭격기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허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허용될 것입니다.

이리하여 제2단계 전략무기제한협정(戰略武器制限協定)은 우리 자신의 신중한 계획을 앞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할 것이고, 또한 소련이 이 협정(協定)이 없을 때 행할지도 모르는 일에 중요한 제동을 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 협정(協定)은 앞으로 협상(協商)을 계속 하는데 기초가 되고 또 핵무기(核武器)의 수준을 상당히 깎아내리게 할 것입니다. 제2단계 협정(協定)이 없다면, 소련(蘇聯)은 1985년에 이르러 제2단계 협정(協定)이 있을 때보다 근 3분의 1이나 더 많은 전략군(戰略軍)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당연히 그같은 증강(增強)에 대항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비용은 어마어마하며, 그 위험은 자명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양국(兩國)의 안보가 약화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서명하는 제2단계 전략무기제한협정(戰略武器制限協定)은 소련(蘇聯)으로 하여금 이 협정(協定) 조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우리 자신의 독자적 방법을 사용하여 적절하게 검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략무기제한협정(戰略武器制限協定)은 신뢰에 의존하기에는 너무나 큰 이해가 걸려 있습니다.

제2단계 협정(協定)은 그 협정 준수를 검증(檢證)하는 우리 능력을 저해하는 방해를 특히 금(禁)할 것입니다. 우리의 검증 활동을 방해하려는 소련측의 어떠한 노력도 이 협정에 대한 탐지 가능한 위반과 모든 기만(欺瞞)의 조기 신호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나는 소련과의 우리 관계와 세계 여러 곳에 존재하는 혼란의 관점에서 이 협정(協定)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문제는 전략무기제한회담(戰略武器制限會談)이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흔히 말해 온 것처럼 소련과의 우리 관계는 협력과 경쟁(競爭)의 혼합체(混合體)이며, 또 미국대통령(美國大統領)인 본인에게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룩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도 미묘한 과업은 없습니다. 본인은 불가피한 경쟁의 압력(壓力)이 협력의 가능성을 압도케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또 그에 못지않게, 협력(協力) 때문에 우리가 직면하려고 충분한 용의를 갖고 있는 경쟁의 현실(現實)에 대해 우리를 눈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면밀히 협상(協商)된 책임있는 무기통제(武器統制) 협정(協定)은 세계를 더욱 안전(安全)하고 더욱 안정(安定)된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의 다른 곳에서 소련과의 경쟁을 계속하면서도 이 협정(協定)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국가에 이익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이 새 전략무기제한협정(戰略武器制限協定)을 종결짓고, 또 우리의 권익(權益)에 해(害)를 미치는 소련의 어떤 행동에도 대응하도록 추구할 것입니다.

이 제2단계 협정(協定)을 거부한다는 것은 전략핵무기(戰略核武器)의 불가피한 경쟁이 더욱

더 위험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위기, 어느 대결, 어느 마찰도 그 자체로서 위협할 뿐 아니라 그 중요도와 위험도가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억제되지 않은 전략적(戰略的) 경쟁의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전략적(戰略的) 안정(安定)을 악화시키는 환경 속에서 발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군사적 경쟁이라는 이 위험한 국면(局面)을 통제(統制)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소련과 근본적인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이상의 추구와 힘과 세력(勢力)의 책임있는 사용간에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절대로 중요합니다. 미국(美國)은 이상과 힘의 한 원천입니다. 우리의 이상은 200여년에 걸쳐 세계를 고무해 왔습니다.

그리고 3세대 동안 우리의 힘은 다른 나라들이 그 자체의 이상을 구현하는 일을 도와왔습니다.

미국인(美國人)들의 결의와 강력한 목적은 혼란(混亂)된 세계에서 안정(安定)을 위해 절대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하나의 노선을 유지하는데 결속한다면 미국(美國)은 그 원칙과 이익을 보호하고 또 평화를 위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인(美國人)은 언제나 영도적 도전을 받아들여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리라고 나는 자신합니다.



미(美) 공군(空軍)의 「BLUE FLAG」 비행훈련계획(飛行訓練計劃)

김 영 한(金榮漢) 역(譯)

본(本) TAC(Tactical Air Command, 미전술공군(美戰術空軍)) 훈련계획(訓練計劃)은 그 규모(規模)와 중요성(重要性)이 증대(增大)하고 있다. 상급지휘관(上級指揮官)과 참모(參謀)들의 기술(技術)을 향상(向上)시키기 위하여 구상(構想)된 BLUE FLAG 훈련(訓練)은 또한 공군 전비태세(空軍戰備態勢)의 취약점(脆弱點)을 보강(補強)시켜 주고 있다.

미(美) 공군전술(空軍戰術) 항공전본부(航空戰本部)(Air Force's Tactical Air Warfare Center)에서 매분기(每分期)마다 실시(實施)되고 있는 훈련(訓練)인 BLUE FLAG은 미(美) 공군(空軍)의 가장 중요(重要)한 훈련계획중(訓練計劃中)의 하나가 되고 있다.

고급장교(高級將校)들이 대규모(大規模)의 공군력(空軍力)을 이끌어 나갈 그들의 지휘기술(指揮技術)을 향상(向上)시키고 있는 것이다. 항공전(航空戰)에 요구(要求)되는 새로운 무기(武器)와 장비(裝備)들이 가상전하(假想戰下)에서 시험(試驗)되고 개량(改良)되어지고 있다. 또한 현대전(現代戰)을 수행(遂行)하는 모든 절차(節次)가 개발(開發)됨에 따라서 그러한 절차(節次)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다.

일주간에 걸친 항공전훈련(航空戰訓練)에서는 전역항공부대(戰域航空部隊)에서의 항공전(航空戰)을 수행(遂行)할 수 있는 경험(經驗)을 장교(將校)들에게 주려는데 그 주안점(主眼點)을 두고 있다. 어떻게 항공기(航空機)를 활용(活用)하여 공중후방차단(空中後方遮斷)(Air Interdiction), 근접항공지원(近接航空支援)(CAS)과 정찰(偵察), 공수작전(空輸作戰)과 다른 임무(任務)의 수행(遂行) 등(等)으로 지상군(地上軍)을 지원(支援)하고 공중우세권(空中優勢權)는 장악(掌握)할 수 있는가 등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지휘관(指揮官)과 참모(參謀)들이 비상전하(非常戰下)에서 항공전(航空戰)을 즉각적(即刻的)으로 수행(遂行)할 수 있고 전투초기(戰鬪初期)에 있어서 여태까지의 많은 피해(被害)를 줄일 수 있도록 훈련(訓練)시키는데 있다.

blue FLAG훈련(訓練)은 미공군(美空軍)에서 필요(必要)하다고 느끼는 두 가지 면(面)을 충족(充足)시키고 있다. 나이 많은 노련(老鍊)한 장교(將校)들이 제대(除隊)함에 따라 미공군(美

空軍)은 전쟁(戰爭)에서 많은 항공전(航空戰)을 지휘(指揮)하는데 경험(經驗)이 없는 고급(高級) 장교(將校)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문제(問題)에 직면(直面)하게 되었다. 이에 BLUE FLAG 훈련(訓練)은 대령이하(大領以下)의 장교(將校)들에게 안전계약(安全制約)이 허용(許用)하는 범위내(範圍內)에서 실전(實傳)에 가까운 조건(條件)에서 경험(經驗)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평화시(平和時)의 절약책(節約策)으로 해서 해외(海外)의 항공전투참모(航空戰鬪參謀)들이 부족(不足)되고 있다. 비당시(非當時)에 이 부족(不足)된 자리는 미국(美國)으로부터의 장교(將校)와 사병(士兵)으로 채워질 것이다. BLUE FLAG은 전투참모(戰鬪參謀)들이 전투지역(戰鬪地域)에서 능력(能力)을 갖출 수 있도록 그들을 미국(美國) 내(內)에서 훈련(訓練)시키기 위하여 조직(組織)되어 있다.

BLUE FLAG훈련(訓練)을 성공적(成功的)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重要)한 요소(要素)는 현실적(現實的)이라는데 있다. 전술항공전본부(戰術航空戰本部)(TAWC)는 최신(最新)의 컴퓨터와 정밀(精密)한 방공사격시설(防空射擊施設), 미전국기지(美全國基地)로부터의 항공기(航空機)들을 사용(使用)하여 평시(平時)에 있어 과거에는 가능(可能)하지 못했던 높은 현실성(現實性)을 제공(提供)해 주고 있다.

BLUE FLAG훈련(訓練)에서의 경험(經驗)을 활용(活用)하여 미전술공군(美戰術空軍)(Tactical Air Command, TAC)은 Eglin혼성기지내(混成基地內)에 전투(戰鬪) 관리자학과(管理者學科)(Battle Manager Course)를 78년에 개설(開設)하였다. 그곳에서의 피교육자(被教育者)는 지휘(指揮), 작전(作戰), 정보(情報)와 통신분야(通信分野)의 공군(空軍)·육군장교(陸軍將校)들이다. BLUE FLAG의 관리자(管理者)들은 또한 알라바마주(州)의 Maxwell공군기지(空軍基地)에 위치(位置)한 Air War College 내(內)의 Combined Air Warfare Course의 강사(講師)들과 경험(經驗)을 교환(交換)하고 있다.

실제적(實際的)인 경험(經驗)

그러나 실제적(實際的)인 경험(經驗)은 BLUE flag에 의해서 제공(提供)된다. 1976년에 시작(始作)된 첫번째의 훈련(訓練)에는 375명의 장교(將校)와 사병(士兵)이 참가(參加)했으며 78년의 6월(月) 훈련(訓練)에서는 923명을 훈련(訓練)시켰다.

BLUE FLAG훈송(訓練)은 미전술공군(美戰術空軍)에 배속(配屬)된 정규부대(正規部隊)와 예비부대(豫備部隊)를 위하여 특별(特別)히 구상(構想)되었다. BLUE FLAG훈련(訓練)은 삼군중(三軍中)의 어느 군(軍)이 행(行)하는 훈련(訓練)보다도 가장 중요(重要)한 훈련(訓練)이라고 주장(主張)할 수 있다. 많은 군인(軍人)들은 재래식전쟁발발(在來式戰爭勃發)의 첫 순간(瞬間), 즉 BLUE FLAG훈련(訓練)에서 중시(重視)하는 이 첫 단계(段階)가 승패(勝敗)를 결정(決定)지을 것이며 그것도 주로 공군력(空軍力)에 의하여 결정(決定)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곳 Egin공군기지(空軍基地)의 전술항공전본부(戰術航空戰本部)에서 배우는 주요내용(主要內容)은 미국(美國)이 전쟁(戰爭)에서 항공기(航空機)를 얼마나 효과적(效果的)으로 이용(利用)하느냐를 결정(決定)하는 중요(重要)한 요소(要素)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동(同) 훈련(訓練)을 통하여 현행항공작전(現行航空作戰)에서, 특히 명령(命令)이 준비(準備)되고 전투부대(戰鬥部隊)에 전달(傳達)되는 방법(方法)에서 몇 가지, 결점(缺點)이 이미 드러났다.

훈련(訓練)은 5개의 중요(重要)한 분야(分野)로 나뉘어지고 있다. 즉 지휘(指揮), 통제(統制), 통신(通信), 정보(情報)와 이 네 요소(要素)의 상관분야(相關分野)이다.

최근(最近)의 훈련(訓練)에서는 우군(友軍) 또는 BLUE군(軍)은 NATO지휘하(指揮下)의 실체부대(實際部隊)로, 침략군(侵略軍) 또는 RED군(軍)은 바르샤바 조약국(條約國)의 군대(軍隊)로 가상(假想)하여 훈련(訓練)을 하였다.

BLUE FLAG훈련(訓練)은 많은 예비작업(豫備作業)을 포함(包含)하고 있다. 전술항공전본부(戰術航空戰本部)의 장교(將校)들이 행동계획요강(行動計劃要綱)(Scenario)을 결정(決定)짓기 위하여 실제훈련(實際訓練)에 앞서 몇 주간 함께 모인다. 1976년(年)의 제1차(第一次) 행동계획요강(行動計劃要綱)은 약한 방공태세(防空態勢)를 갖춘 구역(區域)에서의 테러 공격(攻擊)에 대응(對應)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우간다 엔테베공항(空港)에서의 이스라엘 공군(空軍)의 기습공격(奇襲攻擊)과 비슷한 것이다. 다음의 두 BLUE FLAG훈련(訓練)은 한반도(韓半島)에서의 전투작전(戰鬥作戰)을 포함(包含)하고 있으며 방공(防空)이 보다 정밀(精密)한 지역(地域)이다. 마지막 3개의 훈련과정(訓練過程)은 유럽에서의 전쟁(戰爭)을 근거(根據)로 하고 있으며 이곳은 가장 정밀(精密)한 방공장비(防空裝備)가 배치(配置)되는 곳이다.

행동계획요강(行動計劃要綱)이 승인(承認)된 후 전술항공전(戰術航空戰) 본부(本部)는 미군지휘관(美軍指揮官)들에 실제(實際)로 이용(利用)될 수 있는 정보(情報)와 장비(裝備)의 평가(評價)를 통하여 가상전(假想戰)을 계획(計劃)한다.

이 계획(計劃)에서의 임무(任務)를 수행(遂行)할 대부분(大部分)의 사람들이 전술공군(戰術空軍)(TAC)의 제9공군(空軍)과 제 12공군(空軍)에서 선발(選拔)되며 추가(追加)하여 미(美) 육군(陸軍)과 유럽의 미공군(美空軍)에서도 선발(選拔)된다.

이들은 Egin에 모여서 훈련중(訓練中)의 그들의 임무(任務)에 대해 브리핑 받는다. 78년 6월에 있었던 BLUE FLAG훈련(訓練)에서는 우군(友軍)은 서독(西獨)의 남부(南部)에 위치(位置)한 제4연합(聯合) 전술공군(戰術空軍) (Allied Tactical Air Force)으로 가상(假想)하였다.

훈련중(訓練中) 부사령관(副司令官)은 D. P. Wright 대령(大領)이 있으며 텍사스주(州)에 위치(位置)한 Bergstrom 공군기지(空軍基地)의 제12전술공군(戰術空軍) 사령부(司令部) 소속이었다.

작전담당부사령관(作戰擔當副司令官)인 Donald Synder 대령(大領)은 아리조나주(州) Luke 공군기지(空軍基地)의 제 58 전술훈련(戰術訓練) 비행단(飛行團)(Tactical Training Wing)의 부사령관(副司令官)이었다.

버지니아주(州) Langley 공군기지(空軍基地)의 제 460정찰기술(偵察技術) 비행대대(飛行大隊) (Reconnaissance Technical Squadron)의 사령관(司令官)인 Robert D. Williams 대령(大領)은 우군(友軍)의 정보장교(情報將校) 역할(役割)을 하였다.

Leland T. Kennedy 대령(大領)은 서독(西獨)의 Sembach 공군기지(空軍基地)의 연합전술(聯合戰術) 작전본부(作戰本部)(Allied Tactical Operations Center) 사령관역(司令官役)을 하였다. Kennedy 대령(大領)은 당시(當時) 텍사스주(州) Bergstrom 공군기지(空軍基地)의 제 602 전술항공(戰術航空) 통제비행단(統制飛行團)(Tactical Air Control Wing)의 작전담당부사령관보(作戰擔當副司令官補)였다.

우군(友軍) 지상군(地上軍)은 뉴멕시코주(州) Fort Bragg에 위치(位置)한 미육군(美陸軍) 제18 공수군단(空輸軍團)(Army's 18th Airborne Corps)의 사령관(司令官)인 Volrey F. Warner 중장(中將)이 지휘(指揮)하였다. 그를 포함(包含)하여 84명의 군인(軍人)이 6월 17일 Egin혼성기지(混成基地)로 낙하산을 타고 떨어져 독일(獨逸)의 제5군단(軍團)을 가상(假想)하여 군단전술작전본부(軍團戰術作戰本部) (Corps Tactical Operations Center)를 세웠다.

적군(敵軍)의 역할(役割)은 당시(當時) Egin의 전술항공전본부(戰術航空戰本部)(TAWC) 부사령관(副司令官)인 Robert E. Kelley 준장(准將) 감독하에 TAWC의 요원(要員)들에 의해 수행(遂行)되었다.

제441 전술훈련비행전대(戰術訓練飛行戰隊)의 작전지휘관(作戰指揮官)인 Royce Jorgensen 대령(大領)은 첫번째 훈련(訓練)을 제외(除外)한 전훈련과정(全訓練過程)에서 작전지휘관(作戰指揮官)이었다. 훈련중(訓練中) Roland Norbille 대령(大領)의 임무(任務)는 침략군(侵略軍)을 지휘(指揮)하는데 있어 그를 보조(補助)하는 것이었다.

정보(情報)브리핑

BLUE FLAG 훈련(訓練)은 Player들이 그들에게 이용가능(利用可能)한 군사력(軍事力)과 그들 위치(位置)에서의 임무(任務) 등에 관해 브리핑 받은 후에 시작(始作)된다.

통제자(統制者)(Controller)가 첩보(諜報)를 BLUE FLAG훈련전투정보본부(訓練戰鬥情報本部) (BLUE FLAG Combat Intelligence Center)에 제공(提供)하고 거기서 다시 전술항공 통제본부(戰術航空統制本部) (Tactical, Air Control Center, TACC)로 전달(傳達) 되어진다.

정보(情報)가 배포(配布)됨에 따라 우군사령관(友軍司令官)은 대기태세(待期態勢)와 다른 명령(命令)을 발(發)한다.

우군(友軍)은 실제(實際)의 항공기(航空機)와 가상(假想)된 항공기(航空機) 그리고 지상군(地上軍)의 혼합방식(混合方式)을 활용(活用)한다. 대부분(大部分)의 적군(敵軍)은 가상(假想)된다.

6월의 훈련(訓練)에서는 조지아주(州)의 Moody 공군기지(空軍基地), South Carolina주(州)의 Shaw공군기지(空軍基地), 오클라호마주(州)의 Tinker 공군기지(空軍基地), 미시시피주(州)의 Keesler 공군기지(空軍基地)와 캘리포니아주(州)의 George 공군기지(空軍基地)로부터 온 부대(部隊)를 우군(友軍)으로 활용(活用)했었다.

Moody 공군기지(空軍基地)로부터 작전(作戰)한 제347 전술전투비행단(戰術戰鬥飛行團)은 훈련중(訓練中) 3일동안 10대(臺)의 F-4팬텀기(機)를 출격(出擊)시켰다. 그 임무(任務)는 서독(西獨)의 Hahn 공군기지(空軍基地)에 위치(位置)한 제50전술전투비행단(戰術戰鬥飛行團)의 임무(任務)를 가상(假想)한 것이었다.

아리조나주(州)의 Davis-Monthan 공군기지(空軍基地)에 있는 제355전술전투비행단(戰術戰鬥飛行團)은 훈련기간(訓練期間)동안의 위치(位置)였던 Eglin 혼성기지(混成基地)의 일부(一部)인 Hurburt Field로 A-7 6대(臺)를 출격(出擊)시켰다.

제363 전술정찰비행단(戰術偵察飛行團)은 서독(西獨)의 제26 전술집찰비행단(戰術輯察飛行團)으로 가상(假想)하여 Shaw 공군기지(空軍基地)로부터 RF-4기(機) 4대(臺)를 출격(出擊)시켰다.

또한 제552 공중경보통제비행단(空中警報統制飛行團) (Airborne Warning and Control Wing)의 E-3A기(機) 1대(臺)가 2일간 Tinker 공군기지(空軍基地)로부터 임무비행(任務飛行)을 하였다.

1대(臺)의 공중(空中) 지휘통제기(指揮統制機) (Airborne Command and Control Aircraft)가 Keesler 공군기지(空軍基地)의 제7공중지휘통수(空中指揮統帥) 대대(大隊) (Airborne Command and Control Squadron)로부터 2일간 임무비행(任務飛行)을 하였다.

제35 전술전투비행단(戰術戰鬥飛行團)(Tactical Fighter Wing)은 George 공군기지(空軍基地)에서 Eglin 기지(基地)의 대공(對空) 기지방어(基地防禦)에 대처(對處)할 “Wild Weasel” 임무(任務)를 띠고 F-105기(機) 6대(臺)를 출격(出擊)시켰다.

제738 전술통제(戰術統制) 비행대대(飛行大隊)는 훈련(訓練)동안 항로통제(航路統制)를 위하여 AWACS(Airborne Warning and Control System, 공중경보통제체계(空中警報統制體制)의 항공기(航空機)를 활용(活用)하였다.

임무비행(任務飛行)한 항공기(航空機) 이외(以外)에도 BLUE FLAG 통제자(統制者)들은 컴퓨터와 위치측정판(位置測定板)(Plotting Board)에 의하여 부수적(附隨的)인 항공기(航空機)들을 선보였고 가상(假想) 침략군(侵略軍)보다도 우세(優勢)한 항공기(航空機)를 동원(動員) 조작(操作)시켰다. 어쨌든 지휘관(指揮官)들에게는 구상(構想)된 항공기(航空機)들이 실제(實

際)의 비행기(飛行機)만큼이나 현실적(現實的)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6월의 훈련(訓練)에서는 처음으로 행동계획(行動計劃) 요강판독(要綱判讀) 컴퓨터(Scenario Translator Computer)가 사용(使用)되었다. 이 컴퓨터의 사용(使用)으로 우군(友軍)의 결정(決定)과 그에 대한 적군(敵軍)의 반격(反擊)사이에 더욱 활발(活潑)한 상호행동(相互行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처음으로 34대(臺)의 컴퓨터가 6월의 훈련(訓練)에 있어 지휘관(指揮官)으로부터 예하부대(隸下部隊)로 항공임무명령(航空任務命令) Air Tasking Order)을 빨리 전달(傳達)하기 위하여 사용(使用)되었다. 컴퓨터는 임무전달(任務傳達)에 걸리는 시간(時間)을 단축시켰으며 일과(日課)가 끝난 저녁의 강평(講評)하는 시간(時間)에는 하루의 작전(作戰)에 대해 다시 한번 요점(要點)만 설명(說明)하게 된다. 이 34대(臺)의 컴퓨터를 들여오게 된 것은 Texas주(州) Bergstrom 공군기지(空軍基地)에 위치(位置)한 제602 전술통제비행단(戰術統制飛行團)의 John Taylor 중령(中領) 덕분이었다.

우군(友軍)의 사령관(司令官)인 Meyer 대령(大領)은 6월의 훈련기간(訓練期間) 동안에 계속 쏟아진 정보사항(情報事項)에 대하여 컴퓨터를 활용(活用)하여 각(各) 부대(部隊)에 명령(命令)을 내렸다.

훈련(訓練)동안의 모든 항공기(航空機)는 그것이 실제적(實際的)인 것이거나 가상(假想)된 것이거나 간에 우군(友軍)과 적군(敵軍)의 작전결정(作戰決定)을 나타내기 위하여 Plotting Board에 표시(表示)되었다. 지휘관(指揮官)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실제(實際) 전쟁(戰爭)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실적(現實的)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훈련(訓練)이 최고조에 다달았을 때에는 사령부(司令部) 본부(本部)의 장교(將校)들과 사병(士兵)들이 전시(戰時)와 마찬가지로 24시간(時間) 내내 배치근무(配置勤務) 하였다.

미(美) 육군(陸軍)에서의 84명을 포함(包含)하여 923명과 309명의 BLUE FLAG 항공통제자(航空統制者) 등 전부(全部) 1,232명의 인원(人員)이 훈련(訓練)에 참가(參加)하였다. 78년(年) 6월(月)의 훈련(訓練)은 현재(現在)까지의 BLUE FLAG 훈련중(訓練中) 가장 큰 규모(規模)이었다.

Eglin 공군기지(空軍基地)의 전자전(電子戰) 사격시설(射擊施設) 덕분에 대부분(大部分)의 BLUE FLAG 훈련(訓練)이 실제(實際)와 같이 실시(實施)될 수 있었다. 바르샤바 조약국(條約國)들의 전투조종사(戰鬥操縱士)들에 대한 방어체제(防禦體制)는 이중(二重)으로 가상(假想)되었다. 소련형(蘇聯型)의 지대공(地對空) 미사일과 대공포(對空砲)를 포함(包含)시킨 방어전(防禦戰)이 Okaloosa 도(島)와 국내(國內) 사격장(射擊場)에서 전자적(電子的)으로 동조(同調) 실시(實施)되었다. 이러한 방어체제(防禦體制)로부터 발사(發射)된 레이더는 실제(實際)의 소련(蘇聯) 방어체제(防禦體制)가 방어(防禦)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종사(操縱士)들에게는 전자(電子) 펄스신호(信號)로 보이는 것이다.

귀환(歸還)하는 우군(友軍)의 항공기(航空機)가 적(敵) 레이더에 포착(捕捉)됨에 따라 가상(假想)한 적기지(敵基地)에서는 이에 따른 비상태세(非常態勢)가 취(取)해졌다. 레이더 재밍과 방어용(防禦用) Chaff의 살포(撒布) 등을 포함(包含)한 도피적(逃避的)인 전술(戰術)과 대(對)전자전(電子戰)은 방공전(防空戰)에 배치(配置)된 조종사(操縱士)와 BLUE FLAG 통제자(統制者) 사이의 전(全) 전투과정중(戰鬥過程中) 활용(活用)되었다.

지상(地上)레이더 신호(信號)를 너무 오랜동안 발사(發射)한다는 것은 레이더 위치(位置)를 노출(露出)시켜 적(敵) 조종사(操縱士)로 하여금 레이더의 기능(機能)을 마비시키게 하는 것이다.

후에 분석관(分析官)들이 컴퓨터로부터의 정보(情報)를 분석(分析)하여 어떠한 조종사(操縱士)가 지상방어(地上防禦) 체제(體制)에 승리(勝利)하고 패배(敗北)하였는가를 결정(決定)하게 된다.

검토(檢討)되어지는 실수(失手)

BLUE FLAG 훈련(訓練)에서의 모든 행동(行動)이 매일 저녁 검토(檢討)되고 평가(評價)된다. 실수(失手)가 지적되고 해결책(解決策)이 토의(討議)된다. 파손(破損), 격추율(擊墜率)과 아측손실(我側損失) 등이 Player들에 알려 진다.

컴퓨터에 의하여 결과(結果)가 작성(作成)되고 전술항공전본부(戰術航空戰本部)의 지휘(指揮), 통제(統制), 통신(通信)과 정보분야(情報分野)의 전문가(專門家)들에 의하여 분석(分析)된다.

실제(實際) 전쟁계획(戰爭計劃)과 첩보(諜報)가 실제(實際) 전쟁(戰爭)을 반영(反映)시키게끔 사용(使用)되었기 때문에 실제전쟁(實際戰爭)을 치르는 것과 같은 중압감(重壓感)을 느끼게 된다.

작전(作戰)에 있어서의 실수(失手)나 예외적(例外的)인 지체(遲滯), TAC 체제(體制)의 기능적(機能的) 약점(弱點) 등은 확인(確認)되어 보강(補強)된다.

BLUE FLAG 훈련(訓練)에서의 사건(事件)은 또한 새로운 장비(裝備)를 시험(試驗)하는데 활용(活用)되며 훈련(訓練)을 통하여 전쟁(戰爭)에 있어 공군(空軍)과 지상군(地上軍)이 활용(活用)할 절차(節次)를 표준화(標準化)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비록 BLUE FLAG 훈련(訓練)이 한날 훈련(訓練)에 불과(不過)하지만 실제적(實際的)인 분위기(雰圍氣)는 소련(蘇聯)과 바르샤바 조약국(條約國)의 전쟁계획(戰爭計劃)에 대한 공군(空軍)의 계획(計劃)과 제반자원(諸般資源)의 시험실적(試驗室的)인 시험결과(試驗結果)를 창조(創造)하는 것이다.

바르샤바 조약국(條約國)과 NATO군(軍)의 세력(勢力)과 장비(裝備)에 대한 실제적(實際的)인 첩보(諜報)가 사용(使用)되었기 때문에 이 훈련(訓練)은 실제전(實際戰)에서 양군(兩軍)이

어떻게 대처(對處)할 것인가에 대한 암시(暗示)를 던져주고 있다.

전쟁(戰爭)에 있어서는 예측(豫測)하지 못하는 요소(要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正確)한 시험(試驗)이 될 수는 없으나 이 훈련(訓練)은 정밀(精密)히 계획(計劃)되어 불안(不安)했던 결점(缺點)을 충분(充分)히 교정할 수 있었다. 몇 가지 중요(重要)한 결론(結論)은 다음과 같다.

1) 항공(航空) 승무원(乘務員)들에 목표(目標)를 선정(選定)해 주는 현(現) 방법(方法)을 공군(空軍) 지휘관(指揮官)들에게 적용(適用)시키기에는 너무 비능률적이다. 현(現) 임무체제(任務體制)는 너무 시간(時間)을 낭비(浪費)하고 있다. 연합사령부(聯合司令部)로부터 작전부대(作戰部隊)로 또 항공승무원(航空乘務員)들에게 전달(傳達)되는 명령(命令)이 늦고 또한 충분(充分)한 첩보(諜報)를 포함(包含)하고 있지 않다.

2) 참모(參謀)들이 NATO나 한국(韓國)에서 어떻게 연합작전(聯合作戰)이 실시(實施)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불충분(不充分)한 지식(知識)을 가지고 있다. 즉 전쟁(戰爭)에 있어 참모(參謀)들이 연합항공참모작전(聯合航空參謀作戰)(Allied Air Staff Operations)에 대해 전반적(全般的)인 이해(理解)를 못하고 있다.

3) 끊임없는 훈련(訓練)없이 항공승무원(航空乘務員)은 적(敵)이 잘못된 임무(任務)를 명령(命令)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무선(無線)으로 전달(傳達)되는 명령(命令)을 인증(認證)(Authenticate)할 수 있는 기술습득(技術習得)에 태만(怠慢)해진다.

4) 소련(蘇聯)의 서(西)유럽에 대한 비핵공격(非核攻擊)을 저지(沮止)하기에 충분(充分)한 수(數)의 항공기배치(航空機配置) 또는 신속(迅速)히 전개(展開)할 수 있는 항공기(航空機)를 NATO나 미국(美國)이 충분(充分)히 보유(保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점점 더 확실(確實)해져 가고 있다. 바르샤바 조약국(條約國)들에 대하여 미국(美國)의 항공기(航空機)나 조종사(操縱士)들이 우세(優勢)하다고 추정(推定)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실(事實)이다.

TAWC 의 장교(將校)들은 항공참모작전(航空參謀作戰)을 위한 새로운 절차(節次)와 전술(戰術)을 추구(追求)하고 있다. BLUE FLAG 훈련(訓練)은 또한 발견(發見)된 문제점(問題點)을 처리(處理)하기 위하여 수정(修正)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미(美) 공군지휘자(空軍指揮者)들은 실제(實際)로 해 봄으로써 배우는 과정(過程)에서 항공승무원(航空乘務員)들이 얻는 훈련성과(訓練成果)와 전투태세(戰鬥態勢) 완비(完備)는 매우 귀중(貴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잠재적(潛在的)인 적(敵)의 움직임(움직임)을 생각해 내고 상호전략(相互戰略)과 전술(戰術)을 연구(研究)함으로써 가상전상황하(假想戰狀況下)에서 미(美) 공군(空軍)의 지휘관(指揮官)과 전투참모(戰鬥參謀)들이 얻는 경험(經驗)에 커다란 의의(意義)를 부여(賦與)하고 있다.

처음 6번의 훈련(訓練)을 통하여 4,982명의 장교(將校)와 사병(士兵)이 훈련(訓練)되었으며 장래(將來)의 훈련(訓練)을 통하여 전(全) 미공군(美空軍)에 경험(經驗)을 줄 것이다. 그럼으로써 BLUE FLAG 훈련(訓練)이 미래(未來)의 전쟁(戰爭)이나 군사적(軍事的) 위기(危機)에 있어

이미 그와 유사(類似)한 상황(狀況)에 직면(直面)해 보았던 지휘관(指揮官)과 참모(參謀)들이 있다는 사실(事實)을 확고(確固)히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명언주해(名言註解)〉

위신막약충(爲臣莫若忠) 위자막약효(爲子莫若孝)

견위치명(見危致命) 충효양전(忠孝兩全)

신하가 되어서는 충성을 다해야 하고, 아들이 되어서는 효도를 다해야 하며, 위급함을 보고 목숨을 다하는 것은 충효를 다하는 도리이다.

소련(蘇聯)의 위협(威脅)에 대(對)한 새로운 경종(警鍾)

※ 소련(蘇聯)은 계속(繼續) 증강(增強)되는 거대(巨大)한 군사력(軍事力)으로 무엇을 모색(摸索)하고 있는가? 미(美) 전략문제전문가(戰略問題專門家)들은 소련(蘇聯)이 그 군사적(軍事的) 우위(優位)를 상실(喪失)하기 전(前)에 그를 바탕으로 어떤 이익(利益)을 추구(追求)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

이 희 권(李希權) 역(譯)

1. 서(序)



「지미·카터」와 「브레즈네프」가 미(美)·소간(蘇間)의 새로운 무기협상(武器協商)을 통(通)하여 데탕트를 강화(強化)하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不拘)하고 미(美) 전략분석가(戰略分析家)들은 다음과 같은 경고(警告)를 한다.

즉, 미국(美國)은 대소관계(對蘇關係)에 있어서, 적어도 80년대(年代) 중반(中半)까지는 군사력(軍事力)의 평형(平衡)이 강화(強化)되기 보다는 위험(危險)이 고조(高潮)되는 시기(時期)에 직면(直面)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경고(警告)는 더욱 더 명백(明白)해지고 있는 소련군사력(蘇聯軍事力)의 강약점(強弱點)들을 분석(分析) 종합(綜合)하여 도출(導出)된 것이다.

대부분(大部分)의 분석가(分析家)들은 소련(蘇聯)이 1983년(年)까지는 미국(美國)에 대(對)하여 일시적(一時的)이기는 하나 전례(前例)없는 전략적(戰略的) 우위(優位)를 달성(達成)할 것으로 전망(展望)하며, 이러한 전망(展望)은 전략무기제한협정(戰略武器制限協定)(SALT)에 의하여도 실질적(實質的)으로 영향(影響)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

소련(蘇聯)은 이러한 전략적(戰略的) 우위(優位)를 바탕으로 미국(美國)의 모든 지상기지(地上基地) ICBM 체제(體制)에 대(對)하여 유감적(遺憾的)인 공격(攻擊)의 위협(威脅)을 주게 되었으며 보다 강력(強力)해진 군사력(軍事力)으로써 서구(西歐)와 대치(對峙)하며 원격분쟁지역(遠隔紛爭地域)에 개입(介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趨勢)에는 다른 측면(側面)도 있다. 즉, 소련(蘇聯)의 군비증강(軍備增強)은 경제(經濟)의 취약화(脆弱化)라든지, 내정상(內政上)의 권력계승문제(權力繼承問題), 증가(增加)되는 중공(中共)의 도전(挑戰), 동구공산국(東歐共產國)들과의 관계(關係)에서의 불화(不和), 세계공산국(世界共產國)의 분열화(分裂化) 움직임 등 여러 난제(難題)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狀況下)에서 전략분석가(戰略分析家)들은 소련(蘇聯)이, 미국(美國)이 군사력(軍事力) 평형(平衡)을 확보(確保)하기 전(前), 또한 소련(蘇聯) 자신(自身)이 정치적(政治的) 경제적(經濟的) 압력(壓力)에 영향(影響)을 받기 전(前)에 그들의 군사력(軍事力) 우위(優位)를 활용(活用)하려 하고 있음을 경고(警告)하고 있다.

경제(經濟)나 정치(政治), 이념문제(理念問題)에서 서구(西歐)에 대(對)하여 열세(劣勢)를 면(免)치 못하는 소련(蘇聯)으로서는 오직 군사문제(軍事問題)에 전력(全力)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專門家)들의 의견(意見)이다.

미(美) 국가안보회의(國家安保會議)(NSC)의 한 연구(研究)는 다음과 같은 결론(結論)을 내리고 있다. 즉, 미국(美國)과 구주(歐州)의 NATO 동맹국(同盟國)들이 소련(蘇聯)의 명백(明白)한 전략적(戰略的) 우위(優位)에 도전(挑戰)할수록 위험(危險)은 고조(高潮)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研究)의 주요(主要)한 공헌자(貢獻者)의 한 사람인 하바드대학교(大學校) 국제문제연구소(國際問題研究所)의 Samuel P. Huntington 교수(教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역사적(歷史的)으로 위기(危機)와 갈등(葛藤)은 한 세력(勢力)이 주도권(主導權)을 잡고 있으며 상대세력(相對勢力)이 그에 도전(挑戰)할 때 발생(發生)하며, 그 좋은 예(例)로는 히틀러 시대(時代)를 들 수가 있다”

닉슨과 포오드행정부(行政府) 시절(時節)에 헨리·키신저의 외교정책연구(外交政策研究)팀의 주요(主要) 멤버였던 William Hyland도 이와 유사(類似)한 의견(意見)을 표명(表明)한다. 그는 최근(最近) 한 소련문제(蘇聯問題) 전문가(專門家)들의 국제회의(國際會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바 있다. “소련(蘇聯)이 안보문제(安保問題)에 있어서 우위(優位)를 유지(維持)하는 것은 앞으로 대략(大略) 5년(年) 정도(程度)로 보는 것이 적당(適當)하다. 그 이후(以後)의 추세(趨勢)는 역전(逆轉)될 것이다. 가장 큰 의문점(疑問點)은 소련(蘇聯)이 80년(年) 후반(後半)에 겪게 될 문제(問題)들에 대비(對備)하여 현재(現在)의 군비우위(軍備優位)라는 호기회(好機會)를 어떻게 이용(利用)하려는가의 與否이다.

지금은 조지타운 대학교(大學校)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國際戰略問題研究所)의 선임연구원(先任研究員)인 Hyland는 소련(蘇聯)의 외교정책(外交政策)이 현재(現在) 더욱 호전적(好戰的)인 양상(樣相)을 띠고 있음을 지적(指摘)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련(蘇聯)의 전략(戰略)은 이미 유럽과 일본(日本)의 석유공급원(石油供給源)인 페르시아만(灣)과 아랍반도로 진출(進

出)하려는 징후(徵候)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재(現在)의 전반적(全般的)인 세력균형(勢力均衡)에 있어서의 새로운 변화(變化)에 대(對)한 정치적(政治的) 귀결(歸結)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소련(蘇聯)은 어느 지역(地域)에서 그 군사력(軍事力)을 이용(利用)하여 정치적(政治的) 이익(利益)을 모색(摸索)하려 하는가? 전략(戰略) 전문가(專門家)들은 다음과 같은 6개지역(六個地域)을 위험지구(危險地區)로 보고 있다.

● 이란-현재(現在)의 정치적(政治的) 위기(危機)가 왕(王)의 통치력(統治力)을 저하(低下)시키는 경우

● 사우디 아라비아-급진파(急進派) 장교(將校)들이나 기타 세력(勢力)에 의하여 현재(現在)의 취약(脆弱)한 왕권(王權)에 도전(挑戰)하는 혁명(革命)이 발생(發生)할 경우

● 유고슬라비아-현재(現在) 86세인 Tito 대통령(大統領)이 사망(死亡)하여 정치적(政治的) 혼란(混亂)이 야기(惹起)되는 경우

● 남(南) 아프리카-로데지아의 인종차별(人種差別) 문제(問題)가 심화(深化)될 경우 차츰 전(全) 남(南)아프리카로 진출(進出).

● 중공(中共)-북경(北京)과 반소(反蘇) 지도자(指導者)들을 곤경(困境)에 넣는 것이 잠재적(潛在的)인 위협(威脅)을 감소(減少)시키는데 필요(必要)하다고 결정(決定)되는 경우

● 노르웨이-소련(蘇聯)과 노르웨이의 국경(國境)으로부터 가까운 무르반스크 항(港)으로부터 대양(大洋)으로 통(通)하는 지점(地點)에 대(對)한 지배권(支配權)을 장악(掌握)하기 위하여 압력(壓力)을 가(加)함.

소련(蘇聯)이 상기(上記) 지역(地域)들에 개입(介入)하게 되면, 특히 과거와 같이 미국(美國)의 반응(反應)을 오산(誤算)할 경우에는 미국(美國)은 초강대국간(超強大國間)의 대결(對決)도 불사(不辭)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豫測)이 서방(西方)의 전문가(專門家)들 사이에 반드시 일반적(一般的)인 것은 아니다. 미국무성(美國務省)의 일부(一部) 전문가(專門家)들은 다른 견해(見解)를 표명(表明)한다. 그들은 소련(蘇聯)의 경제적(經濟的) 정치적(政治的) 문제(問題)들이 소련(蘇聯)의 지도자(指導者)들을 더욱 제약(制約)할 뿐이지 더 큰 모험(冒險)을 유발(誘發)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主張)하고 있다.

한 견해(見解)를 가진 소련문제(蘇聯問題) 전문가(專門家)들 중 가장 영향력(影響力) 있는 사람이며, 현재(現在) 국무성(國務省)의 소련문제담당(蘇聯問題擔當) 특별자문위원(特別諮問委員)인 콜럼비아 대학(大學)의 Marshall Shulman 교수(教授)의 말을 인용(引用)하면 다음과 같다. “소련(蘇聯)의 현상황(現狀) 논리(論理)는 과거 20년전(年前) 소련(蘇聯)이 경쟁(競爭)은 계속(繼續)되나 긴장(緊張)은 완화(緩和)되었던 「평화공존(平和共存)」(Peaceful Coexistence)이라는 외교정책(外交政策)을 주창(主唱)하게 되었던 논리(論理)와 같은 것이다.”

II. 전문가(專門家)들의 의문(疑問)

미국(美國)의 분석가(分析家)들은 소련(蘇聯)의 미래(未來) 행동방향(行動方向)에 대(對)하여는 의견(意見)이 구구하지만 소군비(蘇軍備)의 비중(比重)과 그로 인(因)한 경제적(經濟的) 부담(負擔)에 관(關)하여는 이견(異見)이 없다. 소련(蘇聯)은 국방(國防)과 목적(目的)을 위하여 군비(軍備)에 최우선성(最優先性)을 두고 있는 것이다.

전략문제전문가(戰略問題專門家)들이 가장 불안(不安)해 하는 것은 바로 이 점(點)이다. 즉, 제(第)1차(次) 전략무기제한협정(戰略武器制限協定)을 이미 체결(締結)하였으며 제(第)2차(次) 협정(協定)을 절실(切實)히 요구(要求)하면서도 그 이면(裏面)에서는 군비(軍備)를 감(減)할 기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美) 상원군비위원회(上院軍備委員會)의 일원(一員)이며 의회(議會)에서 지도적(指導的)인 국방문제권위자(國防問題權威者)인 Sam Nunn 상원의원(上院議員)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난 20년간(年間) 미국(美國)이 군사력(軍事力)과 정치적(政治的) 에너지를 월남전(越南戰)과 워터게이트 사건(事件)으로 상실(喪失)한 반면(反面)에 소련(蘇聯)은 미국(美國)에 대(對)하여 압도적(壓倒的)인 군사우위(軍事優位)를 달성(達成)하게 되었다. 한 국가(國家)가 평시(平時)에 그러한 엄청난 군비계획(軍備計劃)을 수행(遂行)한 예(例)는 1930년대(年代) 히틀러 집권하(執權下)의 독일(獨逸) 이후(以後)에는 처음있는 일이다.”

소련(蘇聯)의 국방비(國防費)는 사실상(事實上) 매년(每年) 4~5%씩 증가(增加)하고 있으며 이는 1960년대(年代) 이후(以後) 지속(持續)되어온 추세(趨勢)이다. CIA의 보고(報告)에 의하면 소련(蘇聯)의 국방예산(國防豫算)은 총국민생산(總國民生産)(GNP)의 거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그에 비(比)하여 미(美) 국방예산(國防豫算)은 GNP의 5.2%에 불과하며 그것도 더구나 1877년(年) 이후로는 사실상(事實上) 감소(減少)하고 있는 것이다.

소련(蘇聯)의 군비노력(軍備努力)을 고찰(考察)하면서 Jack Kemp 하원의원(下院議員)은 다음과 같이 지적(指摘)한다.

미국(美國)이 예산상(豫算上) 경제자원개발(經濟資源開發)을 위하여 부담(負擔)하는 만큼을 군비(軍備)에도 투자(投資)한다면 연세출액(年歲出額)은 2,000억불(億弗) 내지 2,600억불(億弗)이 될 것이며, 이는 카터 대통령(大統領)이 1979회계년도(會計年度)에 제출(提出)한 1260억불(億弗)의 약(約) 두 배가 되는 것이다.”

소련(蘇聯)은 지난 20년간(年間) 이 정도의 국방비(國防費)를 지출(支出)하면서 전략핵전력(戰略核戰力)에 있어서 2대 1의 대미우위(對美優位)를 점(占)하게 된 것이었다. 그들은 지금 미사일의 발사대수(發射臺數)와 투사중량(投射重量)에 있어 모두 앞서 있다. 미국(美國)은 아직은 정확도(正確度)와 개별목표(個別目標)를 공격(攻擊)할 수 있는 탄두수(彈頭數)에 있어 우세(優勢)하기는 하다.

그러나 미(美) 국무성(國務省)의 추산(推算)에 의하면 소련(蘇聯)은 1983년(年)까지는 단일

회(單一回)의 공격(攻擊)으로 미국(美國)의 지상기지(地上基地)의 미사일 중(中) 1,000대(臺)의 Minuteman과 5천대(千臺)의 Titan을 완전히 파괴(破壞)할 수 있을 정도로 탄두수(彈頭數)를 증가(增加)시킬 것이며 ICBM의 정확도(正確度)를 향상(向上)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일부(一部) 미(美) 행정부(行政府)의 관리(官吏)들은 이것이 전세계적(全世界的)으로 전략적(戰略的) 균형(均衡)이 소련(蘇聯)에 유리(有利)하게 변화(變化)하고 있다는 증거(證據)로 인식(認識)될 우려가 있으며 미국(美國)의 핵우산(核雨傘)의 신빙성(信憑性)을 저하(低下)시킬 가능성(可能性)이 있음을 두려워하고 있다.

III. 소련(蘇聯)의 병력(兵力) 무기(武器) 교범(敎範)

소련(蘇聯)의 대규모(大規模) 군비추세(軍備趨勢)는 전략핵방면(戰略核方面)에만 국한(局限)되는 것이 아니다. 병력규모(兵力規模)에 있어서, 소련(蘇聯)은 440만대(萬對) 210만(萬)으로 2대(對) 1이 대미우위(對美優位)를 견지(堅持)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20년간(年間) 소련(蘇聯)의 병력(兵力)은 100만(萬)이 증가(增加)하였고 미국(美國)은 150만(萬)이 감소(減少)한 결과(結果)이다.

충원(充員)된 100만(萬) 이외(以外)에도, 소련(蘇聯)은 15내지 43개(個) 사단(師團)을 증가(增加)시켜 중공(中共)을 경계(警戒)하는 군사력(軍事力)을 3배로 하였고 동구(東歐) 위성국(衛星國) 주둔군(駐屯軍)을 강화(強化)시켜 NATO에 대치(對峙)케 하였다.

병기(兵器)에 있어서도 상당(相當)한 증가(增加)가 있었다. 지난 20년간(年間) 소련(蘇聯)의 전차수(戰車數)는 35,000대(臺)에서 50,000대(臺)로 증가(增加)하였고 대포(大砲)도 12,000문(門)에서 20, 000문(門)으로 증가(增加)되었다.

영국(英國)의 전략문제연구소(戰略問題研究所)(IISS)는 중구(中歐)에서 바르사바 조약기구(條約機構)와 NATO간(間)의 군사력(軍事力)의 상위(相違)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년간(年間) 소련(蘇聯)이 유지(維持)해 온 군사력(軍事力) 우위(優位)를 더욱 확실(確實)히 하여 주는 것이라고 경고(警告)한다.

미국(美國)의 전략전문가(戰略專門家)들이 가장 위험(危險)하게 여기는 것은 소련(蘇聯)이 새로이 증강(增強)된 군사력(軍事力)을 원격위기지역(遠隔危機地域)들에 투입(投入)하지 않을까 하는 점(點)이다. 이러한 우려(憂慮)는 이미 소련(蘇聯)의 앙골라 및 이디오피아 개입사태(介入事態)로 현실화(現實化)되었다. 즉, 소련(蘇聯)은 쿠바군(軍)을 이 문제지역(問題地域)들에 투입(投入)시키고는 해군력(海軍力)과 공군력(空軍力)으로 그들을 지원(支援)하였던 것이다. 소련군(蘇聯軍)의 직접개입(直接介入)이 없이 침투(浸透)하는 이러한 작전(作戰)은 앞으로 하나의 패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美) 국무성(國務省)의 한 전문가(專門家)는 최근(最近) 소련(蘇聯)의 군사간행물(軍事刊行物)들이나 훈련교범(訓練敎範)들이 세계(世界) 각지역(各地域)에서의 가능(可能)한 작전(作

戰)들에 관(關)하여 점점 더 많은 지면(紙面)을 할애(割愛)하고 있음을 지적(指摘)한다. 그는 “소련군(蘇聯軍)들은 최근(最近) 새로운 세계질서(世界秩序)를 수립(樹立)하기 위하여 영외(寧外)로 파유(派遣)될 가능성(可能性)이 있음을 교육(教育)받고 있다. 이는 과거 자체방어(自體防禦)에 역점(力點)을 두던 것과는 판이(判異)한 양상(樣相)이며 이러한 추세(趨勢)가 계속(繼續)된다면 미국(美國)에는 커다란 문제(問題)가 제기(提起)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미(美) 국무성(國務省)은 지금 이러한 소련(蘇聯)의 위협(威脅), 특(特)히 주요(主要) 석유공급지(石油供給地)인 페르시아만(灣)에서의 위협(威脅)을 구명(究明)하여 그 대처방안(對處方案)을 수립(樹立)하기 위하여 다각적(多角的)인 연구(研究)를 하고 있다.

미국(美國)은 아직은 원거리(遠距離)의 위기지역(危機地域)에서의 군사행동(軍事行動)에는 우위(優位)를 유지(維持)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성(國務省)의 일부(一部) 정책수립가(政策樹立家)들은 미(美) 정부(政府)의 의사결정(意思決定)의 지연성(遲延性)을 이용(利用)하여 소련(蘇聯)이 사우디 아라비아나 이란 등지(等地)에서의 내부적(內部的)인 반란(叛亂)의 움직임에 부응(副應)하여 소규모부대(小規模部隊)로써 신속(迅速)히 개입(介入)할 가능성(可能性)을 우려(憂慮)하고 있다.

소련(蘇聯)의 이러한 대규모군비(大規模軍備)라는 중대(重大)한 문제(問題)에 대(對)하여 미국(美國)의 정부(政府)레벨과 비정부(非政府)레벨의 분석가(分析家)들은 활발(活潑)한 토론(討論)을 벌이고 있다. 과연 소련(蘇聯)의 미래행동방향(未來行動方向), 특(特)히 군사행동(軍事行動)은 대두(擡頭)되고 있는 경제적(經濟的) 이념적(理念的) 정치적(政治的) 문제(問題)에 의하여 어떻게 변화(變化)될 것인가?

IV. 소련(蘇聯)의 난제(難題)

대부분(大部分)의 서방전문가(西方專門家)들은 소련(蘇聯)의 경제(經濟)가 더욱 악화(惡化)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現在)의 군비부담(軍費負擔)이 가중(加重)되어 더 큰 희생(犧牲)을 요구(要求)하게 될 시기(時機)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事實)에 의견(意見)을 같이 하고 있다. 미(美) 국무성(國務省)의 한 분석가(分析家)는 현재(現在)와 같은 추세(趨勢)라면 소련(蘇聯)은 1980년대말(年代末)에 가서는 국방비(國防費)로 GNP의 20% 이상(以上)을 염출(捻出)해야 만 할 것이라고 예측(豫測)하고 있다.

소련(蘇聯)의 경제성장율(經濟成長率)은 절정기(絶頂機)였던 1950년대말(年代末)의 6%로부터 3%로, 1980년대(年代)에 가서는 심지어 2%로 저하(低下)될 것으로 예상(豫想)된다. 이의 주요인(主要因)은 증가(增加)되는 노동력(勞動力) 부족(不足), 낮은 생산성(生産性), 되풀이 되는 농업(農業)에서의 실패(失敗), 심각(深刻)한 에너지 위기(危機), 서구(西歐)의 양곡(糧穀) 및 기술(技術) 공업장비(工業裝備) 등을 도입(導入)하기 위한 경화(硬貨)의 결핍(缺乏) 등(等)으로 풀이 된다.

CIA의 한 보고서(報告書)는 소련(蘇聯)의 경제(經濟)는 앞으로 수년간(數年間), 일일생산량(一日生産量) 1,200만 배럴 수준(水準)에서 800만 배럴 수준(水準)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급속(急速)한 원유생산량(原油生産量) 저하(低下)에 의하여 더욱 악화(惡化)될 것으로 예견(豫見)하고 있다. 이러한 예측(豫測)이 옳은 것이라면 소련(蘇聯)은 대외판매(對外販賣)로 연(年)50억불(億弗)의 수입(收入)을 기록(記錄)하던 원유수출국(原油輸出國)으로부터 1985년(年)에는 외국원유(外國原油)를 구입(購入)하기 위하여 100억불(億弗)을 소비(消費)해야 하는 원유수입국(原油輸入國)으로 전락(轉落)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決果)는 경제적(經濟的)으로나 정치적(政治的)으로 심각(深刻)할 것이다. 경제성장(經濟成長)은 에너지 자원(資源)의 부족(不足)과 공업자금(工業資金)을 지원(支援)하고 양곡(糧穀)을 도입(導入)하며 100억불(億弗)에 이르는 부채(負債)를 상환(相換)할 경화(硬貨)의 결핍(缺乏)에 의하여 더욱 침체(沈滯)할 것으로 보인다. 소련(蘇聯)이 동구(東歐)의 위성국(衛星國)들에게 석유(石油)를 공급(供給)하여 주지 못하고 따라서 그 국가(國家)들의 경제(經濟)가 위축(萎縮)되며 서구국가(西歐國家)들에게 원조(援助)를 요청(要請)하게 될 상황(狀況)에 이르면 정치적(政治的)인 변화(變化)는 클 것이다. 즉, 소련(蘇聯)은 위성국(衛星國)에 대(對)한 지배권(支配權)을 상실(喪失)하거나 더욱 강압적(強壓的)인 조치(措置)를 취(取)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結果)는 또한 소련(蘇聯)으로 하여금 현재(現在) 대일(對日), 대미(對美), 대서구관계(對西歐關係)를 정상화(正常化) 하고 있는 중공(中共)과의 반목(反目)을 더욱 크게 할 가능성(可能性)이 있다. 미국(美國)의 한 전문가(專門家)는 “소련(蘇聯)을 괴롭히고 있는 악마(惡魔)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表現)한다

그러나 서방(西方)의 전략전문가(戰略專門家)들은 소련(蘇聯)이 대(對) 중공관계(中共關係)나 경제문제(經濟問題)를 고려(考慮)하여 국방정책(國防政策)을 수정(修正)하려는 움직임을 발견(發見)해내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大部分)의 전문가(專門家)들은 현재(現在) 기세인 브레즈네프의 후계자문제(後繼者問題)가 결정(決定)될 것으로 보이는 1980년대(年代)까지는 어떠한 변화(變化)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브레즈네프의 계획(計劃)은 카터 대통령(大統領)과의 최초(最初)의 정상회담시(頂上會談時) 재조명(再照明)될 것이다.

미국(美國)의 한 고위관리(高位官吏)는 다음과 같이 언급(言及)한다. “브레즈네프는 국제적(國際的) 문제(問題)들을 미국(美國)과 공동(共同)으로 다루는 방식(方式)을 취(取)함으로써 미국(美國)과 대등(對等)한 관계(關係)를 유지(維持)하려 한다. 동시(同時)에 그는 소련(蘇聯)이 위기지역(危機地域)에서 자유(自由)롭게 작전(作戰)을 수행(遂行)하여 그들의 영향력(影響力)을 확대(擴大)할 것을 모색(摸索)하고 있다.”

“카터”와 “브레즈네프”의 정상회담(頂上會談)에 즈음하여 미(美) 행정부(行政府) 관리(官吏)

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미(美)·소(蘇)가 또 한 번 밀월여행(密月旅行)을 하게 될 것을 기대(期待)한다. 그러나 그것은 소련(蘇聯)이 이란이나 사우디 아라비아 남(南)아프리카 등지(等地)에서 군사적(軍事的) 행동(行動)을 취(取)하게 될 때 끝날 것 이다. 문제(問題)는 미국(美國)이 어떻게 그에 대처(對處)하는 가이다.

변동(變動)하는 세력균형(勢力均衡)

1. 전략핵전력(戰略核戰力)

무 기 (武 器)	국별(國別)	보유대수(保有臺數)	
		1968년(年)	현재(現在)
ICBM(대륙간탄도(大陸間彈道) 미사일)	미(美)	1,054	1,054
	소(蘇)	858	1,400
SLBM (잠수함발사(潛水艦發射) 미사일)	미(美)	656	656
	소(蘇)	121	1,015
전략폭격기(戰略爆擊機)	미(美)	545	432
	소(蘇)	155	135
핵탄두(核彈頭)	미(美)	4,300	11,000
	소(蘇)	1,300	4,500

2. 일반전력(一般戰力)

무 기 (武 器)	국별(國別)	보유수(保有數)	
		1968년(年)	현재(現在)
병력(兵力)	미(美)	350만	210만
	소(蘇)	340만	440만
전차(戰車)	미(美)	8,500	10,500
	소(蘇)	32,400	50,000
전술항공기(戰術航空機)	미(美)	5,100	4,500
	소(蘇)	4,000	4,650
전함(戰艦)	미(美)	360	172
	소(蘇)	230	243

항공◎군사◎과학

F-16과 MIG-21과의 공중전(空中戰) 능력비교(能力比較)

윤 연 기(尹 煙 基) (역(譯))

미국(美國)의 F-16과 소련(蘇聯)의 MIG-21 bis Fishbed N이 대표(代表)로 하는 동(東)·서방간(西方間)의 최신 경량전투기세대(輕量戰鬥機世代)(The generation of light fighter)의 차이는 개념상(概念上)에 있어서나 기술면(技術面)에 있어서 아마 그 세대가 두 세대(世代) 정도의 차이가 있는 항공기이다. 따라서 이들 항공기(航空機)에 대한 1:1의 성능상(性能上)의 비교(比較)를 정확하게 하기는 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年代)의 구라파의 전쟁(戰爭)에서 이들 항공기(航空機)는 정면(正面)으로 충돌할 것이며, 수적으로는 소련(蘇聯)이 우세할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더우기 MIG-21을 계속 개량(改良)하고 있으며, 그 결과(結果)가 장 숙련된 F-16 조종사(操縱士)에게까지도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F-16 및 MIG-21과 같은 근본적으로 특성(特性)이 같지 않는 항공기(航空機)를 타당성 있게 비교(比較)하려면, 광범위한 Parameter에 의존(依存)할 수 밖에 없으며, 이들 Parameter의 일부(一部)는 결정적(決定的)으로 중요(重要)한 요소(要素)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능을 비교(比較)하는 문제(問題)에는 선회반경 및 상승률(上昇率)과 같은 문제(問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각(各) 항공기(航空機)가 갖고 있는 레이더의 성능(性能), 전투무장(戰鬥武装), 연료(燃料)적재 능력(能力) 및 소모량, 조종실(操縱室)의 구조, 작전(作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요소(要素) 및 조종사(操縱士)의 훈련수준과 같은 기타(其他) 여러 가지의 요소(要素)들이 이에 포함된다.

두 항공기(航空機)의 공중전(空中戰)에 대(對)한 성능(性能) 이외에도, 이와 같은 여러가지 점들을 연구(研究) 및 평가(評價)할 것이다. 그러나 F-16의 Counterpart로서 MIG-23을 선정하지 않고 MIG-21bis를 선정한 이유(理由)는 무엇일까?

기술상(技術上)의 갭(Technology Gap)

기술적(技術的)인 관점에서 볼 때, F-16A는 다른 개발(開發)에 비(比)하여 우수한 여러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 고양각(High angle of attack)에서의 우수한 성능(性能)을 발휘(發揮)할 수

있고, 컴퓨터로 조종되는 Leading edge의 기동(機動)Flap을 사용함은 물론, Wing/동체(胴體) 연결 부분(部分)을 설계하는데 최신식(最新式) 항공역학적(航空力學的) 기술(技術)을 이용(利用)함으로써, 우수한 Dogfight 능력(能力)을 갖고 있다.

새로운 비금속구성물질과 소형화하여 무게가 무겁지 않은 전자장비(電子裝備)를 사용(使用)하고 추력이 우수한 엔진을 사용(使用)함으로써 F-16A는 우수한 추력(推力)/중량비(重量比)를 갖고 있다.

F-16A는 조종실(操縱室)을 특수(特殊)하게 설계하였으며, 시계(視界)가 양호하므로 공중전시(空中戰時) 조종사(操縱士)는 많은 이점(利點)을 갖게 되며, F-16의 또 다른 기술상(技術上)의 발전(發展)된 특징은 Fly-by-wire 조종체제를 사용(使用)한 점이다.

기술적(技術的)인 면(面)에서 볼 때, 현재(現在) 소련(蘇聯)은 이와 같은 경량(輕量), 최신(最新) 공중우세전투기(空中優勢戰鬥機)와 대등(代等)할 만한 전투기(戰鬥機)를 갖고 있지 않다. 소련(蘇聯)의 항공산업(航空産業)은 이와 같이 높은 비율(比率)의 비금속물질을 사용(使用)한 전투기(戰鬥機)를 제작(製作)할 능력(能力)을 현재(現在)로서는 갖고 있지 않음이 확실(確實)하다. 또한 소련(蘇聯)은 F-16의 엔진과 비교(比較)가 될 만한 중량(重量)이 가볍고 체적이 작은 전자장비(電子裝備)를 생산(生産)할 능력(能力)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조종실(操縱室)의 Configuration 문제(問題)와 시계성(視界性) 및 재래식(在來式) 비행조종체제(飛行操縱體制) 등(等)과 같은 기타(其他) 여러가지의 결점 등은 머지 않아 곧 거의 해결될 것이 확실(確實)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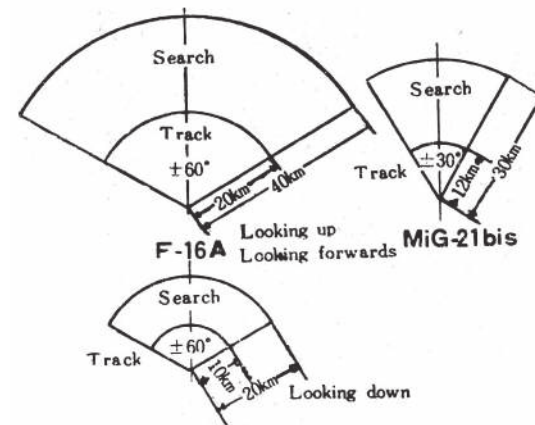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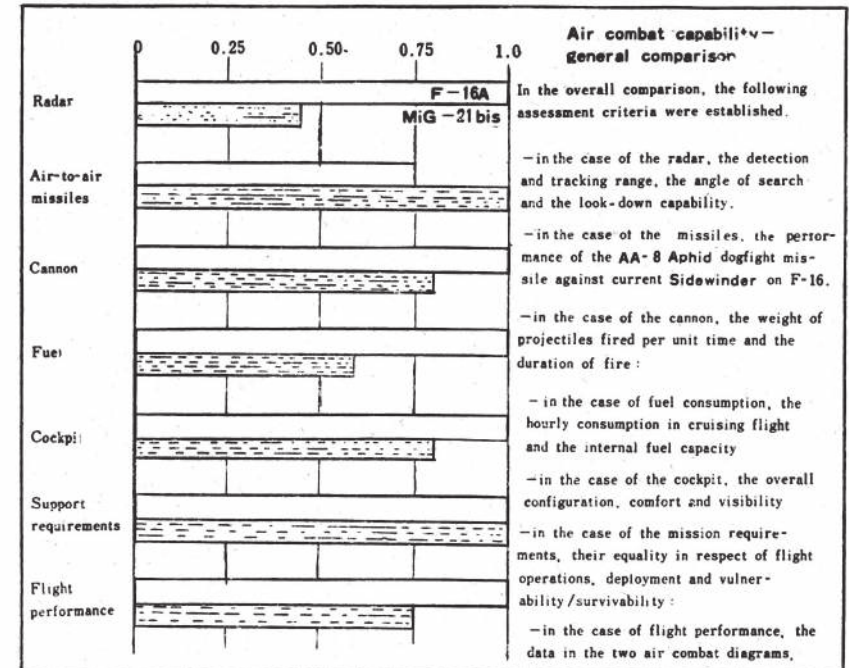
비록 컴퓨터로 조종되지는 않지만, 기동(機動)을 하기 위하여 Flap을 사용하는 기술(技術)은 MIG-21(Trailing edge)과 MIG-23(Leading edge)이 Dogfight하는 동안에 입증(立證)되었다. 소련(蘇聯)은 고(高)양각에서 발생(發生)되는 항공역학적(航空力學的) 효과(效果)에 대(對)하여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소련항공기(蘇聯航空機)의 기술상(技術上)의 열세를 감안해 볼 때, 현재(現在)로서는 F-16A와 타당성 있게 비교(比較)가 되는 항공기(航空機)는 MIG-21bis Fishbed N 만을 고려할 수 있다.

다른 중량급(重量級)에 속하는 MIG-23은 Dogfight용(用)으로 주로 설계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MIG-23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들 두 항공기(航空機)를 비교(比較)한 결과(結果) F-16A가 우세하다는 것이 입증(立證)되었음을 사전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나 MIG-21bis도 강인한 적기(敵機)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레이다(Radar)

소련전투기(蘇聯戰鬥機)의 취약점 중의 하나는 전자장비(電子裝備)와 특히 레이다 분야(分



The diagrams show the detection and tracking ranges of the F-16A and MIG-21bis radars. All data is based on an aerial target with a radar cross-section of 1m² (MIG-21 or F-104). The two upper diagrams apply to forward-looking search and track or looking up at higher-flying targets. The lower diagram applies to lower-flying targets. The MIG-21bis radar cannot according to current information track lower-flying aircraft near ground level.

野)이다. 소련(蘇聯)탐재 레이더의 탐색(探索) 및 추적거리(追跡距離)가 괄목할만큼 향상(向上)되기 시작(始作)한 것은 1960년대(年代) 후반 이후부터였다.

소련전투기(蘇聯戰機)의 가장 우수한 탐재장비는 최대로 100km(62마일)까지의 거리를 탐색(探索)할 수 있을 것이며, 동(同) 탐재장비는 폭격기(爆擊機)에 대(對)해서 사용(使用)되는 MIG-25의 Fox Fire Radar이다. MIG-21bis에 장치(裝置)한 Jay Bird 레이더나 또는 그 개량형(改良型)은 Radar Cross-Section이 1m²인 목표물(目標物)을 최대로 30km(18마일)까지 탐색(探索)할 수 있다.

J-band(10~20GHz)로 작동(作動)하는 동 레이더는 F-16A Westinghouse Radar와 같이 저고도로 비행(飛行)하는 목표물(目標物)을 추적할 수 있는 하방감시능력(能力) (Look-down Capability)을 갖고 있지 않다. F-16A 레이더는 1-Band (8~10GHz)로 작동(作動)하는 Pulse-Doppler Radar로서 전천후항법용(全天候航法用)으로 사용(使用)할 수도 있다. Radar Cross-Section이 수평방미타인 목표물(目標物)에 대(對)해서 사용(使用)되기는 하지만, F-16레이더의 탐색(探索)범위는 약 150km(93마일)이다.

이들 두 레이더의 탐색(探索) 및 추적거리(追跡距離)를 비교(比較)해 볼 때, F-16A 레이더가 평균 50% 우세하다. 저고도 비행목표물(飛行目標物)의 경우에는 이 우세성의 차이는 100%로 증가(增加) 한다.

공대공(空對空)미사일

MIG-21bis Fishbed N은 표준 미사일 무장으로 AA-2 Atoll미사일 4발을 무장(武裝)하며, 이는, Fishbed K의 무장과 같다. 동 미사일은 고성능 1R Seeker를 사용한 개조형 AA-2(소련 명칭(蘇聯名稱) K-13) 미사일 2발과 반 능동(能動) Radar Seeker를 사용한 AA-2 미사일 2발이다. AA-2 Atoll은 미국(美國)의 AIM-9 Sidewinder와 직접 비교(比較)가 되며, 후자형의 성능(性能)은 탐색범위나 Dogfight 능력면(能力面)에서 미국(美國)의 Original 한 미사일의 성능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MIG-21bis가 AA-8 Aphid Dogfight 미사일로 무장(武裝)을 할 경우에는 F-16A 보다 크게 우세할 것이다. Aphid 미사일은 30g 이상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能力)을 갖고 있으며 극히 작은 선회 반경으로 비행(飛行)할 수 있는 기동성(機動性)이 아주 높은 미사일이다.

동 미사일은 그 길이가 약 2m(6.5ft)이고, 무게는 약 55kg이다. Seeker의 탐색(探索)거리는 8km(5마일)로 평가(評價)하고 있다.

MIG-21bis가 동(同) 미사일을 사용(使用)하면 많은 이점을 갖게 될 것이며, 어쨌서 이 미사일이 MIG-21bis에서 관측되지 않았는가는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 그 한 이유(理由)로서는 생산능력(生産能力)이 제한(制限)되어 있는데에도 있을 수 있으며, 보다 취약성이 있는 MIG-23 Flogger B형을 Aphid 미사일로 무장하는데 우선권을 두고 있는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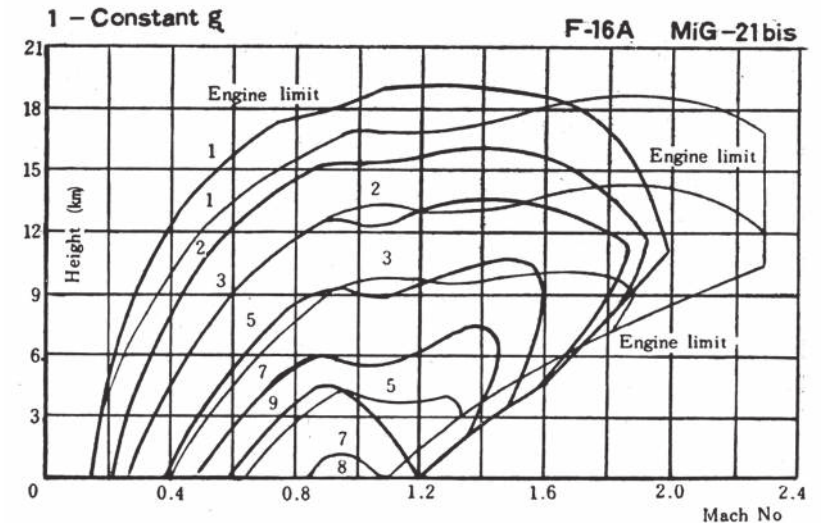


Diagram 1. shows the constant, i.e. sustained, vertical-acceleration characteristics. The F-16A's impressive 9g envelope, stretching from Mach 0.6~1.2 and from H=0-4,500m, stands out clearly. The 1g curve, the outermost, shows the flight envelope of both aircraft; the domain above M=2.0 is reserved for the MIG-21bis by virtue of its variable air intake configu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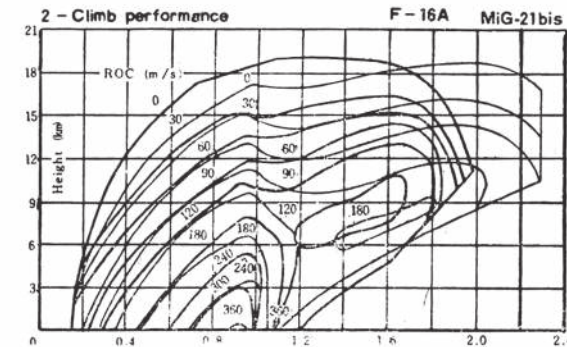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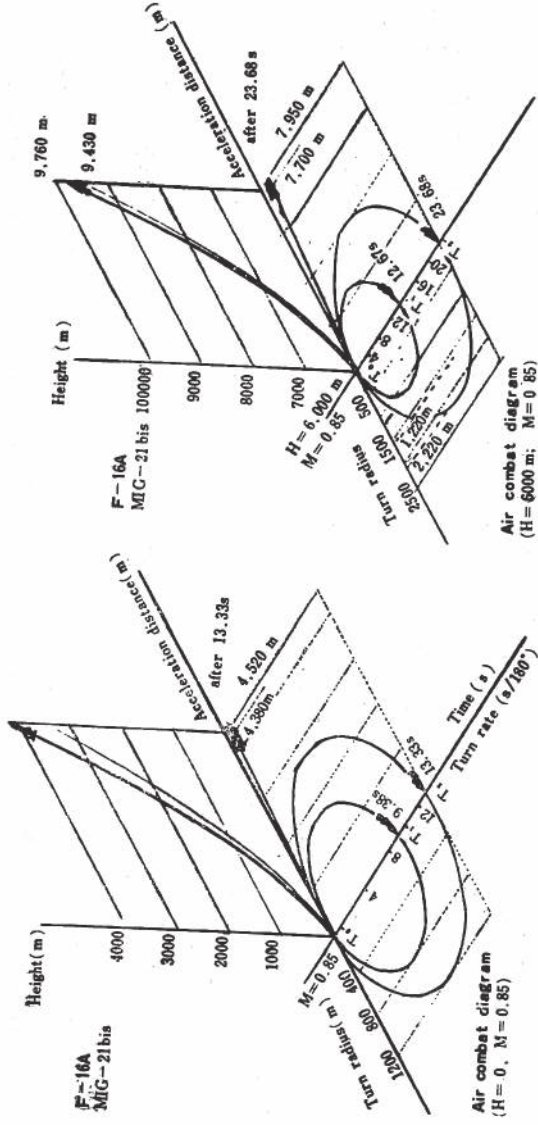


Diagram 2. shows an altitude/Mach number graph with lines of constant climb speed. Here, too, the F-16A is better at lower altitudes, its superiority decreasing towards the top. Apart from the lower thrust/weight ratio of the MIG-21bis, the effects of the different engine characteristics are also noticeable. Despite the fact that the Tumansky R25-300 is the latest engine in the series, incorporating numerous modifications, the engine design is basically for a high-altitude interceptor, with weaker performance at lower altitudes.



While comparison of flight performance data diagrams of two aircraft is of high value, users of this type of information-above all pilots-would welcome an aircombat diagram from which all important data could be read at a glance. An attempt is made in the three-dimensional graphs to provide this sort of information, with "platform" figures for turn rate and horizontal radius, climb performance and horizontal acceleration. Based on the same height and Mach No. both aircraft can carry out a "Computerised" fly-off (in the two examples, at $H=0m/M=0.85$ and at $H=6,000m/M=0.85$). Climb speed is assumed to be constant at Mach 0.85 for the sake of simplicity. The times given apply to a 180° turn. For acceleration and climb the longer turn time has been selected. It should be noted that the distances over ground covered in a climb are not the same as the horizontal acceleration distance.

Similar diagrams can be prepared for any combination of height and Mach number; nevertheless, it was considered more relevant for the purposes of an air combat comparison to select as corner points in the high Mach number diagram $H=0$ and $6,000m$ and $M=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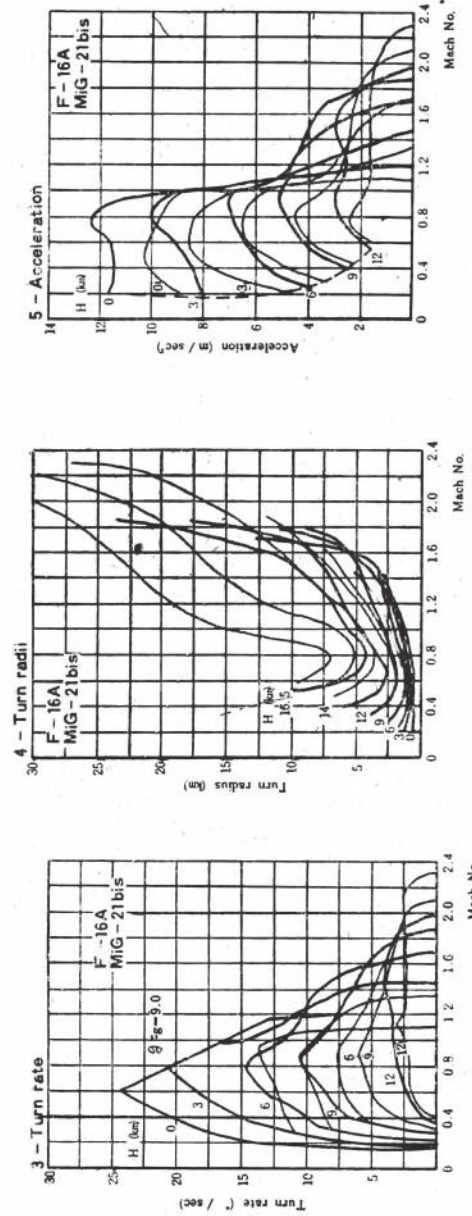


Diagram 3. compares turn rate with Mach number at various altitudes. The high lift values which can be attained with the F-16A, together with the necessary thrust/weight ratio, gives the exceptional dogfight capability. This applies particularly to the decisive regime for air combat, between zero and about $7,000m$, where the F-16A is markedly superior to the MiG-21bis.

Diagram 4. gives the minimum turn radii at various Mach numbers and altitudes. Here, too, the superiority of the F-16A can be seen by virtue of the higher g values it can achieve. In the air combat regime, the MiG-21bis has turn radii which average a factor of $1.5 \sim 1.8$ those of the F-16A.

Diagram 5. shows the acceleration at various Mach numbers and altitudes. This diagram is directly connected with Diagram 2 (climb performance) because excess power at every point of the altitude/Mach number regime can be converted into either climb speed or acceleration. As may be expected the F-16A is shown to be superior at lower altitudes.

MIG-21bis가 동 미사일로 무장(武装)하기 전에 오직 시간적인 문제에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서방의 방공계획자(防空計劃者)들은 그들의 계산(計算)에서 이와 같은 우발성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기총 및 탄약

1969년(年)에 Fishbed J가 소개된 이후 MIG-21bis는 Gsh-23 Twin 23mm 기총으로 무장(武装)을 하여 왔다. 동 최신형의 경량급 기총은 그 화력률(火力率)이 약 3,000 rounds/min이며, 이 화력률(火力率)은 F-16A에 장차(装差)한 20mm M61A-1 Vulcan Galting 기총의 6,000rounds/min 보다 훨씬 낮은 화력률(火力率)이다.

MIG-21bis는 4초에 200발(發)을 발사하는 셈이며 F-16A는 5초에 500발(發)을 발사하는 셈이 된다. 이는 두 발사체(發射體) M61A-1-110gm=3.8oz, Gsh-23-180gm=6.30z의 중량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총 발사중동(發射重童)(Throw Weight)는 F-16A를 기준으로 해서 66/54로 크게 다르지 않다.

연료적재능력(燃料積載能力) 및 소모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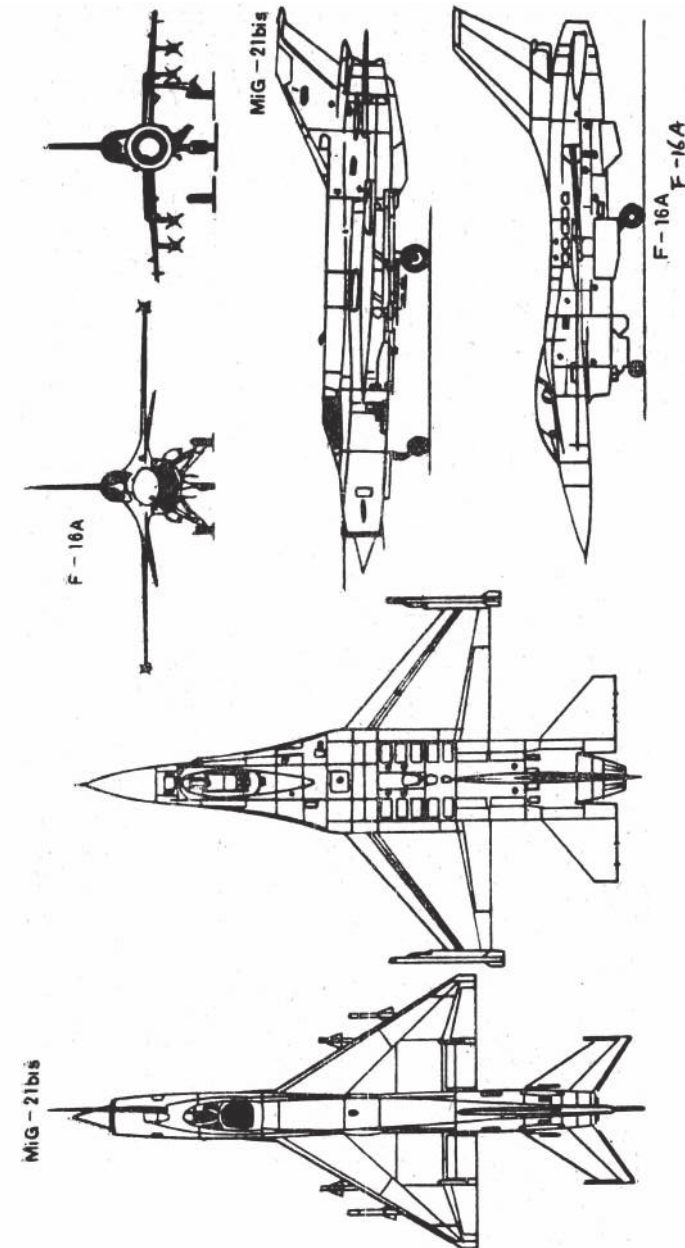
공중전(空中戰)을 포함하여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연료적재능력(燃料積載能力) 및 소모량 문제(問題)이다. 항공기(航空機)의 임무능력(任務能力)을 결정(決定)하는 여러 가지 특성(特性)의 대부분(大部分)은 이 두 가지 요소에 좌우된다. Dogfight에 참여하는 항공기(航空機)는 교전(交戰)을 중지하여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침투하는데 소요(所要)되는 시간이나 배회 비행시간 등은 연료의 부족을 초래케 하기 때문이다.

순항비행성능(巡航飛行性能)을 비교(比較)하면, 시간당 연료(燃料) 소모량이 1,400kg(3,086lb)이고, 연료적재능력(燃料積載能力)이 3,510kg(6,945lb)인 F-16A가 시간당 연료(燃料)소모량이 1,800kg(3,968 lb)이고, 연료적재(燃料積載) 능력(能力)이 2,400kg(5, 291lb)인 MIG-21 보다 월등하게 우세함을 알 수 있다.

조종실(操縱室) (Cockpit)

F-16A의 Ejection Seat는 뒤로 37° 기울어져 있으며, MIG-21bis의 Ejection Seat는 약 20° 기울어져 있다. 따라서 F-16 조종사(操縱士)는 약 30°로 착석하게 되고, MIG조종사(操縱士)는 13°로 착석하게 된다. 그 외에도 F-16조종사(操縱士)의 Heel Line이 15cm 위로 올라가 있어서, 상당한 정도까지 G에 대한 관용이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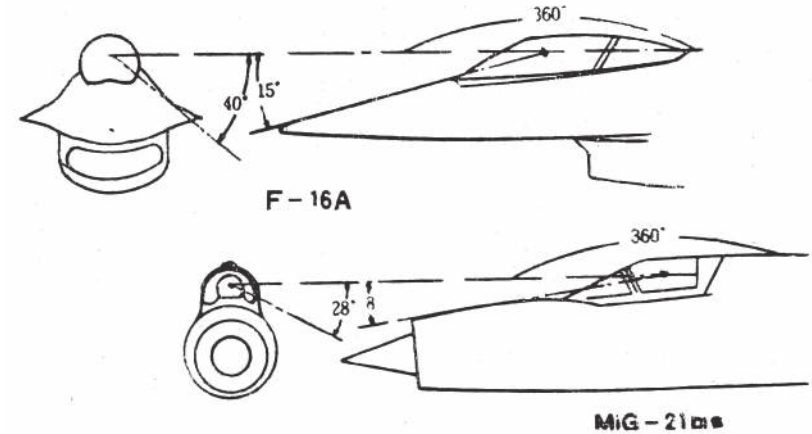
그러나 조종사의 무릎이 올라가면, 계 기판의 스페이스가 제한을 받으며, 조종사의 양쪽 다리 사이의 재래식 위치에서 Control Column을 움직이도록 General Dynamics사가 취한 결



The three-view drawings show the differences in the external configuration of the two combat aircraft; the unusual aerodynamic features of the F-16A are clearly apparent. However, the tailed-delta configuration of the MIG-21bis still provides a superb solution to air-superiority requirements.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the first MIG-21 went into service in 1959. (Modified Pilot Press drawing)

Comparative data table

	F-16A	MIG-21bis
Crew	1	1
Dimensions		
Length overall	15.18m	15.20m
Fuselage length	14.10m	13.20m
Wingspan	9.45m	7.15m
Sweep	40°	57°
Gross wing area	27.87m ²	23.00m ²
Aspect ratio	3.00	2.22
Height	5.01m	4.10m
Weights		
Empty wt.	6,600kg	5,200kg
Internal fuel	3,160kg	2,400kg
Weapon load (missiles)	160kg	260kg
Normal take-off wt.	10,120kg	7,960kg
Engine		
Designation	F100-PW-100	R25-300
Thrust without afterburner	6,500kg	5,000kg
Thrust with afterburner	11,370kg	7,500kg
Specific data (max. thrust, 50% internal fuel, two missiles)		
Wing loading	306kg/m ²	289kg/m ²
Thrust: wt. ratio	1.33	1.14
Performance (max. thrust, 50% internal fuel, two missiles)		
Max. speed at sea level	Mach 1.2	Mach 1.1
Max. speed at altitude	Mach 2.0	Mach 2.3
Service ceiling	18.5km	18.5km
Max. rate of climb at sea level	370m/s	310m/s
Max. g-loading	9.0g	8.0g
Max. turn rate at sea level	4°/s	13.75°/s
Min. turn radius at sea level	490m	600m
Max. horizontal acceleration at sea level	12.6m/s ²	10.4m/s ²



Diagrams of the forward fuselage sections of the F-16A and MIG-21 bis, drawn to the same scale, clearly show the difference in visibility from the cockpits of the two aircraft. Looking forwards and to the side, the F-16A pilot undoubtedly has a better field of view. In spite of the F-16's superb all-round visibility, for rearward visibility the MIG-21bis pilot could in some cases have an advantage in that he can look at the canopy-mounted 'spherical mirror without turning his head. For the approach and landing, the F-16A pilot has all the advantages, although his semi-recumbent seating position could be uncomfortable.

정(決定)을 고무해 준다.

F-16은 완전히 전기식으로 신호가 되는 비행조종체제(飛行操縱體制)를 사용함으로써 힘을 입력(入力)시키는데 움직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Control Stick작용(作用)의 이용(利用)을 편리하게 하여 준다. 그리고 조종사의 손이 닿을 수 있는 조종석의 우측에 설치할 수 있도록 아주 작게 할 수 있으며, 전투시(戰鬪時)에는 Console로 고정시킬 수 있다.

F-16은 조종실(操縱室)에서 시계(視界)가 양호(良好)하기 때문에 공중전(空中戰)의 효과(效果)를 증가(增加)시킬 수 있고, 조종사(操縱士)들은 이륙할 때나, 상승(上昇) 또는 착륙할 때 별로 곤란을 받지 않고 그의 위치(位置)를 쉽게 확인(確認)할 수 있다.

전술적(戰術的) 지원요구(支援要求)

역시 이 분야에 있어서도, 두 항공기간(航空機間)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으며, F-16A는 최근(最近)에 이용(利用)할 수 있는 기술적(技術的) 발전(發展)을 이용(利用)함으로써, 기술(技術)

과 처리 절차면에서 많은 이점(利點)을 갖고 있고, MIG-21bis는 소련(蘇聯)의 임무요구(任務要求)를 보다 정확(正確)하게 질적으로 충족(充足)시켰다.

따라서 MIG-21bis는 비포장 활주로에서 작전(作戰)할 수 있는 능력(能力)이 있으며, 그 외에도 자동(自動)으로 엔진을 가동시킬 수 있는 체제(體制)를 갖추고 있다. 동구 블록국가 조종사(操縱士)들은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은 그들 자신(自身)의 항공기(航空機)에 대(對)해서는 기초적인 정비(整備)를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된다.

F-16A는 전자장비(電子裝備) 및 기타(其他) 체제(體制)를 점검하는 자동(自動)점검 체제(體制)를 갖추고 있어서 필요시(必要時)에는 결점의 위치(位置)를 확인(確認)할 수 있다. 그 외(外)에도 엔진에 관한 Data가 Print Out되며, Borescope의 점검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장기간의 작전(作戰) 기간 동안에는 두 기종(機種)은 실제적으로 거의 동일(同一)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취약성

F-16A4 MIG-21bis는 레이더에 포착(捕捉)되는 확률은 거의 같다. 또 항공기(航空機)의 크기가 거의 같기 때문에 광학적(光學的)으로 포착되는 기회도 같다고 간주할 수 있다. 그 외(外)에도 두 엔진의 형은 Smoke-Free형이다. 두 항공기(航空機)의 적외선의 특징은 거의 똑같으며, F-16A의 엔진은 Bypass율(率)이 낮은 F-100-PW-100터보팬 엔진을 사용(使用)하였고, MIG-21bis의 엔진은 R25-300 터보제트 엔진으로 연소온도가 상당히 낮다.

F-16의 Radar Cross-Section의 크기는 약 1m²이므로, MIG-21의 Cross-Section보다 약 10~15%가 더 크며, 이는 표면이 약 30%가 더 크기 때문이다.

직접명중(直接命中)(Direct Hit)을 받고 난 후의 생존성을 연구(研究)할 때에는 이들 두 항공기(航空機)가 단좌(單座), 단일(單一)엔진의 항공기(航空機)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두 항공기(航空機)의 구성품(構成品)의 구성밀도도 거의 같다.

이들 두 항공기(航空機)의 조종사나, 연료체제 엔진 및 부속품 Box와 전자장비(電子裝備) 등(等)이 적(敵)의 화력(火力)으로부터 받는 취약성은 거의 같다. Fly-by-wire 체제(體制)를 사용(使用)한 F-16A가 여러 면(面)으로 이점을 갖고 있음이 확실(確實)하나, 대체적으로 보아 두 기종(機種)의 취약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

조종사(操縱士) 훈련(訓練)

두 전투기(戰鬥機)를 비교(比較)할 때에는, 전술(戰術) 및 성능상(性能上)과 특성(特性)만을 고려할 수 있다. 상대방(相對方)의 두 조종사(操縱士)들은 그들의 능력(能力)과 용기 및 신체적(身體的)인 저항능력(能力), 심리적(心理的)으로 받는 Stress 등(等)을 알맞게 수자(數字)로 나

타낼 수 없기 때문에 비교(比較)를 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요소(要素)를 질적(質的)으로 평가(評價)하는 일은 최대한으로 피하여야 한다. 이는 이들 요소(要素)들 때문에 잘못된 결론(結論)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例)는 잘 알려진 제(第)2차(次) 세계대전(世界大戰)의 통계(統計)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일반적(一般的)으로 말해서, 전투(戰鬥)조종사를 비교(比較)할 때, 서방국가(西方國家) 조종사들은 보다 우수한 훈련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또한 공중전(空中戰)에서, 결정적(決定的)인 요인(要因)은 계속 지상유도(地上誘導)에 의존(依存)하고 있는 동구 블록 조종사들에 비(比)하여, 서방국가 조종사들이 보다 독자적으로 작전(作戰)할 수 있는 데에도 있을 수 있다.

항공기(航空機) 성능(性能)

성능(性能)을 정확(正確)하게 비교(比較)하기 위해서는 도표 1~5에 표시(表示)된 두 항공기(航空機)의 기초적인 확실한 Data에 대한 연구(研究)를 항상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전투(戰鬥)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重要)한, 성능상의 수자만을 선택하였으며, 이들은 수직상의 가속도, 선회율, 선회반경, 상승성능 및 수평상의 가속도 등이다.

성능을 비교(比較)하는데 필요(必要)한 주석을 해당 도표에 부여하였다. 모든 수치는 성능(A/B포함)과 50%의 소모된 연료 및 2개의 공대공(空對空)미사일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조건하(條件下)에서의 F-16A의 전투중량(戰鬥重量)은 8,545kg(18,838 lb)이고, MIG-21bis의 전투중량(戰鬥重量)은 6,620kg(14,594 lb)이다. 이는 F-16A에게는 306kg/m²(62.67의 익면하중과 MIG-21bis에게는 289kg/m²(59.18lb)의 익면하중을 각각 준다. 다시 말해서 소련(蘇聯)의 항공기(航空機)는 익면하중이 6%가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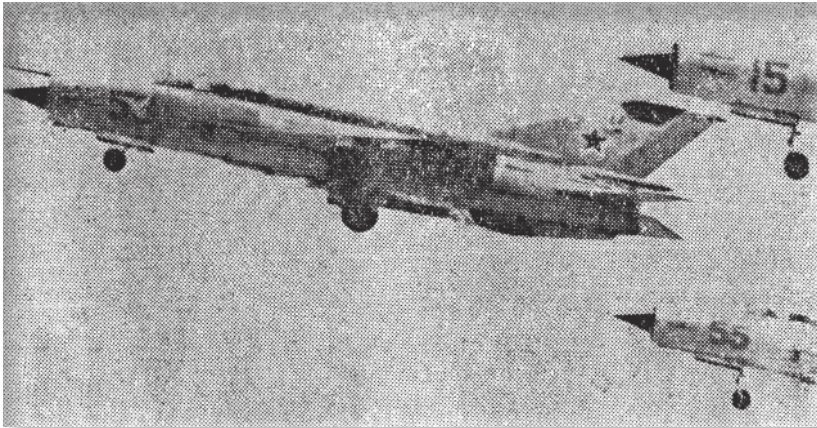
F-16A의 추력대중량비(推力對重量比)는 1.33:1이고, 이는 MIG-21bis의 추력대중량비(推力對重量比) 1.14:1보다 16%가 높다. MIG-21bis의 Air Intake Configuration Mach 1.8~1.9 이후(以後)부터는 MIG-21에게 우수성을 제공하여 줄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다.

F-16A가 큰 이점을 갖는 것은 수직 가속도가 보다 높기 때문이며, 고도(高度) 4,500m에서는 9g로 계속 선회 비행할 수 있으나 13,000m까지의 고도에서는 9g로 선회비행이 불가능하다.

앞의 도표(圖表)에서 비교(比較)해온 MIG-21bis와 F-16A는 미(美)·소(蘇) 양국의 대표적(代表的)인 경량우세전투기(輕量優勢戰鬥機)이다. 이와 같은 사실(事實)에도 불구하고, MIG-21경우 우리는 1959년(年)에 최초형(最初型)으로 작전화(作戰化)한 항공기(航空機)를 취급하여 왔다.

MIG-21의 개량형(改良型)은 F-16A와 비교(比較)가 될 수 있는 항공기(航空機)이다. MIG-21bis Fishbed N은 Fishbed J/K/L형(型)과 같이 소련(蘇聯)의 3세대(世代) 전투기(戰鬥機)에 속(屬)하며, 구형(舊型)의 Fishbed C/E 형(型)과는 공통점(共通點)이 거의 없다.

이 기사(記事)에서 취급해온 공중전능력비교(空中戰能力比較)의 결과(結果)에 따라 MIG-



The Soviet MIG-21bis Fishbed N differs from the earlier Fishbed K/L variants in that it has a smaller dorsal spine(possibly because of stability problems encountered at high angles of attack), a larger air intake and RSBN-2S short-range navigation system antennas under the air intake and the vertical tail surface. Nothing is yet known of any changes to the avionics fit; the aircraft features a considerably higher-thrust engine, the Tumansky R25,300(Aviation Magazine photo).

21bis의 취약점은 물론 그의 장점을 알 수가 있다.

MIG-21bis의 대표적(代表的)인 가장 큰 취약점(脆弱點)은 레이더와 비행성능(飛行性能)(일부(一部))이다. 그렇지만 가까운 장래에 소련(蘇聯)은 저고도로 비행(飛行)하는 항공기(航空機)를 추적(追跡)할 수 있는 Look-Down 능력(能力)이 있는 보다 소형의 Radar를 사용(使用)할 것이 분명(分明)하다.

수직 가속도를 보다 높게 낼 수 있도록 설계방식(設計方式)을 개조(改造)하면 선회율(旋回率)이나, 선회반경(旋回半徑)을 향상(向上)시킬 수 있다고 예상할 수도 있다. 엔진의 추력(推力)을 증가(增加)시킨 외(外)에도, Wing의 40%가 Leading-Edge Sweep로 되어 있으며, 스트레이크(Strake) 및 기동용(機動用) Flap 등(等)을 사용(使用)함으로써, MIG-21bis는 F-16과 비슷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실제로 개조(改造)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結果)가 잠정적으로 충분(充分)하므로, 개조(改造)한 어떤 항공기(航空機)가 이미 개발중(開發中)에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型)은 금세기 말까지 작전(作戰)에 취역하는 MIG-21이 될 수도 있으며, 따라서 이는 앞으로의 서방국가의 어떠한 전투기(戰鬥機)에 대(對)해서도 잠정적인 적기(敵機)가 될 수 있다고 간주하여야 하며, 공군(空軍)의 Planner들은 이와 같은 사실(事實)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항공 ◎ 군사 ◎ 과학

소련(蘇聯)의 전투(戰鬪) 헬리콥터 작전(作戰)

윤 채 환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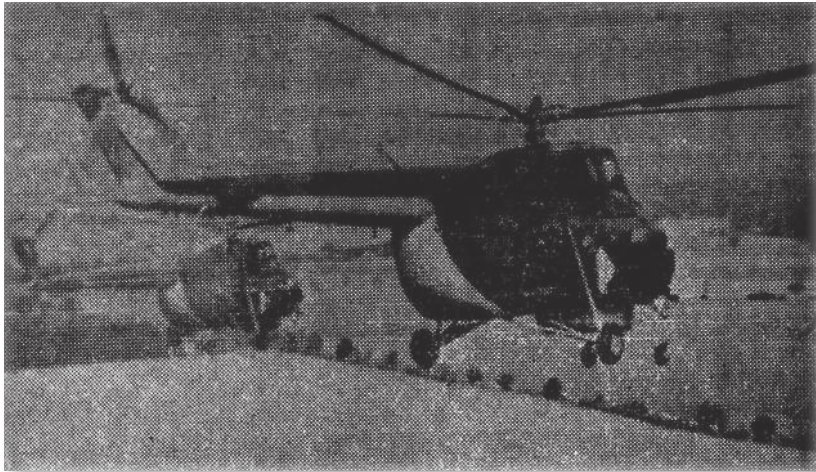
최근에 소련 및 바르샤바조약국의 군사문헌을 애독하는 독자들은 근대 연합 군작전에서 무장헬리콥터의 역할에 대하여 기술한 기사를 많이 볼 수 있다.

헬리콥터에 큰 관심을 갖게된 것은 소련의 주요 공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습헬리콥터인 Mi-24Hind가 새로이 등장하였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헬리콥터는 과거 약 25년 동안에 소련공군에서 사용한 한 장비이다. 그 실례로서 소련의 전선공군은 구형의 Mi-1, Mi-2, Mi-4, Mi-6 및 Mi-8 기종을 수년 동안 사용하여 왔다. 그런데 어쩌서 우리는 안달을 하게 되는 것일까?

전후 초에 서로이 조직된 소련공군의 작전기술 및 전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제2차대전 중에 있었던 중요한 소련공군 작전에 관한 연구 및 분석에 전념을 하여 왔으며, 따라서 이는 군사이론가 및 철학자들이 새로운 작전 및 전술원리를 공식화하는데 창안하기 위하여 계속 관심을 가져 왔던 “The Great Patriotic War” 당시 중요한 연합군작전에서 소련 공군력의 성공을 가져왔다. 전후 최초 20년 동안 헬리콥터가 수송수단 이외의 어떤 다른 목적으로서는 무시되었던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미군작전의 많은 창안을 통하여, 헬리콥터가 우수한 무기 Platform임을 소련은 배웠다. 미군은 소련군 기술에 미치는 어떤 영향과는 관계없이 이에 대등한 헬리콥터를 가질 수도 있고, 또는 보유하지 않을 수도 있다. 소련은 갑작스럽게 기술을 개발하여 왔으며, 전투환경에도 이용하여 왔음이 확실하다.

2중임무용의 중무장용 Mi-24Hind 헬리콥터가 대량 생산되고 작전부대에 실제로 소개되기 전에 많은 실험, 시험 및 훈련을 실시하여 왔음이 확실하다. 이는 사실이며, 우리는 소련이 전략, 작전기술 및 전술이라고 부르는 체제에서 Mi-24Hind의 임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하며, 이 문제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안달케 하는 것이다.



소련의 최초 헬리콥터

전후까지 소련은 몇 대의 Autogyro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헬리콥터를 생산하지 않았다. 1947년 말에 헬리콥터 설계국이 최초로 창설되어 Mi-1 Hare 헬리콥터가 최초로 설계되어 1년도 채 못된 1948년 10월에 처녀비행을 하여 3년 후인 1951년 Tushino Air Show에서 처음으로 세상에 선을 보이게 되었다.

1950년 후반 중엽에 2가지의 다른 Mi-1헬리콥터가 전선공군부대에 작전화되었으며, 소형인 경무장 Mi-1 Hare 헬리콥터는 지금에 와서는 많이 쓰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동 헬리콥터는 기술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음에도 과거 10여년 동안에 소형의 연락기로서 훌륭히 임무를 수행하였다.

Mi-2

미국 및 프랑스 헬리콥터에 터빈엔진을 사용함으로써, 소련은 새로운 기술을 통합하는 새로운 설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65. 8. 25.에 폴란드에서 터빈엔진을 사용한 Mi-2 Hoplite의 최초 비행을 실시하였다.

400-Lp, GTD-350엔진 2개를 사용함으로써 Mi-2헬리콥터는 8명을 수송할 능력이 있으며, 신속하게 수송지원을 하여 준다.

Mi-2는 무장 Platform으로서는 부적합한 것 같이 보이지만, 동체 양쪽에 대전차미사일과 조종실 측면에 기총 1문을 장치한 모델을 포함하여 여러가지의 무장형이 인도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무장한 Hoplite의 임무는 전차 및 지상운반차량을 공격하는 임무이며, 특히 이동하는 목표물을 찾고 있는 무장정찰용의 탐색모드로서 상기와 같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Hoplite가 공격 헬리콥터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핵오염 지역을 포함하여 지상의 장애물지역 상공을 저고도로 비행하면서 분대규모의 소부대를 수송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폴란드 해병대는 수륙양용기동과 관련하여 해상에 공정부대를 착륙시키는데 Mi-2를 실제로 사용하였다. Mi-2연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동독주재 소련군 그룹의 각 5개 지상군부대에는 약 150대의 헬리콥터있다고 추정되며, 이들 헬리콥터는 8~10명의 보병요원을 수송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말할 때, 이는 최소한도로 자동소총과 경기관총만을 무장한 병력을 1,000~1,500명 정도로 전술적인 공수지원이 충분하다. 의무소개용으로 사용될 때에는 Mi-2는 들것 위에 부상병 4명과 위생병 1명 및 장비를 운반할 수 있다.

전술수송(무장)

소련의 전선공군에 최초로 취역한 중형 헬리콥터는 Mi-4 Hound이다. 1951년에 Mi국에서 제작한 Hound는 1956년에 세계적인 속도와 고도기록을 수록하였다. 동 Mi-4헬리콥터는 화물 1,200~1,600kg을 수송하거나 또는 완전무장을 한 병력을 8~12명까지 수송할 수 있다.

이 때에는 Hound는 12.7mm의 TKB 481기관총이 장치된 Pod를 장착한다.

동 헬리콥터는 비록 노쇠된 항공기이기는 하지만 국경지대의 안전임무를 수행하는데나 저고도로 대전차치료를 매설하는 임무와 같은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Mi-4 일부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소련의 전선공군에 사용하기 위하여 두 번째로 새로이 Turbine 엔진을 사용한 헬리콥터는 Mi-8 Hip C헬리콥터이다. 구형의 Hound를 대체하기 위하여 제작한 Hip는 1960년대에 군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동 헬리콥터는 소총요원 3개분대를 수송할 수 있으며, 상당한 전술공수능력을 갖고 있다. 예로서 이동하는 목표물에 사용할 때에는 20대의 헬리콥터가, 1,000~3,000m의 공중수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중기습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16 또는 32발용, 57mm 비유도 로케트 Pod를 무장할 것이다. 또한 동 헬리콥터는 측면에 장치된 Out-Rigger에 비유도 로케트나 또는 유도미사일을 장착할 가능성이 있다. 동 Out-Rigger는 대전차 임무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동 헬리콥터는 확실히 기습지원 작전능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실용적인 크기와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Mi-8은 우수한 헬리콥터로 사용되고 있으며, 바르샤바조약국에서 점점 그 사용 대수가 증가되고 있다.



A Soviet border patrol is landed from an Mi-4 Hound. this sort of light transport role now being typical for the type. A communications-jamming variant is known to exist, however, which is also still in service.

소련 전선공군에 취역한 중형 헬리콥터는 Mi-6 Hook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헬리콥터가 1960년대 초에 소련항공부대에 대량으로 나타나기 시작함으로써 대부분의 서방관측자들은 약간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동 헬리콥터의 성능은 아주 우수하였다. 다시 말해서 211.4mph의 회전속도의 기록을 한 바 있으며, 26,500-Lb의 표준화물 적재능력은 아주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내부의 스페이스에 70~80명을 탑승시킬 수 있거나 또는 불도저나 트랙터 및 APC와 같은 장비를 실을 수가 있다. 이와같은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i-6는 아직도 계속 화물수송기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70명 이상의 병력이나 또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중형의 전투장비를 수송하는 일 외에 다른 전투목적으로 사용한다는 확실히 정의된 원칙은 없다.

위협적인 헬리콥터의 출현

200대 이상의 헬리콥터가(Mi-2, Mi-6, 및 Mi-8) GSFG(Group of Soviet Forces in East Germany)의 제16항공대에 이미 배치되었고 1974년에 소련은 전선공군에 Mi-24 Hind를 소개하였다.

이와 같은 헬리콥터가 신속하게 개발됨으로써 곧 2개 대대가 창설되었으며, 각 연대병력이 동독의 비행장에 주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항공기가 전방지역에 적어도 72대 이상이 출현하게 되므로 전장에 새로운 차원의 위협을 추가로 초래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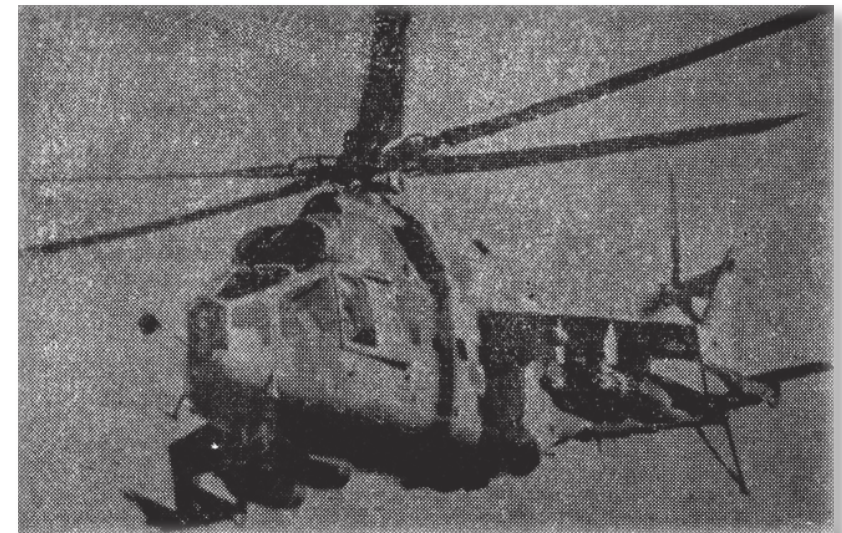
Mi-24 Hind A의 조종실에는 무기체제조작사와 같이 조종사 및 부조종사/항법사가 각각 종렬로 탑승하여 3명의 승무원으로 한 조를 이룬다. 동 헬리콥터는 화물적재부분에 완전히 무장한 병력을 8~14명까지 탑승시킬 수 있다. 완전무장을 한 Mi-24와의 속도는 추측할 수 밖에 없으나 이와 같은 형의 헬리콥터가 1975. 7. 18. 일에 334. 461km/h의 속도를낸 바 있다.

Mi-24의 두 가지 형이 현재 동독의 제16항공대에 취역하였다. Hind D형은 대구경 4연신 Gatling형의 기관총과 Infra-red 및 Low-Light TV를 포함하여 전천후조준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또한 Laser Rangefinder를 장치하고 있다.

Hind A는 동체 전면에 250~300발의 실탄을 장착한 12.7mm기관총과 조준장비로 무장을 하고 있다. 다른면에 있어서는 이 두 기종은 모두가 4개의 32발 57mm 비유도 로켓과 4개의 Swatter 대전차 유도미사일 발사대를 갖고 있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유사하다. 동 헬리콥터에 장치된 미사일유도체제는 공대공미사일을 유도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여러 개의 폭탄(250kg)을 장착할 수도 있다.

57mm 비유도로켓의 발사거리는 약 1,200m이며, 200mm 철갑을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Swatter미사일은 57mm로켓을 보충하며 발사거리는 약 3,500m이다. 더우기 중요한 것은 500mm 철갑을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크레믈린의 의사결정자들은 동남아시아에서의 미군의 헬리콥터전술을 엄밀히 추적하였음이 확실하다. 소련의 다목적 능력을 갖고 있는 중장갑기습헬리콥터는 미국의 AH-1 Cobra와 같은 Gunship형 공격헬리콥터가 할 수 있는 이상으로 소련군 전술의 체계 내에서 그의 위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련은 전장이나 또는 적의 후방지역에 있는 적군이나 장비를 공격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가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위협적인 전투기를 개발하여 왔다.

대전차 임무

Mi-24의 주임무중의 하나가 대전차무기 임무이다. 소련은 A-10항공기와 거의 동일한 항공기를 개발하여 왔다. Mi-24는 직접 막중한 공중대전차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소련군 전술교관인 Rezni ckenko 대장은 다음과 같이 대전차임무에 대한 헬리콥터의 중요성을 소련이 평가할 수 있는 몇 가지 통찰을 제시하였다. 즉, 「헬리콥터는 시각적인 면에서나 기동 및 화력적인 면에서도 다른 어떤 대전차무기보다 우세하며, 적의 기갑목표물이 대공무기 사정거리 밖에 있을 때 적의 기갑무기를 명중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전차와 헬리콥터 손실에 대한 상관관계는 헬리콥터를 중심으로 할 때 12:1 또는 심지어는 19:1이었으며 이는 과거의 실질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다.

소련의 교관이 말한 바와 같이 근대전은 헬리콥터에 예외적으로 강한 대전차 무기를 사용하여 왔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기본적인 헬리콥터 대형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큰 비중을 맡고 있는 비행 지휘관을 포함하여 4대의 헬리콥터로 실시함이 확실하다. 공격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선회하여 목표물로 최종 접근할 수 있도록 지휘를 하는 지휘관과 헬리콥터가 공중전을 하기 전에 비행중인 각 승무원들이 여러 가지 임무에 숙달할 수 있도록 확신시킬 수 있는 지휘관에게 달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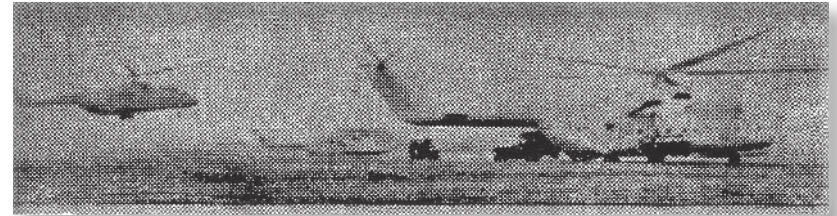
지상에서 완전하게 모든 훈련을 한다. 사격하기 위해서 목표물로 접근할 때에는 사전에 조심성있게 계산을 하며 따라서 더 이상 적절한 위치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공격을 할 때에는 헬리콥터가 안전하게 평행을 유지하면서 목표물 공격에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행 전에는 비록 우리들이 그 시뮬레이터의 정교성을 평가할 수 없지만 대전차 유도미사일을 조준하는 훈련을 하기 위하여 각종 시뮬레이터를 다방면으로 사용을 한다.

헬리콥터는 무기체제 조작사가 위장을 하였거나 숲에 숨어 있는 전차라 할지라도 발견할 수 있는 적외선탐지장치가 된 특수광학장비로 무장을 한다.

헬리콥터는 방공레이다를 피하기 위하여 5~10m의 고도로 목표물에 접근하여 2,000~3,000m 거리에서 목표물에 사격하기 위하여 20~100으로 “Pop up” 기동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동을 하는 데는 20~30초가 걸릴 것이다.

소련이 사용한 기술은 서방국가의 표준기술에 비하여 약간 조잡한 것 같이 보이나, 이와 같은 기술의 사용을 비능률과 혼돈해서는 안 된다. 아무도 System Work를 만들 수 있는 소련의 승무원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ire-and-Forget 유도미사일과



Optical-Contrast TV Seeker를 포함하여 Mi-24 용의 새로운 대전차무기체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계속해서 헬리콥터무기를 개조 및 향상시킬 것이 확실하며, 소련은 전문화 및 최적화의 이점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근접공중지원 즉 대전차임무용으로 제작한 단일임무용 공격 헬리콥터를 어느 날 보고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소련의 통합군사령관들은 그들이 포의 능력을 알고 있듯이 화력지원 헬리콥터의 능력을 잘 알고 있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전진부대를 위한 화력 지원임무를 무장 헬리콥터로 수행하려는 소련의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Savkin대령은 그의 「작전기술 및 전술원리」라는 저서에서 무장 헬리콥터는 적의 전차에 대해서는 화력수단으로, 보병에 대해서는 병력수송용 등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작전을 할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더우기 헬리콥터는 전방 파견대나 전진부대의 호송부대의 일부를 공격할 수 있고 우군의 후방과 측면을 보호할 수 있으며, 적의 예비대의 이동을 붕괴시킬 수 있고 소규모의 정찰부대를 파괴할 수 있다. 또한 헬리콥터는 위력이 약한 핵무기를 발사하는 Platform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상기에 나열한 사실 등으로 미루아 보아 소련의 무장헬리콥터는 전선공군의 대지공격임무 즉, MIG-17이 전에 수행하였던 화력지원임무를 인수받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무장헬리콥터는 대전차임무 외에도 화력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이 틀림 없다.

공중기습 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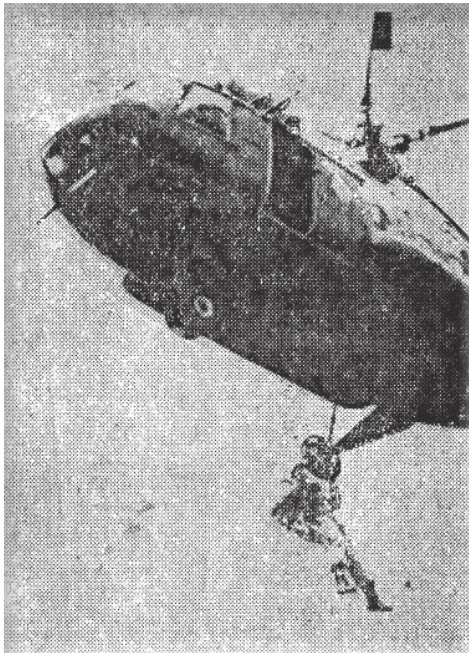
대전차 및 화력지원무기로서 무장헬리콥터를 소련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느냐에 관계없이 주로 헬리콥터 기습작전용으로 Mi-24 Hlind를 설계 및 개발하였을 것이다.

소련작전기술의 중요한 여러 교리 중의 하나는 기동원리로서 동 원리는 Twin Sister 기동방식과 같이 군 작전을 계획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다.

1970년대의 소련전쟁무기의 자동화 및 기계화는 특히 팔목할만하게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면에서 헬리콥터는 그 대표적인 한 예이다. 그 예로서 Savkin은 공격부대의 전진율을 증가시키고 핵무기 공격의 결과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헬리콥터부대에 대하여 언급 하였다. 핵공격 후 헬리콥터를 대량으로 사용할 때에는 헬리콥터부대는 작전적 성공에 전술적 성공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제대(Echelon)가 될 수 있다.

또한 헬리콥터는 신속한 도하능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반대쪽의 뱅크(Bank)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량설치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 헬리콥터는 소형의 대전차 및 인마살상용 지뢰를 매설하는데 사용되고 지뢰매설지역에서 병력을 수송하는데 사용한다. 또 다른 목적으로서는 핵 공격을 위하여 적의 목표물을 약탈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병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임무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소련의 전술가들은 공중기습시의 헬리콥터 사용에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 왔다.

헬리콥터가 출현함에 따라서 아주 광범위한 공중기습 착륙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하였으며, 동 착륙방법은 무기와 장비와 같이 소부대의 밀집착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 물론 이 방법은 장기간의 낙하산 훈련을 필요치 않으며 어떤 재래식 자동소총부대에는 거의가 다 채택할 수 있다.



헬리콥터부대 작전을 할 때에는 전선 공군에 속해 있는 전투기가 공중엄호를 하여 줄 것이다. 헬리콥터 작전을 할 때에는 SA-7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대공미사일체제는 헬리콥터부대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작전상 엄호를 해주는 전투기와 제한된 협동작전을 할 때에는 공중기습부대는 자체방어부대를 조직할 책임이 있고 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방공 무기로 무장을 하여야 한다.

소련의 견해로는 모든 부대나 소부대는 상급부대의 방공지역에 대해서는 그들의 위치와는 관계없이 어떠한 사항 하에서도 전투기와 전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헬리콥터부대는 대량으로 SA-7



지대공미사일로 무장하는 것이 확실하며, 부대의 규모 및 구성에 따라 14.5mm 기관포나 ZU-23 대공포로 무장할 수 있다.

더우기 기습부대 병력은 소화기를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다. 이는 그룹의 소화기 화력이 공중목표물에 대하여 보다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헬리콥터작전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부대는 보강된 자동화된 소총대대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들 소총대대는 보유하고 있는 무기나, 기타장비를 사용하여 전선에서 우군부대 작전으로부터 화력지원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의 후방지역에서 장기간의 전투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Mi-8, Mi-6 및 Mi-24가 참여하는 것이 확실한 대량 헬리콥터의 기습착륙임무를 제외하고도 소련군 교리가 헬리콥터부대에 부여한 보다 소규모의 특수임무가 많이 있다.

보강된 자동소총중대로 구성된 전술공중 착륙부대 및 소대는 핵수단을 노획하고 적의 통제를 붕괴시키며, 적후방작전의 조직을 파괴시키기 위하여 각개 임무를 성취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소련의 자동화 소총사단의 1개 중대는 특공중대로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훈련을 받으며, 소련의 공정연대가 실제로 동독에 주둔하여 침투 및 파괴임무를 수행한다.

소련의 기타 특수공정부대는 특수임무 여단으로 이 부대의 임무는 적의 비행장을 장악하거나 기습작전을 하기 위하여 전진부대의 전방지역에 착륙하는 일 외에도 적의 후방에서 견제작전을 하고 중요시설물에 태입임무를 수행하며, 반란군과 합세하고 적의 통신을 무력하게 하는 것이다.

4개 지원부대(의무, 통신 등) 외에도 4개 대대로서 2,5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여단은 기갑차량은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그 외에도 자동소총과 경기관총, 122mm로켓, 화염방사기 및 지뢰, 프라스적 폭발물 등과 같은 각종 파괴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다.

결론

통합군 교리에 전투헬리콥터의 임무를 통합시킬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1960년 대 후반과 1970년대 초에 소련에서는 심한 논란을 하였음을 소련에서 발행된 방공에 관한 도서를 분석해 보면 알 수 있다. Sidorenko는 동남아시아에서의 미군헬리콥터의 손실을 강조하면서 헬리콥터가 지상화력에 취약성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헬리콥터의 전투이용에 관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있음은 물론 헬리콥터의 취약성 부분에 장갑 장치를 하는데 적극적인 작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무장 헬리콥터는 지상전투의 본질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Savkin은 그의 저서에서 시사하였다. 비록 헬리콥터가 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상적으로 적합하지는 않지만, 기동성면에서 우수성을 최대도 보장할 수 있는 여러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다.

많은 군 아카데미와 연구소 및 군 기술을 연구하고 공식화하는데 책임을 맡고 있는 보다 고위층의 소련의 참모들도 이에 긍정적인 판단을 하였다. 헬리콥터 특히 무장 헬리콥터는 소련통합군작전에 상당한 비중으로 사용되어 왔음이 확실하다.

1976년에 실시하였던 3가지의 주요한 소련, 바르샤바조약군 훈련에서도 모두가 헬리콥터작전을 포함하였다. 그 예로서 전차는 대전차미사일과 교전을 하였으며, 자동소총부대는 적 후방 지역에서 헬리콥터의 착륙부대로 전개되었다.

동 작전은 무장 헬리콥터와 전투폭격기의 지원을 받았다. Shchit-76작전에서 상대측의 전차는 우측의 방어진지를 돌파하였으나 헬리콥터가 매설한 지뢰지역에서 저지를 받았다. 따라서 작전기술 및 전술에 헬리콥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문제를 소련은 연구하고 있는 것 같다.

동남아시아에서의 미군 헬리콥터작전에 대한 연구를 철저히 한 후에 소련은 헬리콥터 이용에 관한 소련의 유일한 방법을 개발하여 왔다. 소련은 여러 가지의 미군 공중기동개념을 채택 및 수정하여 왔으며, 소련 자신의 전투철학을 추가시켰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소련은 위협적인 헬리콥터부대를 창설하였으며, 전의 규모 이상으로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선공군(특히 동독에서) 최신헬리콥터부대가 구성됨으로써 전술적 기동을 제공하는데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여 준다. Mi-2(분대규모 수송), Mi-8(28명 수송) 및 Mi-6는 다방면의 작전과 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공대지 사격능력이 있는 Mi-24 Hind가 추가됨으로써 소련의 헬리콥터 부대는 보다 위력을 갖게 되었다.

전투조종사 탈출수기

월맹도피(越盟逃避)



이 적진탈출수기(敵陣脫出手記)는 미(美) 공군월간지(空軍月刊誌) Air Force(1976년(年) 9월호(月號))에 게재(掲載)된 “Escape in Vietnam”을 번역(翻譯)한 것이다. <역자 주(譯者 註)>

양 신 석(梁宸錫) 역(譯)

베일아웃 이후(以後)

피격된 얘기에서 베일아웃할 때부터 나는 미 월맹군의 포로가 될 신세였지만 낙하산을 타고 적지(敵地)에 발이 닿는 순간부터 나는 도망갈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여러 가지의 탈출계획을 마구 생각해 보았으나 너무나도 위험스럽고 가망이 없는 것들이어서 포기해 버렸다. 팔뚝이 여러 갈대로 부러지고 무릎이 뼈아팠으며, 눈에 부상을 입은 상태로는 아무리 낙천적인 미 공군의 전투조종사일지라도 탈출에 성공하리라 믿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나를 감시하는 공산군 경비병은 멍청한 놈이어서 나에게 한가닥의 힘을 북돋아 주었다. 이 비정규군은 열 다섯살도 채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내가 갇혀 있는 땅굴 밖에서 스팅크스처럼 꼼짝 않고 앉아 있으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의력은 점점 산만해 지는 것 같았다. 그는 수 미터 밖의 먼지길에서 경비를 서고 있는 그의 친구와 이야기하느라고 시간을 점점 더 소비하는 것 같았다. 나는 상처가 너무 많고 심하여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시늉을 하고 있었으므로 도망갈 염려는 하나도 없음을 그 경비병은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내가 꼼짝도 할 수 없음을 믿은 나머지 총을 땅굴 입구의 반대 쪽에 내려 놓고 나에게 몸짓으로 대화를 걸어온 했다. 그가 바보스런 대화로 나에게 알려준 것 중의 하나는 땅굴 속으로 들어와 내 다리를 끈으로 묶고 찰흙의 벽에 지프차 모양을 그리고 나서는 「하노이」라고 소리치는 것이었다.

적에게 사로잡힌 첫날이 도망치기에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이 하나의 불문율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훈련을 받지 않은 경비병이 지키고 있고 수용소의 담밖에 있기 때문이다. 나의 F-100

항공기가 격추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지만 나에게는 이 원시적인 논(田)과 들판에 도망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다. 다만 나의 탈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나의 부상과 도망쳐 나올 때 나의 등에 총알이 박힐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었다.

어떠한 탈출계획도 잘못된 것이면 집어 치워야 했는데 그때마다 나는 미국에서 나를 안타까이 기다리고 있는 아내 도리스와 네 명의 자식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성인 사 람이라면 누가 그 아내를 과부로 만들고 자식들을 고아로 만들기를 원하겠는가?

미 공군의 제트파일럿이고 소령이며 대대장으로서의 생활은 멋진 것이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풍부한 보상중에는 즐거운 여행, 달콤한 자극, 과감한 도전과 뜨거운 전우에 등이 있었다. 누가 이러한 것들을 등에 박히는 총알과 바꾸겠는가?

그러면 대안은 무엇인가? 앞으로 며칠 안 있으면 포로 심문관 앞에 끌려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절한다면 나는 푸줏간에 매달아 놓은 고기 덩어리처럼 내 다리가 거꾸로 매달려질 것이다. 이런 부당한 대우는 다만 서쪽에 불과할 것이다. 하노이에서의 생활은 어떠할까? 하노이에서의 굴욕적이고 비참한 생활을 감수해야만 하는가? 또한 하노이까지의 멀고 고통스러운 행군을 하면서 지나치는 마을마다에서 적의 선전과 모욕공세를 받아야만 하는가?

이쯤되니 나는 십여년전에 있었던 한국전쟁에서 중공군과 북괴군의 손아귀에서 온갖 수모를 다 받았던 미군 포로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 포로들의 40%가 죽어버린 것을 생각하니, 또 다른 공산군 포로수용소로 끌려가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아마도 하노이에 가서 포로생활을 하는 것은 총알을 맞고 죽는 것만도 못할 것 같다.

가족과 자신의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은 군인의 의무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하느님, 명예, 조국의 세 가지는 내 철학의 주춧돌이다. 인간의 공포에서 벗어나 우선 탈출을 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일 뿐만 아니라 군진수칙에서도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에서는 내가 가미가제 특공대가 되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마땅한 탈출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나를 감시하는 경비병의 주의력이 점점 산만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러한 기회는 점점 빨리 다가 오고 있었다.

후라이팬 밖으로

나의 탈출계획은 간단하고 대담하며 시간이 완전히 들어맞아야만 했다. 나의 오른편 팔은 엉망이었지만 손가락은 아직도 움직여 주어서 내 무릎을 동여매고 있는 형질을 풀 수가 있다. 다음에는 감시병의 눈에 띄지 않게 땅굴을 살금 살금 기어 나와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밤에 너무 늦게 빠져 나오면 해가 뜨기 전에 질척한 논(田)의 들판을 빠져 나와 수마일 밖에 있는 정글에 숨어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어둠이 찾아 오자 나는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 손가락으로 무릎을 동여 맨 형질 마디를 모두 풀었다. 경비병은 길에 나와 있는 다른 무장병을 만나러 느린 걸음으로 걸어 갔다.

이제까지 기다렸던 어느 때보다도 이 순간이 가장 좋은 것 같았다. 나는 입을 꼭 다물고 침묵의 기도를 올렸다.

「하느님, 나를 도와 주소서!」

나는 가누기 힘든 몸을 살며시 굴 밖으로 끌고 나와 땅굴을 돌았다. 금방이라도 감시병의 고함소리와 총소리가 터져 나올 것 같았다. 나는 빠른 동작으로 논 속에 뛰어 들었다. 이때 부러진 팔에서는 우둑 우둑 뼈가 부딪치는 소리가 났다. 다친 눈 때문에 깊이에 대한 감각이 없었다. 물에 떨어지는 소리는 꽤 요란한 것 같았으나 다행스럽게도 놈들에겐 들리지 않았는가 보다. 적의 초소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짐에 따라 나는 조심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움직였다. 나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어디선가 나를 돕고 있을 그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렸다. 자유! 자유! 자유. 이 얼마나 신나는 일이나?

멀리 보이는 은하수의 푸른 불빛이 마치도 네온사인의 화살처럼 나의 길을 가리키고 있었다. 내가 가는 방향은 논(田)의 들판으로 튀어 나온 정글의 끝 쪽에서 약간 서남방향이었다. 나는 여러 달 동안 이 곳 상공을 비행하였으므로 이곳의 지리를 잘 안다. 나의 계획은 그곳에 가서 은거하면서 다가올 여행(?)에 대비하여 얼마간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밤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놀란 소리들이 들려 왔다. 징이 울리고 휘파람 소리가 들렸다. 전지불이 반짝이었다. 나를 사로잡았던 놈들은 그들의 새가 날아 가버린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것이다. 나는 다시 붙잡혀 놈들의 병영으로 끌려 가지 않을까 하는 일련의 걱정으로 몸서리를 쳤다. 심한 부상을 입은 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나아가고 있었다. 동이 틀 무렵 나는 정글의 끝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와 있는 곳은 놀라움게도 적의 포진지임을 깨달았다. 부르튼 맨발을 어루만지며 앉아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살피고 있을 때 돌연히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굉음이 터졌다. 발고랑에 씨를 뿌리듯 폭탄이 줄줄이 떨어지면서 이쪽으로 작열해 오는 것이었다. 나는 B-52의 폭탄에 맞아 죽음을 당하는 아이러니를 생각했다. 시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폭탄에 맞아 죽을 것인가…… 아니면 살아 남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였다.」 그러나 운명의 여신이 나를 잘 감싸 주었기 때문에 폭음으로 귀가 먹게 되고 파편의 쓰나미를 맞긴 하였지만 목숨만은 용케 붙어 있었다.

동녘이 밝아올 때 나는 포대에 인접한 폭탄 웅덩이를 따라 조심스럽게 빠져 나갔다. 다친 무릎은 점점 쓸 수 없게 되고 나의 발바닥은 폭탄의 파편에 수 없이 찌히고 베어지고 있었다.

잘 나가던 나의 여행이 여기서부터는 큰 비를 몰고 온 스코루가 별들을 가려 방향을 찾지 못하게 하여 갈길이 막히고 말았다. 나는 울창한 나무 숲 속에 숨은채 불안한 선잠을 자고 있었다. 잠결에 나는 돌연 커다란 힘에 번쩍 들려 공중에 내팽개쳐지면서 부상한 팔과 다리가 깔려 멍개지는 고통으로 몸부림을 쳤다. 나의 귀는 굉장한 폭발음으로 충격을 받아 웅얼거렸고 목에서는 심한 구토증세가 일어났다. 극도로 쇠약해진 몸에 이러한 욕지기는 나의 모든 기능을 마비시켰고 나는 죽은 짐승처럼 축 늘어졌다.

날이 밝자 희미한 내 정신은 그래도 더 숨기 좋은 곳으로 옮기려고 재촉했다. 충격의 영향이 너무나도 컸었으므로 그때까지도 나는 어떤 무기가 나의 목숨을 앗아 가려 했던가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아마 그것은 우군의 포화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간다. 그 영향으로 나는 일어설 수도 없어 짐승처럼 엉금 엉금 숲 속으로 기어 들어가 햇볕과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만 했다. 그날 낮과 밤은 깊은 잠 속에 휘말려 버렸다.

그 다음 날 어둠이 걷히자 나는 내 몸에 입은 상처들을 살펴 보았다. 나의 윗 입술은 터져 피가 말라 붙어 있었고 요란한 폭음으로 나의 고막은 파열된 것 같았다. 나의 오른쪽 무릎은 껍질이 벗겨져 있었고 통증이 심했다. 이처럼 흉칙한 상처들 때문에 앞으로의 일들이 걱정되었다.

나의 경비병들이 마시기 편리하도록 땅굴에 갇다 놓았던 물통에 입을 대고 물을 한목읍 마셨다. 지겹던 욕지기는 사라지고 배 안에서 그 물을 받아 들었다. 이제 생각하니 나는 사흘이나 음식을 먹지 않았고 이 황량한 땅 위에서 살아있는 새나 짐승들을 보지 못하였다. 나의 주변은 삭막한 달의 표면과 닮은 것 같았다.

이제는 또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열이나고 상처투성이의 내 몸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행동을 하려는 의지가 꺾이자 나는 또 펄쩍 주저 앉았다. 수많은 하루살이 떼가 덤벼들더니 또 모기떼들이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나는 죽음의 잠 속으로 빠져들며 잠들어 버렸다.

새로운 시험계획

탈출한지 나흘째 되는 날의 아침은 새 세상 같았다. 죽음의 잔인성과 무차별한 운명의 손으로부터 살아 남아 자유를 얻었으니 새로운 용기가 치솟았다. 극심했던 현기증은 가라앉고 마시는 약간의 물은 토하지 않았으며 엉망이 된 발은 덜 고통스러웠다. 물은 시원하고 맛이 있었다. 이제 월남 쪽으로 얼마간을 더 내려가면 내가 것처럼 그리던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내 추측으로는 아군으로부터 약 25마일의 지점 안에 와 있는 것 같았다.

이 지역의 상공을 비행했던 나의 경험은 속임수에 걸린 것 같았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강과 들과 논들은 아주 아름답고 잘 정리된 것처럼 보였었는데 지금 땅 위를 막상 헤매고 보니 수풀은 막혀 있고, 여러 가지의 덩굴이 얽혀 있어 마치도 시멘트 벽을 헤집고 나아가는 것 같았다. 한 번은 거대한 나무들의 울창한 잎새들이 해를 가려 방향을 찾지도 못했다. 오로지 얇은 수풀을 헤치고 나가는 도리 밖에 없었다. 꽤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는 나의 능력이 놀라울 뿐이었다. 오른쪽과 왼쪽으로 헤집고 나가다 보니 나는 비교적 높고 밝이 확 트인 곳까지 오게 되었다.

기울어져 가는 태양을 향하고 내가 일찌기 폭잡 고지라고 이름을 부친 산봉우리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놀라움게도 나는 아침에 내가 떠났던 지점보다도 훨씬 북쪽에 와 있었다. 제기랄, 하느님께서 푸른 사과를 만들 듯이 나도 한 바퀴를 헛돌았을 뿐 아니라 애써 얻어 놓은 땅까지도 빼앗겨 버리다니! 부상을 입고 굶주린 이 몸의 인내심이 사라지기 전에 이처럼 헛되이 여러날을 보낼 수는 없다. 나는 오늘 저 강까지 갔었어야 했는데…….

나 자신을 조금더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나는 새로운 시험계획을 세워야 한다. 좋다. 공산군의 후보급로가 북에서 남으로 달린다. 그렇지? 그 길은 가장 넓을 것이고 길이 잘 나 있을 것이다. 그렇지? 나는 그 길을 적과 마찬가지로 사용하면 된다. 나는 옛날 인디언 척후병들처럼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적은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나를 내몰아 주는 꼴이 된다. 이 계획은 아주 나쁜 것은 아니었다. 물은 찾기 쉽다. 나는 살아 있다. 나는 자유의 몸이다. 이제는 하느님께 감사하고 그의 도움을 청할 시간이다.

새벽에 일찍 일어난 나는 남쪽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어제밤에 음식을 주십사 하고 기도한 보람이 있어 나는 얇은 웅덩이에서 몇 마리의 개구리를 발견하였다. 몸이 불편하여 날새지는 못했지만 나는 큰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았다. 버둥대는 놈을 입에 넣고 어금니로 꺾 깨물어 죽인 후 그대로 삼켜 버렸다. 또 한 마리를 잡으려 하니 잘 안되어 다시 남쪽으로 떠났다.

그날 늦게 탱자같은 과일을 발견하는 행운을 얻었으나 거의 씨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약간의 영양분이 있었고 개구리보다는 맛이 더 좋았다. 내 마음은 덩실 덩실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일은 잘 되어 간다. 나는 올 가을 호놀루루로 나의 사랑하는 처 도리스를 만나러 간다고 나 자신에게 자신있게 외쳤다.

소수의 적군들을 회피한 후에 나는 벤하이 강의 계곡을 내려다 보게 되었다. 자유를 얻기까지는 이제 몇 마일만 더 가면 된다. 이 강은 소위 비무장지대의 북방한계선인 것이다.

강가에 와 보니 낡은 농가에 몇 명의 군인이 있는게 눈에 띄었다. 나는 규모가 큰 베트공의 병영에서 불과 200 내지 300미터 떨어진 곳에다 일부러 잠자리를 마련하였다.

잠을 자려던 계획은 일련의 포격으로 무산되고 나는 공포로 몸을 떨었다. 이것은 베트공 병영에 대한 일제사격으로서 내 귀를 팡팡 울리고 흠이 나에게까지 뒤덮여 왔다.

정말 기막힌 일은 3대의 B-52에서 떨어지는 폭탄 줄기가 베트공 병영을 쳐부수는 새벽 네시경에 시작되었었다. 첫 폭탄이 터지기 시작하자 나는 정신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어 버렸다. 300개나 되는 폭탄의 대부분이 땅위 30 내지 40 피이트 상공에서 터지는 처참한 광경은 말로서 설명할 수가 없었다.

내 목숨이 또 살아 남는 것에 대하여 하느님께 감사 드리면서 나는 강으로 향하였다.

나는 대나무 대를 입에 물고 숨을 쉬면서 물 속에서 헤엄을 쳐 강을 건넜다. 내 발은 이제 이론상으로는 중립지대에 와 있는 것이다.

비무장지대를 통하여

날이 감에 따라 나의 전진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무거운 짐을 진 군인들의 무리가 떼지어 몰려 내려가고 있었다. 나의 발은 보기 흉칙할 정도로 붓고 터지고 피가 나고 있었다. 오른쪽 장단지는 동통 부어 다리를 옮기는 것이 고문을 받는 것 같았다. 결레와 같은 나의 바지는 허리만을 가리고 있었다.

머리 위에는 미군의 제트기들이 비행하고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A-4, F-8, 또는 F-4를 구별해 냈다. 멀리서는 가냘픈 포탄 소리도 들려 왔다.

길을 따라 일주일을 넘게 내려 온 이제 나의 배는 음식을 먹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생개구리 한쪽, 산딸기 한 움큼과 뚝은 나무 열매같은 것으로는 내 약한 몸을 지탱해 주지 않았다. 나는 허탈상태에 빠진 채 몸을 가눌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이제 나는 나 자신과 나의 아내와 하느님께 헛소리를 하고 있었다. 시간에 대한 감각도 없어져 버렸다. 「오늘이 열흘째 인가?」 하고 물으면 나의 입술이 대답을 할 수 있기 전에 나의 정신은 절대로 가지도 못할 땅 구덩이로 미끄러져곤 했다. 이성적이고 주의 깊은 생각은 사라지고 본능적인 속임수와 결심을 말할시키고 있었다.

「정글, 적, 나의 부상, 굶주림, 공포 등의 모든 것들이 나를 배반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겠는가?」 나는 묻고 또한 대답했다.

「나는 해내고 말겠다! 나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 나는 기어이 해내고, 말겠다!」

남쪽에서 울려 오는 대포 소리는 죽음의 메시지를 북쪽에 있는 나에게까지 들려오게 하였다. 나의 이성과 본심은 잠재의식을 통하여 술취한 코사크 댄스처럼 휘저어졌다. 어찌된 영문인지 나는 베트콩의 병영 안에 들어와 있음을 깨달았다. 곧바로 숲 속으로 숨어들어가 그들의 오수 시간을 기다렸다가 초소 밖으로 안전하게 다시 빠져 나왔다. 적과의 겹치는 접촉으로 나는 악몽을 꾸는 듯 하루를 보냈다. 순찰병, 저장소, 포대, 척후병들이 자꾸만 나타났다. 나는 술마신 권투선수가 케이오 펀치를 피하는 것처럼 허둥대기만 했다.

미군의 정찰기 한 대가 나무 위를 낮게 날아 왔다. 나는 손을 흔들며 신호를 보냈으나 그는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 다른 비행기가 지평선 위에서 이륙하는 것이 보였다. 아군의 포성을 들을 수 있고, 아군기의 이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나 나는 자유를 얻는 앞마당까지 와있음을 믿게 되었다. 그러면 얼마를 더 가면 되겠나? 2마일? 3마일?

확확하는 소리는 틀림없이 헬리콥터에서 나오는 것이다. 나는 나무 사이로 헬기를 희미하게 볼 수 있었다. 적어도 1마일은 떨어져 있다. 조금 있더니 다른 헬기가 한 대 또 나타나고 한 대가 착륙하는 동안 한 대가 높이 떠 맴을 그리고 있었다.

나는 새 정신이 번쩍 났다. 나는 나도 모르게 헬기를 향하여 달리기 시작했다. 헬기가 우군의 포진지에 보급품을 내려 주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자꾸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헬기는 이륙을 하더니 어데론가 날아가 버렸다. 반마일만 더 가면, 아마 십분만 더 달렸으면 구조되었을걸 놓쳐버리다니! 「그러나 문제없다. 그곳은 포대임이 틀림없으니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그곳에 나타날 수 있다.」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러나 아침에 내가 찾아야 할 포대는 그곳에 없었다. 어제 헬기는 순찰병들을 태워 갔는지 짝짝 무소식이었다. 나는 아주 실망했다. 나의 신경적인 자극은 사라져 버렸고 영양실조가 된 머리는 다시 멍멍해졌다.

어느 길로 가야 하느냐? 어제는 동쪽으로 가다가 월맹군을 만나 피신을 했었다. 그렇다고 서쪽으로 갈 수도 없었다.

「이놈아, 어느 쪽으로 가든 힘들긴 매일반이야! 동쪽으로 가는게 좋아, 동으로 가라!」 나의 잠재의식이 말을 해 주었다.

얼마를 가다가 황폐한 한 촌락의 동남 쪽에 무성한 정글로 들어 가는 굴 모양의 입구가 있었다. 내가 그 입구로 들어가서 얼마쯤 갔을 때 등뒤에서 「헤이 보이!」 처럼 들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무의식 속에서 몸을 나무 뒤에 숨기며,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노려 보았다. 그들은 우리 편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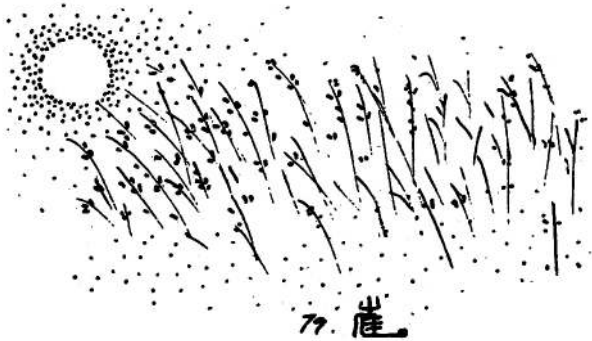
아니었다. 군복을 입은 두 젊은놈들이 나에게 총을 겨누고 있었다. 그 북쪽에서는 사람들의 웅성대는 소리가 들려 오고 있었다.

결국 나는 놈들의 오른손 손가락이 소총의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총은 중공제의 AK-47이었다.

「뛰어라!」 나의 뇌리에서 소리쳤다.

「내가 아무렴 이 작은 새끼들한테 항복하려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처럼 먼 곳까지 오지는 않았단 말야!」

나는 어데서 힘이 났던지 날쌔게 동작으로 어둡컴컴한 정글로 뛰어 들었다. 적병은 미친듯 총을 쏘아 댔으나 놈들의 총탄은 나의 몸을 꿰뚫지 못하였다. 한참 후 나는 용케도 적의 수중으로부터 벗어나 의식을 잃어 버렸다.



시드는 잎

헤르만 헛세

꽃은 모두 열매가 되려 하고
아침은 또 모두 저녁이 되려 한다
영원한 것은 이 땅위엔 없나니
그저 바뀌어 가는 것들,
급하게 옮겨가는 것들 뿐

찬란한 미를 꽃피우는 여름도
언젠가는 가을이 되고 시들어가는 것
그러나 너 이파리여!
바람이 유혹한다 해도
끈기있게 가만히 있거라

맞서지 말고 그대로 두라
너를 휩쓸어 가는 바람에
몸을 맡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로
실어다 주도록 놓아 두어라

특별연재(特別連載)

통일문제(統一問題)

②

이 난은 전호(166호)에 이어 두번째로, 국토통일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사회의 공론(公論)을 정리, 체계화하고 이를 알기 쉽게 문답식으로 엮은 국토통일원 발행 「통일문답」의 수록 내용을 장병들에게 널리 알리고 우리의 통일정책을 이해시키도록 마련한 것으로 통일의 방법과 문제, 그리고 통일조국의 미래상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편집실

3.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로 부딪치게 되는가 (통일의 방법과 문제).

가. 우리가 바라는 통일이 번듯한 외형(外形) 만의 통일이 아니고 남과 북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고장에서 한데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민족사회를 실질적으로 통합, 민족의 장래까지를 내다보는 민족통일일진대, 이를 이룩하는 방법이나 통일에 이르는 과정도 이 목표 달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바람직한 통일의 방법과 과정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나. 첫째, 평화통일이어야 한다.

같은 민족끼리 피를 흘리고 전 국토를 잿더미로 만드는 전쟁수단에 의한 통일은 민족을 서로 원수되게 함으로써 민족 사회의 실질적 통합을 어렵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한반도 정세 변화에 이해관계를 갖는 강대국들이 군사적으로 개입해 올 때 결국 통일문제는 더욱 얽히고 설키게 된다(6·25동란이 산 증거가 아닌가).

현재처럼 남북이 날카롭게 맞서 있고 남북대화마저 끊긴 현시점에서 평화통일의 길을 여는 통일과정의 첫걸음은, 남북이 통일 수단으로 무력이나 폭력을 항구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로 다짐함으로써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켜 온 거래를 동족상잔의 전쟁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만 남북간에 30년 동안 축적되어 온 적대감(敵對感)과 불신감(不信感)이 줄어들고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최소한의 분위기가 싹틀 것이다.

다. 둘째, 민족동질성회복에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통일이 한 민족의, 같은 핏줄의 자손이란 뜻에서 추구되는 것이라면 남북한 동포가 사상과 제도를 달리 한 가운데 서로 접촉없이 갈라져 살아온 데서 저절로 생긴 이질화와 북한공산당의 계획적인 인간개조정책(人間改造政策)에서 생긴 인위적(人爲的) 이질화를 동시에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되찾는 방법을 한시라도 빨리 찾아내야 한다. 현재의 남북관계에서 동질성을 되찾을 수 있는 통일과정의 첫걸음은 하루 빨리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를 트고 이를 통해서 서로 만나고 접촉하는 가운데 민족으로서 같은 점을 되살리고 달라진 점을 줄여 나가는 일일 것이다.

라. 세째, 민족의 번영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민족발전와 토대를 튼튼히 쌓아 올리는 것이어야 한다.

통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큰 힘으로 펼쳐나갈 민족국가를 세우는데 꼭 갖추어야 할 조건인 것이며, 또 발전된 민족사회는 통일이 되는 것만으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남북이 오랜동안 반목(反目)하고 있는데서 국력이 쓸데없이 낭비되고 이로 말미암아 민족전체의 발전역량이 피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민족발전을 가능케 할 여건(與件)을 만들려면 우선 남북이 당분간 공존공영(共存共榮)할 길을 트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민족사회의 실질적 통합을 평화적으로, 그리고 차분히 모색해 나간다면 남북 다같이 마찰없이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마. 그런데 북한공산당은 말로는 평화통일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전한반도(全韓半島)를 공산화하겠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전쟁능력을 배경으로 한 이른바 폭력혁명통일에 골몰하는 탓으로 온 겨레를 인제 터질지 모를 전쟁의 공포 속에 몰아 넣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외래공산사조(外來共產思潮)는 물론 심지어 김일성을 신격화(神格化)하는 「주체사상」이라는 것을 앞세우면서, 민족의 역사를 멋대로 꾸며대고 전통문화를 철저히 없애 버리는 가운데, 북한동포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改造)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해서 민족이질화와 민족분열을 의도적으로 깊게 만들고 있다.

이 결과 민족사회의 실질적 통합이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북한사회의 사회·경제발전마저 뒤지게 함으로써 북한동포들을 극도의 생활고에 허덕이게 하여 민족사회의 전체적 발전토대마저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4. 통일은 민족사의 정통성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민족사의 정통성에 입각하는 통일은 어떠한 통일인가.

가. 민족역사의 흐름에서 정통(正統)을 찾아 통일하자는 말은 요컨대 역사의 주인인 민족전체의 이익과 장래를 위한 통일 방식을 택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어떤 계급만을 앞세우고 그들의 이익을 위한 통일방식은 옳지 않은 것이다. 자산계급(資產

階級)이 민중을 착취해서도 안 될 일이며, 역사를 계급간의 투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무산계급(無產階級)의 독재를 외치는 것도 민족전체의 앞날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나. 역사의 흐름으로 볼 때 민족을 주인으로 하는 나라는 밖으로 독립을 굳건히 유지하고 안으로 민족 모두가 고루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권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물질생활과 정신생활을 더 낮게 하자는 것이며, 동시에 같은 민족끼리 서로 서먹서먹하지 않은 사회에서 같이 잘 살자는 것이므로, 역사의 흐름은 모두 잘 살 수 있도록 개개인의 권리가 보장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와 활동이 커지므로 그것이 곧 민족의 번영으로 바뀌고 조절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전쟁같은 위기에는 개인의 자유와 활동이 제한받기 마련이나 그러나 방향은 어김없이 개인활동의 자유와, 진정으로 사회협력을 가져오는 평등과의 조화로 향하고 있다.

다. 우리 역사도 결국 개인자유 확대의 역사였으니, 옛날의 신분제(身分制)와 전제정치(專制政治)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다시 일본 제국주의의 압박으로부터 민족의 해방을, 그리고 공산주의 독재와 침략으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투쟁해 온 역사였다. 비록 남북(南北)의 극심한 대치라고 하는 민족이 원치 않는 일을 북한 공산세력이 강요하므로 개인의 자유와 활동이 일부 제한받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위기에서 제한을 받으면서도 이남(以南)사회에서는 자유로운활동이 있기 때문에 이북(以北) 공산사회에서는 엄두도 못낼 활기찬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이러한 흐름을 타고 하루빨리 남북의 평화를 되찾아 통일로 옮겨가면서 우리 한반도 전역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민족 번영의 활력이 되고 그것이 민족끼리의 평등과 조화를 이루어 마침내 민족발전의 전통을 잇게 되는 것이 민족 역사의 정통 위에선 통일인 것이다.

라. 그런데 북한의 공산당 정권은 소위 헌법에서까지 집단주의(集團主義)를 내세우고 민족발전의 터전인 자유를 송두리째 짓밟고 오직 전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동포를 정권의 노예로 만들었다. 이것은 민족역사의 흐름을 막고 역사의 발전을 뒤집어 놓으려는 역지이니 북한 공산당은 반민족사(反民族史)를 꾸미는 무리라고도 할 수 있다.

5.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된 조국의 미래상은 어떤 모습인가(통일조국의 미래상).

가.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민족통일이고 이러한 통일이 민족역사의 정통을 찾아 이루어질 때 비로소 민족전체의 이익과 발전이 약속되는 통일이 된다고 앞에서 밝혔다(제4문 참조).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목표와 방향에서 통일을 이루게 된다면 이 경우에 나타나는 통일조국의 모습은 일단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을 담은 통일체제로 표현될 것이다. 첫째, 민족성원 개개인의 참여가 보장되며, 둘째, 민족성원 모두에게 복지(福祉)가 골고루 돌아가며, 세째, 대외적으로 안전감이 확보되는 평화의 체제가 될 것이다.

나. 이러한 체제는 남북한이 둘로 갈라지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서 합쳐지는 복고적(復古的) 통일과는 그 성격이나 의미가 전혀 다른 발전적 통일체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통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간혹 복고적 통일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가 없지 않는데 그러한 통일체제는 생길리도 없으려니와 설령 이루어진다고 해도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한 통일체제일 수는 없다.

다. 우리가 오늘의 불행한 처지를 딛고 일어서서 민족사의 흐름에 쫓아 전진적(前進的)으로 통일을 추진한다면 여기서는 역사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새로운 사회형태 즉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루는 고도복지사회가 우리가 도달하는 통일의 미래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유와 평등이 조화되는 「고도복지사회」란 오늘날 선진국가가 제각기 먼저 이룩하려고 하나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인류의 이상(理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는 제2차세계대전 후 날카롭게 부딪친 미·소냉전의 결과로 동·서 이데올로기가 한 곳에서 맞붙는 싸움터가 됨으로써 국도가 분단되는 비극을 겪음과 동시에 동·서 이데올로기 체제의 장점과 단점을 두루 체득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의 불행한 처지와 시련을 이겨낸다면 우리 겨레는 동·서 이데올로기의 충돌을 극복하여 새로운 이상을 이 땅에 펼치는 위업을 마침내 이룩하게 될 것이다.

라. 그러나 통일조국이 이같은 미래상은 통일이 어느 순간 이루어진다고 해서 갑자기 실현되는 것은 아닌 까닭에, 우리는 통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를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기반조성 작업을 단계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다. 통일 이전에, 적어도 이남지역에서만이라도 자유와 평등이 조화되는 고도복지사회를 향하여 부지런히 나감으로써 민족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지를 이룩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 동포들이 김일성체제를 빨리 청산하고 우리와 합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민족의 정통을 잇고 또 구현하는 체제를 정비·강화하는 한편 민생안전과 자주역량의, 신장을 위해 국력배양에 무엇보다 먼저 힘을 기울이고, 북한에 대해서도 7·4공동성명에 있는대로 평화와 민족단결과 자주적 통일을 위해 대화와 교류·협력을 조속히 실시하자고 촉구하는 것도 우리가 이룩할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유와 평등이 조화되는 「고도복지사회」로 꽃피우게 하자는데 참뜻이 있는 것이다.

충무공(忠武公)의 생애(生涯)와 사상(思想) <2>

공(公)은 부대장들에게 「망동(妄動)하지 말고 산(山)과 같이 정중하게 하라」(물령망동(勿令妄動) 정중여산(靜重如山))는 전쟁훈(戰爭訓) 제1성을 외쳐 침착한 태도를 보였다.

편집실

9. 임진란(壬辰亂)의 개전(開戰)

일본(日本)의 침략군 발동은 뒷날 일본(日本) 저희 학자들까지도 결정적인 비판을 내려 탐병(貪兵)이니, 기병(騎兵)이니, 분병(忿兵)이니 했던 말 그대로 무모한 군사동원이었음은 물론이다.

그들의 동원이야 말로 다만 미친 호전자(好戰者)의 발작이었음은 물론이다.

실지 개전(開戰) 당시에 시행된 편성표에 의하면

- ① 명호옥, 주둔병, 도쿠가와 이에야스(덕천가강(德川家康)) 등 89장 10만9백 90명.
- ② 선발대로 온 부대 고니시(소서(小西)), 가토(가등(加藤)), 구로다(흑전(黒田)), 시마즈(도진(島津)), 후쿠시마(복도(福島)), 모리(毛利)) 등 6진 28장 13만 6천9백명.
- ③ 후계군 우키타(부전(浮田)), 아사노(천야(淺野)), 하시바(우시(羽柴)) 등 3진 36장 5만9천 2백명.
- ④ 후네 부노우(주봉행(舟奉行)), 스이쿤(수군(水軍)), 구키(구귀(九鬼)) 등 2장9천2백명. 도합 30만6천2백90명.

이와 같이 일본(日本)으로서는 역사상 처음보는 30만명의 대병력을 동원하여 대륙침략(大陸侵略)의 무모한 걸음을 내디뎠던 것이다.

선조(宣祖) 25년 임진(壬辰), 명(明)나라 신종(神宗) 만력(萬曆) 20년, 일본(日本) 고요제이(후양성(後陽城)) 문록(文祿) 1년, 서기 1592년 4월 13일! 이 날이 바로 우리에게 대한 일본군(日本軍)의 역사적 침공이 감행된 이른 바 임진란(壬辰亂)의 개전일(開戰日)이니 실로 이씨왕조 개국창업(李氏王朝開國創業)(서기 1392년) 만 200주년 「기념행사(紀念行事)」 치고는 너무도 뼈아픈 풍자(諷刺)였다.

일본군(日本軍)의 제1진 중의 하나인 소 요시토시(종의지(宗義智))의 중군 승려 아마가이(천형(天荆))의 <서정일기(西征日記)>에 의하면 일본병선(日本兵船) 7백여 척이 그 날 진시(辰時)

(오전(午前) 8시)에 대마도(對馬島)의 대포(大浦)를 떠나 신시말(申時末)(오후(午後) 5시)에 부산포(釜山浦)에 도착했던 것이다.

왜적(倭敵)의 제1진(고니시 유키나가(소서행장(小西行長)), 소 요시토시(종의지(宗義智)), 송포진신 등) 이 부산(釜山)에 도착한 이튿날인 14일 묘시(卯時)(오전(午前) 6시)에 적군이 육지로 올라와 부산성(釜山城)을 에워싸고 첫 전쟁을 시작했다. 거기서 부산진(釜山鎭) 첨사(僉使) 정발(鄭撥)이 전사하니 실로 임진란(壬辰亂) 역사상에 나타난 첫 순국자였던 것이다.

임진년(壬辰年) 4월 14일 부산성(釜山城)이 무너지던 날 왜적(倭敵)들은 군대를 나누어 서쪽으로 다대포(多大浦)를 쳤다. 거기서 첨사 윤흥신(尹興信)이 적과 싸우다가 적의 칼 아래 순국했을 때 그의 서제(庶弟)가 같이 있다가 형을 껴안고 같이 죽어 같은 관 속에 넣어 같이 장사지낸 사적이 다대포(多大浦)의 윤공순절비(尹公殉節碑)에 적혀 있음을 보거나 이같이 전쟁 첫 날부터 순국의 피가 흐르기 시작하여 다음날인 4월 15일에는 동래성(東萊城)이 무너지며 부산(府使) 송상현(宋象賢)이 역시 피를 흘렸다.

그 날 아침 진시(辰時)(오전(午前) 8시)에 왜적(倭敵)이 성밖에 이르러,

「싸우려거든 싸우고 싸우지 않으려거든 우리에게 길을 빌려라」(전죽전(戰則戰) 부전즉가야도(不戰則假我道)라는 글을 목판에 써서 세우므로 송부사(宋府使)는 그것을 보고 자기도 큰 나무 판자에

「죽음은, 쉽거니와 길을 빌리기는 어렵다」(사역가도난(死易假道難))는 문귀를 써서 성 밖으로 내어 던진데서부터 전쟁은 시작되어 필경은 송부사(宋府使)의 순국과 함께 성이 함락되면서 가장 참혹한 살육이 감행되었던 것이다.

이같이 나라 위해 목숨을 던진 순국인이 있었던 반면, 전쟁 첫날 경상 좌수사 박홍(朴泓)은 본영을 버리고 도망쳤으며, 경상 좌병사 이각(李珣)도 병영에서 동래(東萊)로 들어왔다가 소문을 듣고서는 일단 병영으로(울산군 하상면) 도로 돌아가 말에다 자기 첩과 면포 1천여 필을 실어 먼저 보내고 자기도 이어 도망갔던 것이다.

왜적(倭敵)의 제1진(고니시(小西))은 가운데 길인 조령(鳥嶺)을 넘어 서울로 향하고, 제2진(가토(加藤))은 동쪽길인 죽령(竹嶺)을 넘어 서울로 향하고 제3진(구로다(黒田))은 서쪽 길인 추풍령(秋風嶺)을 넘어 서울로 향했는데, 그야말로 아무런 저항도 없이 무인지경을 가듯이 했던 것이니 참으로 천추에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무엇이랴.

더우기 제2진, 가토 기요마사(가등청정(加藤清正))은 길에서 덕오랑(德五郎)이란 자를 만나 그 놈이 길을 인도해 주었는데, 그 놈은 이미 35년 전에 우리에게 귀화(歸化)해서 사는 놈이었던 것이니 왜족이란 얼마나 무서운 종내기인가를 알 수 있다.

임진란(壬辰亂) 개전 즉시 부산(釜山) 동래(東萊)가 무너진 뒤로 겨우 20일만인 5월 초3일 서울 도성이 함락되기까지 연로(沿路)의 고을이란 고을이 다 깨어지던 육내(陸內)의 이야기들은 여기서 낱알이 들 겨를이 없으나, 다만 그 중에서 새삼스레나마 들어 들만한 대표적인 것은 신립(申昞)장군의 이야기다.

그가 왜적(倭敵)을 막으러 남쪽으로 내려가며, 용인(龍仁)에 이르러 임금께 글을 올렸는데, 그 글끝에 자기 이름 서명하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가 벌써 속으로는 혼이 빠져 나간 것이라고들 말하고 걱정했었다는 이야기가 서애(西厓)의 <징비록(懲毖錄)> 권 1에 적혀있다.

그러나 그 반면 신립(申昞) 장군에 비해서 오히려 그의 종사관 김여구(金汝詢)의 인격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이다.

그가 신(申)장군과 함께 처음 충주(忠州)에 이르던 길로 조령(鳥嶺)으로 나가 거기서 막아야 한다고 진언했어도 신(申)장군은 듣지 않았고, 마침내 무모한 배수진을 치는 것을 보고 그는 이미 패전할 것을 각오하고서 그 아들 류(瑬)에게 편지를 전함과 아울러 조정에 올리는 장계를 조할 적에 몸에는 갑주(甲冑)를 입고, 허리에는 활과 화살을 찬 채, 붓을 뿔아 들고 빗발치는 글씨로 최후의 보고서를 쓰되 그같이 황급한 시간이건만 글자 한 자도 착오가 없었다는 것이니 그가 얼마나 침착하고, 얼마나 정돈된 인격자이었던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임진란(壬辰亂) 전쟁이 터진 이튿날인 4월15일은 마침 성종대왕(成宗大王) 공혜왕후(恭惠王后) 한씨(韓氏)의 제삿날이자 충무공(忠武公)은 하루 종일 공무를 보지 않고 있던 즈음인데 그 날 해질 무렵에 그렇잖아도 밤낮없이 예측하고 있던 바로 그 전쟁 소식이 마침내 들려 온 것이었다.

경상(慶尙) 우수사(右水使) 원균(元均)으로부터 「왜선 90여척이 부산(釜山) 앞 절영도(絶影島)에 대었다」는 통보가 왔고 또 그와 같은 시각에 도착한 다른 공문에는 「왜선(倭船) 3백50여척이 부산포(釜山浦) 건너편에 와 대었다」고 했다.

그 다음날 4월 16일에는 원균(元均)으로부터 부산진(釜山鎭) 함락의 통보가 왔다. 또 그 다음날 17일에는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 김성일(金誠一)로부터 「왜적이 부산(釜山)을 함락시킨 그대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소식이 왔고 또 그 다음날인 18일에도 원균(元均)으로부터 동래(東萊)가 무너졌다는 소식이 왔다(난중일기(亂中日記)).

『처음에 원균(元均)이 적의 형세가 거창한 것을 보고 감히 나가 싸울 생각도 못하고 전선 1백여척과 대포, 군기 등을 모조리 바다 속에 버린 다음 부하인 이영남(李英男)과 이운룡(李雲龍) 등을 데리고 배 4척에 나누어 타고서 곤양(昆陽) 어귀로 도망쳐 육지로 올라가려 하자, 이영남(李英男)이 원균(元均)에게 「공(公)은 수사(水使)로서 어찌 이같이 할 수가 있소. 전라도(全羅道)에 구원병을 청해서 한 번 싸워 본 연후에, 이기지 못하면 그때 도망쳐도 늦지 않을 것 아니오」 하여 원균(元均)이 이영남(李英男)을 충무공(忠武公)에게로 보내어 청병했는데 5, 6차를 그냥 돌아오므로 그 때마다 균(均)은 뱃머리에 앉아 통곡했었다.』는 것이 서애(西厓)의 <징비록(懲毖錄)> > 적혀 있다. <국조보감(國朝寶鑑)>이나 <선묘충흥지(宣廟忠興志)>에는 옥포만호(玉浦萬戶) 이운룡(李雲龍)과 영등포(永登浦), 거제만호(巨濟萬戶) 우치적(禹致績)과 울포만호(栗浦萬戶) 이영남(李英男) 등이 같이 간 것으로 적혔고, 또 상륙하려던 장소는 남해고를 앞이라 했으며, 심부름 다닌 사람은 이영남(李英男)이었지만 원균(元均)을 꾸짖고 청병을 권한 것은 이운룡(李雲龍)이 한 것으로 적혀 있는 것이 서로 다르다.

충무공(忠武公)의 일기와 장계와 선조대왕의 논서(論書) 등 정확한 기록에 의하여 충무공(忠武公)이 출전하기까지에 했던 일들을 간추려 보기로 한다.

① 충무공(忠武公)은 왜적 상륙 후 제2일인 4월 15일 해질녘에 원균(元均)의 공문에 의하여 전쟁이 시작된 것을 처음 알았고,

② 그 날 밤 술시(戌時)(오후(午後) 8시)에 임금께 제1차 대변(待變) 장계를 올려 통분함을 말하고 사변에 대비하고 있음을 아뢰었고

③ 그 다음날인 16일에도 경상도로부터 공문을 받는대로 제2차, 제3차 대변 장계를 올림과 동시에 관하 관포(官浦)에 탐방할 것과 정비할 것을 긴급 시달했고,

④ 20일에는 경상도(慶尙道) 관찰사(觀察使) 김수로부터 구원병 청하는 공문을 받자 관하에 최대한의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고,

⑤ 그와 동시에 이일, 김수, 원균(元均) 등에게 경상도의 적의 정세가 어떠한가를 급히 회보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⑥ 26일에 임금으로부터 물길 따라 나가 적선을 무찌르라는 첫번 유서를 받았고,

⑦ 그 다음날인 27일에도 임금으로부터 『원균(元均)과 합세하여 적을 무찌르라』는 두번째의 유서를 받았다.

⑧ 그 날(27일)로 충무공(忠武公)은 『경상도(慶尙道)로 구원나가는 장계』 <제1편>를 올림과 동시에 관하 각 포구에 급히 집합할 것을 명령했고,

⑨ 29일에 출동할 것을 정했다가 준비 불충분으로 연기했고,

⑩ 30일에는 「경상도(慶尙道)로 구원나가는 장계」 (제2편)를 임금께 올렸고,

⑪ 5월 초1일에 전라도(全羅道) 모든 장수들이 본영에 집합하여 출정문제를 토의했고,

⑬ 5월 초4일에 비로소 여수(麗水)를 떠나 출전함과 동시에 「경상도(慶尙道)로 구원나가는 길」 (제3편)을 임금께 올렸다.

이러한 일과표에 의하여 보면, 충무공(忠武公)이 출전하기까지에 날마다 숨가쁠 정도로 보고와 시달과 조사와 궁리 등 온갖 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더우기 충무공(忠武公)이 4월 27일에 올린 장계 중에

『신은 경상도(慶尙道) 순변사(巡邊使) 이 일과 관찰사(觀察使) 김 수와 우수사(右水使) 원균(元均) 등에게 그 도(道)의 물길 형편과, 두 도의 군사들이 모이기로 약속한 지점과, 또 현재 적선의 수효와 정박해 있는 곳이 어디 어디인 것과, 그 밖에 여러가지 전략에 관한 모든 일들을 아울러 급히 회답해 달라고 통고하는 한편, 각 고을과 포구에 모든 전투 기구를 다시금 매만져 놓고 명령을 기다리라는 뜻으로 신척하였아옵니다』 (부원경상도상계(赴援慶尙道狀啓))

한 것을 보면 충무공(忠武公)이 원균(元均)에게 경상도의 적정을 자세히 알려 달라고 급한 통문을 보내기까지 했음을 알 수 있다.

또 27일에 임금으로부터 출전하라는 유서가 도착하자마자 충무공은 그 날로 출동할 것을

보고하는 장계를 올렸고 또 관하에 훈령하여 2일 뒤인 29일에 전원 집합, 출전하도록 계획을 세웠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충무공은 장계 끝에 자기의 결의를 이같이 밝혔다.

『원컨대 한 번 죽음으로써 기약하고 즉시 범의 소굴을 바로 두들겨 요망한 기운을 쓸어버리고 나라의 부끄러움을 만분의 일이나마 씻으려 하옵거니와 성공과 실패, 날쌔고 둔한 것에 대해서는 신이 미리 헤아릴 바 아닐까 하옵니다.』

라 했던 것이니 그 한 마디만 가지고도 충무공(忠武公)의 출전 심리와 애국 충정이 어떠한가를 짐작하기에 족하다.

다시 여기서 일본 육군의 뒤를 이어 들어온 일본 해군들의 진용이 어떠한가를 살펴 볼 필요를 느낀다. 더구나 그들이야말로 충무공(忠武公)이 해전(海戰)에 있어서 직접 상대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구키 요시타카(구귀가룡(九鬼嘉隆))	1,500명
도도 다카토라(등당고호(藤堂高虎))	2,000명
와키사카 야스하루(협판안치(脇坂安治))	1,500명
가토 요시아키(가등가명(加藤嘉明))	750명
쿠레시마 야스치카(래도강친(來島康親)(형제))	700명
칸노 마사카게(관야정영(菅野正影))	250명
쿠와야마 시게카즈(상산중승(桑山重勝))	1,000명
굴내 우지자네(굴내씨선(堀内氏善))	850명
스기와 카넨 사부로우(삼약전삼랑(杉若傳三郎))	650명
도합	9,200명
(오오타 우이치(태전우일(太田牛一))의 <천정기(天正記)>)	

그들은 육군에 비하여 숫자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름난 용장(勇將)들이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또 그들이 충무공(忠武公)의 해전 상대자들이 었던만큼 그들이 부산(釜山)으로 들어온 날짜가 언제였으며 또 그들의 침략행위가 어떻게 개시되었던가를 살펴 볼 필요를 느낀다.

그들이 병선(兵船)을 이끌고 히젠(비전(肥前)) 나고야(명호옥(名護屋))를 떠나, 우리 부산포(釜山浦)에 닿은 것은 4월27일이었다고 일본 기록들에 다 같이 적혀 있다.

그들이 도착하여 병선을 몇 부대로 나누어 우리 국토의 남해안을 끼고 서쪽으로 행진해서 먼저 상륙한 저희 육군들과 더불어 수륙(水陸)이 호응해가며 북진을 감행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충무공(忠武公)이 출전한 이후에 대승첩을 거두기 시작한 전쟁 상대자는 더 말할 것 없이 바로 이 본격적인 일본 해군들이었던 것은 물론이다.

원균(元均)이 처음에 왜적선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우후(虞侯)로 하여금 우수영(右水營) (가배량의 본영)을 지키게 하고, 자기는 달려가 백천사(白川寺)에 대었다가 거기서 우리 나라 고깃배들을 보고 적선인 줄 알고서 허둥지둥 노량(露梁)으로 물러갔었다는 것은 <연려실기술(燃黎室記述)>을 비롯하여 여러 기록에 실려 있는 창피한 이야기이다.

원균(元均)은 처음부터 본영(本營)을 버리고 달아나려고만 했다. 그래서 모든 장병들이 진작 흩어지고 말았다. 그러므로 원균(元均)의 잘못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로 개전초(開戰初)에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원균(元均)은 비록 물길에 좀 멀기는 했지만 배를 많이 가졌었고 또 적들도 하루 아침에 한 꺼번에 물려 들어오는 것이 아닌만큼 우리 편에서도 군사 있는대로 이끌고 나가서 단 한 번만이라도 싸워 이겼더라면 적군들도 뒤를 겁내어 갑자기 깊이 들어 오지는 못했을 것이 아니냐.』

한 서애(西厓)의 말이 결코 그른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어떻게 되어서였든지 원균(元均)이 완전히 달아나 버리고 만 것이 아니라 충무공(忠武公)에게 청병을 했고 또 필경 충무공(忠武公)이 출전을 해서 승리를 얻게 되었던 것만은 천만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균(元均)은 처음부터 충무공(忠武公)을 포함하고 욕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나라일을 어지럽히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이니, 그는 실로 인간적인 점에서부터 뒷 사람들의 평론을 면할 길이 없었던 사람이다.

10. 충무공(忠武公)의 출전(出戰)

5월 초1일, 충무공(忠武公) 휘하의 모든 장병들이 좌수영(左水營) 앞 바다에 전원 총집결하여 경상도(慶尙道)로 출전하는 문제를 가지고 전 장병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전개되었다.

『전라도 해군은 전라도를 지키는 것이 자기 임무요, 나가 싸우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요.』

하고 주장하는 이도 있었으나 한 편으로는

『이제 적군들의 기세가 커졌으니 앉아서 외로운 성을 지키자 해도 지켜지지 않을 것이요, 다 행히 싸워 이기면 적의 기세를 꺾을 것이며, 설사 불행히 전사한대도 그 또한 남의 신하된 도리에 부끄러움이 없지 않겠소.』

고 한 것은 군관 송희립(宋希立)의 말이었다.

『적군을 치는데 전라도, 경상도가 어디있소. 영남을 내버려 두어 오늘에 다 무너지고 나면, 내일의 우리 일은 또 어떻게 할 것이요. 적이 울타리 밖에 있을 때에는 막기가 쉽지만 울타리 안에 들어오고 나면 막기조차 어려운 것이요. 영남은 호남의 울타리인데 울타리가 무너지면 여기 도 보전하지 못 할 것이요. 이제 군병을 이끌고 나가 쳐서 한편으로는 영남을 돕고 또 한편으로는 호남을 보호할 생각을 아니 하고서, 그저 머뭇거리며 바라만 보고 목전에만 편하려 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을 울타리 안으로 인도해 들이는 것이라 할 것이요.』

고 한 것은 녹도만호(鹿島萬戶) 정운(鄭運)의 말이었다. 충무공(忠武公)은 그제야 입을 열고

큰 목소리로

『내가 그대들의 생각을 시험해 본 것이요. 이제 출전을 결정한 이상 감히 다른 말을 하는 자가 있으면 용서없이 군율(軍律)에 처할 것이요.』

하고 추상같은 선언을 내렸다.

그래서 여도수군(呂島水軍) 황옥천(黃玉千)이란 자가 왜적(倭賊)들의 소문을 듣고 미리 놀라 저희 집으로 도망한 것을 붙잡아다가 목을 베어 군중(軍中)에 높이 매어다니 이것이 충무공(忠武公)의 군율 처형 제1호였던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편으로 충무공(忠武公)은 모든 부하 장병들에게 군호(軍號)(군의 명칭)는 용호(龍虎)라 하고 복명은 산수(山水)라 정한 것을 발표하는 동시에 전라우수사(全羅右水使) 이억기(李億祺)의 군대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것은 충무공(忠武公)의 장계에도 쓰여있는 바와 같이 적선이 5백여 척임에 비하여 충무공(忠武公)이 가진 판옥전선(板屋戰船)은 겨우 20여 척밖에 되지 않아 너무도 약세이므로 우수사의 병력을 연합해 가지고 출전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억기(李億祺)는 미처 도착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그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충무공(忠武公)은 방답 첨사 이순신(李純信)을 불러 자기 휘하의 좌수영 군사만을 거느리고라도 떠날 수 밖에 없다 하고 내일 5월 초4일 새벽에 여수(麗水)를 출발하도록 하라고 최후의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임진년 5월 초4일 새벽 축시(丑時)(오전 2시경), 충무공(忠武公)의 함대는 비로소 여수(麗水)를 출발했다.

더우기 충무공(忠武公)에게 있어서는 그 날이 바로 어머니의 생신날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날 충무공(忠武公)의 함대가 출발했던 시각이 새벽 2시경이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잠든 사이, 그야말로 비밀리에 군사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거니와 그같이 충무공(忠武公)의 작전계획은 그런 데까지 물샴틈 없이 용의주도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옛날부터 문무간(文武間)에 이른바 『기른사람』(소양자(所養者))과 『쓰는사람』(소용자(所用者)) 여하로써 성공과 실패가 달랐다고 한다.

과연 충무공(忠武公)은 전라 좌수사로 있으면서 해를 두고 보고, 듣고, 고르고, 시험하고, 가르치고, 길렀던 자기 군사, 자기 동지들을 모아 쥐고 나갔기 때문에 승첩(勝捷)을 거두었던 것이다.

그야말로 『길러 놓은 사람이자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퇴(進退)를 같이 했고, 생사를 같이 했고, 그래서 마침내 결정적인 승첩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수(麗水)야말로 임진란 역사상에 참으로 진중한 위치를 가진 곳을 더욱 더 깨닫는다.

첫째 충무공이 나라를 걱정하여 전쟁에 대비하는 등 온갖 정성을 바친 곳이 여수(麗水)요, 둘째 임진란 승첩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였던 거북선을 창제한 곳이 또한 여수(麗水)요, 세째 그 모든 것보다 자기 부하에 과연 쓸만한 명장들을 길러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 7년 전역을 치렀던

것인데 그들을 기른 곳이 또한 여수(麗水)였기 때문이다.

그 날 충무공(忠武公)이 거느린 함대는 ①판옥선(板屋船) 24척, ②협선(挾船) 15척, ③포작선(鮑作船) 46척이라, 합하면 85척이나 되었지만 그 중에서 협선(挾船)이나 포작선(鮑作船)(보자기 배)은 한갓 부속선 따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상 전투할 수 있는 배로는 겨우 판옥선(板屋船) 24척이란 적은 수(數)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께 올린 공(公)의 장계에도

『신에게 소속된 전함은 모두 합해서 30척이 채 못되므로 형세가 심히, 외롭고 약합니다.』

하고 말했던 것이다.

그같이 그의 함대(艦隊)는 일본의 수백척 전함에 비해 너무도 빈약했건만 충무공(忠武公)은 오직 하나 구국(救國)의 지성(至誠)과 신념을 가졌었기에 조금도 두려움 없이 파도를 헤치고 행진했던 것이다.

그리고 또 충무공(忠武公)은 전에 일찍 영남 바다를 가본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 나라를 살려야 하는 의무 때문에 주저없이 험한 물길을 뚫고 행진했 던 것이다.

충무공(忠武公)은 여수 본영에 우후 이몽구(李蒙龜)로써 유진장(留鎭將)을 삼아 남겨 두고, 영남 바다를 잘 아는 광양현감 어영담(魚永潭)으로서 향도자를 삼아 여수(麗水)에서 31「마일」쯤 되는 소비포(所非浦) 앞 바다에서 첫날 밤을 쉬면서 휘하의 장수들로서 편성한 전투 진용을 다시금 재확정했던 것이다.

중위장 이순신(李純信)

좌부장 신훈(申浩)

전부장 배흥립(裨興立)

중부장 어영담(魚永潭)

유군장 나대용(羅大用)

우부장 김득광(金得光)

후부장 정운(鄭運)

좌척후장 김인영(金仁英)

우척후장 김완(金浣)

한후장 최대성(崔大成)

참퇴장 배응록(裴應祿)

돌격장 이언양(李彦良) 등

과연 의기있는 명장들이 었다(부원경상도(赴援慶尙道) 상계(狀啓)에 의함).

충무공(忠武公)은 이같은 부하 명장들을 데리고 소비포(所非浦) 앞 바다에서 첫날 밤을 지내고 다음날 5월 초닷새 경상도 수군들과 약속되어 있는 당포(唐浦)(통영군산장면(統營郡山場面))로 내려갔다.

소비포에서 당포까지는 13「마일」쯤 되는 거리다. 그런데 거기에 원균(元均)은 보이지 않았

다. 충무공(忠武公)은 경쾌선 한 척을 내 보내어 원균(元均)을 찾았다.

원균(元均)은 그 이튿날(5월 초6일) 아침에야 한산도(閑山島)로부터 나타났다. 그리고 뒤를 이어 영남 장수들이 겨우 몇 사람 따라왔다.

옥포만호(玉浦萬戶) 이운룡(李雲龍)과 영등포 만호 우치적(禹致績)과 소비포 권관, 이영남(李英男) 등 모두 아홉 장수가 판옥선 4척과 협선 2척을 가지고 왔다.

충무공(忠武公)은 호남, 영남의 연합군을 모아 놓고 다시금 약속을 굳게 했다. 그리고 당포(唐浦)(지금 통영군 미륵도 서남쪽 삼덕동)를 떠나 남쪽 해상을 더듬으며 행선했다.

11. 제(第)1차(次) 옥포승첩(玉浦勝捷)

거제도(巨濟島) 남쪽 해상의 절경!

대소병대도(大小並臺島)를 지나서 거제도(巨濟島)에서는 동남쪽 끝, 절벽으로 깎아 지른 「갈곶섬」이란 돌섬을 돌아가면 송미포(松味浦)다. 당포(唐浦)에서 19「마일」의 거리인데 충무공(忠武公)의 영(嶺)·호남(湖南) 연합함대가 5월 초6일 밤을 드센 포구다.

이튿날 5월 초7일 새벽, 충무공은 발선을 명령했다. 여기서 북쪽으로 왕원 고을에 속한 가덕도(加德島) 방면을 향해 가는 길이었다. 거기에 적선이 있다는 원균(元均)의 정보 제공에 따른 행동이었다.

송미포(松味浦)에서 원편으로 패어 들어간 바다는 조라포(助羅浦)가 있는 조라만이요, 맞은 편 산뽕다귀 「구이치」를 지나면(지금은 등대가 있음) 오목하게 들어간 곳에 지세포(知世浦)가 있고, 또 가면 장승포(長承浦)가 등너머에 있고 더 올라가 바다 밖으로 빼죽이 내민 것이 양지암(陽地岩)이요, 그 안이 옥포만(玉浦灣)인데 충무공(忠武公)이 송미포(松味浦)로부터 5「마일」되는 이곳에 도착한 때는 그 날(5월 초7일) 정오께였다.

앞서 보낸 우리 척후장들이 옥포만 안에 왜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 함대가 있는쪽 하늘로 신기전(神機箭)(신호화살)을 쏘아 올렸다.

용감한 우척후장 사도(蛇渡)첨사 김완(金浣)과 좌척후장 여도(呂島) 권관 김인영(金仁英) 두 사람이야말로 중요한 척후의 임무를 수행한 영예로운 첫기록자들이었다.

신기전(神機箭)이 솟아오르자 그 순간 우리 장병들은 일제히 긴장해졌다. 그것을 본 충무공(忠武公)은 판옥선 위에서 부대장들에게 큰 목소리로 외쳤다.

『망동(妄動)하지 말고 산(山)과 같이 정중하게 하라.』

과연 최고지휘관으로서 침착한 태도였다. 그리고 이 한 마디 말이 바로 전쟁터에서 내린 충무공(忠武公)의 전쟁훈(戰爭訓) 제1성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함대는 질서정연하게 옥포만 안으로 적진을 향해 기세 좋게 돌진해 들어갔다. 이 때 적선단은 30여척이 옥포 선창에 정박하고 있었다. 일본 기록에 의하면 왜적의 장수는 도도 다카토라(등당고호(藤堂高虎))였다.

충무공은 처음 본 적선들의 모양에 대해서 그의 옥포 승첩 장계 속에 이같이 기록했다.

『왜적들의 큰 배는 사면에 휘장을 둘러쳤는데 채색 비단에 잡무늬들을 그렸읍니다. 휘장 옆으로는 대간짚대(죽간(竹竿))를 꽂았는데 붉고 흰 깃발을 무수히 달았으며 기의 모양은 수건 따위로 만든 번(幡)과도 같고 또 수실이 달린 당(幢)과도 같은데 모두 무늬있는 비단이라 바람에 펄럭여 남의 눈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었읍니다.』

옥포에 있던 왜적선들의 모양이었다.

그 때 왜적들은 옥포의 관청이고 여염집이고 할 것 없이 마구 뛰어들어가 분탕질을 치고 있었다.

산에는 불타는 연기가 자욱했다. 그러다 우리 배들을 보고는 엎어지며 자빠지며 어쩔줄을 모르면서 모두들 배를 타고 아우성치며 달아나는데 감히 바다 가운데로는 못 나오고 기슭을 타고 서 행선하는 것이었다.

적의 선봉선(先鋒船) 6척은 앞서 도망가고 남은 배들은 완전히 우리 포격권 안에 휩싸여 들어오고 말았다.

여기서부터 역사적인 첫 전투의 포화(砲火)는 터졌다. 우리 군사들은 죽을 힘을 다하여 일심으로 분발, 혹은 포를 쏘고 혹은 화살을 쏘는 것이 폭풍과 우뢰같았다. 적들도 응전해 왔다. 조총(鳥銃)과 화살을 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세력을 당할 길이 없었다.

급박해진 적들은 마침내 배에 실은 물건들(도둑질한 물건)을 모조리 물 속에 집어 던지고 달아나려고만 했다. 그러나 화살에 넘어지는 놈, 헤엄치는 놈, 빠져 죽는 놈들이 얼마인지 몰랐다.

적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불타는 왜적선들로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바닷물을 피로써 물들었다. 이 전쟁에서 전라도 장수들이 왜선(倭船) 21척, 경상도 장수들이 왜선 5척, 합하여 26척의 왜선을 전멸시키고서 우리 함대는 이 곳을 떠나 승전고를 울리며 거제도(巨濟島) 북쪽 끝에 있는 영등포(永登浦) 장목면(長木面) 구영리(舊永里)를 향하여 복상하는 길을 취했다.

조용한 바다에 포탄과 화살이 마구 쏟아지던 큰 풍량이 일어났다가 다시 조용해지고 연기만이 남아 감도는 옥포(玉浦)바다!

이것이 충무공(忠武公)의 영광스러운 제1차 옥포해전(玉浦海戰)의 대승첩(大勝捷)이었다.

충무공(忠武公)은 그 날 오후 4시경에 옥포(玉浦)로 부터 12「마일」 거리에 있는 영등포 앞 바다에 도착하여 군졸들에게 명령하여 나무도 찍어 오고 물도 길어 와서 밤을 지새울 계획을 세웠다.

그러다가 척후장의 보고가 멀지 않은 곳에 왜선 큰 배 5척이 지나간다 하므로, 충무공(忠武公)은 다시 함대를 동원하여 영등포로부터 25「마일」 거리나 되는 합포(合浦) 앞바다까지 적의 뒤를 추격했었다.

적들은 겁을 집어먹고 노를 빨리 저어 합포(合浦)(마산(馬山)) 앞바다로 들어가 배를 버리고 육지로 올라가 도망치는 것이므로 왜적들은 잡지 못했으나 배들은 5척 전부 태워버려 승리를 거두니 이것이 이른바 제1차 옥포대첩 중의 합포전(合浦戰)이란 것이요, 이 때의 공로자는 모두

충무공(忠武公)의 부하인 전라도 장수들이었다.

충무공(忠武公)은 합포전(合浦戰)에서 승첩을 거둔 즉시 함대를 돌려 10「마일」쯤 떨어진 창원(昌原) 고을 주산면 남포(藍浦)로 내려와 밤을 지냈다.

다음날 5월 초8일 아침 일찌기 진해(鎭海) 땅 고리량(古里梁)에 왜적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발선하여 안팎 여러 섬들을 두루 뒤지며 전진했었다.

남포(藍浦)에서 14「마일」 떨어진 지금 통영(統營) 고을 광도면(光道面) 적덕동(赤德洞)이 임진란 당시에는 적진포(赤珍浦)라 하던 곳인데 충무공(忠武公)이 거기에 이르러 보니 왜적이 대중선(大中船) 아울러 13척이 바다 어귀에 정박해 있고 적들은 역시 마을 안으로 들어가 여염집들을 약탈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함대들을 바라보고는 혼비백산하여 배를 버리고 산으로 도망쳐 버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적선 11척을 전부 불태워(2척은 도망침) 대승전을 거두니 이것이 이른바 제1차 옥포(玉浦)대첩 중의 적진포전(赤珍浦戰)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때의 공로자들도 역시 전라도 장수들이었다.

더우기 공(公)의 장계 중에

『이 싸움을 마치고 나서 우리 군사들은 아침 밥을 먹고 잠깐 휴식했습니다.』

한 말이 있는 것을 보면, 그 날 적진포(赤珍浦)에서 적선 11척을 불태워버린 전쟁은 너무도 일반적인 쉬운 전쟁이라 그야말로 아침 식전에 전투연습 한 시간쯤 한 셈이었다고 표현한대도 좋은 것이다.

충무공(忠武公)은 다시 적진포(赤珍浦)에서 발선하여 고성(固城)땅 월명포(月明浦)(지금 통영군(統營郡) 산양면(山陽面))에 이르러 군사를 쉬고 있을 즈음 전라도 도사(都使) 최철건(崔鐵堅)으로부터 선조대왕(宣祖大王)이 서울을 떠나 서쪽으로 몽진했다는 통첩을 받고 통분한 마음을 누를 길이 없었다.

『상감께서 관서(關西)로 피란가신 소식을 듣고서는 놀라고 통분함이 망극하와 종일토록 서로 붙들고 울적에 간장이 찢어져 소리와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읍니다.』

이 한 마리만으로써도 공(公)의 충군애국(忠君愛國)의 지정이 어디했던가를 짐작할 수 있거니와 이 때는 선조대왕(宣祖大王)이 서울을 떠난지 이미 1 주일이 지난 때였다.

충무공(忠武公)은 첫번 전쟁이 일단 끝나기도 했을뿐더러 앞으로 더 큰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일단 여수(麗水) 본영으로 돌아가 진영을 재정비하고 군기를 더 갖추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충무공(忠武公)의 선단은 영남 해군들과 작별을 고하고 무사히 본영으로 돌아가니 5월 초9일 정오경이요, 적진포(赤珍浦) 싸움으로부터서는 무릇 46「마일」을 달려간 영광의 개선이었다.

장군을 마다한 졸병

미국 버지니아주 피츠버그의 「로자 아킨슨 프리아」(1828~1919)는 장군에 임명되었으나 장군보다는 차라리 졸병으로 일하겠다 하여 그 임명을 받지 않았다. 그는 1862년 4월 14일 아메리카 독립전쟁 때에 남부연합군의 「조셉 이. 존스톤」 장군으로부터 준장에 임명되었으나 “군에는 장군이 너무나 많고 진정 소용되는 것은 졸병”이라는 편지를 보내고 끝내 준장에 취임하기를 거부하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한 졸병으로서 제일선에서 크게 활약하였다.

객(客) (L'Hôte)

알베르·카뮈

이 환(李 桓) 역(譯)

▲ 작자소개(作者紹介) ▲

전후(戰後) 프랑스의 지성(知性)을 대변한 작가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서슴치 않고 카뮈(Albert Camus. 1913~1960)와 사르트르를 들 것이다. 그 중 연소한 그러나 이미 작고한 카뮈는 마치 2차대전을 전후한 혼돈(混沌)과 비극의 상황(狀況) 속에서 정신적 고뇌와 방황과 정열과 희구를 결구하기 위하여 살고 죽은 것같이 보인다.

알지에서 태어난 카뮈는 오랫동안 그곳 북(北)아프리카에 머물렀고 문단에 나서기 전에는 저어널리스트의 생활(生活)을 하였다. 1952년(年) 「이방인(異邦人)」과 더불어 일약 문단(文壇)의 총아가 된 그는 연이어 희곡, 에세이 등 여러 작품을 썼다.

특(特)히 여기에 번역한 「객(客)」은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물결치고 있는 듯이 느껴진다. 「이방인(異邦人)」에 나타나는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인 구성(構成)에 비해 이 단편(短篇)은 다분히 인간적이다. 구원없는 이 대질(對質)에 이제 어떤 출구를 예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느껴지기까지 한다. 카뮈에 있어 「시지프의 신화(神話)」·「반항적(反抗的) 인간(人間)」을 뒤이어 제삼(三)의 범주를 설정해 보려는 유혹은 이런 곳에서 연유하고 있다.

교사(教師)는 자기를 향해 두 사람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아직 그들은 산중턱에 세워진 학교로 향하는 험한 언덕 길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인적 없는 높은 고원, 광막한 들판 위에서 눈에 뒤덮인 돌 사이로 서서히 전진하며 고생하고 있었다. 이따금 말이 휘청거리는 것이 보였다. 아직 발굽소리가 들려오지는 않았지만 못구멍으로 무력무력 내뿜는 김이 보였다. 적어도 그 중 한 사람은 이 교장을 잘 아는 것 같았다. 그들은 벌써 며칠째 우중충한 흰 눈더미 아래 가리어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다가오고 있었다. 교사는 그들이 언덕 위로 올라 서려면 반 시간은 더 걸릴 것이라고 짐작했다. 몹시 추운 날이었다. 자켓을 찾으려 그는 학교로 돌아왔다.

그는 텅 빈 얼어붙은 교실을 건너갔다. 흑판 위에는 각각 색다른 분필로 그려진 네 개의 프랑스 강이 사흘째나 하구를 향하여 흐르고 있었다. 시월 중순에 이르자 눈이 느닷없이 퍼부었다. 8개월 동안이나 가뭄이 계속되더니 끝내 비는 오지 않고 눈이 퍼부는 것이다. 그래서 고원 위에

홀어진 촌락에서 통학하는 스무명 가량의 생도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날씨가 좋아지는 것을 기다릴 수 밖에. 이제 다뤄는 숙소로 정해진 방 하나에만 난로불을 피울 뿐이었다. 이 숙소는 교실에 연결되어 있었고 동쪽 고원을 향해 열려 있었다. 창 하나만이 교실의 유리창과 같이 남쪽을 향하고 있었다. 이편으로 보면 학교는 남쪽을 향하여 언덕이 내리막 길이 되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수천 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는 것이었다. 청명한 날에는 멀리 몽실거리의 산맥의 보라빛이 보였다. 사막의 문이 열리는 것은 바로 이곳이었다.

좁 몸이 녹자, 다뤄는 처음 두 사람을 발견한 창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이제 보이지 않았다. 언덕에 들어선 것이 분명했다. 하늘의 어둠은 좀 풀린듯 했다. 간밤에 눈이 맺은 탓이다. 아침은 음산한 빛과 함께 밝아 왔고 구름이 차츰 걷히면서 빛은 어렴풋이 밝아졌다. 오후 두 시가 되어 서야 비로소 낮이 시작된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지난 사흘-뿔뿔 오는 어둠 속에 함박 눈은 마구 내리고, 휘몰아치는 바람이 교실의 걸문을 뒤흔들던 때에 비하면 한결 나은 편이었다. 그때 다뤄는 방 안에서 초조함을 참지 못하고, 거기서 나오는 일이라고는 닭을 돌보거나 석탄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뿐이었다. 다행히도 북쪽 제일 가까운 마을, 타지이드의 짐차가 이제나 이틀 전에 석탄을 보급해 주었다. 이틀 후에 다시 오기로 되어 있었다.

한편 작은 골방에는 밀부대가 가득히 있었기 때문에 이 포로생활을 견뎌 나가기에 충분했다. 이 밀보리는 가뭄으로 희생당한 세대의 생도들에게 급식하도록 정부에서 예비로 보내온 것이다. 사실 말이지, 모두가 가난한 처지인 만큼, 다 피해를 입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매일같이 다뤄는 어린것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었다. 분명, 이 사나운 날씨가 계속되는 요즈음도 그들에게는 식량이 부족할 것이다. 아마, 누구네 아버지나 형이 오늘 저녁이라도 찾아올 것이고, 찾아오면 그는 식량을 공급할 것이다. 이 다음 해 농사 때까지 이어 주면 될 것이 아니냐, 간단한 일이다. 이제 밀을 실은 배가 프랑스에서 도착했거니와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긴 것이다. 하지만 이 참상, 이글거리는 햇볕 아래 해매는 누더기 걸친 여원 사람들, 다달이 더 꺼멓게 타버린 고원, 문자 그대로 이글거려 차츰 말라 붙은 땅, 밭에 밟혀 먼지처럼 흩어지는 자갈-이 모든 것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단 말이나. 그리하여 수천 마리의 양떼들이 쓰러졌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도처에서 사람들은 죽어 간 것이다.

이 참상을 앞에 두고 외떨어진 학교에서 거의 신부나 다름 없이 살아온 그는 이 소탈한 생활과 사소한 살림에 흡족한 듯 스스로 상전처럼 느끼고 있었다. 회칠로 단장한 벽과 좁은 장의자와 하얀 나무 선반과 우물과 그리고 물, 양식 등 매주(每週) 빠짐없는 공급을 자랑하는 그였다. 그때 별안간 난데 없는 이 눈소동, 우기의 풀릴 겨를도 없이 닥쳐온 이 눈소동을 당한 것이다. 이렇듯 살기 어려운 이 고장. 사람들까지도 없는-하기야 있어 봤자 별 수 없는 노릇이 아니냐. 그러나 다뤄는 여기 태어났다. 어느 곳을 찾아가나 그는 유형당한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는 밖으로 나가 학교 앞뜰을 거닐었다. 두 사람은 이제 언덕 중턱에 이르고 있었다.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은 그가 오래 전부터 알고 있는 나이많은 헌병, 발뒤크시였다. 발뒤크시는 포승에 묶

인 아랍인 한 사람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 아랍인은 손을 묶이고 머리를 숙인 채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다. 헌병은 몸짓으로 인사했지만, 다뤄는 답례도 하지 않고, 한 때는 푸르스름했을 작업복을 입고 있는 이 아랍인을 얼빠진 듯 바라보고만 있었다. 샌들을 걸친 발은 두툼한 양털 생사 빛 양말에 덮여 있었고, 머리에는 좁고 짧은 헌장을 두르고 있었다. 그들은 가까와졌다. 발뒤크시는 아랍인이 다치지 않도록 말의 걸음을 조절하면서 그들은 서서히 다가오는 것이었다. 말소리가 들릴 만하게 되자 발뒤크시가 외쳤다. 「엘-아뫼에즈에서 여기까지 3킬로 걷는데 세 시간이 걸렸네!」 다뤄는 대답하지 않았다. 두툼한 자켓 속에 몸을 수그리고 버틴 채 그는 올라오는 그들을 봤다. 단 한 번도 아랍 사람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들이 앞뜰로 들어서는 것을 보자, 「안녕하십니까?」 하고 다뤄는 말했다.

「자, 들어와서 몸을 녹이시 구료!」 발뒤크시는 고단한 듯 말에서 내렸다. 꼬나불은 권 채였다. 그는 교사를 향해 뻗뻗한 수업 아래로 웃어 보였다. 별장계 별에 익은 이마 아래 움푹 패인 어두운 두 눈하며 주름 잡힌 입은, 그에게 조심성스럽고도 근면한 품을 보여주고 있었다. 다뤄는 말고삐를 잡고 차양 아래로 끌고 갔다가 다시 두 사람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학교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기 방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교실에 불을 피우지요, 교실이 더 아늑하니까요!」 하고 그는 말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 본즉 발뒤크시는 장의자 위에 앉아 있었다. 아랍 사람을 묶은 꼬나불은 풀렸고, 이 아랍 사람은 화로 옆에 웅크리고 있었다. 손은 여전히 묶인 채 그리고 헌장은 뒤로 좀 젖힌 채로 창을 향해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우선 두툼하고 미끈미끈한 거의 흑인종과도 같은 그의 큼직한 입술만이 다뤄의 눈에 띄일 따름이었다.

그러나 코는 우뚝하고, 두 눈은 열에 넘쳐 어두웠다. 현장이 젖혀지자 말쑥한 이마가 보였고, 별에 익은 그러나 추위로 흐려진 살결 아래 온통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반항이 어려 있었다. 다뤄는 가슴이 뜨끔했다. 그때 아랍인은 얼굴을 그에게 돌리면서 뚫어져라 눈을 쏘아보았다. 「이쪽으로 앉으시지. 박하차를 끓여 드릴 테니!」 하고 교사는 말했다.

「고맙소. 참, 못해 먹을 일이로군, 이젠 정말 은퇴라도 할 밖에!」 그리고, 아랍말로 죄인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넌 일루 와!」 아랍 사람은 일어섰다. 앞으로 묶인 손목을 들고 천천히 학교 안으로 발을 옮겼다.

차와 함께 다뤄는 의자를 하나 가져갔다. 그러나 발뒤크시는 벌써 맨 앞 생도 의자 위에 자리잡고 있었고, 아랍 사람은 책상과 창 사이에 놓인 화로를 향한 채, 교단을 기대고 웅크리고 있었다. 찻 잔을 죄수에게 내 밀려다가 다뤄는 묶인 손 앞에서 머뭇거렸다. 「풀어도 되겠지요 뭐!」 「그럼 여행을 위한 것뿐이니까!」 하고 발뒤크시는 말했다. 그는 일어서는 시늉을 했다. 그러나 다뤄는 잔을 땅 위에 놓고 아랍인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랍인은 입을 다문 채 열에 뜬 눈으로 그의 거동을 지켜 보고 있었다. 손이 풀리자 부은 손목을 서로 비벼대며 찻잔을 들고는 뜨거운 차를 훌훌 다급하게 들이삼켰다.

「참, 이러구 어딜 가시는거예요?» 하고 다뤘는 물었다.

발뒤크시는 찻잔을 내려 놓았다. 「여기지, 이 사람아.

「괴상한 생도들이군. 그래 여기 주무실 작정이세요?»

「천만에, 난 엘-아피에르에 돌아가네 그리고 자넨, 이 사람을 텅기에 넘겨주게 연합 시청(市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발뒤크시는 다리를 바라보고 다정스럽게 웃어 보였다.

「아니 그게 무슨 얘기에요. 절 놀리실 작정이십니까요?»

「아니야, 이 사람아 명령일세.」

「명령이라구요? 난…」 다뤘는 머뭇거렸다. 차마 이 늙은 코르스 사람을 괴롭히고 싶진 않았다. 「어쨌든 이것은 내 일이 아닌걸요.」

「글쎄, 그게 무슨 말이야? 전쟁 때에는 못하는 일이 없지 않은가!」

「그럼, 선전포고를 기다리지요!」

발뒤크시는 고개를 흔들며 수긍했다. 「좋아.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고, 그것은 또 자네도 관련이 된 일일세. 머지 않아 반란이 있을지 몰라. 우리, 어떻게 보면 동원당한 셈이지.」

다뤘는 여전히 완고한 표정이다.

「들어 보게, 이 사람아. 난 자넨 좋아 하네만, 잘 알아들어야 해, 우린 고작 열 둘뿐인데 엘-아피에르에서 이 작은 도(道)지역을 순찰해야 한단 말이야. 그래 난 돌아갈 수 밖에 없네, 자네에게 이 녀석을 맡기고 지체없이 돌아오라는 분부니까, 이놈을 거기다가 둘 수는 없는 노릇이고 글쎄 놈의 마을 사람들이 웅성대며 놈을 내 달라고 아우성이니 말이야. 내일 안으로 텅기에 데려다 주게. 자네 같은 장사에 20킬로 정도가 두려울리 있겠나, 데려다 주기만 하면, 다 끝일세. 생도들과 또 그 알뜰한 생활을 찾을 수 있지.」

벽 뒤에서 말이 코를 찌근거리며 발굽 구르는 소리가 들려 왔다. 다뤘는 창 밖을 내다봤다. 날씨는 이제 완전히 개었고 햇빛은 눈이 덮인 고원 위에 넓다랗게 번쩍이고 있었다. 눈이 녹으면 다시금 태양이 이글거릴 것이고 이 돌의 들을 태우리라. 날이면 날마다 변함없는 하늘은 사람이란 그림자도 찾아 볼 수 없는 이 황량한 고원 위에 그 메마른 빛을 퍼부으리라.

「한데, 이 사람은 무슨 일을 저질렀나요?» 하고 발뒤크시를 돌아보면서 다뤘는 입을 열었다. 그러고는 미처 헌병이 입을 열기 전에 「프랑스 말은 합니까?» 하고 물었다.

「아니, 한 마디도 못해, 벌써 한 달째나 찾았는데 모두 감춰 주었지 사촌을 죽인 놈일세.」

「우릴 반대합니까?»

「그런 것 같진 않네만, 어디 알 수 있어야지.」

죽이기는 왜 죽였어요?»

「집안 싸움인 것 같애, 누군가가 양식을 빚지고 있었나 보더군. 분명치가 않다. 요컨대 간단히 말해서, 사촌을 낫으로 찢러 죽였던 말이야. 알지, 마치 양을 찌르는 것같이 폭…」

발뒤크시는 칼로 목을 찌르는 시늉을 했다. 아랍 사람은 주의가 끌리는지 불안스럽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문득, 다뤘는 이 사람에 대한, 이 모든 인간, 그들의 악의, 지칠 줄 모르는 중오, 피의 광란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노염에 사로잡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찻주전자는 화로 위에서 부글 부글 끓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 번 발뒤크시에게 차를 따라 주고 머뭇거리다가 아랍 사람에게도 부었다. 이번에도 그는 허깃증이 난 듯 들이마셨다. 치켜 올린 두 팔로 작업복은 약간 헤쳐져 교사는 여위고 탄탄한 그의 가슴을 보였다. 「고맙소」 하고 발뒤크시는 말했다.

「자, 그럼 난 보겠네.」

그는 일어서서, 호주머니 속에서 오랏줄을 꺼내 들고 아랍 사람에게로 갔다.

「뭘 하시는 거요?» 하고 다뤘가 통명스럽게 물었다.

발뒤크시는 주춤하고 그에게 오랏줄을 보였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나이 먹은 헌병은 머뭇거렸다.

「종도록 하게. 물론 총을 가졌지?」

「엽총이 있습니다.」

「어디?»

「짐 보따리 안에요.」

「침대 곁에 놓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왜요? 뭐 두려울 게 있나요?»

「단단히 주의하게. 저놈들이 일어서는 날엔 아무도 안전한 사람은 없다네. 우린 모두 같은 운명일세.」

「싸우지요. 그들이 올라오는 것을 볼 여유는 있으니까요.」

발뒤크시는 웃기 시작했다. 돌연, 수염이 하얀 이빨을 가렸다.

「여유가 없다고? 좋아 내가 말한게 바로 이걸세. 자넨 늘 좀 금간 사람 같았지. 자넨 좋아하는건 이것 때문이야 내 아들놈도 그랬으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권총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이걸 간직해 두게. 여기서 엘-아피에르에 가는데 둘이나 필요 없지.」

권총은 책상 검은 판 위에서 번쩍었다. 헌병이 다시 그를 향해 돌아서자, 교사는 가족과 말냄새가 그에게서 풍겨 오는 것을 느꼈다.

「이것 모두 질색인데요. 첫째 저 녀석부터가. 어쨌든 저 사람을 넘기지 않으렵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싸우겠어요. 하지만 이 것만은 못하겠읍니다.」

늙은 헌병은 그 앞에 우뚝서서 야무지게 노려보았다.

「자넨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군.」 하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라고 이것을 좋아할리가 있나. 사람을 오랏줄로 묶는다-몇 해를 해 온 것이지만 그렇다고 습관처럼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닐세. 하긴, 그래, 부끄럽기도 하지. 하지만 놈들 하대로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말이야.」

「난 넘겨 주지 않으렵니다.」 하고 다뤘는 되풀이할 뿐이었다.

「명령일세, 이 사람아. 되풀이해 말하지만.」

「그래요, 가서 내가 말한 것을 되풀이해 드리세요.」 『나는 넘겨 주지 않으렵니다.』 고 한 말을.」

발뒤크시는 분명히 생각을 가다듬으려고 애쓰는 것으로 보였다. 그는 아랍 사람을 바라보며 다뤘을 보았다.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아니야. 가서 아무 말하지 않겠네. 우릴 버리고 싶걸랑 마음대로 하게, 고발할 생각은 없으니까. 나는 죄인을 넘겨줄 명령을 받았으니 이제 완수하면 그만이야. 자, 여기 종이에 서명하게.」

「필요 없는 일이에요. 내게 죄인을 맡기고 간 것을 부인할 나는 아닙니다.」

「자, 그러지 말구. 자네가 사실을 말하리라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네. 자네는 여기 사람 아닌가. 사내다운, 하지만 규칙은 규칙이니까 서명해 주게.」

다뤘는 서랍을 열고, 보라빛 잉크의 자그마한 난 잉크병과, 습자 모범을 쓰는데 사용했던 <특무상사> 펜촉이 달린 붉은 펜을 꺼내서 서명했다. 헌병은 조심스럽게 종이를 접어서 지갑 안에 넣었다. 그러더니 문으로 향했다.

「모셔다 드리지요.」 하고 다뤘가 말했다.」

「아니, 뭐 그리 친절을 베풀 것까지는 없네. 자넨 날 모욕하지 않았나.」

그는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아랍 사람을 노려보며 민망한 듯 코를 훌쩍이더니 문을 향해 돌아섰다.

「잘 있게 이 사람아.」 하고 그는 말했다. 문이 뒤로 후딱 닫혔다. 발뒤크시는 창문 앞으로 솟구치더니 이내 사라졌다. 그의 발자욱 소리는 눈 때문에 사라졌다. 말이 가로막힌 벽 뒤에서 서성댔고 암탉들이 놀라 웅성대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에 「발뒤크시는 다시금 고삐를 잡고 말을 끌면서 창문 앞을 지나 돌아보지도 않고 언덕을 향해 걸어 나갔다. 그가 먼저 사라졌고 말이 뒤이었다. 큼직한 돌맹이가 힘없이 굴렀다. 다뤘는 죄수에게로 돌아왔다. 움직이지 않는 그는 눈을 떼지 않고 다뤘을 바라보고 있었다. 「기다리게.」 하고 교사는 아랍 말로 말하면서 방으로 향했다. 문턱을 넘어서려다가 다시 생각이 나서 책상으로 가 권총을 집어들고 호주머니 속에 넣었다. 그리고 돌아보지도 않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한참 동안 그는 장의자에 드러누워 하늘이 차츰 닫히는 것을 바라보았고, 침묵에 귀를 기울였다. 이 침묵이야말로 전쟁이 끝난 후 여기 와서 처음 며칠을 보내는 동안 그에게 참기 어려운 괴로움을 준 것이었다.

그는 산줄기 아래 작은 마을에서 일자리를 구했었다. 사막과 고원이 갈라진 것은 바로 이 산줄기에서였다.

그곳 북쪽으로는 검고 초록빛이며 남쪽으로 불그레한 갈색을 한 바위의 성벽이 영원한 여름의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좀 더 북쪽의 바로 고원 위의 일터에 임명된 것이다. 처음엔 돌만이 깃들고 있는 이 무심한 벌판 위에서, 고독과 침묵은 그에게 말할 수 없이 고달팠었다. 이따금 고랑은 농사를 생각할 수도 있게 했지만, 그것은 건축에 적합한 어떤 바윗돌을 파내기 위해서 패인 것이었다. 여기서 땅을 가는 것은 다만 돌자갈을 걷어 모으기 위해서 뿐이었다. 때로는 바위 틈 사이로 수북한 흙부스러기를 긁어 모으는 일도 있었는데, 그것은 마을의 메마른 정원에 거름을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듯 이 고장 4분지 3을 뒤덮고 있는 것은 돌이었다. 도시들이 거기서 태어나 휘황히 빛나다가 사라졌다. 사람들 또한 그곳을 지났으며, 서로 자랑했고, 물어뜯고, 죽어간 것이다. 이 사막에서 다뤘며 객이며, 도시 누가 뭐란 말이나. 하지만 이 사막 밖에서는 그도 이 객도 참으로 살 수는 없는 것이었다. 다뤘는 잘 알고 있는 터였다.

다시 일어났을 때 교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려 오지 않았다. 아랍 사람이 빠져 나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만으로 그는 터무니 없는 환희를 느끼며 놀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죄수는 거기 머물러 있었다. 눈은 부릅뜬 채 천정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누워 있는 위치로 보니 특히 그의 두툼한 입술은 그에게 동한 모습을 주고 있었다. 「이리 오게.」 하고 다뤘는 말했다.

아랍 사람은 일어서서 그를 따랐다. 방에 이르자 교사는 창 아래 책상 옆의 의자를 가리켰다. 아랍 사람은 여전히 다뤘를 마주보면서 걸터앉았다.

「배고픈가?」

「네.」 하고 죄수는 말했다.

다뤘는 두 식기를 마련했다.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고 접시 안에 과자를 으깨며 작은 가스화로에 불을 당겼다. 과자가 불에 익는 동안 탄 채에 나가서 치즈와 계란과 대추야자 열매와 연유를 가져왔다. 과자가 다 익자 식히기 위해서 창 모서리에 놓아 두고 물에 녹인 연유를 끓이며 맨 나중에 계란으로 오물렛을 만들었다. 이렇듯 서성대는 가운데 오른편 호주머니 속에 집어 넣어 둔 권총에 부딪치기도 했다. 그는 공기를 놓고 교실로 건너가서 서랍 속에 권총을 넣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 본 즉 어느덧 밤이었다. 그는 불을 켜고 아랍 사람에게 식사를 날랐다. 「자, 드시구료.」 아랍 사람은 과자 한 조각을 집어 들고 부리나케 입으로 가져 가다가, 멈췄다. 「당신은?」 하고 그는 말했다.

「자네 먹은 다음에 나도 먹지.」

부푼 입술이 좀 벌어지고 잠시 주춤 하더니 결심한 듯 덩석 과자를 깨물었다.

식사가 끝나자 아랍 사람은 교사를 마주 보았다.

「당신이 판산가요?」

「아니야, 내일까지 자네를 맡을 뿐일세.」

「왜, 그럼, 나와 식사하세요?

「배가 고파서.」

아랍 사람은 입을 다물었다. 다뤘는 일어서서 밖으로 나갔다. 탄 채에서 간이침대를 가지고 와 테이블과 화로 사이에 그의 침대와 나란히 놓았다. 한 모퉁이에 세워진 서류 선반으로 사용된 큼직한 트렁크에서 모포 두 장을 꺼내서 침대 위에 깔았다. 이제는 아무 일도 할 것이 없었고 준비할 것도 없었다. 이 사나이를 마주 보고나 있을 수 밖에. 그리하여 결국 그를 마주보며, 열광에 사로잡힌 그 얼굴을 상상하여 보려 했다. 그러나 상상이 되지 않았다. 다만, 어둡고도 번쩍거리는 눈과 짐승같은 입술이 보일 따름이다.

「왜 죽었나?」 하고 다뤘는 말했는데, 그 적의에 넘친 말투가 아랍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시선을 돌렸다.

「도망치길래 뒤따라 달려 갔지요.」

그는 다뤘를 향해 두 눈을 들었다. 그들은 서로 달갑지 않은 질문에 넘쳐 있었다.

「이제 어떻게들 하겠다는 거예요?」

「무서운가?」

그는 시선을 돌리면서 시무룩했다.

「후회하나?」

아랍 사람은 입을 벌린 채 그를 쳐다 보았다. 분명히 그는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다뤘는 차츰 짜증이 났다. 그와 동시에 이 침대 사이에 끼어 큼직한 자기 몸이 어쩔지 서툴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느낌이었다.

「거기 눕게」 하고 초조한 듯 말했다.

「그게 자네 침대째.」

아랍 사람은 꿈쩍도 안 했다. 그는 다뤘를 불렀다.

「이거 보세요!」

교사는 그를 마주보았다.

「내일 헌병이 다시 오나요?」

「모르겠는걸.」

「우리과 함께 가시는 겁니까?」

「내가 알 리 있나. 그건 또 왜?」

죄수는 일어나더니, 창을 향해 발을 뻗고 모포 위로 벌렁 드러누웠다. 전등 불빛이 두 눈 위로 곧장 떨어졌다. 이내 눈을 감았다.

「왜 그러나?」 하고 다뤘는 침대 앞에 우뚝 선 채 되풀이했다.

아랍 사람은 눈부신 불빛 아래 눈을 뜨고 그를 마주 보았다. 눈을 깜박거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었다.

「우리과 같이 가세요.」

한 밤중이었건만 다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훌렁 옷을 벗은 다음 잠자리에 들어갔었다. 벌거 벗고자는 것이 습관이였다. 그러나 방 안에서 훌렁 옷 벗은 것을 알아 꺼림칙했다. 어쩔지 무방비인 것만 같아서 다시 옷을 입었으면 하는 생각이 났다. 그는 어깨를 으쓱할 따름, 하긴 그런 사람도 여럿 보아온 것이었다. 불가피한 일이라면 이 적을 둘로 쪼개 버리면 그말 아니야. 침대에서 그는 아랍 사람을 엿볼 수 있었다. 벌렁 누워 있는 그는 강한 불빛 아래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

다뤘가 불을 끄자 어둠이 단번에 응고하는 것 같았다. 차츰 밤은 별도 없는 하늘이 슬며시 기웃거리는 창 위에 다시금 피어 올랐다. 교사는 이내, 자기 앞에 누워 있는 몸을 분간하였다. 아랍 사람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만 두 눈은 떠 있는 듯이 보였다. 가벼운 바람이 학교를 에워싸고 있었다. 바람은 아마 구름을 몰아 쫓을 것이고 그러면 해가 다시 찾아오리라.

어둠 속에서 바람은 사나워졌다. 암탉들이 서성대더니 이내 멈췄다. 아랍 사람은 옆으로 돌아 누우며, 그에게 등을 돌려 댔다. 신음하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그 후 그는 한결 세차고 규칙적인 호흡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처럼 가까이 써근거리는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꿈에 잠겼다. 1년째나 혼자서 자는 이 방에서 이 존재는 거북스러웠다.

그러나 또한 이 존재가 거북스러운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거절할 수밖에 없는 우애(友愛)를 강요하기 때문이었다. 방을 더불어 나누는 사람들이란 병정이건 포로이건 어떤 야릇한 연결을 맺는 법이다. 마치 옷과 더불어 무장을 풀 그들이 서로의 차이를 초월하고 영원한 꿈과 피로의 공동체속에 어울려 들어간다고나 할까, 그러나 다뤘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이런 허튼 수작은 질색이었다. 잠을 자야만 했다.

그러나 조금 후에 아랍 사람이 약간 움직였을 때도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었다. 죄수의 둘째 번 움직임에 그는 경계하며 긴장했다. 아랍 사람은 마치 몽유병자와 같은 몸짓으로 팔을 기대고 일어섰다. 침대 위에 일어나 앉자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다. 마치 온갖 주의를 기울여 엿듣고 있는 듯, 다뤘에게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 다뤘는 꿈쩍도 않고 있었다.

권총을 책상 서랍 안에 넣어 둔 것이 이제 막 생각난 것이다. 지체없이 행동에 옮기는 것이 좋은 성 싶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죄수를 살피볼 따름이었다. 똑같은 부드러운 몸짓으로 죄수는 발을 땅에 내려놓더니 한동안 기다리다가 천천히 일어서기 시작했다. 다뤘는 그를 부르려 했다. 그때 아랍 사람은 이번에는 자연스러운, 그러나 한없이 고요한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는 탄 채를 향하고 있는 방 안쪽 문으로 갔다.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돌리더니 뒤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문은 열어 놓은 채였다. 다뤘는 움직이지 않았다. 「도망치는군.」 하고 생각할 따름. 「속 시원하게 됐군.」 그러나 귀를 기울였다. 암탉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보니 높은 고원으로 들어선 것이다. 그때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그에게 들려왔다.

그것이 무슨 소리였는지 안 것은 아랍 사람이 다시 문으로 나타나 조심스럽게 닫고 소리없이 잠자리에 드러 누울 그때였다. 그러자 다뤘는 등을 돌려 대고 잠들었다. 조금 후 아직도 잠 속에서까지 학교 돌레를 서성거리는 발소리 들려 오는 것이었다. 「이런 개 꿈이!」 하고 그는 되풀이했다. 곧 잠들었다.

아침 잠을 깨보니 하늘은 개어 있었다. 잘 닫혀지지 않은 창문 틈새로 차고 맑은 공기가 들어오고 있었다. 아랍 사람은 이제 모포 아래 몸을 오그리고 입을 벌린 채 폭 마음 놓고 잠자고 있었다. 그러나 다뤘가 흔들여 깨우자 벌떡 뛰어 일어나서는 정신 나간 눈으로 알아 보지도 못한채 다뤘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 표정이 어찌나 겁을 먹은 표정이었던지 교사는 한걸음 주춤 물러섰다. 「두려워하지 말게, 나야. 아침 먹어야 하지 않나.」 아랍 사람은 고개를 흔들고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안도의 표정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허탈되고 얼빠진 표정이었다.

커피는 준비되었다. 그들은 같이 침대에 같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과자 조각을 깨물었다. 그 후 다뤘는 탄 채로 아랍 사람을 데려가서 수도를 가리켜 주었다. 그곳에서 그는 얼굴을 씻었다. 다뤘는 방으로 돌아와서 모포와 침대를 개고, 자기 침대를 고치며 방안을 정돈했다. 그것이 끝나자 학교를 지나 앞뜰로 나갔다.

태양은 벌써 푸른 하늘 위에 올라왔다. 부드럽게 활기 띤 빛이 허허벌판에 넘치고 있었다. 언덕길 위로는 곳에 따라 눈이 녹았다. 다시금 돌이 나타날 것이 아니냐. 별판 모서리에 웅크리고 앉아 교사는 이 인적없는 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발뒤크시를 생각했다. 그에게 몸쓸 일을 한 것이었다. 마치 그와같은 운명을 나누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돌려 보낸 것이었다. 아직까지도 헌병의 작별인사가 귓전에 울려 왔다. 웬일인지 모르나 어쩐지 허전하고 얼빠진 느낌이었다.

이때 학교 저편에서 죄수가 기침을 했다. 다뤘는 싫으면서도 들었다. 그리고 미칠 듯 자갈을 하나 집어 들어 던졌다. 공중에 뿔하고 날터니 눈 속에 박혔다.

이 사나이의 어처구니 없는 범죄가 그의 비위에 거슬렸다. 하지만 그를 넘겨 준다는 것은 명예에 어긋난다. 생각하기만 해도 모욕감에 미칠 듯했다.

그리하여 이 아랍 사람을 그에게 보낸 동족이며, 감히 죽이고도 도망치지 않은 이자를 저주하는 것이었다. 다뤘는 일어섰다. 앞뜰을 한 바퀴 돌고, 움직이지 않는 채 기다리다가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 탄 채의 시멘트로 바른 땅 위에 기울이고 있는 아랍 사람은 두 손가락으로 이를 닦고 있었다. 다뤘는 그를 바라 보다가 「이리 오게.」 하고 입을 열었다. 그는 죄수에 앞장서서 방안으로 들어갔다. 자켓 위에 사냥 옷을 걸치고 장화를 신었다. 그는 아랍 사람이 헌장을 걸치고 샌들을 신는 것을 기다렸다. 그들은 학교를 지났다. 교사는 동행에게 대문을 가리켰다.

「나도 가는거야.」 하고 다뤘는 말했다. 아랍 사람은 나갔다. 다뤘는 방안으로 들어가 비스킷과 야자 열매와 설탕을 꾸렸다. 교실에서 나가기 전에 책상 앞에 이르자 한동안 머뭇거렸다. 그는 학교 문턱을 넘고 후딱 문을 닫았다.

「일루 가게.」 하고 그는 말했다. 죄수에 앞장서서 그는 동쪽을 향했다. 그러나 학교에서 얼마 떨어지기도 전에 뒤에서 가벼운 소리가 들려 왔다. 그 걸음으로 돌아와 집 주변을 둘러 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아랍 사람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듯 그가 서성거리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 가지.」 다뤘는 말했다.

그들은 한 시간 걸은 다음 뾰족한 석회암 옆에서 쉬었다. 눈은 갈수록 빨리 녹았고 태양은 물 웅덩이를 말리며 별판을 말끔히 씻었다. 별판은 차츰 말라서 공기처럼 설렘었다.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는 땅이 발에 밟혀 울렸다.

이따금 새가 그들 앞으로 즐거운 울음 소리와 함께 공간을 뚫고 날았다. 다뤘는 깊은 호흡으로 마른 햇빛을 들이마셨다. 어떤 감흥이 이 낯익은 별판을 앞에 하고 그 안에서 용솟음쳤다. 푸른 하늘 아래 고원은 지금 온통 황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들은 다시 남쪽을 향해 한 시간 걸었다. 부스리진 바위로 된 어떤 판판한 고지에 당도했다. 여기서부터 고원은 동쪽 낮은 들을 향해 내려갔다. 그들에게는 몇몇 앙상한 나무들이 눈에 띄었고, 남쪽으로는 바위 줄기가 있어, 이 풍경에 어떤 고달픈 모습을 붙여 주고 있었다.

다뤘는 두 방향을 살펴 보았다. 지평선에는 하늘 뿐, 단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아랍 사람을 돌아보았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아랍 사람은 그를 마주보는 것이었다. 다뤘는 그에게 보따리를 내밀었다. 「자, 들게, 이건 야자열매와 빵과 설탕이야. 이들은 충분하지. 여기 천 프랑도 있고.」 아랍 사람은 보따리와 돈을 받아 들었지만, 가슴 위에 짐을 든 손을 갖다댄 채 받은 것을 어찌할 바 모르는 것 같았다. 「자, 이제 보란 말이야.」 하고 교사는 말하면 그에게 동쪽을 가리켰다. 「이에 탱기의 길이야. 두 시간만 걸으면 되지. 탱기에 가면 도청과 경찰서가 있어. 거기 찾아가게 기다리고 있을테니.」 아랍 사람은 여전히 보따리와 돈을 안은 채 동쪽을 바라보았다. 다뤘는 그의 팔을 잡고 사정없이 남쪽을 향해 돌아서게 했다. 그들이 서있는 고지 아래에 길은 보일락 말락 하였다.

「이게 고원을 건너가는 길이지. 여기서 하루 걸음이면 초원과 첫 유목민들을 만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들의 법에 따라 자네를 맞이 하고 감싸 주겠지.」 그러자 아랍 사람은 다뤘를 향해 돌아섰다. 어떤 당황한 빛이 얼굴 위에 떠올랐다. 「이것 보세요.」 하고 그는 입을 열었다. 다뤘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아무 말 말게. 자 나는 가 볼테니.」 그는 등을 돌려대고 학교를 향하여 두 걸음 크게 디디다가 움직이지 않는 아랍 사람을 주춤거리며 바라보고는 떠났다. 몇분 동안 그는 차가운 땅 위에 올리는 걸음 소리를 들을 뿐이었고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잠시 후에 돌아 보았다. 아랍 사람은 여전히 그 언덕 모서리에 이제는 팔을 늘어뜨리고 서 있었다. 교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뤘는 목이 울먹거리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애타는 듯한 손짓을 하고 떠났다. 다시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을 때는 벌써 멀리 떨어져 있었다. 언덕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뤄는 머뭇거렸다. 태양은 어느덧 하늘 위에 높이 올라와 온 하늘에 퍼지기 시작했다. 교사는, 처음에는 주춤하다가 내 결단한 듯 그 걸음으로 되돌아갔다. 언덕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온갖 힘을 다하여 언덕을 기어 올라와 언덕 위에 멈췄을 때에는 숨이 넘어갈 듯했다. 남쪽 바위 별판은 하늘 위에 선연히 떠올라왔지만, 동쪽 들위에는 아지랑이가 벌써 아물거리고 있었다. 이 가벼운 안개 속에 다뤄는 감옥의 길을 천천히 걸어가는 아래 사람을 발견하고 가슴이 뭉클했다.

얼마가 지난 후였다. 교실 창 앞에 우뚝 선 교사는 하늘 위에서 온 별판 위로 춤추듯이 내려오는 싱싱한 햇빛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뒤 흑판 위에는 꾸불꾸불한 프랑스 강 사이에, 서투른 솜씨로 쓰여진 글자가 보였다. <우리 형제를 넘겨 준 너는 각오해라.> 다뤄는 하늘과 별판과 그리고 저 멀리 바다까지 펼쳐진 보이지 않는 땅을 바라보았다. 이렇듯 사랑한 이 황막한 고장에서 그는 영영 외로왔다.

독자에게 알립니다.

이 책자에는 군 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적의 전략정보로 오용될 수도 있습니다. 독자 제위는 부지중 이 책자가 오용이 되지 않도록 취급과 보관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본부 정훈감실

발행처 : 공군본부 정훈감실
인쇄처 : 공 군 교 재 창
편집실 전화 : 829-3511, (호)-5241
인쇄 : 1978년 8월 25일
발행 : 1977년 8월 30일



공군구조헬리콥터가 호우(豪雨)로 침수직전에 있는 난민들을 구조해 냈다 <8.2.>

윤자중 참모총장은 신임 장교들에게 공군의 목표인 필승의 제공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8.1>





공군(空軍)의 결의(決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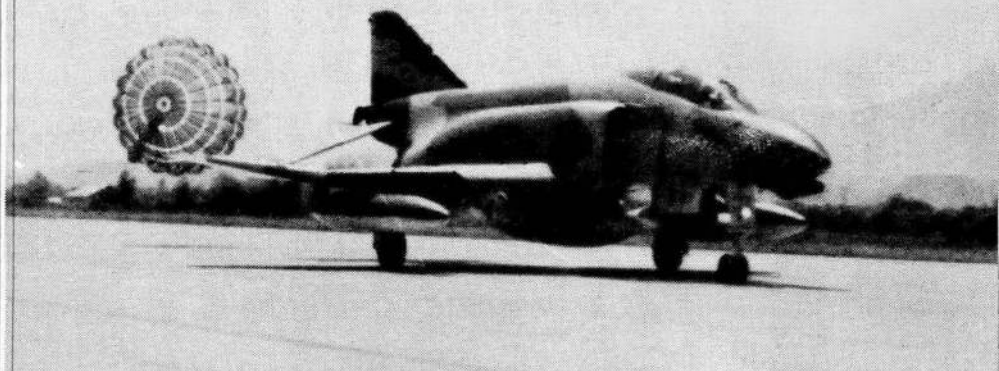
하나 : 나는 목숨바쳐 영공(領空)을 수호(守護)한다.

둘 : 나는 일격(一擊)에 북괴군(北傀軍)을 몰살(沒殺)한다.

셋 : 나는 기필(期必)코 책임(責任)을 완수(完遂)한다.

넷 : 나는 싸워서 반드시 이긴다.

다섯 : 나는 유신과업(維新課業) 수행(遂行)에 선봉이 된다.



필 승 의 공 군 되 자